연구보고 2008-02

저소득층 영유아를 위한 통합적 지원 방안

연구책임자 이미화
공동연구진 이윤진
이정림

육아정책개발센터

머 리 말

과거 10여 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최근 들어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관심은 커졌고, 다양한 아동지원사업들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각 아동지원사업들은 각기 독립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아동지원사업들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를 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아동지원사업들의 내용을 검토함으로서 각 사업의 장점과 보완점을 발견하고, 이로서 저소득 가정 영유아를 위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국가 정책과도 부합되기도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보육・복지를 포함하는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그 사업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지원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저소득 영유아 가정의 요구에 관해서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정부주관의 드림스타트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지자체 중심의 위스타트사업, 민간기업주도의 삼성어린이집 포괄적보육서비스사업 대상 가정의 영유아 부모들을 중심으로 각 사업에 대한 현황과 그 사업에 대한 성과 및 만족도를 알아보았다. 저소득 가정 영유아 부모들 외에 저소득층 아동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정책담당자들을 통하여서도 그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얻었다.

본 연구는 가구 방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양적인 자료는 물론, 저소득 가정 부모들과의 심층적인 면접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저소득 가정 아동지원사업 수행과 관련된 책임자, 건강・보육・복지 관련 담당자들을 통한 양적인 정보와 심층 면접 자료를 활용함으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소득 가정을 위한 아동지원사업에 대한 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에 협조해 주신 영유아 가정의 부모님, 드림스타트와 위스타트사업 담당자, 유아교육복지전문가, 삼성어린이집 원장님과 교사, 주민자치센터 공무원, 중앙부처 공무원 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개발센터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09년 2월

육아정책개발센터

소장 **조 복 희**

연구요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관심이 커지고,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들에 대해 총괄적인 검토가 필요함.

○ 우리사회에서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하여 저소득층 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삼성어린이집 포괄적 보육서비스' 및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We Start사업', '드림스타트사업' 등을 꼽을 수 있음.

○ 실제 이들 사업의 수요자인 저소득층 가정과 아동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애로점은 무엇인지, 아동지원사업들 간의 중복되는 내용은 없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은 어느 정도이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저소득층 가구 및 정책수행자 두 집단을 대상으로 기존의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들이 실제로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양육에 실제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는지, 잘되고 있는 점과 그렇지 못한 점, 앞으로 보완·개선되어야 할 점, 필요한 정책지원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저소득층 영유아를 위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통합적 육아지원정책방안을 제시함.

나. 연구내용

❑ 국내·외 저소득 아동지원 사업 특성 검토

❑ 영유아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육아 실태 및 요구 파악

❑ 각 지원사업의 효과 분석

❑ 저소득층 담당 정책수행자 애로점 및 요구 파악

❑ 저소득층 영유아 가정의 통합적 지원 방안 제시

다. 연구방법

❑ 문헌연구

○ 국·내외 기존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자료들을 수집해서 그 내용을 검토·분석하고 각 사업별 특징들을 고찰함. 주로 각 사업에서 실시한 자체평가보고서, 사업안내서, 정책계획서 등을 중심으로 검토했으며 국외 사업의 경우는 인터넷 사이트를 주로 활용함.

❑ 설문조사

○ 조사대상: 저소득층 아동지원 사업(드림스타트 사업,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 위스타트 사업, 삼성포괄적보육서비스 사업 등 4개 사업) 대상 가정과 비(非)대상 가정 및 정책전달자

- 가구: 4개 사업별로 80가구와 비대상 저소득 가구 80가구 등 총 400가구를 목표로 실시, 최종 408가구가 표집.
- 정책수행자: 3개의 각 사업별(삼성포괄적보육서비스 사업은 제외) 및 일반 저소득층 담당자 20명씩을 추출, 총 80명을 목표로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최종 88명을 표집.

○ 조사지역: 서울, 부산, 광주, 경기도, 강원도, 전라남·북도 지역(4개 사업 공통적 실시 지역). 단, 교복투 사업은 서울지역에 국한해서 실시. 교복투 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 영유아 지원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지만 서울에서는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면서 영유아 지원을 위한 노력을 강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임(유아교육복지전문가 배치).

○ 조사방법: 표본으로 추출된 가구에 대해 조사원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갖고 직접 방문하여 실시함.

❑ 심층면접조사

○ 설문조사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의 내재된 문제점을 좀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심층면담을 병행함. 심층면담 대상자 역시, 가구

와 정책전달자 모두를 포함함. 심층면담조사는 여러 가지 현실을 고려해서 서울·경기에 한정에서 총 15사례를 실시하였으며 정책전달자의 심층면담은 서울, 경기, 부산, 대전 지역을 방문해서 총 8사례를 실시함.

❑ 자문회의

○ 총 3 차례의 자문회의를 개최함.

라. 연구범위

❑ 본 연구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저소득층 아동지원 사업들 중에서 교복투, 드림스타트, 위스타트, 삼성포괄적보육서비스 4개 사업에 한정해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이들 사업들은 우선 저소득층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인프라들을 활용, 연계, 협력해서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란 점에서 본 연구주제와 부합됨.

❑ 이들 사업들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다른 사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시한 기간이 길고 이에 따른 자체 평가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 일종의 '검증된' 사업이라 하겠음.

마. 용어정의

❑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한정한 교복투, 드림스타트, 위스타트, 삼성포괄적보육서비스의 4개 사업을 하나로 포괄해서 명명하기 위한 편의상의 용어임.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법정저소득층 1층과 차상위 2층까지를 의미함. 또한 본문에서는 '저소득', '빈곤', '가난' 등의 유사한 용어들을 '저소득층' 용어로 통일함.

❑ 아동 및 영유아: 모두 현행 법령에 규정된 정의를 따름. 아동은 "18세 미만인 자"(아동복지법 제2조), 영유아는 "6세미만의 취학 전 아동"(영유아보육법 제2조), 유아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유아교육법 제2조)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의 아동은 "18세 미만인 자"이며 영유아는 "18세 미만 아동 중 취학전 아동 또는 어린

이"를 뜻함.

❑ 정책수행자: 각 사업 전달팀에 배속된 전임공무원, 계약직공무원 뿐 아니라 민간 전문 인력까지 포함한 용어이며, 4개의 사업에서 삼성포괄보육서비스는 민간 기업에서 하는 사업이란 점을 감안해서, 정책수행자 대상의 설문조사와 면접조사에서 제외함. 즉, 정책수행자란 교복투, 드림스타트, 희망스타트 3개 사업에 한정된 용어임.

2. 국내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

가. 드림스타트 사업

❑ 저소득층 아동지원 사업 중 가장 신생 사업으로서 2007년도 '희망스타트사업'으로 시범사업을 시작, 2008년 7월 '드림스타트'로 명칭을 변경함. 사업대상은 임산부를 포함해서 0세~12세의 저소득 아동과 가족, 그리고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까지 포괄함.

❑ 추진 체제는 상위부터 보건복지가족부, 시·도, 시·군·구 담당 부서이며 거점기관은 '드림스타트 센터'로서 시·도 차원에서 지역을 선정함. 드림스타트 센터는 기존 지역인프라를 활용하여 시·군·구 단위로 1개소씩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센터의 구성 인력은 사회복지, 간호, 행정 분야의 각 1이상 전담 공무원을 확보·배치하며 사회복지사, 간호사, 보육교사 등 전문인력과 보조 인력을 계약직으로 채용함.

❑ 드림스타트 사업의 프로그램은 건강, 보육·교육, 복지 등 3영역이며 08년 현재 드림스타트 시범 사업을 32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음.

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 중앙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저소득층 아동지원으로서, '학교가 지역교육공동체의 중심이 되어 취약계층의 삶의 질 제고'라는 정책비전을 갖고 2003년도 시범사업으로 출발함.

❑ 추진 체제는 상위부터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이며

거점기관은 학교(초·중학교)임. 학교에는 보건교사, 특수교사, 상담교사, 지역사회교육전문가로 구성된 교육복지전담부서를 설치함.

❑ 지원 프로그램은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복지 등 영역에 걸쳐 제공되고 있으며 2003년도 시범지역으로 서울 6개 지역과 부산 2개 지역으로 시작한 교복투 사업은 2008년도 현재 행정동 164동, 322개 학교로 확대되어 추진되고 있음.

다. We Start 사업

❑ 위스타트 사업은 2004년 3월 중앙일보에 '가난에 갇힌 아이들'시리즈 보도가 계기가 되어 시작된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임. 0세에서 12세까지의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군포, 성남, 안산의 3개 마을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2004년부터 시작함.

○ 빈곤아동이 200~300명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마을 만들기) 보건(건강지킴이), 보육·교육(교육출발선 만들기), 복지(후견인 맺기·희망의 집 꾸미기 등을 포함한 행복한 세상 만들기) 등 서비스를 3대 축으로 하는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임.

❑ 위스타트 마을 만들기, 교육출발선 만들기, 건강지킴이, 후견인 맺기, 희망의 집 꾸미기 등 총 5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5개 사업들은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

❑ 위스타트 추진체계를 위로부터 보면, 도·시군·마을 순으로 각 단위별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거점기관으로서 마을 내에 '위스타트 센터'를 설립함. 센터의 기본 구성원은 팀장 1인, 건강조정자 1인, 보육·교육 조정자 1인, 복지조정자 1인 이며 이외에 필요한 인력은 자원봉사자와 후원들을 모집해서 활용함.

❑ 위스타트 마을은 서울, 경기도, 강원도, 전라남도에 총 23곳이 운영 중에 있음(2009년 1월 현재).

❑ 위스타트 마을사업의 새로운 실험으로 '빈곤아동복지 조정자'라는 의미의 'We Starter'를 파견하여 실시하고 있음. 이들은 지역 내 활용할 수 있는 아동복지, 교육·보육, 건강 서비스들을 찾아내 20~30명 핵심 관리 아동들에게 연결하는 조정자 역할을 담당함. 현재 부산, 전주, 청주 3곳에서 실시

하고 있음.

❑ 지원 프로그램 영역은 건강, 보육·교육, 복지이며 이 중 영유아 관련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영아용 가정방문 중재 프로그램과 유아용 기관방문 중재 프로그램이 있음.

○ 영아용 가정방문 중재 프로그램: 주 1회 30분~50분 활동으로서 인지활동, 신체활동, 음악·미술활동, 기본생활습관, 실외활동 등 6개 활동이며 부모교육도 함께 활동함.

○ 유아용 가정방문 중재 프로그램: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다니는 만 3세부터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2주에 한 번씩 우수한 그림책 1권을 유아 편에 가정에 보내주고 부모의 자녀교육방법을 향상시키고자 안내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임.

라. 삼성어린이집 포괄보육서비스 사업

❑ “달동네 저소득 빈곤탈출”이라는 삼성보육사업의 근본취지를 목적으로 저소득가정 어린이를 위한 포괄적 보육프로그램 개발에 필요성 차원에서 1999년부터 삼성복지재단에서 추진한 사업임.

❑ 포괄보육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년에 걸쳐 수정, 보완, 적용 등의 단계를 통해 개발했으며 크게 아동교육 프로그램, 부모지원 프로그램,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삼성어린이집을 거점기관으로 해서 저소득층 영유아, 가정, 지역을 연계함. 현재 삼성어린이집은 전국 44곳(직장어린이집 11곳 포함)이며 이 중 포괄보육서비스를 실시하는 삼성어린이집은 2008년 기준 18곳임.

3. 국외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 및 종단연구

가. 헤드스타트(Head Start)

❑ 사업의 배경

○ 1960년대 초 미국사회는 빈곤의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빈곤 가

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아기 양육단계에서 부터의 개입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미국정부는 1964년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경제 기회법(Economic Opportunity Act)을 제정하고, 경제 기회국에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을 만듦.

○ 만 3세 이전의 예방적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이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치료를 하는 것보다 더 효과를 거둔다는 연구들에 기초하여 1994년에 조기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이 만들어짐.

❑ 사업 현황

○ 대상

- 미국 연방 정부의 보건인적자원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가 매해 제시하는 빈곤선(poverty guidelines) 기준에 근거하여 저소득층으로 신청한 3~5세 유아와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함.

○ 재정

-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총 운영비용의 80%를 연방정부의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적으로 노동력과 시설제공과 같은 서비스 형태로 부담하고 있음.

○ 헤드스타트 법

- 최근 2007년에 개정된 현행법은 헤드스타트와 조기 헤드스타트 사업의 서비스와 활동내용 전반에 걸쳐 법적인 기초를 제공하고 있음.

❑ 사업의 운영

○ 헤드스타트는 미국 연방정부의 보건인적자원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HHS)의 아동가족운영국(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CF)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헤드스타트와 아동과 가족과 관련된 다른 프로그램도 관장하고 있음.

❑ 사업의 내용

○ 아동의 건강 및 발달지원 서비스(Child health and Developmental Services)

○ 교육과 조기 아동발달(Child Development and Education)

○ 아동의 건강과 안전(Child Health and Safety)

○ 아동의 영양(Child Nutrition)

○ 아동의 정신건강(Child Mental Health)

○ 가족과의 파트너십(Family Partnerships)

○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Community Partnership)

❑ 사업의 유형

○ 기관 중심 프로그램

- 한 아동이 4일 또는 5일간 기관을 다녀야 한다. 하루 운영 시간은 3.5~6시간 동안으로 규정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하루 4시간 운영하는 것을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권하고 있음.

○ 종일제 기관 중심 프로그램

- 기관 중심 프로그램의 내용 중 종일제 기관 중심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운영 시간이 매일 6시간 이상이라는 것만 기관 중심 프로그램과 차이가 있고, 운영 내용은 동일함.

○ 가정 방문 프로그램

- 부모가 아동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자가 될 수 있도록 한 가정 당 최소 한번에 1시간 30분 동안을 방문.

○ 종사자 훈련

- 훈련 내용으로는 영유아 모집 계획과 지도 방법, 서비스 규정 내용, 상담 기술, 부모와 함께 일하는 기술, 헤드스타트의 구성 요소 영역에 대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음.

❑ 조기 헤드스타트

○ 조기 헤드스타트 사업의 배경

- 빈곤이 증가함으로서 저소득층 임산부들이 출생 전의 태아에 대한 기본 건강관리를 하지 않고 영양 공급 부족하였으며, 출생 후에도 예방 접종률이 낮고, 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의 부족 등 사회 문제가 되기 시작함.

○ 조기 헤드스타트의 현황 및 운영

- 조기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1994년 헤드스타트법의 개정으로 조기

헤드스타트 프로젝트를 계획하게 되었고 현재 빠른 속도로 확장됨.

- 가정을 방문하여 영아와 부모에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 방문 보육 활동과 집단 보육 활동인 집단 사회화 경험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시행되고 있음.

○ 조기 헤드스타트의 내용 구성

- 보육
- 건강
- 사회 복지 서비스
- 부모 참여

○ 사업의 효과

- Wheeler(2002)는 헤드스타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더 오랜 기간 받을 경우 문제행동이나 인지적, 사회적, 신체적 측면에서의 위험요소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함.
- 헤드스타트에 참여한 3-5세 아동이 1년간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을 받은 후 어휘, 쓰기, 수 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음(FACES, 2006).
-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서 실시했던 12주간의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집단의 어머니들이 일상적인 헤드스타트 프로그램만 참석한 어머니들보다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고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함. 또한 학교에서의 아동의 행동문제도 유의미한 수준으로 감소함(Webster-Stratton, Reid, & Hammond, 2001).

나. 슈어스타트(Sure Start)

❑ 사업의 배경

○ 1997년 블레어 총리 하에 모든 4세 이하 영유아들에게 수준 높은 유아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저소득층 유아들을 위한 슈어스타트를 시작하였음.

○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슈어스타트 사업이 시행되어서, 잉글랜드(England), 스코틀랜드(Scotland),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와 웨

일즈(Wales)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각각 고유의 평가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사업의 현황

○ 대상

- 빈곤지역의 0~3세 아동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영국 내 하위 20% 계층이 살고 있는 지역의 임신 중인 부모와 14세(장애가 있을 경우, 16세) 이하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함.

○ 재정

- 2005/2006년에는 약 15억 파운드 이상의 정부재정이 투입되었고 이는 1999/2000년의 2억 파운드에 비해 7.5배 이상 증가한 액수임.

❑ 사업의 운영

○ 슈어스타트 프로그램은 지역 단위로 운영됨.

○ 중앙정부와 지방 당국, 지역사회 인사 자원, 건강, 보육, 교육시설 관계자들과 슈어스타트 프로그램을 운영할 여러 기관들이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적임.

❑ 사업의 내용

○ 빈곤아동의 사회 정서적 발달, 건강 및 학습능력을 증진시키고, 부모의 노동시장 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가족과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제공.

○ 슈어스타트 실시기관

- 아동센터(Children's Centres)
- 지역 슈어스타트 프로그램(Sure Start Local Programmes; SSLP)
- 조기우등기관(Early Excellence Centres)
- 이웃보육시설(Neighborhood Nurseries)

○ 서비스 내용

- 보육(Childminding)
- 연장제 학교(Extended School)
- 지속성보장을 위한 지원(Sustainability)
- 공립유아학교(Maintained Nursery Schools)

- 방과 후 보육(Out of school childcare)
- 아동정보서비스 (ChIS: Children's Information Service)
- 북스타트(Book Start)

○ 영유아 프로그램

- 0~3세를 위한 교육과정(Birth to Three Matters)
- 3~5세를 위한 기초단계 교육과정(Foundation Stage Curriculum)

❑ 사업의 평가 및 효과

○ 슈어스타트 센터의 효과성과 관련된 증거를 제공하기 위한 대규모 연구평가 프로그램을 갖고 있음.

○ 빈곤한 가정의 아동들이 학교 안에서 높은 성취감을 갖게 되고 건강상태를 향상시켜서 마침내 범죄를 줄이는 데로 까지 도움을 주고 있음.

다. 주요 종단연구

❑ Perry Preschool Project(PPP)

○ 1962-1967년까지 지속되었던 Michigan의 Ypsilanti에서 실시된 2년간의 센터 중심(하루 2.5시간)의 3~4세를 위한 프로그램.

<표> PPP 프로그램 유형

프로그램 유형	Pre-K 대상
	3-4세 아동
	반일제/학기제
아동당 투자액	$ 15,168
순 현재가치 이익	$ 243,722
비용편익분석 비율	$17.1:1($15,166: $ 258,888)

<표> PPP 종단연구의 효과

	개인적 영향		국가적 영향
높은	1. 교육적	특수 교육↓	소득과 세금수입의 증대

<표> PPP 종단연구의 효과

수준의 Pre-K	영향	유급률↓	사회서비스와 복지 의존도 감소
		고등학교 졸업률↑	
		시험 점수↑	범죄율의 감소
	2. 사회, 정서적 영향	문제행동↓	
		자기조절↑	건강의 증대
		친구관계↑	
	3. 아동의 건강	아동학대, 방치, 학대증후군↓	훈련된 노동인력창출

❑ Abecedarian Project(ABC)

○ North Carolina의 Chapel Hill에서 시작되어 영아기에서 5세까지 child care(교사: 아동비율-3:1)와 Pre-K(교사: 아동비율-6:1) 경험을 제공하고 하루에 10시간, 일주일에 5일, 1년에 50주를 통해 언어발달과 다른 발달의 영향을 강조하는 포괄적 프로그램.

<표> ABC 프로그램유형과 비용편익분석 결과

프로그램 유형	포괄적 초기 중재와 교육
	출생-5세 대상
	full time/ full year
아동당 투자액	$ 63,376
순 현재가치 이익	$ 94,802
비용편익분석 비율	$ 2.5:1($ 158,278: $ 63,476)

❑ Chicago Longitudinal Study (CLS)

○ CLS는 헤드스타트에 이어 미국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은 2번째로 오래된 프로그램으로 Chicago의 Title I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유아들을 대상으로 Chicago Child-Parent Center(CPC)에서는 가장 장시간에 걸쳐 시행했던 조기 중재 프로그램.

<표> CLS 프로그램유형과 비용편익분석 결과

프로그램 유형	Pre-K 대상
	3,4세 아동
	반일제/학기제
아동당 투자액	$ 6,692

<표> CLS 프로그램유형과 비용편익분석 결과

순 현재가치 이익	$ 61,245
비용편익분석 비율	$ 10.15:1($ 67,937: $ 6,692)

라. 정책적 시사점

❑ 헤드스타트 사업으로 부터의 정책적 시사점

- 헤드스타트의 경우 80%를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해 줌으로서 대체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하고 있음.
- 질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엄청난 재원의 손실을 볼 수 있음.
- 부모 및 지역사회 참여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

❑ 슈어스타트 사업으로 부터의 정책적 시사점

- 중앙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평가가 없이는 지방자치제로 인한 지역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의 차이는 물론 프로그램의 질과 양에 큰 차이가 날 수 있음.
-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수립 및 적용의 체계화 과정이 필요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아동지원사업을 조직적으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 간의 원활한 연계체계가 갖추어져야 함.
-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주요 종단연구로 부터의 정책적 시사점

- 비용편익분석 결과 저소득층 가정 아동을 위한 조기 개입은 효과적인 투자 사업이라고 제안.
- 성공적 효과를 가지고 온 프로그램은 모두 잘 훈련된 교사와 낮은 교사-아동 비율, 연구에 기반을 둔 커리큘럼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이 가정으로까지 연계됨.

4.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 효과분석

가. 아동 특성

❑ 아동의 연령 및 성별, 건강

○ 영아 46.3%, 유아는 52.9%이었고, 성별로는 남아 51.7%, 여아가 47.5%이었으며, 건강상태로는 건강한 아동 82.8%, 보통인 아동 10.8%, 허약한 아동이 5.6%였음.

❑ 아동이 주로 다니는 기관

○ 기관이용 형태 및 만족도와 기관 비이용 이유

- 영유아들이 주로 다니는 기관으로는 어린이집이 65.0%로 가장 많았고, 유치원이 17.9%, 다니지 않음이 16.2% 순임.
- 자녀가 다니고 있는 기관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높은 편임.
- 기관 비이용 이유로는 자녀가 어려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80.3%로 가장 많았음.

나. 가구 및 부모 특성

❑ 가족 구성

○ 자녀수는 전체자녀수가 2명인 경우가 51.0%로 가장 많았고, 3명이 21.1%, 1명인 경우가 20.6% 순으로 나타남.

❑ 가계소득과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 가계월평균소득은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이 36.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만원~100만원 미만 25.7%,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7.9%, 50만원 미만 7.6%, 2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이 6.9%, 300만원 이상이 2.7%, 2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1.7% 순으로 나타남.

○ 국민기초생활 보장 급여를 받는 경우는 27.5%이었고, 받지 않은 경우는 72.3%로 나타남.

❑ 주양육자의 특성

○ 아동을 주로 양육하는 사람은 부모였고, 30대의 고졸학력이 가장 많음.

❑ 주양육자의 고용형태

○ 전업주부가 52.9%로 가장 많았고, 정규직(회사원, 사무직) 11.5%, 임시

근로자(1년 미만 고용계약) 10.3%, 일용근로자(1개월 미안 고용계약) 7.4% 순으로 나타남.

다.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효과 분석

❑ 각 아동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실태

○ 각 사업별 참여 서비스 이용여부 및 정도

- 위스타트 사업의 경우, 대상아동에 맞는 활동과 자료개발 및 적용이 가장 원활하게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건강・의료 서비스, 아동 개별지도와 부모 상담은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음.
- 드림스타트 사업의 경우, 건강・의료 서비스가 가장 원활하게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빈곤탈출 기반조성 사업, 부모 상담 및 교사지원 사업이 활성화된 사업으로 나타났음. 반면, 사례관리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멘토링 사업, 가족대상 서비스사업과 대상 아동에 맞는 활동과 자료개발 및 적용 사업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 삼성포괄보육서비스의 경우, 부모참여, 부모상담, 부모교육과 같이 부모를 대상으로 한 사업들이 가장 원활하게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대상아동에 맞는 활동과 자료 개발 및 적용 사업, 건강・의료 서비스가 활성화된 사업으로 나타났음. 반면, 사례관리나 가족대상 서비스가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개별지도, 부모상담, 대상아동에 맞는 활동과 자료 개발 및 적용, 부모참여와 같이 부모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이 가장 원활하게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건강・의료 서비스, 교사지원, 부모교육과 같은 서비스가 활성화된 사업으로 나타났음. 빈곤탈출 기반조성 사업이나 가족대상 서비스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사업에 비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 각 사업별 이용 서비스의 중요도

- 위스타트 사업 대상인 영유아 가정의 주양육자의 경우, 아동의 개별적 지도, 대상아동 지도를 위한 교사지원, 대상아동에 맞는 활동과 자료개발 및 적용과 같은 아동을 위한 교육과 지도에 관련된 사업

들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인 영유아 가정의 주양육자의 경우, 대상아동에 맞는 활동과 자료개발 및 적용, 부모참여, 빈곤탈출 기반조성 사업, 부모상담, 부모참여, 건강의료서비스 사업들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삼성포괄적보육서비스 사업 대상인 영유아 가정의 주양육자의 경우, 건강·의료서비스, 대상아동의 개별적 지도, 교사지원 서비스를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대상아동에 맞는 활동과 자료개발 및 적용, 부모상담, 부모참여, 멘토링, 부모교육과 같은 사업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대상인 영유아 가정의 주양육자의 경우, 각 사업마다 대체적으로 모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다른 사업들에 비해 높았음. 아동중점적인 사업은 물론, 아동 및 가족 대상의 건강·의료서비스, 부모참여, 교사지원과 부모교육, 부모상담과 같은 부모관련 사업 등 모두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었음.

라. 저소득층 가정의 육아정책 요구

❑ 아동지원사업별 분석

○ 저소득 영유아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

- 삼성포괄적보육 서비스, 위스타트, 교복투 사업의 영유아 대상의 주양육자들은 미래의 자녀교육비 준비를 자신들의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간주하였음.
- 드림스타트 사업에 속한 주양육자들은 기초생활비 지원확대가 그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여기고 있었음.

○ 저소득 영유아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육아지원 정책

- 대체적으로 모든 사업 지원 대상 영유아가정의 주양육자들은 자녀의 학원 또는 학습지 비용지원 확대/사설 학원 등 지원을 가장 필요한 육아지원정책으로 들었고, 다음으로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예산확대/사업 확대와 프로그램 확대를 들었음.

❑ 아동지원사업 대상 유무에 따른 분석

○ 저소득 영유아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

- 자녀가 아동지원사업 대상자인 경우의 주양육자들은 미래의 자녀교육비 준비를 위한 정책 지원을 제일 필요한 정책으로 들고 있었음.
- 자녀가 아동지원사업 대상자가 아닌 경우의 주양육자들도 마찬가지로 미래의 자녀교육비 준비를 위한 정책 지원을 제일 필요한 정책으로 들고 있었음.
- 자녀가 아동지원사업 대상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두 번째로 그 가정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기초생활비 지원 확대와 같은 비용지원을 들었음.

○ 저소득 영유아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육아지원 정책

- 자녀가 아동지원사업 대상자 유무와 상관없이 저소득층 영유아 가정의 주양육자들은 자녀의 학원 또는 학습지 비용지원 확대/사설학원 등 지원을 가장 필요한 육아지원정책으로 들었음.
- 지원대상자의 부모들의 경우에는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과 관련된 예산이나 사업확대를 다음으로 주요한 요인으로 생각한 반면, 비대상자의 부모들은 유치원 및 보육시설 비용지원 확대를 두 번째로 중요한 요인으로 들었음.

마. 소결

○ 아동지원사업 확대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부모들은 아동지원사업의 서비스내용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가족서비스, 사례관리,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저소득층 가정의 주양육자들은 미래의 자녀 교육비 지원이나 기초생활비 지원확대 등과 같은 비용지원 정책을 많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저소득층 가정에 가장 필요한 육아정책으로는 자녀의 학습지 또는 학원비 지원과 같은 자녀 교육과 관련된 요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확대와 프로그램 확대도 많이 요구함.

5. 저소득층 가정담당 정책수행자의 의견분석

가. 정책수행자 특성

❑ 정책수행자의 성별, 연령, 고용형태, 근무기간

○ 성별은 여자가 80.7%, 남자가 19.3%로 여성 정책담당자의 수가 더 많았음.

○ 연령은 30대가 46.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 23.9%, 20대가 18.2% 순이었고 50대 이상이 11.4%로 가장 적었음.

○ 고용형태로는 일반공무원 54.5%로 가장 많았고, 민간전문인력이 36.4%, 계약직공무원 6.8% 순이었음.

○ 근무기간은 12개월 이하가 46.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3개월~24개월 이하가 31.8%, 25~36개월 이하가 11.4%, 36개월 이상이 10.2%이었음.

❑ 정책수행자의 해당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

○ 응답자들의 해당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으로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수행자가 30.7%(29명), 일반저소득사업 아동 담당자가 25%(22명), 위스타트 사업 담당자가 22.7%(20명),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담당자가 21.6%(19명)이었음.

○ 일반저소득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22명을 제외한 정책담당자의 해당업무로는 사회복지사가 17.0%로 가장 많았고, 간호사 14.8%, 총괄자 13.6%, 보육교사와 기타가 동일비율로 8.0%, 보육/교육조정자와 프로젝트 조정자가 동일비율로 5.7%, 순이었음.

나.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효과

❑ 영유아 발달

○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 담당자들은 이러한 사업들이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영유아의 학교적응

○ 현재 담당하고 있는 아동지원사업이 앞으로 해당 아이들의 학교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정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매우 도움이 되거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만 있음.

❑ 부모 및 가정에서의 변화

○ 아동지원사업에 의해서 표정이 밝아진 경우가 많아지고, 양육태도와 부모의 가치관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삶에 대해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해당 지원사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다.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 평가

❑ 저소득 가정의 빈곤탈피 방안

○ 정책수행들은 저소득 가정의 빈곤 탈피를 위해서 국가 차원의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확대가 가장 필요하고 다음으로 부모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빈곤 탈출을 위한 실질적인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제기함.

❑ 저소득 가정의 문제점

○ 정책수행자들은 부모의 경제력이 저소득 가정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여겼고, 다음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무지 및 무책임이 문제라고 여겼으며, 세 번째로는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의지 부족이 저소득 가정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였음.

❑ 지원사업의 문제점

○ 정책수행자들은 통합적 사업계획 구축 미비를 아동지원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여겼고, 두 번째 로 인력부족 및 고용의 불안정을 들었으며, 세 번째로 사업예산의 부족을 들었으며, 네 번째로는 기존의 사업이나 시설과의 유사성 또는 비연계성을 들었음.

❑ 지원사업의 도움 정도

○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이 저소득층 가정에 대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지원사업 담당자들은 인식하고 있었음.

❑ 담당사업에 대한 만족도

○ 아동지원사업 담당자들은 대체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아동담당사업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담당사업에 대한 만족도

○ 아동지원사업 담당자들은 대체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아동담당사업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다른 분야 담당자들과의 협력

○ 다른 분야 담당자와도 협력이 대체로 잘 되고 있다고 보고하였음.

라. 소결

❑ 저소득층 가정 담당 정책수행자들은 아동지원사업의 효과를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 정책수행자들은 아동지원사업은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가정과 부모들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야기했다고 보고하였음.

❑ 저소득층 가정 담당 정책수행자들은 저소득 가정의 빈곤 탈피를 위해서 아동지원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분야 담당자와도 협력이 대체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함.

❑ 저소득층 가정 담당 정책수행자들은 아동지원사업의 문제점으로 통합적 사업계획 구축미비와 인력부족 및 고용의 불안정을 들고 있었음.

6. 사례조사 분석

가. 사례 방문 저소득층 가정의 특성

❑ 저소득층 가구의 배우자(남편)들은 대개가 직업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일용직 등 불안정한 직업이 대부분이라 가계수입 자체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임. 배우자(남편)의 무능력은 이혼으로 이어져 결국 가정해체를 가져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은 큼.

❑ 결과적으로 저소득층 가정은 한부모 가정이 많았음. 총 15사례의 가구유형을 살펴보면, 부모+자녀 가정은 6가정으로 절반도 채 안 되며, 한부모 가

정이 7가정, 조손가정이 1가정으로 총 8사례가 가정이 해체되었음.

❑ 배우자(남편)의 가정 폭력 역시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로 인해 부인뿐 아니라 자녀들도 정서불안, 분리불안 등 정서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를 치료하기 위해 사업을 통해 놀이치료, 미술치료 등을 지원받고 있었음.

❑ 중증은 아니더라도 장애 아동·부모가 꽤 많았음.

❑ 어려운 양육환경에도 불구하고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높았음.

나.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에 대한 가정의 만족도

❑ 자신이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사업 이름과 그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잘 인지하고 있었던 반면, 지원받지 않은 일반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는 이러한 지원사업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음.

❑ 지원받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함.

다. 저소득층 가정의 육아의 애로점과 요구

❑ 사교육비 지원 요구

○ 다니고 있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영어, 피아노, 미술, 가베와 같은 프로그램 강화 및 학원 이용시 비용지원도 원하고 있었음.

❑ 더 많은 비용 지원 요구

○ 교육료・보육료 지원뿐 아니라 의료비 지원 등 폭 넓은 비용지원을 원하고 있었음.

❑ 구직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요구

○ 남편의 무능력 또는 한부모 가정일 경우 어머니는 취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기에 구직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많이 원하고 있었으며 직업과 연계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요구함.

❑ 야간보육 및 방과후 보육에 대한 지원 요구

○ 남편의 무능력, 남편과의 이혼으로 인해 직업을 가져야만 하는 상황들은 결과적으로 자녀육아 문제를 발생하게 됨. 영유아의 어린 자녀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육아를 위한 지원요구가 큼.

라. 정책수행자가 본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문제점

❑ 장기적으로 사업들 간 연계 필요

○ 각 사업의 목적, 지원대상, 지원프로그램 등 유사한 점이 많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봄.

❑ 지역 인프라와 사업 간 연계의 어려움

○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인프라들을 연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각 사업의 주된 내용이지만, 정작 필요해서 연계할 시설들은 저소득층 아동들의 거주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중심지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연계가 어려움.

❑ 행정동 중심의 기계적 구획

○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행정동(지역 단위)에 거주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서비스 지원대상 지역이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

❑ 지원 대상자선정의 불합리성

○ 이 문제는 일반저소득 가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주로 지적하였는데 특히, 보육료·교육료 대상 선정 기준의 불합리성을 언급함.

❑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연계망

○ 각 사업이 추구하는 통합적 지원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의 협조 및 연계 없이는 불가능한데, 지속적이고 긴밀한 연계망을 구축하기 위한 장치는 미비함.

7. 정책방향 및 정책방안

가. 정책방향: 따로 또 같이

❑ 생애 초기(영유아가) 지원을 보다 더 강화한다.

❑ 각 사업 간의 통합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 각 사업은 여타 사업들과는 차별화되는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강구해야 한다.

나. 정책방안

❑ 사업 내 연계의 활성화

○ 후원 기관에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사업 간 연계의 활성화

○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세 사업 또는 두 사업을 함께 실시해 본다.

❑ 법적 근거 마련의 시급성

○ 각 사업의 전달체제에 소속되어 있는 민간 정책수행자들은 대부분 계약직이기 때문에 늘 불안정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음. 이들이 자신이 하는 일에 자긍심과 애정을 갖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임.

❑ 자활 가족지원프로그램 강화

○ 대부분 사업이 12세까지만 지원되기 때문에 아동 중심지원은 한계가 있음. 저소득층 영유아의 진정한 행복은 가족의 변화를 통해서만 비로소 얻을 수 있을 것임.

○ 영유아 부모들 자신들이 빈곤을 벗어날 수 있도록 자활 프로그램, 일자리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지금처럼 직업을 갖기 보다는 국가의 지원금에 의존하려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직업을 가진 저소득층 부모일수록 보육료·교육료 감면 해택을 더 많이 해 주는 등 저소득층 부모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풍토가 중요함.

❑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

○ 저소득층 가정의 문제들은 복잡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각 가정별로 필요로 하는 지원책이 다를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저소득층 영유아와 가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되, 그 가정이 시

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특정 문제들을 파악해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임.

❑ 정책수행자의 전문성 제고

○ 정책수행자들의 전문성 정도에 따라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제공되는 질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각 지원 서비스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내용 ····· 3
3. 연구방법 ····· 5
4. 연구범위 ····· 8
5. 선행연구 검토 ····· 9
6. 용어정의 ····· 12

Ⅱ. 국내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 ····· 13
1. 드림스타트 사업 ····· 13
2.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 22
3. 위스타트 사업 ····· 33
4. 삼성어린이집 포괄적 보육서비스 ····· 41
5. 소결 ····· 48

Ⅲ. 국외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 및 종단연구 ····· 57
1. 헤드스타트(Head Start) ····· 57
2. 슈어스타트(Sure Start) ····· 70
3. 주요 종단연구 ····· 77
4. 정책적 시사점 ····· 85

Ⅳ.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 효과분석 ····· 93
1. 아동 특성 ····· 93
2. 가구 및 부모 특성 ····· 97
3.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효과 분석 ····· 101
4. 저소득층 가정의 육아정책 요구 ····· 133
5. 소결 ····· 163

Ⅴ. 저소득층 가정담당 정책수행자의 의견분석 ····· 164
1. 정책수행자 특성 ····· 164
2.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효과 ····· 166
3.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 평가 ····· 169
4. 소결 ····· 175

Ⅵ. 사례조사 분석 ····· 177
1. 사례 방문 저소득층 가정의 특성 ····· 177
2.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에 대한 가정의 만족도 ····· 184
3. 저소득층 가정의 육아의 애로점과 요구 ····· 188
4. 정책수행자가 본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문제점 ····· 193
5. 소결 ····· 198

Ⅶ. 정책방향 및 정책방안 ····· 199
1. 정책방향: “따로 또 같이” ····· 199
2. 정책방안 ····· 201

참고문헌 ····· 205

부 록 ····· 210

표 목 차

<표 Ⅰ-3-1> 각 사업별 설문 대상 가구수 ····· 5
<표 Ⅰ-3-2> 가정용 설문지 질문 문항 ····· 6
<표 Ⅰ-3-3> 각 사업별 설문 대상 정책수행자 수 ····· 7
<표 Ⅰ-3-4> 정책수행자용 설문지 질문 문항 ····· 7
<표 Ⅰ-3-5> 각 사업별 가정 및 정책수행자 심층면담자수 ····· 8
<표 Ⅱ-1-1>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체계 ····· 14
<표 Ⅱ-1-2> 드림스타트 팀 구성원 및 주요업무 ····· 15
<표 Ⅱ-1-3> '08 드림스타트 시범지역 현황(32개 지역) ····· 18
<표 Ⅱ-1-4> 드림스타트 지원 프로그램 ····· 20
<표 Ⅱ-1-6> K드림센터 프로그램 ····· 21
<표 Ⅱ-2-1> '08년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주요 변경 내용 ····· 23
<표 Ⅱ-2-2> 교복투 사업 추진체계(2008) ····· 24
<표 Ⅱ-2-3> 교복투 사업 프로젝트 조정자 선발 기준 및 절차 ····· 25
<표 Ⅱ-2-4> 교복투 사업 연도별 수혜현황 ····· 27
<표 Ⅱ-2-5> 시도 교육청별 사업 지역 현황 ····· 28
<표 Ⅱ-2-6> 교복투 사업 대상 유치원 및 보육시설(2006년) ····· 28
<표 Ⅱ-2-7> 교복투 사업의 주요 영역과 프로그램 ····· 31
<표 Ⅱ-2-8> 교복투 사업 영유아 교육·보육 추진방향(2003) ····· 32
<표 Ⅱ-2-9> 교복투 사업 영유아 교육·보육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 32
<표 Ⅱ-3-1> 위스타트 추진체계 ····· 34
<표 Ⅱ-3-2> 위스타트 팀구성원 및 주요 업무 ····· 36
<표 Ⅱ-3-3> 전국 위스타트 운동 사업장 현황: 23곳(2009년) ····· 37
<표 Ⅱ-3-4> 위스타트 아동복지센터 현황: 3곳(2009년 현재) ····· 38
<표 Ⅱ-3-5> 위스타트 사업 지원 프로그램 ····· 38
<표 Ⅱ-3-6> 위스타트 보육·교육 지원사업(K시) ····· 41
<표 Ⅱ-4-1> 전국 삼성어린이집 중 포괄보육서비스 지원 어린이집 현황(2008) ·· 44
<표 Ⅱ-4-2> 삼성포괄보육서비스 아동교육프로그램 목표·내용·교수방법 ····· 45
<표 Ⅱ-4-3> 삼성포괄보육서비스 부모지원프로그램 사례 ····· 46

<표 Ⅱ-4-4> 삼성포괄보육 서비스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사례 ····· 47
<표 Ⅱ-5-1> 각 사업별 비교표 ····· 51
<표 Ⅲ-1-1>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대상자 구성(2006, 2008) ····· 59
<표 Ⅲ-1-2> 연방정부의 헤드스타트 2008년도 예산 배정안 ····· 60
<표 Ⅲ-1-3>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의 통계 (2006, 2007) ····· 62
<표 Ⅲ-3-1> PPP 프로그램 유형 ····· 78
<표 Ⅲ-3-2> PPP 종단연구의 효과 ····· 80
<표 Ⅲ-3-3> ABC 프로그램유형과 비용편익분석 결과 ····· 81
<표 Ⅲ-3-4> CLS 프로그램유형과 비용편익분석 결과 ····· 84
<표 Ⅲ-4-1> 국외 종단연구 요약 ····· 90
<표 Ⅳ-1-1> 아동의 연령 및 성별, 건강 ····· 94
<표 Ⅳ-1-2> 영유아가 주로 다니는 기관 ····· 94
<표 Ⅳ-1-3> 자녀가 다니는 기관에 대한 만족도 ····· 95
<표 Ⅳ-1-4> 기관 비이용 이유 ····· 95
<표 Ⅳ-1-5> 자녀가 다니는 기관 이용료 ····· 96
<표 Ⅳ-1-6> 자녀가 다니는 기관이용료 부담 정도 ····· 96
<표 Ⅳ-1-7> 교육비 또는 보육료 지원 종류 ····· 96
<표 Ⅳ-2-1> 전체 자녀 수 ····· 98
<표 Ⅳ-2-2> 주택소유형태 ····· 98
<표 Ⅳ-2-3> 가계소득과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혜 유무 ····· 99
<표 Ⅳ-2-4> 주양육자 특성 ····· 100
<표 Ⅳ-2-5> 주양육자의 고용형태 ····· 100
<표 Ⅳ-2-6> 주 양육자의 건강 ····· 101
<표 Ⅳ-3-1> 아동지원사업별 영유아 발달에 도움 된 정도 ····· 105
<표 Ⅳ-3-2> 아동지원사업 수혜 후 양육태도 변화 ····· 108
<표 Ⅳ-3-3> 아동지원사업 수혜 후 가정의 변화 ····· 111
<표 Ⅳ-3-4> 아동지원사업이 학교생활에 도움이 된 정도 ····· 112
<표 Ⅳ-3-5> 아동지원사업 서비스 만족도 ····· 112
<표 Ⅳ-3-6> 아동지원사업 담당자들에 대한 관계 인식 ····· 113
<표 Ⅳ-3-7> 위스타트에서 시행한 서비스 이용 정도 ····· 117
<표 Ⅳ-3-8> 드림스타트에서 시행한 서비스 이용 정도 ····· 119

<표 Ⅳ-3-9> 삼성포괄보육서비스에서 시행한 서비스 이용 정도 ····· 121
<표 Ⅳ-3-10> 교복투 사업에서 시행한 서비스 이용 정도 ····· 122
<표 Ⅳ-3-11> 수혜자가 인식하는 위스타트 서비스의 중요도 ····· 125
<표 Ⅳ-3-12> 수혜자가 인식하는 드림스타트 서비스의 중요도 ····· 127
<표 Ⅳ-3-13> 수혜자가 인식하는 삼성포괄보육서비스의 중요도 ····· 130
<표 Ⅳ-3-14> 수혜자가 인식하는 교복투 사업 서비스의 중요도 ····· 132
<표 Ⅳ-4-1> 사업별 수혜자의 현재 생활만족도 ····· 135
<표 Ⅳ-4-2> 사업별 수혜자의 현재 생활 불만족 이유 ····· 138
<표 Ⅳ-4-3> 가중치를 부여한 사업별 수혜자의 현재 생활 불만족 이유 ····· 139
<표 Ⅳ-4-4> 자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41
<표 Ⅳ-4-5> 가중치를 부여한 자녀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43
<표 Ⅳ-4-6> 저소득 영유아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 ····· 146
<표 Ⅳ-4-7> 저소득 가정에 가장 필요한 육아정책 ····· 148
<표 Ⅳ-4-8> 가중치를 부여한 가정에 필요한 육아지원정책 순위 ····· 150
<표 Ⅳ-4-9> 지원사업 대상자와 비대상자의 현재 생활만족도 ····· 152
<표 Ⅳ-4-10> 지원사업 대상자와 비대상자의 현재 생활 불만족 이유 ····· 153
<표 Ⅳ-4-11> 지원사업 대상자와 비대상자의 가중치를 부여한
현재 생활 불만족 이유 ····· 155
<표 Ⅳ-4-12> 지원사업 대상자와 비대상자 자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56
<표 Ⅳ-4-13> 지원사업 대상자와 비대상자의 가중치를 부여한 자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58
<표 Ⅳ-4-14> 지원사업 대상자와 비대상자의 저소득 영유아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 ····· 159
<표 Ⅳ-4-15> 지원사업 대상자와 비대상자의 가정에
가장 필요한 육아지원정책 ····· 160
<표 Ⅳ-4-16> 지원사업 대상자와 비대상자의 가중치를 부여한 가정에
필요한 육아지원정책 순위 ····· 162
<표 Ⅴ-1-1> 정책수행자 특성 ····· 164
<표 Ⅴ-1-2>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 특성 ····· 166
<표 Ⅴ-2-1> 아동지원사업이 영유아 발달에 도움이 된 정도 ····· 167

<표 Ⅴ-2-2> 아동지원사업이 학교생활에 도움이 된 정도 ····· 168
<표 Ⅴ-2-3> 아동지원사업 수혜 후 부모 및 가정의 변화 ····· 168
<표 Ⅴ-3-1> 정책수행자가 인식하는 빈곤탈피 방안 ····· 170
<표 Ⅴ-3-2> 가중치를 부여한 정책수행자가 인식하는 빈곤탈피 방안 순위 ····· 170
<표 Ⅴ-3-3> 정책수행자가 인식하는 저소득가정의 문제점 ····· 171
<표 Ⅴ-3-4> 가중치를 부여한 정책수행자가 인식하는 저소득가정의 문제점 ··· 172
<표 Ⅴ-3-5> 정책수행자가 인식하는 아동지원사업의 문제점 ····· 173
<표 Ⅴ-3-6> 가중치를 부여한 정책수행자가 인식하는
아동지원사업의 문제점 ····· 173
<표 Ⅴ-3-7> 정책수행자가 인식하는 지원사업이 가정에 도움이 된 정도 ····· 174
<표 Ⅴ-3-8> 담당사업에 대한 만족도 ····· 174
<표 Ⅴ-3-9> 다른 분야 담당자와 협력 정도 ····· 175
<표 Ⅴ-3-10> 다른 분야 담당자와 협력이 안 되는 이유 ····· 175
<표 Ⅵ-1-1> 심층면담사례: 가정 ····· 177
<표 Ⅵ-3-1> 면담 정책수행자 사례 ····· 193

그 림 목 차

[그림 Ⅱ-1-1] 드림스타트 추진체계도 ····· 14
[그림 Ⅱ-2-1] 교복투 사업 추진체계 ····· 26
[그림 Ⅱ-3-1] 위스타트 사업 추진체계도 ····· 35
[그림 Ⅱ-4-1] 삼성포괄보육서비스 체계도 ····· 43
[그림 Ⅲ-1-1] 헤드스타트 등록 인원수 추이 ····· 59
[그림 Ⅲ-1-2] 헤드스타트 예산 추이 ····· 61
[그림 Ⅳ-3-1] 위스타트에서 시행한 서비스 이용 정도 ····· 117
[그림 Ⅳ-3-2] 드림스타트에서 시행한 서비스 이용 정도 ····· 119
[그림 Ⅳ-3-3] 삼성포괄보육서비스에서 시행한 서비스 이용 정도 ····· 121
[그림 Ⅳ-3-4] 교복투 지원사업에서 시행한 서비스 이용 정도 ····· 123
[그림 Ⅳ-3-5] 수혜자가 인식하는 위스타트 서비스의 중요도 ····· 125
[그림 Ⅳ-3-6] 수혜자가 인식하는 드림스타트 서비스의 중요도 ····· 128
[그림 Ⅳ-3-7] 수혜자가 인식하는 삼성포괄보육서비스의 중요도 ····· 130
[그림 Ⅳ-3-8] 수혜자가 인식하는 교복투사업서비스의 중요도 ····· 133
[그림 Ⅳ-4-1] 사업별 수혜자의 현재 생활만족도 ····· 135
[그림 Ⅳ-4-2] 생활불만족이유 1순위 ····· 138
[그림 Ⅳ-4-3] 생활불만족이유 2순위 ····· 139
[그림 Ⅳ-4-4] 자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순위 ····· 141
[그림 Ⅳ-4-5] 자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순위 ····· 143
[그림 Ⅳ-4-6] 저소득 영유아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 ····· 146
[그림 Ⅳ-4-7] 가정에 가장 필요한 육아지원정책 1순위 ····· 149
[그림 Ⅳ-4-8] 가정에 가장 필요한 육아지원정책 2순위 ····· 150
[그림 Ⅳ-4-9] 지원사업 대상자와 비대상자의 현재 생활만족도 ····· 152
[그림 Ⅳ-4-10] 생활불만족이유 1순위 ····· 153
[그림 Ⅳ-4-11] 생활불만족이유 2순위 ····· 154
[그림 Ⅳ-4-12] 자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순위 ····· 156
[그림 Ⅳ-4-13] 자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순위 ····· 157
[그림 Ⅳ-4-14] 저소득 영유아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 ····· 159

[그림 Ⅳ-4-15] 가정에 가장 필요한 육아지원정책 1순위 ····· 161
[그림 Ⅳ-4-16] 가정에 가장 필요한 육아지원정책 2순위 ····· 161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경제발전으로 국민의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아동의 발생추이는 증가하고 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이혼율 증가와 더불어 조부모와 손자·손녀가 함께 사는 조손가정도 꾸준히 상승하여 1995년 3만 5194가구에서 2005년에 5만8101가구로 10년 동안 65.1%증가(중앙일보, 2009년 1월 15일)함과 동시에, 아동빈곤율도 같은 기간 동안 1996년 3.6%, 2000년 7.7%, 2004년에 8.8%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이봉주, 2006)현상은 우리사회의 어두운 자화상이다. 이처럼 빈곤은 가족해체를 야기하고 아동의 빈곤으로 연결되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고 부적절한 양육환경과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원천이라 하겠다.

우리사회에서 빈곤아동에 대해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저소득층 영유아를 위한 '통합적' 개념의 아동지원사업이 태동하게 된 시기도 1990년대 후반으로 그 맥을 같이 한다. 다시 말해서 저소득층 영유아를 위한 아동지원사업의 역사는 10년도 채 안 되는데, 1999년 삼성복지재단에서 소위 '달동네 저소득 빈곤탈출'이란 근본취지를 갖고 시작한 '삼성어린이집 포괄적 보육서비스' 사업이 저소득 아동지원사업의 첫 출발이라 하겠다. 이처럼 민간기업 수준에서 저소득층 영유아를 위한 아동지원사업을 전개해 오다가 정부가 본격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시기는 2003년부터이다.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란 프로젝트 하에, '도시 저소득 지역의 영유아 및 학생(청소년)의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교육·문화·복지의 총체적 제고'를 목적으로(교육인적자원부, 2003) 학교 중심의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구축사업을 출범하였다.

교복투 사업이 시작된 이듬해인 2004년도에는 중앙일보에 "가난 속에 갇힌 아이들"라는 기사가 연재되면서 이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We Start 사업을 시작하여 2008년 현재 전국 23곳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중앙정부수준에서는 당시, 보건복지부가 2008년부터 희망스타트사업이란 사업을 출범하였다. 이상의 위스타트와 드림스타트 두 사업은 행정동을 단위로 저소득층 아

동(0세~12세)의 공평한 출발기회를 위한 보건·교육·복지 통합프로젝트"라는 유사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사업적 성격이 비슷하다.

이처럼 중앙정부 차원에서 빈곤아동에 주목해서 통합적 지원사업을 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러나 민·관을 불문하고 빈곤아동에게 관심을 갖고 다양한 경로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동복지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심도를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라 하겠다. 최근 몇 년 동안 저소득층의 아동복지 차원의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아이돌보미[1], 방과후보육 등이 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2007년부터 시작한 저소득층 영유아통합지원사업으로 '시소와 그네(Success By 7)'[2]가 있다. 게다가 새 정부가 국정과제의 하나로 '능동적 복지'를 표방하였고 이에 발맞춰 저소득층 아동에게 '포괄적 보육서비스 제공' 위해 '드림스타트 사업과 연계하여 보육서비스 이외에 건강・영양, 가족지원, 인지능력 향상 등의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추진'(http://www.mw.go.kr)을 새정부 보육정책의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교복투 사업도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향후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은 한층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 2008년 7월 17일).

이와 같이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관심이 커지고,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들에 대해 총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실제 사업의 수요자인 저소득층 가정과 아동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애로점은 무엇인지, 아동지원사업들 간의 중복되는 내용은 없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속에서도 여전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은 어느 정도이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 등을 점검하는 연구는 이루어져야 한다.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근거로 정책 수요자인 빈곤 아동 및 가구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체감도 높은 정책 또는

---

1)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시간제 보육지원으로 이용대상자는 0세(3개월)-만12세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이며 주요 지원내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시간당 보육료의 80%(시간당 5,000원의 보육비 중 4,000원 지원), 평균소득 200%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시간당 보육료 20%(시간당 5,000원의 보육비 중 1,000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개인부담(이용시간에 따라 비용지원 달라짐)임. 공급기관은 전국 65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임.

2) '시소와 그네'는 0~7세까지 초등학교 입학 전의 빈곤층 어린이들에게 높은 희망을 위한 공평한 인생출발을 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신체·심리·정서적으로 균형을 이룬 어린이로 함께 키워내자는 의미임(www.chest.or.kr: 검색일 2008년 2월 2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이러한 지원사업들이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합리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입각해서 본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려고 한다. 첫째, 기존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최종 수요자인 저소득 가정 및 아동의 특성 , 그동안 지원받았던 사업의 만족도, 육아에 있어 애로점 및 요구사항 등을 파악한다. 동시에 지원사업을 받지 못한 일반 저소득 가구도 조사대상에 포함해서 이들 가구의 애로점 및 요구사항을 알아본다. 둘째, 정책의 전달자이자 수행자이기도 한 중간자적인 입장에 있는 '정책수행자'들을 정책성패의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고 이들의 의견을 조사하고자 한다. 정책수행자들은 현장에서 정책수요자들과 접촉하면서 정책을 실제로 수행하기 때문에 정책전달자의 역량과 열정에 따라 같은 정책이라도 수요자가 체감하는 정도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책의 효과나 만족도에 이들이 미치는 영향을 적지 않을 것이다. 저소득 가구와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이들 가구를 담당하는 정책수행자들의 의견조사를 실시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 집단을 연구의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저소득층 가구 및 정책수행자 두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해서 기존의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들이 실제로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양육에 실제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는지, 잘되고 있는 점과 그렇지 못한 점, 앞으로 보완·개선되어야 할 점, 필요한 정책지원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저소득층 영유아를 위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통합적 육아지원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가. 국내 저소득 아동지원사업별 특성 검토 및 분석

'드림스타트 사업', '교복투 사업', '위스타트 사업', '삼성포괄보육서비스' 등 네 사업의 목적과 전개과정, 사업의 내용, 전달체계, 현황, 전반적인 지원 프로그램 및 영유아 지원 프로그램 등을 면밀하게 검토·분석한다.

나. 국외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 검토

대표적인 저소득 아동사업인 미국의 Head Start와 영국의 Sure Start를 면밀

하게 분석하고, 프로그램효과를 분석한 Perry Preschool Program(PPP), Abecedarian Project(ABC), Chicago Longitudinal Study(CLS) 연구 등을 고찰해서 시사점을 도출한다.

다. 영유아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육아 실태 및 요구 파악

영유아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 중에서 기존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 모두 조사대상으로 선정한다. 저소득층 가정 및 아동의 특징을 파악하고, 지원받고 있는 저소득층 지원 사업들의 현황, 만족도 및 요구사항 및 기존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들의 요구를 알아본다.

라. 각 지원사업의 효과 분석

네 개 사업에서 지원받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 전·후 변화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다.

마. 저소득층 담당 정책수행자 애로점 및 요구 파악

정책전달자들을 대상으로 정책 수행에 있어 보람 및 애로점, 담당하고 있는 정책의 장·단점, 보다 효율적인 정책수행을 위해 필요한 여건들은 무엇인지를 조사함으로서 정책전달자(수행자)의 입장에서의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이 앞으로 보완할 점, 개선되어야 할 점 등을 도출한다.

바. 저소득층 영유아 가정의 통합적 지원 방안 제시

문헌고찰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저소득층 영유아를 위한 통합적 육아지원방안 과 각 아동지원사업이 발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국·내외 기존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자료들을 수집해서 그 내용을 검토·분석하고 각 사업별 특징들을 고찰한다. 주로 검토할 문헌자료로는 각 사업에서 실시한 자체평가보고서, 사업안내서, 정책계획서 등이며 저소득층 아동 관련된 선행연구들도 아울러 검토한다.

나. 설문조사

설문지는 대상에 따라 가정용과 정책전달자용 두 종류로 나뉘며, 조사지역은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4개 사업이 공통적으로 실시되는 서울, 부산, 광주, 경기도, 강원도, 전라남·북도 지역에 국한해서 실시하였다. 다만, 교복투 사업은 서울지역에 국한하였는데 교복투 사업은 본 연구대상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약한데[3] 서울에서는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면서 영유아 지원을 위한 노력을 강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1) 저소득층 영유아 가정 실태조사

본래 4개 각 사업별로 80가구와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일반 저소득 가구 80가구 등 총 400가구를 목표로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408가구가 표집 되었다.

<표 Ⅰ-3-1> 각 사업별 설문 대상 가구수

	드림	위스타트	교복투	삼성	일반	총
표집수	80	80	74	90	84	**408**

설문지 질문 문항은 가구특성, 부모특성, 주양육자 특성, 자녀특성 등 일반적인 특성을 묻는 질문영역과 지원받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인지정도, 만족도 등을 묻는 질문영역, 끝으로 국가에 바라는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

3) 교복투 사업은 유·초·중·고 학교체제를 전제로 추진되는 데, 유치원은 아직까지 학교체제에 확립되어 있지 못한 관계로 초등학교와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지원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다.

<표 Ⅰ-3-2> 가정용 설문지 질문 문항

질 문 내 용			
주제	하위 주제		문항 내용
가족	가구 특성		-가구 구성, 가구원수, 자녀와의 관계, 연령 -부모 동거 여부 및 미동거 이유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주 소득원, 월평균 가구소득, 주택 소유형태
	부모 특성		-연령, 학력, 직업, 근무시간, 맞벌이 여부, 건강상태 -결혼이민자 여부, 결혼이민자인 경우 한국어 능력 정도 -평소 흡연 및 음주 여부, 정도
	주양육자 특성		-어머니 경우: 미취업 이유 -대리양육의 경우: 누구인지, 선택이유, 비용 지급여부, 비용정도, 이용시간 -비혈연의 경우: 선택이유, 비용정도, 이용시간
	자녀 특성		-연령, 출생순위, 성별, 건강상태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 정부지원현황 -미이용시, 이유와 정부지원현황
저소득층 아동지원 사업	we 스타트 · 드림(희망) 스타트 · 교복투 사업 삼성포괄 서비스 ※일반가정 포함	가정	-지원사업의 대상자 인지(認知) 여부 -지원프로그램의 시작시기와 수혜 경로 -지원프로그램 제공 전·후 자녀의 변화 *인지적, 정서적, 또래와의 관계 등 -지원프로그램 제공 전·후 부모의 변화 -지원프로그램 제공 전·후 자녀와의 관계 변화 정도 *양육의 어려움의 해소 정도 -지원프로그램 제공 전·후 배우자와 관계 변화 정도 -지원프로그램의 만족도 정도 -정책전달자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향후 제공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육아지원 정책	- 향후 국가의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바램		

2) 정책수행자 실태조사

정책수행자 대상의 설문조사에서는 국가 또는 지자단의 정책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민간에서 실행하고 있는 삼성어린이집 포괄보육서비스사업을 제외하였다. 따라서 3개의 각 사업별 및 일반 저소득층 담당자 20명씩을 추출, 총 80명을 목표로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최종적으로 88명을 표집 하였다.

<표 Ⅰ-3-3> 각 사업별 설문 대상 정책수행자 수

	드림	위스타트	교복투	일반	총
표집수	27	20	20	21	**88**

정책전달자(수행자)에게 묻는 질문문항을 <표 Ⅰ-3-4>와 같다. 현재 담당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지원의 전반적인 내용, 저소득층 지원정책이 나아갈 방향, 그리고 응답자 특성을 묻는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표 Ⅰ-3-4> 정책수행자용 설문지 질문 문항

질 문 내 용	
주제	문항 내용
저소득층아동지원 (※삼성포괄서비스 제외)	-담당하고 있는 사업 -맡고 있는 업무 -담당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수(학령기 아동 포함) -담당하고 있는 사업이 실제 저소득층 영유아 발달에 도움되는 정도 *인지, 사회성, 언어, 정서, 신체 -담당하고 있는 사업이 저소득층 영유아들의 학교생활에 도움 줄 것이라는 기대 정도 -담당하고 있는 사업이 저소득층 부모와 가정에 도움되는 정도 -각 사업에서 실행했던 서비스 프로그램 종류와 중요도 -담당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만족도 및 애로점 -사업 내 다른 분야 담당자와의 교류 및 협력 정도
앞으로 정책방향	-저소득층 빈곤탈피를 위해 필요한 정책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문제점 -저소득층 가정의 문제점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정책의 도움 정도
응답자	-성별, 연령 -고용형태 -사업 참여한 근무기간

다. 심층면담

설문조사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의 내재된 문제점을 좀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심층면담을 병행하였다. 심층면담 대상자 역시, 가구와 정책전달자 모두를 포함하였다. 한편, 가구방문은 여러 가지 현실을 고려해서 서울·경기에 한정에서 실시하였으며 정책전달자의 심층면담은 서울, 경기, 부산, 대전

지역을 방문해서 인터뷰를 했다.

<표 Ⅰ-3-5> 각 사업별 가정 및 정책수행자 심층면담자수

	드림	위스타트	교복투	삼성	일반	총
가정	3	3	3	3	3	**15**
정책 수행자	2	2	2		2	**8**

심층면담은 비구조화된 질문방식을 취했으며, 다만 면담내용 분석시 일관성 있는 분석을 위해 가구원 특성, 지역사회 특성, 아동 및 부모 특성 등 세 영역으로도 구분해서 면담을 실시하였다.

라. 자문회의

본 연구에서는 총 3 차례의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1차 자문회의는 연구설계 단계에 실시하여 연구방향의 설정과 설문지 내용 구성을 위해 각 사업 담당 정책수행자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2차와 3차 자문회의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담당 공무원 자문회의와 각 사업의 초기단계부터 개입해서 각 사업의 전개과정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고자 자문 회의를 개최하여 합리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4. 연구범위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들 중에서 교복투, 드림스타트, 위스타트, 삼성어린이집 포괄적보육서비스 4개 사업에 한정해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들 사업들은 우선 저소득층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인프라들을 활용, 연계, 협력해서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란 점에서 본 연구주제와 부합된다. 또한 이들 사업들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여타 사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시한 기간이 길어서 자체 성과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 일종의 '검증된' 사업들이란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를 준거로 본 연구에서는 이들 4개 사업을 연구대상으로 정했다.

5. 선행연구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들은 상당 수준 진행되어 왔다. 여기서는 저소득 가구 및 아동의 특성을 파악한 선행연구들과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과 관련된 선행연구 두 영역으로 나누어서 고찰하고자 한다.

가. 저소득층 가구 및 아동 특성

저소득층 가정의 특성으로는 첫째, 가구주들은 높은 무직률과 단순노동, 행상, 노점, 영세자영업과 같은 낮은 직업군에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으로 종사하는 경우가 매우 높아서 생활 자체가 불안정하다(이소희 외, 2000: 장명림, 2006 재인용)는 것을 꼽을 수 있다. 둘째, 저소득층은 경제적 스트레스로 인해 부부간 갈등문제가 많고 이로 인한 결혼 만족도가 낮아서 결혼 생활이 불안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불안정한 가족관계는 가족폭력으로 표출되면서 이혼, 별거, 가출로 이어지면서 가족해체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노인철 외, 1995: 장명림 2006 재인용), 실제로 일반가정에 비해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이 많다(이봉주, 2006). 셋째, 저소득층 가정의 집은 대개 비좁고 비위생적이며 주변환경은 복잡스럽고 비교육적일 뿐 아니라 위해하기까지 하는(유희정, 1997; 나정 외, 2004) 등 저소득 가구는 열악한 주거구조 및 지역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다음으로 저소득층 부모의 특성은 중류층에 비해서 자녀에게 덜 온정적이며, 더 무관심하거나 거부적이라고 보고된 연구가 있는가 하면(김경희·황혜정, 1998), 저소득층이 중류층에 비해 더 허용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연구도 있다(어주경·정문자, 1999). 또한 저소득층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중류층에 비해 합리적 지도, 애정, 적극적인 참여요인 모두 더 낮은 특성을 보이며(김해영, 1994), 주경민(2000)은 중류층과 저소득층 모두 아동간의 상호작용에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지만 추구하는 방식에서 중류층 부모는 논리적인 표현과 격려를 주로 하여 성취감, 자율성, 창의성을 강조하는 반면, 저소득층은 야단을 많이 치고 명령에 복종하게 한다고 하였다(장명림, 2006 재인용). 그밖에 자녀교육에 있어서도 저소득층 부모들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여러 연구들을 통해 밝혀졌는데, 자녀양육에 대한 방법을 잘 몰라서 또한 자녀의 행동이나 정서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몰라서 어려움을 겪거나(김명순, 2001), 다른 계층의 부모들처럼 자녀

에 대한 교육열은 있지만 생계활동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직접 교육을 하기에는 지식측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변화순, 2001).

연구를 통해 밝혀진 저소득층 아동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과 발달상에 여러 가지 문제를 보이면서 영양실조아가 되는 경향이 많고 여러 질병에 걸리기가 쉬우며(나정 외, 2004) 둘째, 모든 저소득층 아동(유아)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가정에 비해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은 높은 수준의 품행장애와 행동문제, 우울증, 낮은 자존감, 사회적응력 결립, 소극적인 태도, 긴장, 높은 수준의 불안감 등을 보이며 폭력성, 공격성 측면에서도 저소득층 아동들이 중상류층 아동들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앞서 진술한 부모의 특성들과 결부되어 아동의 지적, 정서적 발달 및 성격형성과 자아개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원식, 1991; 민경화, 2000; 허인영, 1999). 셋째, 저소득층 아동의 지적 및 학습능력 측면에서도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는데(김선자, 1999; 민경화, 2000), 이는 저소득층 가정은 바람직한 가정환경의 척도인 장난감이나, 게임, 읽을거리를 통한 자극, 언어자극, 셈하기·어휘 등의 학구적 행동의 자극 모델링과 음악·예술자료·외출 등을 통한 자극의 다양성 등의 부족 등 불리한 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넷째, 언어능력에서도 중산층 가정의 아이들에 비해 언어 속도가 느리고, 더 오랫동안 미숙한 발음을 하며, 문장 길이도 더 짧은 경향을 보이며, 일상 언어에서도 아무에게나 반말을 하고 욕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높다(김향숙, 2001). 또한 읽기·쓰기와 관련된 문해 발달 측면에서도 저소득 가정의 유아가 더딘 발달을 보이거나 다른 발달양상을 나타내는 연구들이 있으며(Heath, 1983; Edward, 1989; 장명림, 2006에서 재인용), 저소득층 유아일수록 모방적 어휘를 많이 사용하고 중산층 가정의 유아는 어휘 산출을 더 많이 하는 특징을 보인다(김명순, 2001).

나.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관한 연구들은 사업의 역사가 짧은 만큼 그다지 많지 않다. 교복투 사업과 관련해서는 장명림(2006)의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는 영유아에 초점을 맞춰서 교복투 내에서 영유아사업의 운영실태를 고찰하고 통합서비스 제공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여타 지원사업의 연구와는 달리 영유아에 초점을

두고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위스타트 사업과 관련해서는 위스타트 대상 아동을 대상으로 빈곤아동의 심리정서발달 요인을 분석한 김선숙(2008)의 학위논문을 꼽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위스타트 대상 아동들은 사업에 참여하는 횟수에 반비례해서 외현화 행동 및 심리 정서발달의 변화율의 감소, 빈곤부모의 부정적인 영향은 완충함과 동시에 긍정적인 영향은 강화된 것으로 규명하였다.

이외에도 각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 수준에서 사업을 평가·분석한 결과보고서들이 있다. 삼성어린이집 포괄적보육서비스에 대해 종단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보고서가 총 3차례(2006, 2007, 2008) 나왔다. 대체로 시간이 경과하면서 아동의 발달, 부모와 가족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으며, 지원받는 포괄적 보육서비스에 대해 부모들은 만족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교복투 사업의 진행성과를 보고한 김정원(2006, 2007) 연구가 있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2007년 평가보고서를 살펴보면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만족도를,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운영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사업집중지원 대상 학생들은 앞으로 더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희망함으로서 교복투 사업에 대한 강한 요구를 보였으며, 사업연차가 높을수록 학생과 학부모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학생보다는 학부모가 더 높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위스타트 사업의 경우 이 사업을 가장 먼저 실시한 경기도의 위스타트 결과보고서가 나왔는데(이봉주, 2007). 그 내용을 보면 아동의 건강과 영양상태, 인지적 능력 모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초등학생 4~5학년의 학업성취도는 단기에 비해 전체적이고 체계적인 향상이 일어났으며, 부모의 음주와 흡연도 감소하고 부모-자녀 관계도 개선되는 등 대체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효과성도 보고되었는데, 서비스 대상 아동 및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 지역사회 환경이 유사 또는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90%이상, 주양육자의 양육관련 실제 아동양육 및 기대정도가 각각 61.5%, 70.8%로 크게 높아졌으며, 학업 성적은 전년 대비 37.5%가 향상되었고, 학교생활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이상의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저소득층 가구와 아동의 부정적인 특성들은 많

은 연구들을 통해 일관성있게 밝혀진 것처럼, 빈곤 또는 저소득은 아동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들이 시작되었고, 사회와 국가가 적극적으로 조기에 개입해서 불리한 환경으로 인해 제공받지 못하는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아동, 부모에게 제공하면서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각 사업의 성과보고서들이 말해주고 있다.

6. 용어정의

본 연구를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 몇 가지 용어를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이란 연구대상으로 한정한 교복투, 드림스타트, 위스타트, 삼성어린이집 포괄보육서비스의 4개 사업을 하나로 포괄해서 명명하기 위한 편의상의 용어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법정저소득층 1층과 차상위 2층까지이다. 또한 '저소득', '빈곤', '가난' 등의 유사한 용어들을 지금까지는 혼재해서 사용했지만 본문에서는 '저소득층' 용어로 통일하겠다.

셋째, 본 연구의 아동 및 영유아는 모두 현행 법령에 규정된 정의를 따른다. 아동은 "18세 미만인 자"(아동복지법 제2조), 영유아는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영유아보육법 제2조), 유아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유아교육법 제2조)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의 아동은 "18세 미만인 자"이며 영유아는 "18세 미만 아동 중 취학전 아동 또는 어린이"를 뜻한다.

넷째, 정책수행자란 각 사업전달팀에 배속된 전임공무원, 계약직공무원 뿐 아니라 민간전문인력까지 포함한 용어이며, 4개의 사업에서 삼성포괄보육서비스는 민간기업에서 하는 사업이란 점을 감안해서, 정책수행자 대상의 설문조사와 면접조사에서 제외하였다. 즉, 정책수행자란 교복투, 드림스타트, 희망스타트 3개 사업에 한정된 용어이다.

마지막으로 아동지원사업명은 서술상의 편의에 따라 전체이름과 축약어를 혼재해서 사용하겠다.

Ⅱ. 국내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재 중앙 정부부처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드림스타트 사업'과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 있으며 '위스타트 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삼성어린이집 포괄적 보육서비스'는 민간기업 삼성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각 사업별로 내용을 검토하고 각 사업들 간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파악해서 향후 정책방안 마련에 있어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1. 드림스타트 사업

가. 사업개요

'드림스타트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들 중 가장 신생사업으로서 2007년도 '희망스타트사업'으로 시범사업을 시작, 2008년 7월 '아동의 공평한 출발기회를 위한 통합복지 프로젝트'란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드림스타트'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사업대상은 임산부를 포함해서 0세~12세의 저소득 아동과 가족, 그리고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까지 아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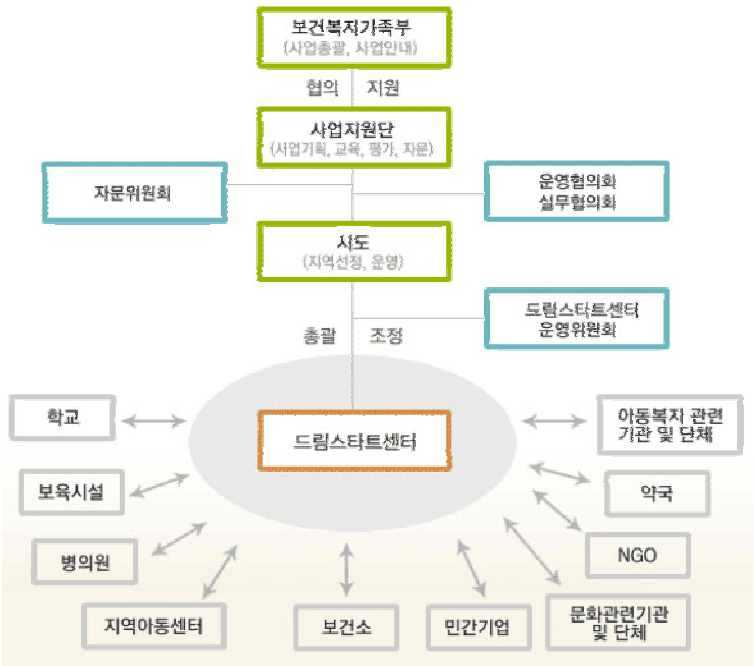
본 사업의 추진 기본방향은 첫째, 빈곤아동 개인의 능력 향상 및 기회 평등 보장 둘째, 빈곤아동과 그 가족에게 건강·복지·보육·교육을 통한 통합형 맞춤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담팀 구성 등 공적전달체계 중심으로 추진 셋째, 빈곤가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개발 및 지원 간 협력·연계 체제를 구축, 그리고 이를 위해 보건소, 사회복지관 등 기존 지역사회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지원하는 등이다(보건복지부, 2008).

나. 추진체계

추진 주체와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추진 주체는 상위부터 보건복지가족부, 시·도, 시·군·구이며 각 주체별로 담당하는 주요 역할과 기능 및 추진체계도는 다음 <표 Ⅱ-1-1>, [그림 Ⅱ-1-1]과 같다.

<표 Ⅱ-1-1>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체계

추진주체	기능 및 역할	비고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총괄 사업지원단 구성	*사업지원단 -기획·평가팀, 사업개발·운영팀, 교육·홍보팀별 전문가로 구성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에 위탁가능)
시·도 (사회복지과)	시범지역 선정	
시·군·구	드림(희망)스타트센터 설치 구성·운영	센터에는 전담공무원 등 전담인력 배치



[그림 Ⅱ-1-1] 드림스타트 추진체계도

자료: 드림스타트 홈페이지(http://www.hopestart.org)

2008년도의 드림스타트 사업은 보육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저소득층 아동지원을 강화할 것을 발표하였다(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 2008). 예컨대, 보육시설

과 드림스타트 센터 간의 협력기관 협약을 체결하여, 보육시설에서는 요보호 아동을 발굴하여 센터에 보고하며, 센터에서는 사례회의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 종류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여부들을 결정, 서비스를 한다. 센터와 보육시설은 지속적으로 아동모니터링을 한다.

다. 거점기관: 드림스타트 센터

사업명에서 드러나듯이 이 사업의 거점기관은 '드림스타트 센터'이다. 드림스타트 센터의 목적은 이 사업을 전담하는 팀조직을 갖추고 공적 전달체계를 통해 서비스 수요자 욕구에 기반한 건강·복지·교육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아동학대, 방임 등 아동문제에 대해 공적전달체계를 통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빈곤아동의 전인적 발달증진 및 공평한 기회보장을 목표로 컨트롤 타워기능을 담당한다(보건복지부, 2008).

드림스타트 센터는 지역실정에 따라 유휴공간 등 기존 지역인프라를 활용하여 시·군·구 단위로 1개소씩을 설치할 수 있다 센터의 구성 인력은 사회복지, 간호, 행정 분야의 각 1이상 전담 공무원을 확보·배치하며 사회복지사, 간호사, 보육교사 등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보건복지부, 2008).

<표 II-1-2> 드림스타트 팀 구성원 및 주요업무

구분	구성	전문영역	주요 업무
팀장	1인(6급 이상)	행정, 사회복지, 간호	-빈곤아동가구 조사, 서비스 제공 총괄 - 서비스 기획, 조정 및 예산관리 - 지역 보건복지 자원 발굴・연계
건강 담당자	2인이상 (공무원 1인 이상 포함)	간호 또는 보건	- 건강, 영양 등 방문 보건서비스 제공 - 지역 내 보건 연계망 구축 - 의료 개입 및 응급 지원 서비스
복지 담당자	2인이상 (공무원 1인 이상 포함)	사회복지 또는 행정	- 학대 방임 예방 및 안전 프로그램 제공 - 자원봉사자 및 학교연계프로그램 관리 - 기초학력 증진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보육	2인이상	복지 또는	- 보육/조기교육 프로그램 관리・제공

담당자	(공무원 1인 이상 포함)	교육	- 가정방문 조기교육 수행/관리

자료: 보건복지부 (2008).

대상 아동의 연령에 따른 서비스 담당자의 담당 업무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1) 0~2세 영아 서비스 담당자(건강담당자) 업무

드림스타트 사업에서는 0~2세 영아 서비스 담당자(건강담당자)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영아전담 서비스 담당자를 '아동간보 분야의 경험이 있으며 가정전문간호사 또는 정신보건간호사자격증을 지닌 간호사'를 영아 가정 전담 서비스 담당자로 지정하고 있다.

영아 가정 전담 서비스 담당자의 역할은 개별 가족구성원과 전제 가족 각각의 목표와 서비스 욕구 파악, 가정방문 수행, 가족을 지역사회 내 서비스 기관에 의뢰, 가족의 서비스 수혜 모니터링 및 문서화, 가족상담 및 지지 서비스 제공, 영아의 교육관련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보육전담 담당자와 연계 및 의뢰, 가족에 대한 복지 관련 프로그램을 위한 복지전담 담당자와 연계 및 의뢰 등이 있다(보건복지부, 2008).

또한 영아전담 서비스 담당자는 지역 보건소의 영유아 담당 간호사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보건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며, 지역실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정기적·비정기적 가정방문을 통해 개인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프로그램을 열거하면, 건강한 아기의 출산프로그램, 엄마와 함께 하는 건강한 첫 출발, 미숙아 지원 프로그램, 영아 건강지킴이 프로그램, 모자애착증진 프로그램, 안전한 가정환경·건강한 어린이, 응급대처 프로그램, 바람직한 부모되기 교육프로그램, 발달스크리닝, 현물지원 프로그램 등이 있다.

영아전담 서비스 담당자로 해서 영아에만 관심을 두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방문하는 가정에 영아 외에 유아 및 학령기 아동이 있으면 이들의 건강 관리도 함께 체크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육시설을 다니는 유아의 경우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일차적으로 보육시설 보육교사에게 해당 유아의 건강문제에 대해 보고하고 처치 및 필요시 기관에 의뢰한다.

2) 만 3~5세 서비스 담당자(보육·교육 담당자) 업무

교육·보육 담당자는 만 3~5세 유아 및 가족의 총체적인 서비스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지역사회 내 보육시설, 유치원, 학원 등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참여와 협조를 홍보하고 대상 저소득층 유아의 수를 파악한다. 뿐만 아니라 기관을 다니지 않는 유아들을 파악해서 부모의 협조와 홍보를 권하고, 개별 유아나 기관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계획, 실행, 평가를 실시한다.

유아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은 유아의 언어, 인지, 사회성 증진을 위한 교육 중재 지원 및 파악, 부모에게는 유아 발달에 적합한 양육방식의 지원 및 자녀교육 상담, 가족기능 향상(부모와 자녀 관계 향상 프로그램 지원 등),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진단·상담·치료, 수혜대상 유아가 다니는 교육·보육기관에 중재 프로그램 및 교사 재교육 지원, 유아의 영양·건강·안전에 대한 예방 및 치료(건강 담당자에게 의뢰), 교육적 효과 진단을 위한 발달 검사 실시,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한 자원봉사자 교육, 지역사회의 보육시설, 유치원, 학원, 복지관, 도서관, 소아과의원, 지역견학시설, 상담기관 등에 드림스타트 교육 관련 홍보 및 적극적 협조 유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만 6~12세 서비스 담당자(복지담당자) 업무

복지담당자는 사회복지분야의 경험이 있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로 지정한다. 이들은 6~12세 아동(초등학생)에 대한 서비스·프로그램 조정, 가족에 대한 사례 관리, 일선 복지서비스 제공자 발굴 및 네트워킹, 복지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훈련, 복지서비스의 직접적 제공(상담, 정서적 지지, 옹호 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복지담당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은 방과 후 프로그램, 상담 및 정서적 지지 서비스, 멘토링 프로그램, 부모교육, 가족지원 서비스, 건강담당자와 협의 하에 의료지원 서비스 등이 있다. 이 중 방과 후 프로그램은 학교가 아닌 인근 지역의 사회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관 또는 지역아동센터, 지역공부방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다.

이상의 건강, 보육·교육, 복지 담당자 인력 외에도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를 모집하여 저소득층 아동과 가정을 지원하고 있다. 후원에는 현금후원, 물품후원,

아동을 지정하여 후원하는 등의 방식이 있으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자원봉사자로 연계하여 예를 들어, 방과 후 교실 학습지도, 영유아 방문교육지원, 가정방문 가사지원, 각종 프로그램 및 행사 지원 등의 여러 가지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센터가 모든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울 뿐더러, 지역인프라 활용도 본 사업의 주요 목적이므로 '사업수행기관'을 선정, 서비스를 직접 제공토록 하고 있다([그림 Ⅱ-1-1] 참조). 사업수행기관으로는 보육사업을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 복지사업을 위한 '초등학교(지역아동센터 등) 통합서비스제공 및 가족지원 사업을 위한 '사회복지관', 건강지원을 위한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등이 있다.

2008년도 현재 드림스타트 사업은 전국의 걸쳐 32곳이 실시되고 있다.

<표 Ⅱ-1-3> '08 드림스타트 시범지역 현황(32개 지역)

시범지역		대상지역 및 아동 현황		비고
시도	시군구	행정동	아동수(명)	
서울(2)	중랑구	상봉1동, 신내2동	369	
	성북구	장위 2·3동	293	'08신규
부산(2)	사하구	다대2동	393	
	부산진구	전포1~3동	334	'08신규
대구(2)	수성구	중동	311	
	남구	이천동, 봉덕2동, 봉덕3동	328	'08신규
인천(1)	계양구	계산1동, 작전2동	242	
광주(3)	남구	주월1동	333	
	북구	오치2동	251	
	동구	계림1·2동, 산수1동	288	'08신규
울산(1)	울주군	범서읍	327	
대전(1)	동구	산내동	364	'08신규
경기(4)	시흥시	신천동	399	
	포천시	소흘읍	319	
	남양주	화도읍 묵현리·마석우리	380	'08신규
	안양시	안양3동, 안양9동	338	'08신규
강원(2)	양구군	양구읍	243	
	강릉시	주문진읍	565	'08신규
충북(1)	청주시	성화개신죽림동	275	'08신규
전북(2) 〃	정읍시	수성동	299	

	완주군	삼례읍	323	'08신규
전남(4)	여수시	여천동	273	
	강진군	강진읍	274	
	보성군	보성읍, 노동・미력・웅치면	374	'08신규
	나주시	영산동, 이창동, 영강동	328	'08신규
경북(2)	영주시	상망동, 하망동, 영주1동	291	
	포항시	창포동 영구임대아파트단지	292	'08신규
경남(3)	김해시	북부동	301	
	함양군	함양읍	256	'08신규
	사천시	선구동,동서금동,벌용동	439	'08신규
제주(2)	제주시	용담1,2동	266	
	서귀포시	대륜동, 대천동	237	'08신규
15개시도	32개시군구	54개 읍면동	10,305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 2008년 7월 17일자.

라. 지원프로그램

드림스타트 사업의 지원 프로그램은 건강, 보육, 복지 등 3영역이다. 영역별 서비스 목적과 추진전략은 먼저 살펴보겠다. 우선, 건강영역의 주된 목적은 저소득 가정 임산부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고 모성 건강을 강화하며, 아동의 신체·정서적 건강 발달 증진에 있다. 이를 위한 추진 전략으로는 임산부, 영유아, 아동 등 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되 직접서비스[4], 연계서비스,[5] 통합서비스[6] 방식으로 구분해서 지역사회 자원 유무에 따라 탄력적으론 운영한다는 것이다.

복지서비스의 주된 목적은 저소득층 아동과 가족의 생활안정, 삶의 질 개선, 빈곤 대물림 차단을 위한 종합적이고 능동적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서 앞선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직접서비스, 연계서비스, 혼합서비스 등의 방식을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지원한다. 추진전략으로는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이주가정, 외국근로자 가정과 같은 다양한 가족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유해환경 물질, 아동학대, 학교폭력, 양극화에 따른 불평등 및 빈곤현상 등 아동의 성장발달의 위해 위험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아동의 안전보장과 전문상담·치료서비스 제공 등이 있다(보건복지부, 2008).

---

4) 대상자에게 센터에서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로 건강상담, 보건 교육 등이 있다.
5) 대상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사회의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민간병의원, 각종 관련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6) 직접서비스와 연계서비스를 혼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보육·교육서비스의 주된 목적은 저소득 가정 아동의 보육 및 교육에 대한 보충적 서비스 측면에서 아동의 개인적인 발달 차이를 충분히 고려한 개별적 접근을 통해 아동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조화로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전인적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것이다. 기본방향은 보육·교육 기회균등 보장을 위해, 아동의 언어·인지·사회성 발달 지원과 지역사회 중심의 영유아, 취약아동을 대상으로 재가(在家)와 기관의 보육·교육 통합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 역시 직접, 연계, 혼합 서비스를 지역 자원 유무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하며 추진전략은 영유아의 건강한 신체·사회·정서·인지적 발달과 취학준비를 위해 가정 방문 보육·교육 프로그램 및 인지능력 개발프로그램, 학교 준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서 출발점에서의 교육기회 형평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각 영역에 해당되는 프로그램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표 Ⅱ-1-5>와 같다.

<표 II-1-4> 드림스타트 지원 프로그램

영역	구분	해당 프로그램	프로그램 주요대상
건강	진단/검사	영양, 발육 등 건강 스크리닝	영아
		아동학대방임 예방서비스	영유아 및 학령기 아동
		정신건강 진단	유아 및 학령기 아동
		구강검진	유아 및 학령기 아동
		빈혈, 당뇨, 혈압검사	영아 및 양육자(임산부)
	방문보건	모자애착증진프로그램	영아 및 양육자(임산부)
		양육자교육	영유아 및 양육자(임산부
		보건, 양육, 교육 및 정보 제공	영유아 및 양육자(임산부)
		건강상담 및 서비스 연계	유아 및 학령기 아동 양육자
	교육/집단 프로그램	치아건강교육	유아 및 학령기 아동
		영양교육	저체중, 저신장, 빈혈, 비만아동 및 양육자
		정신건강증진 집단프로그램	사회적응훈련 필요아동
	현물/현금지원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1~12세 아동 및 가족
		검사 및 의료비 지원	치료가 시급한 아동
	지역주민지원	의료자원봉사단 운영	지역주민
		건강증진교육	
보육·교육	가정방문 프로그램	영아 발달지원 서비스 (놀이활동, 성장발달 스크리닝)	0~2세, 집중적 서비스가 필요한 3세
	기관방문 프로그램	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보육시설 이용아동 3~6세
	보육센터	부모교육	3~6세 아동부모

	프로그램	교사교육	기관 방문 중재 프로그램 실시 보육시설 교사
		주말가족 프로그램	3~6세 유아 및 가족
		예비초등학생 학교준비프로그램	예비초등학생
복지	가정방문 프로그램	멘토링 등 학령기 아동발달지원	멘토링 프로그램이 필요한 초등학생
	기관방문 프로그램	아동권리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소집단 협동학습 프로그램	
		예비중학생 프로그램	
		교사를 위한 활용교육	
	학교프로그램		

자료: www.hopestart.org(검색일: 2009년 1월 20일) 및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2008)의 내용들을 재구성함.

실질적으로 드림스타트 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지 연구진이 방문했던 I시 K드림센터의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 센터는 구의회 청사의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2007년도에 개소하였는데 지원 대상 지역은 이웃하고 있는 두 개 동이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 표와 같다.

<표 II-1-5> K드림센터 프로그램

배움터	방과 후 프로그램: 쑥쑥아이	
나눔터	열린 교실: 힘찬교실	
사랑터	유아교육중재프로그램	다솜아이 : 유아를대상으로 그림책읽기, 확장놀이 및 미술활동제공
	영아발달자극 및 발달교육	올망졸망아이/잼잼아이
자람터	초등 1학년 방과 후 프로그램: 쑥쑥아이	
알림터	특기적성, 기초학력증진프로그램, 부모교육 등	
한울터	사업총괄 업무실	

자료: 본 드림센터 팜플렛

영유아 대상의 보육·교육분야 프로그램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정방문프로그램으로 '잼잼아이'가 있고, 센터방문프로그램으로 '다솜아이'가 있다. 전자 프로그램에서는 영아를 대상으로 수준별 놀이 활동 및 다양한 놀이감을 제공하며 후자 프로그램에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그림읽기, 확장놀이 및 미술활동을 제공한다.

드림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 이외에 지역사회 시설들과 연계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건강분야와 연계된 기관으로는 국민체육센터, 종합 또는 개인 병원, 치과, 아동발달센터, 안경점 등이 있다. 보육·교육 분야와 연계된 기관으로는 피아노 학원, 음악학원, 발레학원, 학습지 등이 있으며 복지분야는 시설관리공단, 노인전문요양원, 제과점, 미장원, 은행, 복지관 등 다양한 기관들이 있으며 이들 기관들은 후원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2. 교육투 지원사업

가. 사업개요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저소득층 아동지원으로서, 2003년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출발하였다. 당시 주무 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보건복지가족부), 문화관광부 등 7개 부처가 참여하여 사업기본방향을 합의하는 등 초기 단계에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사업은 농어촌에 대한 지원정책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던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시 저소득 지역은 각종 지원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면서 2003년도와 2004년에 '인국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실행하고 2005년 이후부터는 수도권 및 광역시의 인근 중소도시 이상으로 점차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 추진되었다(김정원, 2007: 교육투 지원사업 만족도와 성과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지원대상은 도시 저소득 지역의 영유아, 초·중등학생으로 명시함으로서 드림이나 위스타트 사업과는 달리, 명시적이나마 '가족'을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지역교육공동체 구현을 통한 취약계층의 삶의 질 제고'라는 정책비전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공동체 구현을 위해 교육을 핵심 매개체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실제로 가동되는 주요 거점기관으로 초등학교를 지정하였다. 그리고 초등학교 이전 교육기관인 유아교육기관(유치원+보육시설)과 이후 교육기관인 중학교(고등학교는 불포함)도 포함하였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복지, 지원 등 5개 영역별로 나누어서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그러나 2008년도에 5개 영역 중에서 '학습' 영역이 강조되면서 사업 명칭도 변경되는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다. 요컨대 교육복지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여 사

업취지 및 내용 전달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반영함과 동시에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교육적 투자를 실시하는 사업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업명을 기존의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에서 '복지'가 빠진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으로 지난 7월에 변경되었다가 11월에 다시 삽입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상대적으로 문화·심리정서·보건·복지 프로그램은 학업동기유발, 교육과정 연계 관점에서 재검토 후, 사업추진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외의 또 다른 변화로는 지원대상 범위를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식지원 등 기존 집중지원 대상자이외에 새터민·다문화 가정 및 기초학력 미달학생까지 확대된(교육과학기술부, 2008) 점 등이 있다.

<표 II-2-1> '08년 교복투 사업 주요 변경 내용

	교육투 지원사업('03~'07)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08)	변경 사유
추진목적	교육·문화·복지 전반에 걸쳐 지원	-기초학력 보장 등 학업성취 수준 제고 노력 -학업성취 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문화결손 치유 프로그램 등 지원	직접적인 학업성취 향상을 위한 지원과 이를 뒷받침하는 영역을 구분하여 사업목표를 명확히 함.
지원대상	저소득층 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식지원, 담임추천)	-저소득층 자녀, 새터민·다문화 가정 등 새로운 취약계층 자녀 -기초학력 미달 학생	-새터민·다문화가정 자녀등을 지원대상으로 명시하여 체계적 지원 강화 -모든 학생에게 최소한의 기초학력 보장
사업비	-교과부 수준의 제약조건 없음 -시·도 교육청이 영역별 제한을 두기로 함	-영역별 사업비 제한 폐지 권고 -학습 영역 사업비 확대 권고	학교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업내용을 결정하고 사업 추진
평가	프로그램 만족도 등을 주요 평가지표로 사용	기초학력 향상 비율 등 객관적인 지표에 의한 평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타당한 지표에 의한 성과모니터링 강화
보상체제	사업관계자의 자발성과 헌신에 기초한 사업추진	사업성과에 기초한 보상 및 책무성 담보체제를 자율적으로 구축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자발성만으로 사업운영이 어려운 지역의 사업 추진 동력 마련
사업학교 조정	사업학교 조정권한은 부여하였으나 별도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한 지역 및 학교

	조정기준 없음	자녀수 평균 70명 범위에서 시·도 교육청이 사업지역 유지기준을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사업지역 내 사업학교 지정	교육여건 변화를 반영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사업 관리 역량 강화 -시도교육청 자율로 최저 생계비의 100~3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자녀도 포함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지원국, '08년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추진계획(2008, 7)

나. 추진체계

교복투 사업의 추진전략의 핵심은 학교가 지역사회의 구심체가 되어 지역의 교육·문화·복지 환경 개전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교의 기능을 강화라 할 수 있으며 여기에 교원의 적극적 참여와 전문성 신장을 위한 근무 여건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추진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추진체계는 다음 <표 Ⅱ-2-2>에 제시된 바이다.

<표 II-2-2> 교복투 사업 추진체계(2008)

추진주체	기능 및 역할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지원, 사업성과분석** 등을 통해 시·도 교육청의 자율적 사업추진을 지원
시·도 교육청	**전반적인 사업관리**, 사업지역에 대한 **컨설팅 지원**, 광역단위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지원
지역교육청	**사업학교의 자율적 사업운영 지원**, 지역기관과 연계체제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
학교	**학생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을 학교 **자율방식**으로 추진,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협력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지원국, '08년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추진계획(2008, 7)

시범사업이 끝난 2005년부터는 지역교육청에서 사업을 총괄, 지원하는 사업 전담팀을 설치하였다. 사업전담팀의 구성원은 교육복지사업전담팀장(소속과장), 담당공무원, 프로젝트조정자,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이다. 지역사회교육전문가는[7] 학교에 배치되며 학교에는 보건교사, 특수교사, 상담교사, 지역사회교육전문가로

7) 평생학습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문화복지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지역사회에 정통한 자(김정원, 2007).

구성된 교육복지전담부서를 설치하였다(김정원, 2007).

다. 거점기관: 학교

교복투 사업의 거점기관은 '학교'이다. [그림 Ⅱ-2-1]을 참조하면 학교는 초·중·고 와 함께 유치원과 보육시설도 포함된다. [그림 Ⅱ-2-1]에서 '중앙 교육투사업 지원협의회'는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 분야별(교육, 문화, 복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교복투 지원사업의 지원계획 수립과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교육인적자원부, 2003) 기구이다.

'광역 교육투사업 지원협의회는 교육청(부교육감), 시청(담당 국장),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사업에 대한 연도별 세부지원계획 수립 및 기관간 연계방안 수립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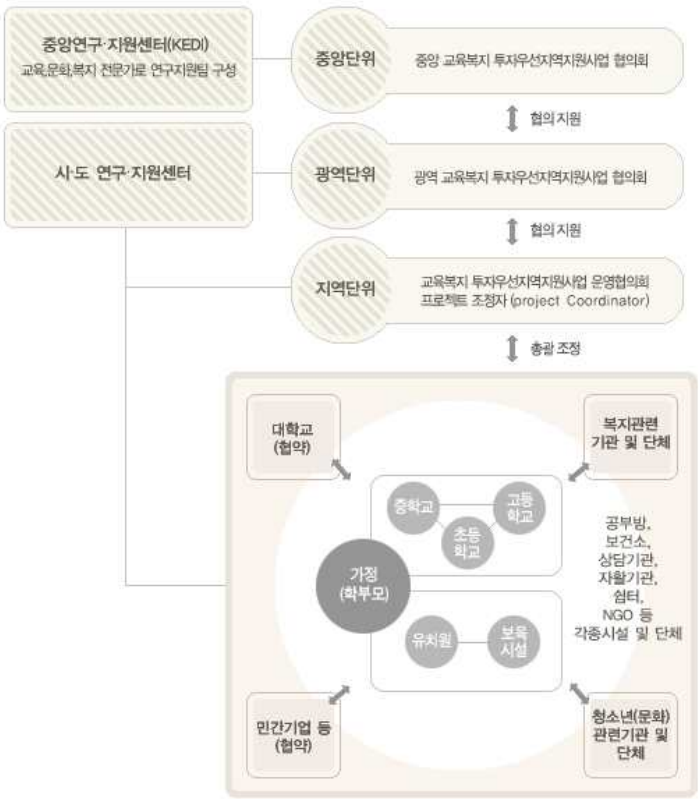
그 밑으로 지역단위에 프로젝트 조정자(project coordinator)를 배치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들의 역할은 사업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 지역사회 기관간 요구를 파악하여 연계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프로젝트 운영 및 조정을 담당하는 지역사업운영협의회 실무책임자(간사)로서 기타 실무지원팀 총괄 및 지역사회교육전문가를 돕는 일 등을 한다. 프로젝트 조정자는 지역사회 활동 경력자로 현장 실무 경력과 활동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년 계약직으로 지역당 1명을 배치하는 조건으로 교육부와 지역간의 협의를 통해 선발하고,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지원센터 주관의 연수를 실시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3).

<표 Ⅱ-2-3> 교복투 사업 프로젝트 조정자 선발 기준 및 절차

선발기준	- 5년이상 교육, 문화, 복지 등 활동 경험이 있는자 -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의 네트워크사업 활동 경험이 있는 자 - 30세 이상으로 다른 단체 등 중복업무를 하지 않고 사업에 충실할 수 있는 자 -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자 - 관련 전공자 및 지역사회운영협의회의 추천이 있는 자 가산점 등
선발절차	① 학교 및 지역 수요 파악 → ② 교육개발원에서 선발기준에 따른 인적자원 풀 작성(지역추천 및 개별 신청자 인터넷 등록) → ③ 해당 지역에 후보자 통보(5배수) → ④ 해당 지역 사업운영협의회에서 선발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3.

학교에는 '지역사회교육전문가'를 배치한다. 지역사회교육전문가는 학교와 지역사회 각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며 학생의 기본적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와 지역의 문화·복지기관, 학교와 가정과의 연계를 도모하는 일을 수행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평생학습사, 청소년상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해당 지역사회에서 관련 업무 경력자를 2년 계약으로 해당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3).



[그림 II-2-1] 교복투 사업 추진체계

출처: 교복투 사업(http://eduzone.kedi.re.kr)

그러나 교복투 사업은 실제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주된 거점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는 교복투 사업에서 저소득층 유아를 지원하기 위한 유치원의 위상

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유아교육 지원이 취약하기 때문에 서울지역에서는 지역 교육청 수준에서 민간전문인력인 '유아교육복지전문가'를 고용하여 해당 지역의 유치원에 배치해서 저소득층 유아교육 지원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현재 서울에는 8명의 유아교육복지전문가(북부, 남부, 동부, 서부, 성북, 강남, 동작, 강서)가 활동 중이다.

교복투 사업에서 유치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이유는 대상 원아 선정과 관리의 어려움에서 찾을 수 있겠다. 교복투 사업 지원 대상의 지역은 도시지역이다. 그런데 도시지역에는 공립유치원보다는 사립유치원의 수가 더 많으며 사립유치원은 상대적으로 비싼 원비로 인해 교복투 사업의 지원대상자인 저소득층 가정의 유아가 다니는 경우가 많지 않다. 병설유치원도 사정은 비슷한데, 서울 동작교육청 난곡초 병설유치원이나 북부교육청의 신상계초 병설유치원의 경우 전체 학생수 대비 수혜 대상 아동이 적어서 수혜 아동들만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추첨제를 통해 원아모집을 하는 병설유치원의 경우 이러한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장명림, 2006).

라. 현황

2003년도 시범지역으로 서울 6개 지역(강서구 2, 노원구 2, 강북구 1, 관악구 1개 지역)과 부산 2개 지역(북구 1, 해운대구 1개 지역)으로 총 8개 지역이 선정되었다. 대상학교 수는 서울 지역의 초등학교 22개, 중학교 9개 부산 지역의 초등학교 7개, 중학교 5개 등 총 43개 학교가 선정되었다. 이렇게 출발한 교복투 사업은 2008년도 현재 행정동 164동, 322 학교로 확대되어 추진되고 있다.

<표 II-2-4> 교복투 사업 연도별 수혜현황

연도	'03~'04년	'05년	'06년	'07년	'08년도
대상 지역	8지역 (서울6, 부산2)	15지역 (신규 7 : 부산1, 대구2, 인천1, 광주2, 대전1)	30지역 (신규 15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부천, 춘천, 청주, 천안, 군산, 순천, 구미,	60지역 (신규 30 : 서울13, 부산7, 대구6, 인천4, 대전4, 광주6, 울산2, 경기1, 충북2, 충남1, 전북3, 전남2,	

			마산, 제주 각 1)	경북2, 경남3, 제주2)	
지원 자격	-	광역시 이상	인구 25만 이상	인구 25만 이상	
선정 방식	지정제	공모제	공모제	공모제/지정제	
국고 지원액	238억원	110억원	209억원	374억원	252억원 (예정)
행정동	23동	32동	79동	**164동**	좌동
대상 학교	79교 (유34,초29, 중16)	148교 (유66, 초50, 중32)	260교 (유97, 초99, 중61,고3)	517교 (유195, 초187, 중132,고3)	좌동
대상 학생수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수)	40,707명 (4,758명)	75,189명 (9,765명)	153,178명 (16,719명)	326,826명 (35,110명)	

2008년도 교복투 사업 대상 학교를 연도별 및 지역별에 따른 설치 현황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II-2-5> 시도 교육청별 사업 지역 현황

선정 시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03	6	2	-	-	-	-	-	-	-	-	-	-	-	-	-	-	8
'05	-	1	2	1	2	1	-	-	-	-	-	-	-	-	-	-	7
'06	-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5
'07	7	3	3	2	3	2	1	1	-	1	-	2	1	1	2	1	30
계	**13**	**7**	**6**	**4**	**6**	**4**	**2**	**2**	**1**	**2**	**1**	**3**	**2**	**2**	**3**	**2**	**60**
시·도	서울 + 광역시 : 42							도 지역: 18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08.7

2006년 현재 교복투 사업 지원 대상 유치원은 총 97개, 보육시설은 총 111개 로 보육시설이 조금 더 많다.

<표 II-2-6> 교복투 사업 대상 유치원 및 보육시설(2006년)

시도		지역 교육청	자치구	대상유치원수			대상 보육시설수	합계
				공립	사립	계		
시	서울	강서	강서구1	1	5	6	-	6
			강서구2	1	2	3	-	3
		북부	노원구1	1	5	6	-	6
			노원구2	-	4	4	-	4
		성북	강북구	1	4	5	-	5
		동작	관악구	1	2	3	-	3
		소계		5	22	27	-	27
	부산	북구	북부	-	2	2	19	21
		해운대	해운대구	-	5	5	46	51
		서부	영도구	-	5	5	22	27
		북구	북구	-	5	5	-	5
		소계		-	17	17	87	104
	인천	동부	연수구		3	3	3	6
		북부	부평구	2	1	3	-	3
		소계		2	4	6	3	9
	대구	동부	수성구	1	2	3	-	3
		남부	달서구	1	2	3	-	3
		서부	북구	-	-	-	-	-
			서구	1	2	3	-	3
		소계		3	6	9	-	9
	대전	동부	동구	1	4	5	3	8
		서부	서구	2	-	2	2	4
		소계		3	4	7	5	12
	광주	서부	광산구	-	2	2	2	4
		동부	북구	2	1	3	-	3
		서부	서구	1	2	3	-	3
		소계		3	5	8	2	10
	울산	강북	중구	5	-	5	5	5
			동구	-	-	-	-	-
		소계		5	-	5	5	10
	계			21	58	79	102	296
도	경기	부천		1	-	1	2	3
	강원	춘천		-	2	2	4	6
	충북	홍덕		3	-	3	-	3
	충남	천안		1	2	3	-	3

시도		지역 교육청	자치구	대상유치원수			대상 보육시설수	합계
				공립	사립	계		
	전북	군산		3	1	4	-	4
	전남	순천		-	-	-	-	-
	경북	구미		-	-	-	3	3
	경남	마산		-	-	-	-	-
	제주	제주		3	2	5	-	5
	계			11	17	18	9	75
총합계				**32**	**65**	**97**	**111**	**371**

자료: 김정원 외, 2006

마. 지원프로그램

1) 전체 프로그램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결손 치유와 예방을 통해 학습동기 유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한 교복투 사업의 전반적인 프로그램으로는 학교도서관 기능의 활성화, 저소득층 학생의 기초학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확충, 헌신적이고 능력 있는 교원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다. 또한 부진학생 지도를 위해 인근 대학 등과의 연계를 통해 대학생을 자원봉사자로 참여, 보조교사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저소득층 학생의 정서 발달을 위한 문화활동 프로그램이 있다. 이를 위해 학교를 문화의 공간으로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청소년 자원봉사 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지역-학교 간 연계를 통한 특기적성 교육, 특별활동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축제의 적극적 운영 및 활성화 지원, 학생의 자기 주도적 능력 배양을 위한 학생 자치활동 강화 등이 있다. 또한 투자우선지역 내 저소득층 학생과 교사를 위한 방학 문화아카데미를 운영한다든지, 투자우선지역의 문화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후자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청소년 문화활동 장소로 각 지역별 공공시설(문화의 집, 수련관, 구민회관, 주민자치센터, 정보문화센터 등)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이 있겠다.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복지프로그램으로는 투자우선지역 내 저소득층 초등학생 대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동 지역에 운영 중인 공공 공부방 활성화 및 민간 공부방에 대한 지원 확대, 동 지역의 학교부적응 학생 예방을 위한 프

로그램 활성화, 투자우선지역 학생의 신체 발달을 위한 지원 강화 등이 있다.

<표 II-2-7> 교복투 사업의 주요 영역과 프로그램

영역	목표	프로그램 예시
학습	학력증진과 학습지원	- 도서관 활성화 사업 - 기초학력부진 학생 학습지도 - 일대일 학습지원 - 저소득층 우수학생 학생지도 - 정규 교과, 재량활동 등을 통한 체험학습 - 교과 관련 특기적성 활동
문화·체험	다양한 문화체험	- 문화 관련 특기적성, 체험학습 등 - CA를 활용한 문화 활동 - 동아리 활동 - 학습활동 - 축제
심리·정서	특별한 문제 또는 욕구충족을 통한 정신건강 도모	-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 - 가정방문 및 가족상담 - 학습장애요소 진단 및 치료 - 부적응 학생 진단 및 치료 - 멘토링
복지	건강한 신체 발달 지원 및 보호	- 방과후 교실, 야간보호교실 - 건강 검진 및 치료 - 학습 준비물 지원
지원	사업운영지원	- 학부모 연수 - 교사연수 - 사업홍보 - 지역사회교육전문가 및 교사의 사업활동지원 - 학습자료개발, 교과연구 및 교원전문성 신장

자료: 김정원, 2006.

2) 영유아 교육·보육 프로그램

투자우선지역 내 영유아들에게 질 좋은 교육·보육 프로그램의 기회균등을 보장및 제공을 위하여 '유아교육기관과 보육기관 간의 협의체제 구축'을 사업초기부터 계획한(교육인적자원부, 2003)점이 주요한 특징이라 하겠다. 이는 앞서 지

적했던 것처럼 교육부, 복지부, 문화관광부가 사업설계 단계부터 공동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내용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교육여건 개선지원을 위해 교육부(교육청)가, 보육 활성화 지원은 복지부가 적극 지원할 것 등의 내용이 문건에 담겨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3). 또한, '지역별 영유아 교육·보육기관 협의체제'를 마련해서 교육·보육 프로그램의 정보 공유 및 질 관리, 연령별·프로그램별 기관간 역할분담, 외부 기관(대학, 사회복지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체제 공동 구축을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 간의 협의를 하고, 이 기구는 학부모, 외부 전문가, 교육청·구청 담당자, 유치원, 보육시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다(교육인적자원부, 2003).

투자우선지역 내 영유아들에게 제공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저소득층 영유아의 실질적인 접근기회 향상을 위한 여건 조성', '교육·보육 통합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한 지원 확대'를 큰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표 II-2-8> 교복투 사업 영유아 교육·보육 추진방향(2003)

추진방향	저소득층 영유아의 실질적인 접근기회 향상을 위한 여건 조성	교육·보육 통합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한 지원 확대
내용	- 동 지역 공립유치원에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적으로 취원 - 일정비율 이상의 저소득층 유아에게 서비 스를 제공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시설환 경 개선 및 교재·교구비 지원 확대 - 동 지역의 보육활성화를 위한 보육시설 시설환경 개선비 지원(자치단체)	-유치원의 보육기능 확대(종일제 확대)를 위한 교사 인건비 지원 -프로그램 질 향상을 위한 유치원·보육시설 교사 연수 및 장학 지원 -투자우선지역 유아의 문화프로그램 활성화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3

<표 II-2-9> 교복투 사업 영유아 교육·보육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방향	내용
영유아의 교육·보육프로그램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기회 보장을 위한 지원확대	-저소득층 가정 및 유아의 특성을 고려한 영유아 교육복지프로그램 제공 (종일반 프로그램 영양·건강, 보건·위생, 문화체험 및 심리/정서 발달 강조)
영유아 교육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및 지역 내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내 공동협의체제 구축	·
영유아 교육복지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	-영유아 교육복지 사업관련 전문가, 지역

제고를 위한 전문 인력의 활용 및 지역 내 전문가 참여 활성화	내 공공·전문기관, 단체 및 협회 등과의 연계·협력 강화

자료: 김정원 외, 2006.

3. 위스타트 사업

가. 사업개요

2004년 3월이후 중앙일보에 '가난에 갇힌 아이들'시리즈 보도가 단초가 되어 중앙일보, 한국복지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언론사와 여러 기관 단체들은 2004년 5월 3일 '가난의 대물림을 끊자'는 슬로건 하에 빈곤 가정의 아동들을 돕기로 뜻을 모으고 We Start 운동을 출범함으로서 닻을 올렸다. 위스타트가 앞서 고찰한 사업과 달리 민간차원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다음은 초기 위스타트 사업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문구이다.

"우리(We) 모두가 나서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에게 복지(Welfare)와 교육(Education)을 지원해 공정한 삶의 출발(Start)을 돕는 시민운동입니다."(We Start 운동본부)

저소득 아동의 공정한 삶의 출발을 목적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위스타트마을 만들기, 교육출발선 만들기, 건강지킴이, 후견인 맺기, 희망의 집 꾸미기 등 총 5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5개 사업들은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선 빈곤아동이 200~300명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마을 만들기) 보건(건강지킴이), 보육·교육(교육출발선 만들기), 복지(후견인 맺기·희망의 집 꾸미기 등을 포함한 행복한 세상 만들기) 등 서비스를 3대 축으로 하는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We Start 마을 선정대상 기준은 저소득 지역(동 단위)을 기준으로 설정하되, 사업대상 아동은 0세에서 12세까지의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 아동(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기준)과 차상위계층(보육료 감면 대상기준)의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이다. 1개 마을 당 적정 사업대상 아동 수는 300명 정도로 하고 최대 500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We Start 마을 사업 표준안). 이러한 구상을 갖고 군포, 성남, 안산의 3개 마을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2004년부터 위스타트 사업이

시작되었다.

나. 추진체계

위스타트 추진체계를 위로부터 보면, 도·시군·마을 순으로 각 단위별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마을 내 '위스타트 센터'를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각 단위별로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표 Ⅱ-3-1>를 참조하길 바란다.

<표 Ⅱ-3-1> 위스타트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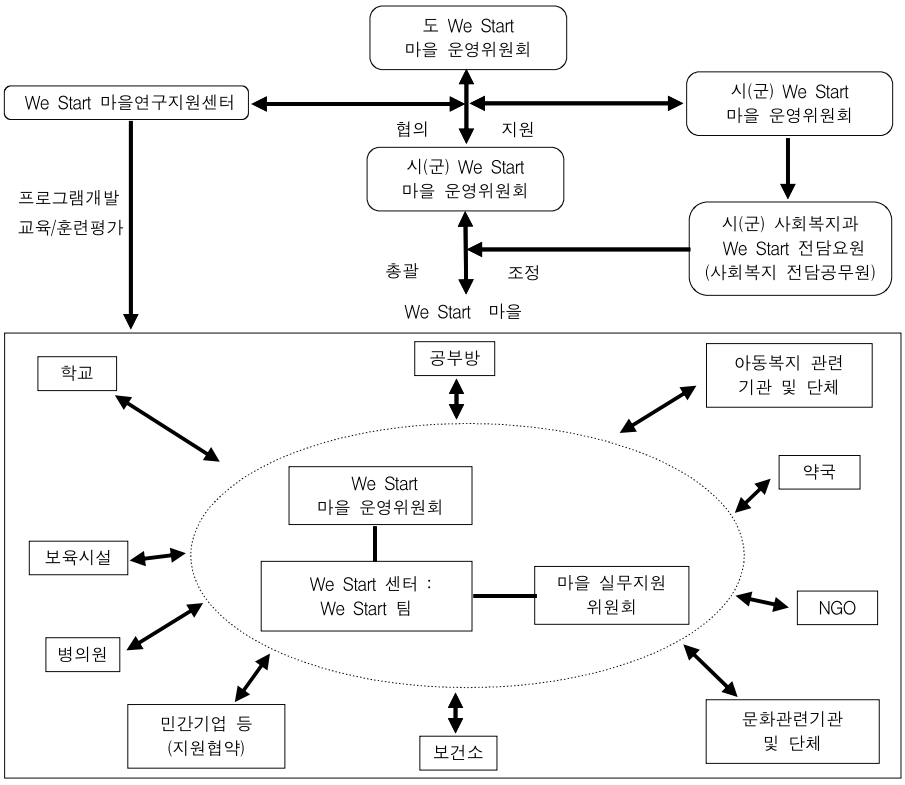
	구성	기능
도 We Start 마을 운영위원회	- 도 차원에서 지자체의 위스타트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보건 정책 실무자 위주로 구성 - 위원장은 행정(1) 부지사, 당연직 위원: 경기도 부교육감, 보건복지국장, 위스타트 마을 시·군의 부시장·부군수, 위촉직 위원: 교육·복지·보건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	-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에 자문 - 위스타트 마을 선정 -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등
시·군 위스타트 마을운영위원회	- 지자체 차원에서 교육·복지·보건 영역의 실무자 위주로 구성 -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이며, 위원은 교육·복지·보건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군수에 자문 - 지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 지자체 내의 광역 사업지원 연계망 구축의 방안 마련 등
마을별 위스타트 마을운영위원회	- 교육·복지·보건 통합 서비스 체계를 위한 지역 내 연계망 구축을 위해 지역의 다양한 인사 참여를 유도 - 지자체 단체 기관 및 사업지원, 일반 학부모·지역주민 대표 등으로 균형있게 구성	- 지역별 실정에 맞는 서비스 연계망 구성, 서비스 공급자간 역할 분담, 위스타트 마을 지역별 사업 우선 순위 설정 등 지역사회 내에서 위스타트 마을만들기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설정 - 지역 내 민·관 협력 공동체 구성방안에 관한 심의 - 위스타트 마을만들기 사업의 옹호자로서 외부자원 연계방안에 관한 심의 및 계획 수립 - 기타 지역 아동의 교육·복지·보건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위스타트 마을 실무지원위원회	- 위스타트 마을 운영위원회의 실질적 기능을 보족하고 마을 위스타트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스타트 마을 실무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 - 실무지원위원회는 위스타트 팀장이 위원장이 됨. - 구성원은 마을 내 교육·복지·보건 분야별 실무자와 변호사, 의사, 약사, 관련학과 대학교수 등 마을 내 전문 인력으로 구성	- 실무지원위원회는 사례연계, 사례지원방안, 전문적 서비스 등에 관하여 위스타트 팀을 지원하고 컨설팅 기능 담당

자료: 이봉주 외(2006)

다. 거점기관: 마을/위스타트 센터

위스타트 사업의 거점기관은 하나의 센터라기보다는 마을 전체이다[그림 Ⅱ-3-1참조]. 그림의 동그라미 점선 자체가 거점기관으로 위스타트 센터 외에 위스타트 마을 운영위원회와 마을 실무지원위원회가 포함되어 있다.



[그림 II-3-1] 위스타트 사업 추진체계도

그러나 위스타트 사업을 운영하는 인력들이 근무하는 곳은 센터이고 사업이 실제로 추진되는 곳도 센터이므로 위스타트 센터는 중추적 기관이라 하겠다. 위스타트 센터의 기능과 팀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표 II-3-2> 위스타트 팀구성원 및 주요 업무

구성원	직급	전문영역	주요 업무
위스타트 팀장 1인	6급	사회복지 (또는 사회복지행정경험자)	빈곤아동가구 총괄사례관리, 총괄책임 및 예산관리 지역자원 발굴·연계
건강조정자 1인	7급	간호	가정방문 보건서비스 제공수행, 관리 지역내 보건 연계망 구축 응급지원 서비스
보육·교육 조정자 1인	7급	보육	위스타트 영유아 프로그램 지원 및 관리,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보육·조기교육 센터 관리, 학교 내외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및 관리
복지조정자 1인	7급	복지	0~12세 아동의 가정 및 기관 사례관리 지역사회의 자원개발 및 맞춤형 연계자원봉사자 관리

자료: 이봉주 외(2006)

이외에 필요한 인력은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를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다. 외국어교육, 학습지도, 특기지도 등을 꾸준히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고 있으며 아동과 1:1 결연을 맺어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의 현금후원을 하거나 아동도서, 문구류, 의류, 장난감 등의 물품후원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다.

라. 현황

2009년 1월 현재 운영 중인 위스타트 마을은 서울, 경기도, 강원도, 전라남도의 총 23곳이다.

<표 II-3-3> 전국 위스타트 운동 사업장 현황: 23곳(2009년)

( ) 마을수

번호	지역		마을명	개소일
1	서울(2)		강북마을(번 2, 3, 5동)	05.12.13
2			강서마을(방화 3동)	05.11.28
3	경기도 (12)	성남시	목련마을(야탑 3동)	04.11.17
4			산성마을(산성동)	07.9.20
5		군포시	산본마을(산본 1, 2동)	05.2.22
6			당동마을(군포 1, 2동)	07.2.6
7		안산시	초지마을(초지동)	05.3.28
8			본오마을(본오1동)	06.8.1
9		고양시	고양마을(주교동)	06.7.6
10		광명시	광명마을(하안3동)	06.4.12
11		구리시	구리마을(수택2동)	07.2.23
12		양주시	회천마을(회천2동)	06.2.10
13			광적마을(광적면)	07.10.11
14		수원시	수원마을(우만1동)	06.6.28
15	강원도 (6)	원주시	원주마을(태장동)	08.6.19
16		삼척시	삼척마을(성남동)	08.12.30
17		속초시	속초마을(청호동)	05.11.3
18		춘천시	춘천마을(효자동)	08.7.22
19		정선군	정선마을(함백, 예미)	05.11.3
20		철원군	철원마을(화지, 월화, 관전)	05.11.3
21	전라 남도 (3)	광양읍	광양마을	07.7.5
22		장흥읍	장흥마을	07.7.13
23		진도군	진도마을	07.7.13

자료: http://westart.joins.com(검색일: 2009년 1월 20일)
참조: 개소일은 'We Start 운영센터' 개소일을 기준으로 한 것임.

가장 먼저 센터가 개소한 곳은 성남시 목련마을로 2004년 11월이며 가장 최근에 문을 연 센터는 강원도 삼척마을로 2008년 12월 30일에 개소하였다. 한편, 위스타트 마을사업의 새로운 실험으로 'We Starter 파견사업'을 추가 실시하고 있다. We Starter란 '빈곤아동복지 조정자'라는 뜻으로 빈곤아동이 밀집된 지역에 한 명의 We Starter를 파견해서 직역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아동복지, 교육·보육, 건강 서비스들을 찾아내 20~30명 핵심 관리 아동들에게 연결하는 조정자 역할을 담당한다. 2007년 3월 부산시 동구, 전주시 완산구, 청주시 상당구 3곳에서 시작했다. We Start 마을사업과 차이점은 센터를 중심으로 전문인력

5~10명이 빈곤아동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달리, We Starter 1명이 지역내 서비스를 찾아내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이다.

<표 II-3-4> 위스타트 아동복지센터 현황: 3곳(2009년 현재)

번호	센터명	센터 주소
1	청주 We Start 아동복지센터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209-6 청주사회복지관
2	전주 We Start 아동복지센터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986-5 전북종합사회복지관
3	부산 We Start 아동복지센터	부산시 동구 수정동 1169-3 부산종합사회복지관

자료: http://westart.joins.com(검색일: 2009년 1월 20일)

마. 지원 프로그램

1) 전반적인 지원 프로그램

위스타트의 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보건, 보육·교육, 복지 세 영역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있다.

<표 II-3-5> 위스타트 사업 지원 프로그램

구분	지원사업	해당 프로그램
보건 : 건강지킴이 만들기	정신보건사업	-아동행동발달척도검사 -임상심리검사(부모교육) -정서학습장애아동 치료
	건강검진사업	-아동 이동종합검진 -예방접종(간염, 독감 등) -응급의료비 지원
	구강검진사업	-치아 홈 메우기 -불소 겔 도포 등
	방문보건사업	-조기 발달 검사 -영양보충사업 -허약아동 한약 제공 등
보육·교육 : 공정한 교육출발선 만들	기초학력증진사업	-공부방 운영 및 연계지원 -야간방임 공부방 지원

기		-학습지 후원 및 지원 -소그룹 학습지도 등
	학교사회복지사업	-개별 및 집단상담 -학교적응력향상 -1대1 학습지도(멘토) -성교육 학교폭력예방
	지역보육사업	-취학전 학습준비 **-영아 가정방문 교육** **-유아 기관방문 교육** -주말프로그램
	햇빛모둠	-수영, 태권도, 영어, 아동미술, 피아노, 컴퓨터, 오카리나 등
복지 : 행복한 세상 만들기	통합적 사례관리	-아동 및 가족의 문제파악 -보건·교육·복지 분야 맞춤형 사례관리 회의(월 2회)
	가족기능 회복	-희망의 집 미기 -부모교육, 기술교육 -가족 나들이 및 캠프 등
	문화체험	-신나는 토요일 운영 -가족 및 아동 공연 관람
	We 천사되기	-러브 러브 멘토멘티 -후원사업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자료: 경기도 K시 내부자료(2008)

2) 영유아 교육·보육 프로그램

가) 영아용 가정방문 중재 프로그램

저소득층 부모의 경우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과 기술 및 관심의 부족으로 그리고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자녀를 생애초기부터 적절하게 양육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영아기 양육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만 18개월부터 36개월까지의 영아와 영아 양육자를 대상으로 교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방문프로그램의 특성은 “첫째, 지속적·집중적으로 주어져야 한다. 둘째, 전문적이면서 연령별로 우수한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중재 대상의 문제점과 필요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아동중심, 가족중심의 프로그램(공급자 중심의 프로그램이어서는 안됨)이어야 하며 넷째, 교육수혜자편에서 사용이 쉽고 간편해야 하며, 부담이 없어야 한다. 다섯째,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중재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비용이나 인력지원 등 장기적 측면에서 좀 더 효율적이며 가족에게도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위스타트에서 훈련받은 교사는 가정을 방문해서 영아와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주 1회 30분~50분간 영아의 발달을 촉진하는 활동을 소개하고, 부모에게 어떻게 영아자녀와 활동을 해야 하는가를 시범으로 보여주어 교사가 다녀간 후에 부모가 직접 한 주간 자녀와 놀이하는 법을 해보도록 격려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이를 연간 총 53회 제공한다. 교육활동 내용은 인지활동, 신체활동, 음악·미술활동, 기본생활습관, 실외활동 등 6개 활동이며 부모교육도 함께 한다. 평가는 영아와 주양육자의 참여도나 흥미를 평가하고 증진사례를 기록하여(글이나 사진 등) 가정방문자 평가회에서 보고하고 논의한다(이봉주 외, 2006).

나) 유아용 기관방문 중재 프로그램

위스타트 유아용 기관방문 소집단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현재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저임금으로 추가적인 위스타트 포괄적 프로그램을 수행할 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스타트에서 훈련받은 교사가 각 기관을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적 환경을 증진하기 위해 2주에 한 번씩 우수한 그림책 1권을 유아 편에 가정에 보내주고 부모의 자녀교육방법을 향상시키고자 안내하고 교육한다.

기관방문 중재프로그램의 대상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다니는 만 3세부터 취학 전 유아이다. 취학 전 유아의 경우는 유아가 다니고 있는 기관(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교사가 방문해서 교육·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대상 유아들은 혼합연령으로 그룹을 구성되며 위스타트 방문교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니고 있는 기관을 방문해서 그림책을 활용하여 3~7명의 소집단으로 활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용되었던 그림책은 유아 1명당 1권씩 가정에 제공함으로써 가정의 교육환경을 증진하고 가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책을 읽도록 격려하며 부모가 함께 자녀 교육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같은 교육활동은 연간 총 52회이며, 활동내용은 그림책 읽기 활동과 그림책 읽기에 대한 확장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확장 활동은 언어, 수·과학, 기본생활습관 관련 활동으로 되어 있다.

평가는 기관방문교사가 유아들의 참여도나 흥미를 평가하고 증진 사례를 평가지에 기록하여 기관방문자 평가회에서 보고하고 논의한다. 매월 4회의 활동이

끝날 때 마다 기관방문교사들이 모여서 지난 4회의 활동을 집단별로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지를 모으며, 문제점을 토론하고 해결책을 도출하도록 관리한다. 추후 진행할 4회의 활동자료를 기관방문자에게 소개하고 역할놀이를 통해 활동을 충분히 익히도록 한다.

또한 유아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집단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주 교육내용은 가정에서의 언어 및 인지활동, 기본생활습관 증진에 대한 내용으로 하며, 구체적인 책읽기 모델을 보여주어 가정으로 보내진 책을 활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러한 영유아 중재 프로그램이 실제로 운영되는 사례를 보면 다음 <표 Ⅱ-3-6>는 연구진이 방문한 K시에서 운영하는 위스타트 사업 중 보육·교육지원 사업의 세부내용이다. 영유아에게는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미취학 아동에게는 학습준비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

<표 Ⅱ-3-6> 위스타트 보육·교육 지원사업(K시)

사업명	세부 내용
교육지원	-보육·교육 지원서비스 시간: 14:00~18:00 정원: 만 3세~만 5세 15명 내용: 한글, 수, 레고, 오르다, 독서지도, 과학, 종이접기 등 -유아기관 방문교육서비스 위스타트 대상 유아 입소어린이집 방문수업(주 1회) -영유아 가정방문 교육서비스 18~36개월 아동(주1회) -K-ABC 학습준비도 검사
정서지원	문화체험, 주말교육프로그램
가정지원	부모자립지원, 부모교육

자료: 경기도 K시 팜플렛(2008)

4. 삼성어린이집 포괄적 보육서비스

가. 사업개요

삼성 포괄 보육서비스는 “달동네 저소득 빈곤탈출”이라는 삼성보육사업의 근본취지를 목적으로 저소득가정 어린이를 위한 포괄적 보육프로그램 개발에 필요성 차원에서 1999년부터 삼성복지재단에서 추진한 사업이다. 포괄적 보육프로그램의 개발과정은 다음과 같다. 1차년도인 1999년도에는 포괄적 보육서비스 대상 아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대상 삼성어린이집 2개소의 저소득층 아동이 속한 지역사회의 배경, 사회·경제적 특성, 사회·문화적 특성, 가족관계 및 자녀양육 방식, 아동의 발달적 특성 등을 문헌조사, 설문지, 검사, 면접을 통해 파악하였다. 이를 기초로 포괄적 보육서비스의 이론적 기초를 수립하였다. 2000년도 2차년도에는 각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 입소 후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기록한 각 아동의 관찰일지, 놀이에피소드와 가정환경 사항, 연구자들의[8] 직접 관찰 및 다양한 검사 실시, 교사들의 수차례 회의 등을 통해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보육 목표와 내용, 경험 선정과 보육방법의 근거를 수집하였고, 그 결과 1차 보육과정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개발한 프로그램은 2001년 3차년도에 서울, 부산, 전주 3개소 어린이집에서 한 학기 동안 직접 실시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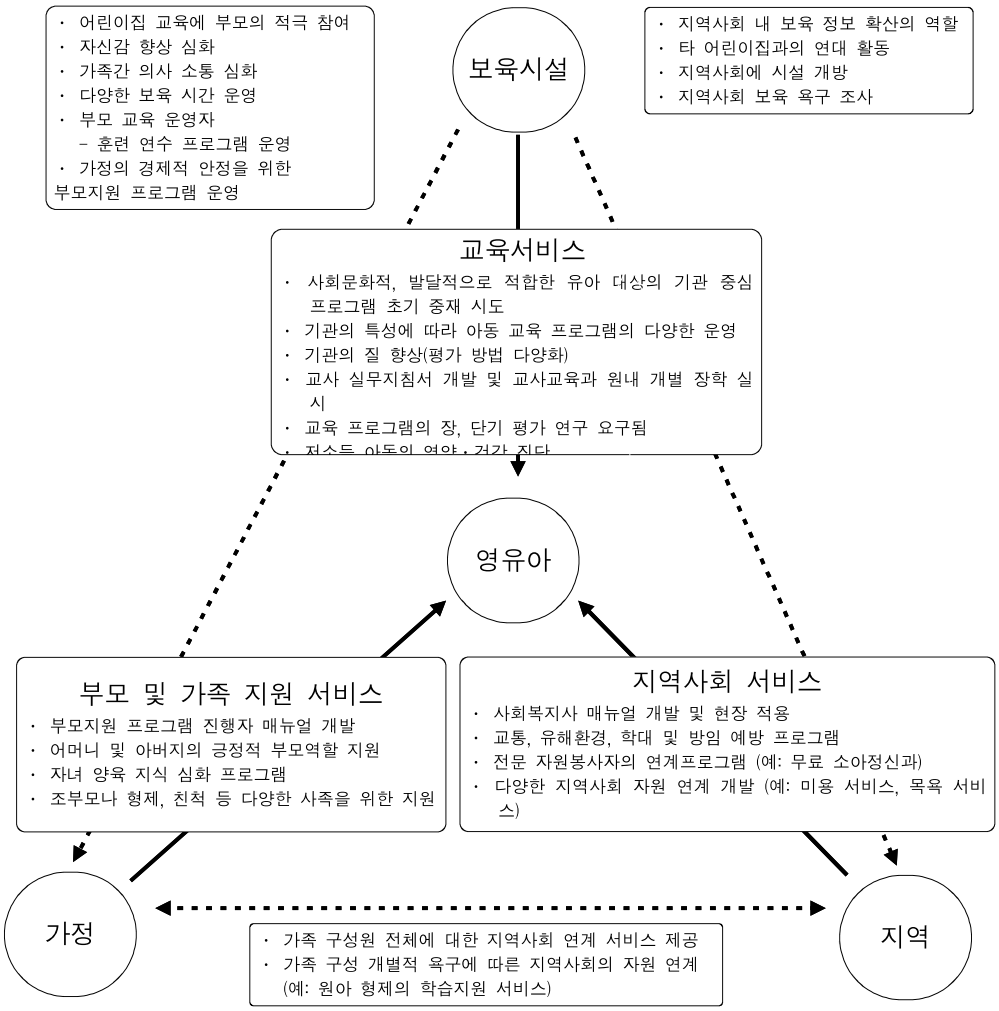
4차년도(2002)에는 2개소 어린이집을 추가(부산, 대전), 총 5개소 어린이집에서 본 보육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도 재차 수정·보완되었다. 5차년도(2003)에는 서울의 구로삼성과 전주의 전주삼성 어린이집 2곳을 더 포함하여 총 7개소가 되었으며 이후 6, 7차년도에는 원주, 인천, 대구의 삼성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이론적·실정적 이해를 위해 직접 현장 장학과 집단 교사교육(서울)을 실시하였다(김명순·이미화, 2005).

---

8) 포괄보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처음부터 아동가족학, 유아교육학, 사회복지학, 여성학의 연구진들 뿐 아니라 저소득 유아를 지도하고 있는 원장 및 경력보육교사를 포함하였다(김명순·이미화, 2005).

나. 추진체계

삼성포괄 보육서비스는 삼성어린이집을 거점기관으로 해서 영유아, 가정, 지역을 연계하는 전략이다.



[그림 II-4-1] 삼성포괄보육서비스 체계도

다. 거점기관의 현황

거점기관은 삼성어린이집으로 현재 삼성어린이집은 전국 44곳(직장어린이집 11곳 포함)으로. 서울, 경인(인천), 강원, 중부, 호남, 부산, 영남, 제주 지역 등 전국 도시지역에 주로 설립되어 있다. 이 중 포괄 보육서비스를 실시하는 삼성어린이집은 2008년 기준 18곳이다.

<표 II-4-1> 전국 삼성어린이집 중 포괄보육서비스 지원 어린이집 현황(2008)

지역	어린이집 이름	포괄보육서비스 지원
서울	선릉, 구로, 상계, 양천, 신당, 상봉, 이태원, 쌍문	2곳(총 8곳)
경인	인천, 안양, 성남, 노블C., 의정부, 부천, 안산	5곳(총 7곳)
강원	원주, 강릉	2곳(총 2곳)
중부	대전, 청주	1곳(총 2곳)
호남	광주, 전주, 덕진, 익산	3곳(총 4곳)
부산	양정, 수정, 사하,	2곳(총 3곳)
영남	대구, 구미, 울산, 마산, 포항, 김해	3곳(총 6곳)
제주	제주	-(총 1곳)
합계	**총 33곳 중 18곳**	

자료: 어린이집 명단은 삼성복지재단 웹사이트(http://welfare.samsungfoundation.org: 검색일 2009년 1월)
참조: 포괄보육서비스 지원여부는 삼성복지재단 담당자가 구두로 알려줌.
직장어린이집은 포괄보육서비스 대상 어린이집이 없는 관계로 제외함.

<표 Ⅱ-4-1>에서 알 수 있듯이 삼성어린이집은 전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데, 중부와 제주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는 최소 1개 이상의 삼성어린이 집에서 포괄보육서비스를 지원되고 있다.

라. 지원프로그램

삼성포괄 보육서비스에서 주력해서 개발한 것은 보육프로그램이다. 몇 년에

걸쳐 수차례의 시범 적용, 수정·보완의 단계를 거치면서 나온 만큼 본 보육프로그램은 총 3권의 분량으로 상세하게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는 지면 관계상 각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 중심으로 소개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료를 참조하길 바란다.

1) 아동교육 프로그램

영유아의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하도록 하여 자신감 있고 유능하며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며 좋아하는 것에 몰두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심신이 건강한 유아로 성장하는데 목적을 두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표 II-4-2> 삼성포괄보육서비스 아동교육프로그램 목표·내용·교수방법

목표	내용	교수방법 (교사의 역할)
정서적인 안정감이 있으며 적절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자기를 통제할 수 있다.	-자기 감정을 조절한다. -자신감을 갖고 성공하고자 노력한다. -자기 자신을 스스럼없이 표현한다. -끝까지 과제를 완수한다. -어려움이 있을 대 적절한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한다.	1. 유아들의 발달수준을 이해하고 그들의 발달수준에 적합한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2. 안전하고 건강하며 교육적인 환경을 구성하고 유지해야 한다. 3. 유아의 흥미에 맞게 놀이활동을 계획하여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놀이를 안내하고 개입하여야 한다. 4. 유아를 관찰하고 정확히 판단 평가하여 유아 개인에 대한 이해를 하고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5. 온화하고 수용적인 태로로 유아와 행복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 6. 기본생활 습관과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7. 사회적 관계와 태도, 행동에 모델이 되
놀이에 몰입하며 협동 및 극화놀이를 즐긴다.	-주위의 사건이나 사물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다. -놀이를 스스로 선택하고, 지속하며 확장한다. -다양한 놀이에 즐겁게 참여한다. -협동 놀이를 즐긴다.	
기본생활습관을 바르게 형성하고 자조능력을 기른다.	-기본 규칙을 알고 실행한다. -자신의 책임을 알고 수행한다. -요구를 조절한다. -손이나 이를 닦고 옷을 단정하게 입는다.	
효과적인 의사소통능력을 기른다.	-다양한 어휘를 이해하고 사용한다. -주의깊게 필요한 이야기를 듣는다.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경험, 견해를 상황에 적절히 전달한다. -발음을 정확하게 보다 긴 문장으로 말한다. -다른 사람의 지시를 듣고 이해한다.	
읽고 쓰기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한다.	-인쇄물에 대한 개념을 갖는다. -책을 다루는 방법이나 책과 관련된 활동에 흥미를 갖는다. -그림책 이야기나 동시를 이해한다. -글자에 흥미를 가지고 친근한 단어(자신의 이름 등)을 쓴다.	
기본적인 수과학 개념을 형성한다.	-간단한 수개념, 일대일 대응을 안다. -수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많다/적다 등 사물의 수를 비교하는 용어를 이해하고 사용한다. -도형, 색깔, 방향, 위치, 크기, 순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관련 어휘를 이해한다.	

친사회성을 증진하여 또래와의 친근한 관계를 지속하도록 한다.	-친구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한다. -타인의 생각과 느낌을 존중한다. -친구들과 서로 협동한다. -친구의 어려움이나 감정을 공감하고 도움을 준다.	고 적극적인 지도를 하여야 한다. 8. 기본적인 개념과 언어발달을 도울 수 있는 흥미로운 활동을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9. 유아들 부모에 대한 정보와 이해를 가지고 부모를 돕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여야 한다. 10. 유아, 가족, 지역사회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이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것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갖도록 한다.	-새로운 방식으로 사고하는 것을 즐긴다 -융통성있게 대처한다. -자신의 학습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신체가 건강하며 대·소근육이 정교하게 조절한다.	-다양한 운동기술을 발달시키고 운동하길 즐긴다. -대근육을 균형있게 사용하며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다. -손과 눈의 협응이 이루어지며, 소근육 사용에 힘이 있고 도구(가위 등)를 정교하게 사용한다.	

자료: 김명순·이미화, 2005

2) 부모지원 프로그램

포괄적 부모지원 프로그램의 목적은 기관마다 매우 다양하나 1)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도록 돕는 것 2) 온 가족의 교육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것 등 두 가지 상위목적이 반영될 것을 주문하였다. 이를 기초로 각 어린이집의 실정에 맞게 다양한 부모지원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는데 다음은 그 일부 사례이다.

<표 II-4-3> 삼성포괄보육서비스 부모지원프로그램 사례

기관명	목적·목표	프로그램내용
B어린이집	1. 부모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킴 2. 자녀양육에대한 실질적인 정보와 지침을 제공하여 자녀양육을 지원함	-프로그램오리엔테이션 -나의 자화상 그려보기 -자녀양육정보 -부모로서의 가치관 명료화 -자녀의 성교육 -부모로서 장점/자신감 찾기 -문화체험: 가족과 함께 놀이동산 나들이 -함께 가는 길: 사회적 지지망 확인, 스트레스 완화
C어린이집	1.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감 형성 2.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제공 3. 자녀가 기본생활 습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하는 부모의 능력 향상	-일상대화의 분석 -효과적인 대화 방법 -대화의 기본 태도 -자녀 훈육의 올바른 태도 -성교육

D어린이집	1. 부모로서의 자신감 향상 2. 유아의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과 다른사람과 즐겁게 생활하는 태도를 기름. 3. 부모-자녀 간의 관계 강화 4. 부모들 간의 비형식적인 지지와 정보교환 촉진 5. 어린이집-가정 간의 유대강화와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도를 높임	-친화의 시간: 기관과 부모, 참여한 부모들 간 친밀감 형성하기 -동화 활동 워크숍 -조부모-손자녀 가정에서의 조부모 역할 워크숍 -부모-자녀 대화기법 -놀이동산 가족나들이 -사랑의 우체통: 편지를 통해 교사와 자녀에 대해 상담하기 -자녀와 함께 송편 만들기 -도자기 굽기 가족 나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자녀에게 줄 선물 만들기

자료: 김희진, 2005.

3)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내에서 다시 아동지원 서비스, 가족지원 서비스, 지역사회 서비스의 하위단위로 구분된다. 여기서는 아동지원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연계한 사례를 제시하겠다.

<표 II-4-4> 삼성포괄보육 서비스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사례

프로그램	목적	대상	장소 (연계되는 지역시설)	수행인력
언어치료 프로그램	언어발달이 늦은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진단 및 평가를 통해 언어발달 지체 및 언어장애를 조기에 발견하여 그 유형과 언어수준에 적절한 치료 및 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언어지도와 언어발달을 도모하고자 함	사례회의를 통해 치료의 필요성이 제기된 아동	김OO 언어행동교육원	사회복지사 언어치료사 자원봉사자
놀이치료 프로그램	아동이 치료사와 지속적인 안정관계를 통해 타인에	저소득층 아동 중 놀이지도가	OO아동가족연구소 OO종합복지관 놀이치료실	사회복지사 놀이치료사 교사

	대해 긍정적 감정이 형성되고 정서적 불안정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함.	필요한 아동		
특기지원 프로그램	특정분야에 소질을 보이는 아동이 가정형편이 어려워 소질을 개발하기 어려운 경우, 주변의 교육기관을 연계하여 특기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만 5세반 저소득층 아동 중 의뢰된 아동	OO예술 피아노 학원, OO미술학원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자료: 삼성아동교육문화센터, 2006.

5. 소결

가. 공통점

지금까지 실행 중인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별로 연혁 및 개요, 추진체계, 현황, 프로그램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각 사업을 면밀하게 고찰하면서 사업들 간의 차이점과 공통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공통점을 먼저 살펴보면 첫째, 분석한 4개 사업의 추진 목적은 같다고 볼 수 있다. 가난의 대물림이란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마련하기 위해 아동,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사회 자원을 가지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동일 목적을 갖고 추진되고 있다. 둘째, 이들 사업의 키워드는 “연계”이다. 연계라는 용어에는 이미 협력(조)을 내포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검토된 바, 저소득층 가구와 아동은 단편적인 문제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지원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 때 ‘연계’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연계를 통해 저소득층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과 수행해야 하는 인력(전문가)연계가 함께 작동되어야 한다. 이는 기관과 인력 (전문가)의 지속적이면서 원활한 공급을 전제로 할 때만 가능한 일이다.

둘째, 4개 사업의 지원 대상 아동 중 영유아는 공통적인 지원대상이다. 교복

투는 영유아 및 초중등학생, 드림스타트는 임산부 및 0~12세, 위스타트는 0세~12세, 삼성포괄 보육서비스는 삼성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라는 점에서 영유아는 이들 사업의 공통 대상이다. 교복투 사업은 지원 대상 아동 연령대가 가장 크지만, 실제로 영아는 아직까지 사업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자문회의).

셋째, 프로그램의 유사성이다. 특히, 영유아 프로그램은 각 사업별로 차별성을 찾기가 어렵다. 건강, 교육·보육, 복지 크게 3 영역으로 구분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각각의 전문가를 배치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점에서 유사하다.

넷째, 4개 사업 모두 개별(사례)관리를 강조, 강화하면서 어떤 획일화된 통합서비스가 아닌 각 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차이점

한편, 4개 사업이 같은 목적을 추구하지만 그 목적을 달성위한 과정은 조금씩 다르면서, 차이점들이 발생한다. 이러한 차이점은 각 사업만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첫째, 드림과 위스타트 사업의 대상범위는 행정동 단위의 '지역(마을)'이란 점에서 동일하지만, 교복투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들이 밀집되어 있는 '학교' 단위라는 점에서 앞의 두 개 사업과 차별된다. 교복투 사업은 학교가 중심이기 때문에 몇 개의 행정동을 걸치고 있다. 한편, 행정동 단위롤 지원하는 사업들의 경우 저소득 가구라 하더라도 지원사업 대상 지역(행정동)에 거주하지 않으면 지원사업을 받을 수가 없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9)]

둘째, 거점기관이 다르다. 드림은 드림스타트센터, 위스타트는 위스타트센터를 포함한 마을전체이며, 교복투는 학교(초·중·고, 유치원과 보육시설), 삼성포괄 보육서비스는 삼성어린이집이다.

셋째, 각 사업의 주관하는 주체가 다르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 중에 영유아를 지원한다는 목적과는 달리, 실제로는 관할 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유치원 혹은 보육시설이 연계기관에서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다. 정책적 시사점

정부주관 하에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지원의 역사가 길지 않은 시점에서 선부

9)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겠음.

른 문제제기는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 각 사업의 공통점과 차이점의 분석을 토대로 제언을 한다면 각 사업들 간의 윈윈(win-win)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민간기업에서 하고 있는 삼성포괄 보육서비스는 논외로 하더라도,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하고 있는 나머지 3개 사업은 자신의 사업을 특화해 나가면서 동시에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하겠다. 각 사업별로 지원대상 영유아를 연령에 따라 구분한다거나, 지원 프로그램을 특화할 것을 조심스럽게 나마 제안한다. 예컨대 교복투 사업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영아를 사업대상으로 굳이 포함할 필요는 없으며, 드림스타트 사업에서 학령기 아동(초등학생)의 학업(교육)까지 '무리하게' 지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각 부처의 고유 업무 영역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각 사업들 간의 유기적 연계를 하는 윈윈(win-win) 전략을 함께 추구하는 운영의 묘를 발휘한다면, 수요자들에게 체감도 높은 실효성있는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표 II-5-1> 각 사업별 비교표

	교복투 지원사업	위스타트	드림스타트	삼성 포괄 보육서비스
주부처	교육과학기술부(교육인적자원부) -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등 7개부처참여, 사업기본방향을 합의.	* 지방자치단체	* 보건복지가족부	* 삼성복지재단
대상지역 및 대상아동	도시 저소득지역의 영유아, 초·중등학생	* 빈곤지역 저소득층 아동인구 300~500명 지역의 0세~12세(영유아, 초등학생)	* 시군구 빈곤가구 밀집지역(1~2개 읍면동)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층 가정의임산부 및 0~12세 아동(지역당 300명 내외)	* "달동네 저소득 빈곤탈출"이라는 삼성보육사업의 근본취지를 위해 저소득가정어린이를 위한 포괄적 보육프로그램 개발에 필요성차원에서 시작.
목표	교육·문화·복지가 연계된 도시 저소득지역에 교육복지대책 수립	* 사회모두가 함께 인생의 출발선에서 있는 빈곤층 아이들에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본교육, 복지기회 제공, 질병진단, 심신치료, 인권보호 추진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끊는데 사업목적이 있음. 'WE'의 두 가지 의미 ① 사회모두 ② 복지(W) + 교육(E)	* 빈곤의 대물림을 끊기 위한 선제적 아동투자사업으로 드림스타트 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아동대상 보건·건강·교육·복지·문화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시작 및	* 2003년도 시범사업으로 출발. - 03년/04년 인구100만 이상 특별	* 2004년초: 중앙일보 "가난 속에 갇힌 아이들"	* 2008년 시작 * 향후계획	* 1999년

	교복투 지원사업	위스타트	드림스타트	삼성 포괄 보육서비스
전개	시, 광역시에 시범적으로 시행 ※시범지역(8개): 서울6개, 부산2개 *2005년도부터 본격화 - 05년 인구 50만 이상의 수도권 및 중소도시이상으로 확대(7개 지역 추가: 부산, 광주, 인천 1, 대구, 대전 1) - 06년 인구 25만 이상 중소도시로 확대(15개 지역 추가, 총 30개 지역) *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참여(2006)	* 2004년 4월 'We Start 운동' 준비위원회구성(사회단체, 복지시설, 언론, 정부) * 2004년: 경기도 We Start마을 만들기 사업	08년: 32개소(드림스타트 센터) 09년: 75개소 10년: 141개소 12년: 207개소	
현황(2007)	* 총 60개 지역(신규 30개 지역)	* We Start 마을 23곳(2009)	*Dream Start센터(32개소: 2009)	
거점 기관	* 초등학교 중심으로 하되, 이전 교육기관으로 유아교육기관(유치원+보육시설)과 이후 교육기관인 중학교를 포함(고등학교 불포함).	* We Start 운동본부(총괄) * We Start센터(We Start팀) -마을실무지원위원회 * We Start 마을운영위원회 ※ 이들 기구를 중심으로 학교, 보	* Dream Start센터	* 삼성어린이집

	교복투 지원사업		위스타트	드림스타트	삼성 포괄 보육서비스
			육시설, 공부방, 병원, 보건소, 약국, 기타아동복지기관들이 연계되어 있음		
예산 추이	* 03년~04년: 총238억원 지원 -평균 1 지역: 15억 내외 * 05년 총160억 국고 110억, 시·도 교육청대응투자 50억) * 06년 총268억(국고 209억, 대응투자 59억) ※ 05년부터 연차별로 달리지원(1차년도 지역별로 10억 내외, 2차년도 이후 지역별로 5억원 내외)			* 07년: 48억원 * 08년 96억원(지역당 3억원 지원) - 지방비 부담 1.5억, 지역자원연계 실적 1억원을 포함하면 지역당 5.5억 예산 투입효과	
사업 지원 체제	官	*중앙: 중앙교복투우선지역사업지원협의회 *지역: 광역교복투우선지역사업지원협의회		*	
	연구지원	* 중앙: 한국교육개발원(05년에 지정)			

	교복투 지원사업	위스타트	드림스타트	삼성 포괄 보육서비스
	* 시·도: 시·도 연구지원센터(팀); 운영방식은 지역마다 다름. * 교육청 직영: 시도 교육청 담당팀 * 위탁운영: 인천, 대구 2곳			
사업 추진 체제	* 초기: 교복투우선지역사업운영협의 회(지역별로 구성된 의사결정 기구)에서 '프로젝트조정자' 선발, 배치, 주요 역할을 담당케 함. * 05년부터: 지역교육청에서 사업을 총괄, 지원하는 사업전담팀을 설치. 사업전담팀: -교육복지사업전담팀장(소속과 과장, 교복투선지역사업운영협의회 간사) - 담당공무원,	* 민간전달체계 We start팀: 팀장; 사회복지사 1인(총괄담당) 간호사 1인(보건담당) 보육교사 1인(보육담당) 사회복지사 1인(복지담당) * 공적전달체계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되는 체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됨.	* Dream Start센터 (전담공무원 3명, 민간전문인력 3명)	교직원 팀: - 원장과 교사 - 간호사 - 사회복지사 - 영양사 *서비스 구성요소 1. 아동지원서비스 2. 가족지원서비스 3.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교복투 지원사업	위스타트	드림스타트	삼성 포괄 보육서비스
	- 프로젝트조정자 - 지역사회교육전문가 (학교배치; 평생학습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문화복지 관련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지역사회에 정통한 자) * 학교: 교육복지전담부서 설치(보건교사, 특수교사, 상담교사, 지역사회교육전문가로 구성)	* We Starter(빈곤아동복지조정자) : 2007년 3월부터 부산시 동구, 전주시 완산구, 청주시 상당구 3곳에서 시작했으며, We Starter는 1인이 지역내 서비스를 찾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		4. 교사지원 서비스
주요 사업 내용	* 주요영역: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복지, 지원(사업운영지원)	* 영유아 (장기)중재프로그램의 실행평가 -필수 프로그램: 영아용 가정방문프로그램 + 유아용 기관방문프로그램 -개별 프로그램: 가정, 지역에 따라 *초등학생: tutoring 또는 자원봉사자와 1:1 *부모, 교사, 시설장, 관련행정가 대상으로 규칙적인 교육 및 워크숍 실시	*건강, 복지, 보육·교육분야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삼성어린이집은 영유아, 여성, 가정, 지역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적인 보육시설이며 저소득층 지역에 위치한 삼성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는 영유아 보호와 교육,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및 지원,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을 포함하여 '삼성포괄적 보육서비스'

	교복투 지원사업	위스타트	드림스타트	삼성 포괄 보육서비스
				라 함.
특징	* 2005년부터 본격화 * 도시 저소득층 지역(시도) * 초등학교가 main station * 민+관(여러 부처가 관여) * 유치원+보육시설	* 언론보도(중앙일보)에서 출발 * 점차 민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주체가 이동하고 있음. * We Start마을에서 유치원은 빠져있음 * 2005년부터 본격화	* 연계기관에서 유치원은 빠져있음 * 시군구 중심	* 시행주체가 민간기업임 *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임. * 삼성어린이집이 main station
출처	김정원(2007), 교복투지원사업 만족도와 성과분석	김미숙(2007), 한국의 아동빈곤실태와 빈곤아동지원방안(보사연 수탁연구); 장명림(2006), 교육투지원사업 영유아교지통합서비스제공방안연구(교육부수탁연구)		*삼성아동교육문화센터(2005), 포괄적 보육서비스 *삼성어린이집 포괄적 보육서비스에 대한 종단적 연구-2차 결과보고서-

Ⅲ. 국외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 및 종단연구

본 장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동지원사업들에 가장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여기지는 대표적인 국외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으로 미국의 헤드스타트와 영국의 슈어스타트 프로그램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영유아 프로그램의 조기개입으로 인한 프로그램들의 경제적 효과 정도를 알아보고, 각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들의 주요 논의점을 알아보기 위해 이루어진 세 가지 주요 종단연구, Perry Preschool Project(PPP), Abecedarian Project(ABC), Chicago Longitudinal Study(CLS)를 고찰하겠다. 이러한 종단 연구의 결과들은 저소득층 영유아를 위한 조기 중재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1. 헤드스타트(Head Start)

가. 사업의 배경

1960년대 초 미국사회는 빈곤의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빈곤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아기 양육단계에서 부터의 개입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미국정부는 1964년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경제기회법(Economic Opportunity Act)을 제정하고, 경제기회국에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65년 존슨 대통령은 헤드스타트(Head Start) 프로그램을 시작하였고, 이는 유아기 개입에 대한 최초의 포괄적 접근이며 미국 연방 정부 차원의 최초의 프로그램이기도 하였다.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은 아동은 물론 부모도 그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김용미, 2007, 신화식외, 2004)).

Abecedarian Project 과 Perry Preschool Program 과 같은 조기 중재 프로그램의 경제적 효과와 가정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 영아와 가정에 중요한 장기적 효과를 나타낸다고 밝힌 연구들에 기초하여 만 3세 이전의 예방적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이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치료를 하는 것보다 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94년에 조기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1995년 이후에는 3세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가정 방문, 기관 중심, 또는 가정 방문과 기관 중심 중에서 선택하는 형태의 조기헤드스타트(Early Head Start)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은 임신부들의 건강한 출산과 영아의 발달을 조장하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Roopnarine & Johnson, 2005).

나. 사업의 현황[10)]

1) 대상

미국 연방 정부의 보건인적자원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가 매해 제시하는 빈곤선(poverty guidelines) 기준에 근거하여 저소득층으로 신청한 3~5세 유아와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2007년 헤드스타트 법이 재인준을 받기 전 까지는 프로그램에 등록된 아동은 연방정부의 기준선에 못 미치는 수입을 가진 가정의 유아가 80%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10%는 빈곤선을 조금 상회하는 가정의 유아가, 그리고 나머지 10%는 장애를 가진 유아가 차지하였다. 그러나 2007년 재인준을 받은 헤드스타트 법에서는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서 등록 가능한 아동의 35%까지는 빈곤층 상위 13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도 등록 가능하도록 수혜대상의 범위가 상향 조정되었다(NIEER, 2008; 조은경, 김은영, 2008).

2006년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 관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미국 내 50개주와 district of Columbia, Puerto Rico, Virgin Islands를 포함하여 모두 909,201명의 아동이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다. 참여 유아의 연령으로 4세가 5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세 36%, 3세미만 10%, 5세 이상이 3%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인종으로는 흑인/아프리카 미국인 30.7%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백인 39.8%, 히스패닉(스페인계) 34%, 기타 16.2%, 혼혈인 6.4%, 원주민이 4.2%, 아시아 1.8%, 하와이/태평양섬 0.9%순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최근 자료인 2008년도의 통계에 의하면, 미국 내 50개주와 district of Columbia, Puerto Rico, Virgin Islands를 포함하여 모두 908,412명의 아동이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다. 2008년도에 비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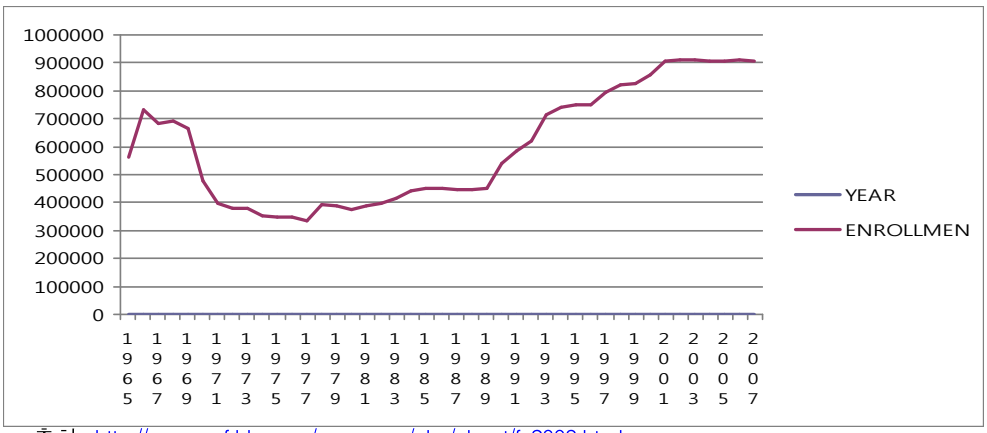
10) 출처: http://www.acf.hhs.gov/programs

으로 나타났다. 즉, 참여 유아의 연령으로 4세가 5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세 36%, 3세미만 10%, 5세 이상이 3%로 나타났다. 인종은 대상자의 인종으로는 흑인/아프리카 미국인 30.1%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백인 39.7%, 히스패닉(스페인계) 34.7%, 기타 18.8%, 혼혈인 4.9%, 원주민이 4.0%, 아시아 1.7%, 하와이/태평양섬 0.8%순으로 구성되어 있었다(<표 Ⅲ-1-1> 참조).

<표 Ⅲ-1-1>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대상자 구성(2006, 2008)

등록		909,201(2006)	908,412(2008)
연령	5세 이상	4%	3%
	4세	51%	51%
	3세	35%	36%
	3세 미만	10%	10%
인종구성	원주민	4.2%	4.0%
	흑인	30.7%	30.1%
	백인	39.8%	39.7%
	아시아인	1.8%	1.7%
	하와이/태평양섬	.9%	.8%
	혼혈인	6.4%	4.9%
	기타	16.2%	18.8%
	히스패닉	34%	34.7%

출처: http://www.acf.hhs.gov/programs/ohs/about/fy2008.html



출처: http://www.acf.hhs.gov/programs/ohs/about/fy2008.html

[그림 Ⅲ-1-1] 헤드스타트 등록인원수 추이

2006년에 비해 2008년에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등록자 수가 감소한 것은 최근 들어 삭감된 프로그램 예산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연방정부에서 지원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 등록한 인원수 변화추이는 다음과 같다(그림 Ⅲ-1-1 참조).

2) 재정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총 운영비용의 80%를 연방정부의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적으로 노동력과 시설제공과 같은 서비스 형태로 부담하고 있다. 대부분의 다른 연방정부의 예산과 달리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주연방(state)을 통하기 보다는 연방정부로부터 직접 예산을 지원받는다.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총 운영비의 20%에 해당하는 비용을 주정부 예산 및 비영리단체의 활동이나, 개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 등으로 충당하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 "헤드스타트연합"(National 헤드스타트 Association - NHSA :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의 정책을 홍보하고, 프로그램의 수혜 아동과 그의 가족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사립비영리단체)은 일반인들의 기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운영기관은 연방정부가 정한 헤드스타트 수행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에 미달되면 정부 보조가 중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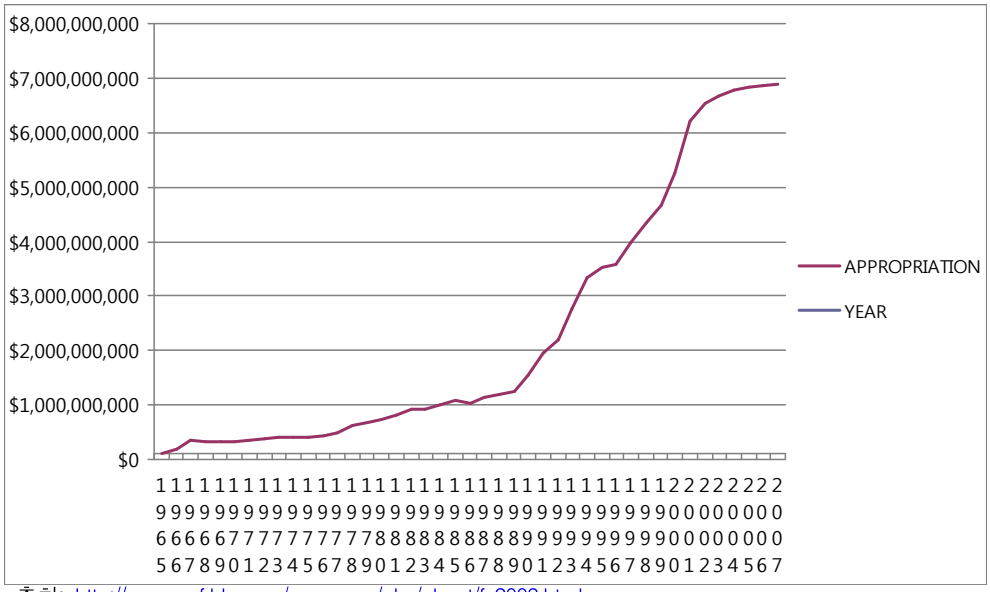
미연방정부의 2007, 2008년도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으로의 예산 배정안은 다음과 같다(<표 Ⅲ-1-2> 참조). 그동안의 예산변화 추이에 관한 도표가 다음에 제시되어 있다([그림 Ⅲ-1-2] 참조).

<표 III-1-2> 연방정부의 헤드스타트 2008년도 예산 배정안

	FY 2007 Actual	FY 2008 Appropriation
지역 헤드스타트 프로젝트		
주와 지역 프로젝트	$6,178,848,856	$6,169,256,494
원주민과 이주자와 계절프로그램	$475,919,869	$475,179,106
소계	$6,654,767,725	$6,664,435,600
지원활동		
훈련과 기술지원	$175,214,000	$174,949,400
연구, 시범과 평가	$19,793,000	$20,000,000
감독/프로그램 검토	$38,590,000	$38,590,000
소계	$233,597,000	$233,539,400

	FY 2007 Actual	FY 2008 Appropriation
합계	$6,888,363,725	$6,877,975,000

출처: http://www.acf.hhs.gov/programs/ohs/about/fy2008.html



출처: http://www.acf.hhs.gov/programs/ohs/about/fy2008.html

[그림 III-1-2] 헤드스타트 예산 추이

1990년대에 들어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꾸준히 늘어나 1993년 27억 달러였던 예산이 2006년에는 67억 달러로 10년 사이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지원 대상 아동도 1993년 71만 여명에서 지난해 92만 여명으로 늘었으며, 아동 1인간 연간 프로그램 비용은 7000달러(FY-2007 Program Statistics AVERAGE COST PER CHILD : $7,209)에 달한다. 정부 지원 외에도 농무부가 아동의 점심식사를 제공하며, 카운티 정부가 일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 관한 2006년도 통계를 살펴보면 이 프로그램은 18,875개의 센터를 통해 50,030개의 교실에서 실시되고 있다. 월급을 받는 교직원 수는 216,663명(평균 교사 봉급: $26,500)에 달하였고 자원봉사자는 1,365,000명이나 되었다. 아동 1인당 연평균 $ 7,209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1964년 이래 현재까지 22백만 명 이상의 아동이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2006년 교사의 연평균 임금은 $26,500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 자료인 2007년 통계를 살펴보면 이 프로그램은 18,275개의 센터를 통해 49,400개의 교실에서 실시되고 있다. 월급을 받는 교직원 수는 220,000명에 달하였고 자원봉사자는 1,384,000명이나 되었다. 아동 1인당 연평균 $ 7,326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1964년 이래 현재까지 22백만 명 이상의 아동이 혜택을 누려 왔다. 2006년에 비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센터수와 교실 수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더불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 유아 수도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줄어든 아동 수에 비해 급여를 받는 교사의 수와 자원봉사자 수가 늘어난 것을 볼 때 삭감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인력보충이 많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표 Ⅲ-1-3 참조).

2002년 이후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 대한 삭감된 예산으로 인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가 어려운 실정을 염려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더욱이 최근 2002년과 2006년 사이에 미국에서의 5세 이하의 빈곤 가정의 영유아수는 13%나 증가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면 삭감된 예산으로 인한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더 클 것으로 우려하였다(Parrott, 2008).

<표 Ⅲ-1-3>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의 통계 (2006, 2007)

년도	2006	2007
수혜자 수	1,604	1,604
교실 수	50,030	49,400
센터 수	18,875	18,275
아동당 평균 비용	$7,209	$7,326
임금 교사 수	216,663	220,000
자원봉사자 수	1,365,000	1,384,000

출처: http://www.acf.hhs.gov/programs/ohs/about/fy2008.html

3) 헤드스타트 법

1994년에 의회를 통과했던 헤드스타트 법(Head Start Act)은 특별한 수준에서 예산의 할당을 허가하고, 여러 가지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 자금을 할당하는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헤드스타트법은 헤드스타트와 조기헤드스타트 프

로그램의 의도, 제공된 서비스의 종류, 프로그램 수혜를 받은 전체 대상, 평가요구 사항들과 행정적인 요구사항들과 보고사항에 대한 윤곽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2007년에 개정된 현행법은 헤드스타트와 조기 헤드스타트 사업의 서비스와 활동내용 전반에 걸쳐 법적인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헤드스타트 법의 목적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의 사회성과 인지발달을 촉진시킴으로서 학교 준비도를 진작시키는 것이다. 그 법은 또한 저소득 가정의 아동과 가정에 개별적인 건강, 교육, 영양과 사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http://www.acf.hhs.gov/programs/ohs/legislation/index.html).

다. 사업의 운영

헤드스타트는 미국 연방정부의 보건인적자원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HHS)의 아동가족운영국(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CF)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헤드스타트와 아동과 가족과 관련된 다른 프로그램도 관장하고 있다. ACF아래에 있는 헤드스타트국(Office of Head Start)은 조기 헤드스타트와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을 관장한다. 이 국은 헤드스타트법(Head Start ACT), 프로그램 성취 기준과 다른 법률에 기초하여 전국이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고 규제하며 집행한다. 또한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미국 내의 지구 사무실(regional office)이 있고 헤드스타트 운영에 관련된 일, 모니터링, 예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김명순, 김길숙, 이명신, 2008).

라. 사업의 내용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질적인 관리를 위해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수행기준을 법령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업의 내용은 크게 아동의 발달과 교육에 관련된 서비스와 가족지원서비스로 구분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의 건강 및 발달지원 서비스(Child health and Developmental Services)

가족, 직원 및 보건전문가의 협력을 통해 모든 아동의 건강 및 발달문제를 규명하고, 아동 및 가족들이 그들의 기본적인 건강욕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속적이고 접근 가능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자원의 연결을 보장하려고 한다.

2) 교육과 조기 아동발달(Child Development and Education)

모든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양육적이며,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안정된 교육 환경을 제공함으로서 아동이 현재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이후 학교와 삶에서 책임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 한다.

3) 아동의 건강과 안전(Child Health and Safety)

질병과 상해를 예방하는 실천을 고무하고 장기간의 안녕을 보장하는 긍정적이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건강행동들을 증진시켜 건강한 신체발달을 지원하고자 한다.

4) 아동의 영양(Child Nutrition)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영양공급을 보충하고 보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안녕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5) 아동의 정신건강(Child Mental Health)

정신적 안녕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정신건강 정보와 서비스가 모든 아동과 가족의 안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 가족, 직원, 정신건강 전문가, 더 큰 지역사회 간에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6) 가족과의 파트너십(Family Partnerships)

부모가 자신의 목표를 확인하고 충족하도록 지지하고, 그들 가족과 문화의 맥락내에서 아동발달을 촉진하고 모든 문화의 아동과 가족에게 지지적인 지역사회를 옹호하고자 한다.

7)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Community Partnership)

아동 및 가족에게 최상의 수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족종심 서비스의 연속선상에서 서비스 발전을 장려하며 다양한 문화권에 속하는 모든 아동 및 가족

의 건강한 발달에 대한 책임을 지역사회가 공유하도록 수급기관 및 위탁기관이 지역사회 내의 파트너들과 협력하도록 하고자 한다(김명순, 김길숙, 이명신, 2008, http://www.acf.hhs.gov/programs/ohs).

마. 사업의 유형[11)]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0~3세에게 서비스를 하는 조기 헤드스타트와 보육프로그램과 기존의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으로 나뉘며 운영 방식에 따라 기관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기관 중심 보육프로그램, 주로 영아가 주 대상이 되는 가정 방문, 운영시간이 매일 6시간 이상이 되는 종일제 기관 중심으로 나눠진다, 그리고 종사자의 발전을 위한 교육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

1) 기관 중심 프로그램

한 아동이 4일 또는 5일간 기관을 다녀야 한다. 하루 운영 시간은 3.5~6시간 동안으로 규정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하루 4시간 운영하는 것을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권하고 있다. 주당 4일을 운영할 경우에는 최소한 1년에 128일 이상을 운영해야 하며, 주당 5일일 경우 160일 이상을 운영해야 한다. 모든 기관 중심 프로그램은 반드시 8~9개월 동안 최소 32주 운영해야만 한다.

기관에서는 주로 교육적인 제공은 물론, 건강, 가족과 지역사회의 협력과 부모 참여와 같은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건강 서비스로는 만성적 장애, 장애가 되는 조건들을 선별하기 위한 건강 검진이 이루어지고 있고, 청각 및 시각 검사, 치과 검진, 예방 접종과 아동과 가족의 정신건강 증진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헤드스타트 유아들은 지역사회의 의학적이며 치과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기 진단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다.

그리고 부모들은 위원회의 참석하기, 프로그램 의사 결정에 참여하기, 직업 훈련 받기와 자원봉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헤드스타트에 참여하고 있는 부모들은 헤드스타트 사업과 관련된 일을 할 경우에는 고용에 있어서 우선권이 주어지므로 많은 부모들이 헤드스타트 사업에 고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단체, 관련 기관, 학교, 기업체 등 지역사회의 서비스를 아동과 가족에게 연결시켜 줌으로서 지역사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11) 출처: 김명순・이미화(2005)

2) 종일제 기관 중심 프로그램

기관 중심 프로그램의 내용 중 종일제 기관 중심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운영 시간이 매일 6시간 이상이라는 것만 기관 중심 프로그램과 차이가 있고, 운영 내용은 동일하다.

3) 가정 방문 프로그램

부모가 아동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자가 될 수 있도록 한 가정 당 최소 한번에 1시간 30분 동안을 방문한다. 1년간 최소 32주를 방문하면서 아동과 부모를 위해 최소 매월 2회의 사회화 경험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신생아를 둔 가정의 경우 적응 과정의 시간과 횟수를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정 밖에서의 사회화 경험을 1년에 16회 정도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며 아동의 발달 수준, 이전의 사회화 경험 정도, 가정의 필요에 따라 소요 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가정방문자의 역할은 방문자 1명당 10~12가정(최소 10가정)을 방문하며 가정 요구의 복잡성(임신 우울증, 가정 폭력, 건강상 문제, 가정 위기 등), 가정까지의 거리, 적절한 시간 계획에 따라 담당 가정 수가 융통성 있게 결정될 수 있다. 가정 방문자의 자질로는 가정 구성원들의 요구에 민감하고 반응하고 경청해야 하며, 영유아 발달 및 가족 기능에 대한 지식,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4) 종사자 훈련

헤드스타트 사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훈련 내용으로는 영유아 모집 계획과 지도 방법, 서비스 규정 내용, 상담 기술, 부모와 함께 일하는 기술, 헤드스타트의 구성 요소 영역에 대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할 기회를 마련하고 조장해 주어야 한다.

바. 조기 헤드스타트[12)]

12) 출처: 김명순・이미화(2005)

1) 조기 헤드스타트 사업의 배경

빈곤이 증가함으로서 저소득층 임산부들이 출생 전의 태아에 대한 기본 건강관리를 하지 않고 영양 공급이 부족하였으며, 출생 후에도 예방 접종률이 낮고, 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의 부족 등 사회 문제가 되기 시작하였다. 어린 영아와 가정에 조기 중재와 가정 방문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서 중요한 장기적 효과가 나타났다는 연구들에 기초하여 유아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 보다는 사전에 예방적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이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후 치료보다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간주하였다.

조기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의 목적은 영유아와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에 안전하고 건강하며 풍부한 환경을 제공하려는 데 있다. 이와 더불어 영유아와 가족, 프로그램 종사자에게 개별적으로 전문적인 지원과 지지를 해 줌으로써 아동과 가족, 지역사회와 돈독한 관계를 수립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출생 전·후의 영아를 위한 포괄적인 보육과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임신을 하였거나 출산을 한 여성을 다각도로 지원한다. 둘째, 영아 발달 및 교육에 관한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영아의 바람직한 성장을 돕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영아기 발달을 촉진한다. 셋째, 건강관리 서비스, 부모 자조력 향상,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위해 부모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고 부모 기능을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조기 헤드스타트의 현황 및 운영

조기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1994년 헤드스타트법의 개정으로 조기 헤드스타트 프로젝트를 계획하게 되었고 현재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2003년에는 90,769명의 영아가 참여하였고 747개의 조기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조기 헤드스타트의 영아 1인당 비용은 연간 $10,502가 소요되었다.

조기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가정을 방문하여 영아와 부모에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 방문 보육 활동과 집단 보육 활동인 집단 사회화 경험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시행되고 있다. 가정방문 보육활동을 통해 영아와 부모 사이를 관계를 향상시키고 지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모와 영아 사이의 향상된 관계는 영아가 바람직한 사회, 정서, 신체, 인지 발달을 이루게 되는 기반이 된다. 부모는 조기 헤드스타트 가정방문자가 가정 방문동안

소개해 준 다양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영아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권장하며 그러한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모와 영아는 소집단으로 이루어지는 집단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영아의 흥미, 능력, 요구 등에 관해 지역사회의 전문가들로부터 피드백을 받게 되고 부모는 영아와의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또한 집단 활동의 경험을 통해 부모는 다른 영아와 부모 또는 성인과의 상호 작용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다른 부모와 부모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며 서로 배우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또한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부모나 영아를 위한 식사가 제공되어 영양교육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3) 조기 헤드스타트의 내용 구성

조기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가) 보육

영아 개개인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발달적 경험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아에게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기관에 처음 오게 되면 발달 진단검사를 하여, 이를 통해 개별 영아의 능력을 평가하고 영아에게 필요한 것을 파악한다.

나) 건강

의료, 치아, 영양, 정신 건강의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영아의 의료, 치아, 이전의 발달 과정에 관한 정보가 수집되며, 조기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 등록된 모든 영아는 신체검사와 더불어서, 시청각 검사, 말하기, 예방 접종, 치과 진료 서비스를 받는다. 센터에서 영아에게 따뜻하고 맛있으며 영양적으로 우수한 음식을 제공하고 식사 후 이 닦기 활동을 하도록 한다.

다) 사회 복지 서비스

가족의 요구와 능력을 파악하고, 가족의 목표를 설정 하는데 있어서 사회적인 지원을 받는다. 각 가정에 필요한 지원을 연결해 주려고 한다.

라) 부모 참여

부모를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조기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조기 헤드스타트는 프로그램의 모든 활동에서 부모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지지하며 조기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에게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학점을 주기도 한다.

사. 사업의 효과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에 드는 비용은 한 가족당 1만 2356달러이지만, 교도소건설, 재판비용, 범죄피해비용 등 감소 뿐 아니라 빈곤아동이 건전한 노동력으로 자라나서 내는 세금 증가 등으로 얻는 이익은 10만 8,002달러로 나타나서 9배 이상의 효과를 거둔다고 보고하였다 (www.westart.joins.com).

텍사스의 11개 헤드스타트 센터에 다녔던 166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2년간 종단적 연구를 실시하였던 Wheeler(2002)의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발견하였다. 헤드스타트에 1년 참여한 아동보다는 2년간 참여한 아동의 학교 준비도가 높았으며, 위험요인을 더 많은 아동이라 하더라도 2년간 헤드스타트에 참여할 경우에 더 나아져서 위험을 적게 갖고 있는 아동과의 차이가 줄어들 수 있었다. Wheeler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헤드스타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더 오랜 기간 받을 경우 문제행동이나 인지적, 사회적, 신체적 측면에서의 위험요소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논의하였다(이은해, 김명순, 전혜정, 이정림, 2008).

1997년부터 시작하여 정기적으로 매 3년마다 실시한 FACES는 국가적 차원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지속적인 종단 연구이다. 다. FACES 2006은 국가적 표본 연구 시리즈 중 1997, 2000, 2003년에 실시했던 이전의 연구 집단을 포함하여 네 번째로 실시된 연구이다. 국가적 차원의 포괄적 연구인 FACES(The Head Start Family and Child Experiences Survey) 결과를 보면, 헤드스타트에 참여한 3-5세 아동이 1년간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을 받은 후 어휘, 쓰기 수 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고 4세에서는 읽기에서도 유의한 증가를 보였으며, 이들이 5세가 되었을 때 어휘, 쓰기, 수 점수가 국가 평균 점수에 근접하게 증가하였다고 하였다(FACES, 2006). 결과적으로 유아에게 제공되는 개입 서비스들은 조기에 개입하였을 경우 더 큰 효과를 보였으며 Head Start 아동들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교실에서의 협동심이 증가하고 철회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은해 외, 2008).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서, 우울, 분노, 아동학대의 경험, 물질남용과 같은 정신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모훈련을 실시한 후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부모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그들의 양육태도를 관찰과 부모 보고로부터 알아보았을 때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많이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었고 부모들 스스로도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모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자신들의 양육태도가 정신건강에 문제가 없는 부모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전되었다(Baydar, Reid, & Webster-Stratton, 2003). 부모의 정신건강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었다는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내용에 부모의 정신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이 추가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이은해 외, 2008).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서 실시했던 다른 중재프로그램 효과 연구에서, 12주간의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집단의 어머니들이 일상적인 헤드스타트 프로그램만 참석한 어머니들보다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고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부모-교사간의 결속관계도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아진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학교에서의 아동의 행동문제도 유의미한 수준으로 감소하였다(Webster-Stratton, Reid, & Hammond, 2001). 어머니들에게 긍정적인 양육기술과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 및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침으로서 아동의 행동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행동문제가 있는 아동들을 방치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이은해 외, 2008).

2. 슈어스타트(Sure Start)

가. 사업의 배경

영국은 전통적으로 아동양육은 부모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강하며 일부 학자들은 집단생활의 경험이 유아들에게 긍정적인 경우 보다 부정적인 경우가 더 많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최소한으로 유지되던 영국의 교육은 장기적인 경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1988년

교육개혁법이 제정되었고, 그 이후 대대적인 변화를 겪기 시작한다. 교육 개혁법은 학교에 대한 정부의 전통적인 불간섭주의를 지양하고 국민교육과정의 범위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영국에서의 유치원 교육은 오랜 기간 동안 정부로부터 소외된 영역이었으나 1988년 이후 질적인 고양기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정부의 계속적인 노력으로 1997년 블레어 총리 하에 모든 4세 이하 영유아들에게 수준 높은 유아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저소득층 유아들을 위한 슈어스타트를 시작하였다.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슈어스타트 사업이 시행되어서, 잉글랜드 (England), 스코틀랜드(Scotland),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와 웨일즈(Wales)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각각 고유의 평가 계획을 가지고 있다. 2004년 “부모에게는 선택을, 아동에게는 가장 좋은 출발을(Choice for parents, the best start for children)” 이라는 10년 아동보육전략 (Ten Year Childcare Action Plan)을 다시 마련하였는데, 1998년의 국가 아동 보육 전략과 달리 슈어스타트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통합되어있다(백선희, 2006).

슈어스타트는 사회적으로 소외를 방지하고, 교육기준을 향상시키며, 건강상의 문제를 줄이며 삶의 기회를 향상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국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혜택 받지 못한 어린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실패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들이 학교에 들어갔을 때 다른 어린이들과 동등하게 학업을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 슈어스타트는 영국의 저소득층의 어린이들이 삶의 출발점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시킬 수 있도록 가정과의 협조아래 새롭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보육서비스에서 부모일자리 알선까지 부모들에게 구직정보와 보육정보를 동시에 제공하고 임신전후 건강진단까지 지원함으로서 가정과 지역공동체 안정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생후2개월 유아가 있는 집을 방문해 건강진단, 보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동수당을 늘리고, 가족공제 대신 근로가구 조세공제 도입 등 범 정부차원에서 금전적인 지원도 함께 하고 있다. 이것은 ‘퍼주기’식 지원이 아닌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다(www.westart.joins.com).

나. 사업의 현황

1) 대상

빈곤지역의 0~3세 아동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2004년 아동보육 10년 전략을 통해 영국 내 하위 20% 계층이 살고 있는 지역의 임신 중인 부모와 14세(장애가 있을 경우, 16세) 이하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재정

1999년부터 2003년까지 19억 파운드(약3조8000억원)의 정부예산이 들어갔으며 04년 예산은 12억 파운드(약2조4천억)가 배정되는 등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2005/2006년에는 약 15억 파운드 이상의 정부재정이 투입되었고 이는 1999/2000년의 2억 파운드에 비해 7.5배 이상 증가한 액수이다. 또 지역에서 이뤄지는 개별 프로그램마다 민간 펀드를 둬 재원을 확보, 운용하고 있다.

다. 사업의 운영[13)]

슈어스타트 프로그램은 지역 단위로 운영되고 있다. 모든 지역이 동일한 특정 프로그램을 가지는 대신 지역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장하며, 새로운 체제를 설립하는 대신 지역사회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서 사업이 진행된다.

아동들과 부모들은 아동이 만4세가 될 때까지 조기 유아교육, 가족지원, 영양과 건강등과 관련된 도움을 지방당국으로부터 받으며, 지방당국이 각 지역 슈어스타트를 관장한다. 중앙정부와 지방 당국, 지역사회 인사 자원, 건강, 보육, 교육시설 관계자들과 슈어스타트 프로그램을 운영할 여러 기관들이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적인 면으로 들 수 있다.

슈어스타트 아동센터(Children's Centres)는 2010년까지 아동 빈곤율을 0%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현재 약 2,000여 개의 아동센터를 설립했고, 2008년까지는 2,500여 개, 2010년까지는 3,500여 개가 설립될 예정이다.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슈어스타트 지역프로그램(Sure Start Local Programmes: SSLP)은 보육, 건강, 가정서비스 등을 저소득층 지역의 약 사십만 명의 유아들

13) www.surestart.gov.uk

에게 제공하였고, 현재 저소득층 4세 이하 유아 30%가 서비스 대상에 포함 된다. 조기교육 (Early education)으로는 37,000여 곳에서 모든 3,4세 유아들이 한 주에 12.5시간 파트타임으로 무상교육을 받는다. 보육 (Childcare)은 2005년 11월까지 123만 여 곳에서 childcare place가 등록되어 있다. 2010년까지 3세에서 14세를 대상으로 한 childcare place가 약 2백만 개 등록될 예정이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벌이는 주체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전국에 설치된 67개 아동센터(Children's Centre), 107개 조기우등센터(Early Excellence Center)를 비롯하여 기존에 있던 학교, 양육시설, 시민단체들은 524개 '슈어스타트 지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지역별 특성에 맞게 아동과 가족들에게 보육, 보건, 교육, 취업관련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2006년까지 45만명을 보살피는 25만개 보육장소를 추가적으로 마련하였고, 2백만명의 아동들이 보육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이다. 약 2,000여 개의 아동센터(Children's Centers)를 설립하여 보육, 건강, 가정서비스 등을 저소득 지역의 약 4십만 명의유아들에게 제공하며, 2010년까지 3세에서 14세를 대상으로 한 childcare place가 약 2백만 개 생길 예정이다(www.westart.joins.com).

라. 사업 내용[14)]

모든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율을 감소시키고, 생산성을 높이고, 강력한 노동시장과 시민사회의 건설을 장기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모든 아동, 특히 빈곤아동의 사회 정서적 발달, 건강 및 학습능력을 증진시키고, 부모의 노동시장 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가족과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단기적 목표 하에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아교육 및 보육을 기본으로 가족지원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 보건 서비스, 학령기 아동을 위한 서비스, 전문가 서비스, 방문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 커리큘럼으로는 기초단계교육과정(*Foundation Stage Curriculum*)을 사용하고 있는데, 2002년 교육법에 의해 국가교육과정으로 포함되었고, 정부의 기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조기 교육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다(김명순, 김길숙, 이명신, 2008).

1) 슈어스타트 실시기관

14) www.surestart.gov.uk

슈어스타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기관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가) 아동센터(Children's Centers)

5세 미만의 아동과 그들의 가족이 통합적인 서비스와 정보를 받을 수 있고 다방면으로 훈련된 전문가 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정부는 2010년까지 모든 지역사회 마다 하나의 아동센터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동 센터의 재정은 모두 세금으로 충당되고, 2년 마다 재정이 책정되며, 2008년까지 총 60억의 제정이 아동센터에 책정이 되어 있다.

아동센터의 인력으로는 센터의 모든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프로그램 메니저, 아동 보육에 관한 서비스를 총괄하는 유아학교 메니저(Nursery School Manager), 보육교사, 센터 운영 상황을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정자(Coordinator), 사회복지사, 조산사(Mid wife), 가정방문 간호사(Home visitor & Health visitor), 보육 네트워크 조정자(Childminding network coordinator), 영양사(Dietician), 아동과 그 가족의 센터등록과 접수를 담당하는 Out reacher, 언어치료사(Language& speech therapy), 발달이 느린 취학 전 아동들에게 가정 방문을 통해 교육을 제공하는 Portage home visitor,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해 주는 Law center worker로 구성되어 있다.

나) 지역 슈어스타트 프로그램(Sure Start Local Programmes; SSLP)

첫 번째 SSLP는 1999년에 시작 되었고, 열악한 지역에서 사는 아동들(4세 미만)과 그들의 부모를 위해 조기교육, 아동보육, 건강과 가족지원을 함께 제공하였다. SSLP는 태어나서 4세가 되기까지의 아동과 가족들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켜 아동들이 학교에 가게 되었을 때 준비가 되어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현재 524개의 슈어스타트 지방 프로그램 대부분이 아동센터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다) 조기우등기관(Early Excellence Centres)

어린 아동과 가족에게 통합된 서비스를 실천하는 모델을 발전시키기 위해 1997년 처음 세워졌다. 조기우등기관은 통합된 교육과 아동 보육, 부모와 양육자, 가족 그리고 지역 사회에 직접적으로, 또는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원스톱 방식으로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 이웃보육시설(Neighborhood Nurseries)

2001년, 가장 취약한 지역과 그 주변 잘사는 지역 간의 차이를 줄이고자 시작되었다. 2004년까지 취약지역의 5세 미만의 아동을 위해 높은 질의 접근이 쉬운 종일보육장소 4500개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시작하였고 현재 목표 달성 후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현재 이웃보육시설의 대다수는 지역슈어스타트 프로그램(SSLP)에 연결되어 있다.

2) 서비스 내용

슈어스타트의 아동보육과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에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가) 보육(Childminding)

보육사(Childminder)는 가정에서 아동을 돌보는 보육자로서 교육표준청(Office of Standard in Education; Ofsted)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고, 아동의 집에서 아이를 돌보게 하는 부모들은 근로세금공제(working tax credit)를 받을 수 있다. 아동의 개별적인 요구에 맞추어서 지속적으로 1대1 보육이 가능하게 해줌으로 부모에게 유연하고 질 높은 보육과 가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당국은 보육사의 공급을 점검하고 필요한 곳에 공급을 늘리고 질을 높이기 위해 가정보육모와 협력한다.

나) 연장제 학교(Extended School)

학교에 가는 시간 외에도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지역사회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숙제 클럽, 공부 지원, 운동, 음악지도, 특별활동과 자원봉사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제공한다.

다) 지속성보장을 위한 지원(Sustainability)

지속적인 조기 교육/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아동보육제공자에게 사업 훈련 및 교육 지원 등으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에는 기금 조성을 담당하는 150개 지방 당국의 경영지원 공무원들이 있다. 기금은 아동보육

을 위한 경영에 지원되고, 그로 인해 아동보육 단체와 경영지원을 위한 공무원이 확충될 수 있다.

라) 공립유아학교(Maintained Nursery Schools)

슈어스타트는 공립 유아학교와 지방 당국, 지원 공무원들을 위한 표준 지침 및 관리 정보들을 제공하고 이를 발전 및 확장 시키도록 도울 의무가 있다.

마) 방과 후 보육(Out of school childcare)

Out-of-school club(kids' club)은 학교가 쉬는 동안은 하루 종일 그리고 학기 중에는 학교시간 전후로 개방되어있고, 3세에서 14세,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16세까지 안전하고 즐거운 놀이를 할 장소를 제공한다. 아동들은 그곳에서 친구들을 만날 뿐 아니라, 숙제를 하기도 하고, 스포츠, 드라마, 미술, 공예 또는 음악과 같은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된다.

바) 아동정보서비스 (ChIS: Children's Information Service)

아동정보서비스는 지역의 아동정보서비스와 보육링크 웹사이트 간에 아동 보육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다. 핵심적인 아동양육 데이터베이스와, 조기교육 현장에 있는 교직원들의 정보 파악, 이용가능한 훈련과정, 교직원 모집과 보유현황, 훈련과정 지원 예약, 첫 접촉부터 등록에 이르는 과정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사) 북스타트(Book Start)

국가적 프로그램인 북스타트(Book Start)에서는 지방조직을 통하여 부모와 보육자에게 지침서와 함께 영유아들에게 무료로 책을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영국의 모든 아동이 가능한 어린 시기부터 책을 즐기고 책이 주는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만들어졌으며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유아는 90%에 이르고 있다.

3) 영유아 프로그램

출생부터 3세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Birth to Three Matters) 와 3세

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교육과정인 기초단계 교육과정(Foundation Stage Curriculum)을 통해서 정부는 영유아 교육과 발달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가) 0~3세를 위한 교육과정(Birth to Three Matters)

출생부터 3세까지의 아동을 돌보고 교육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보와 안내지침을 제공하고 지원을 한다.

나) 3~5세를 위한 기초단계 교육과정(Foundation Stage Curriculum)

2000년 3세에서 5세 아동의 조기교육을 위해 소개되었다. 2002년 교육법(Education Act)에 의해 교육과정으로 포함되어 정부의 기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조기 교육기관에 적용되고 있다. Foundation Stage Curriculum은 학습은 아동에게 재미있고 의미가 있어야 하며, 동기부여가 되는 활동이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활동은 주의 깊게 계획되고 구조화되어야만 한다는 철학적인 기초에 근거하였다. 따라서 이 교육과정은 아동의 자발적인 놀이를 발달시키고 확장시키며, 계획된 놀이를 통해 아동의 학습을 지원하고자 한다.

마. 사업의 평가 및 효과

영국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DfES)가 영유아 보육·교육의 정책과 질적 이슈를 다루는 연구에 투자한 자원은 가히 인상적이다. 슈어스타트는 슈어스타트 센터의 효과성과 관련된 증거를 제공하기 위한 대규모 연구평가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연간 예산은 대략적으로 6백만 파운드, 혹은 10,748,400달러임)(이옥 외, 2008)

슈어스타트 정책은 빈곤한 가정의 아동들이 학교 안에서 높은 성취감을 갖게 되고, 부모들은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도우며, 또한 그들의 건강상태를 향상시켜서 마침내 범죄를 줄이는 데로 까지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www.westart.joins.com).

3. 주요 종단연구[15]

15) 출처: Bartlet, S. (2007).

저소득층 영유아를 대상으로 조기에 개입하였을 때 그러한 영유아 프로그램들의 경제적 효과 정도를 알아보고, 각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들의 주요 논의점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세 가지 주요 종단연구, Perry Preschool Project, Abecedarian Project, Chicago Longitudinal Study 에 관해서 다음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가. Perry Preschool Project(PPP)

1) 프로그램의 배경

Perry preschool project은 1960년대 미국 빈곤층 유아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David Weikart가 최초로 미시간 주 교육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운영하였다. 1962-1967년까지 지속되었던 Michigan의 Ypsilanti에서 실시된 2년간의 센터 중심(하루 2.5시간)의 3-4세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아동의 인지, 정서, 신체 발달에 대한 능동적 학습 접근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실시되었다. 교사 대 학생 비율은 7:1 이었고 부모지원을 위한 부모 모임과 매주 1시간 반의 가정방문이 있었다. 3~4세 123명의 고위험군 흑인(African American)아동이 종단연구에 참여하였고, 58명의 아동이 Pre-K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PPP는 Pre-k 프로그램에 관하여 가장 오랜 기간에 걸쳐 연구한 종단연구이다.

PPP 종단연구는 빈곤층 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급속하게 확산되어 나갔으며,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라들의 공공정책 개발에 영향을 미쳤다(이민정, 2008).

<표 III-3-1> PPP 프로그램 유형

프로그램 유형	Pre-K 대상
	3-4세 아동
	반일제/학기제
아동당 투자액	$ 15,168
순 현재가치 이익	$ 243,722
비용편익분석 비율	$17.1:1($15,166: $ 258,888)

2) 프로그램의 내용

Perry Preschool Project의 프로그램은 1960년대에 Weikart와 그 동료들이 PPP를 위해 만들었던 하이스코프(High/Scope) 교육과정이다. 하이스코프 교육과정은 교사들이 유아들은 자연스럽게 발달한다는 철학적인 기초를 토대로 유아들에게 교육적인 개념과 실제에 대한 개방적인 체제를 제공하도록 한다. 피아제 이론에 기초한, 하이스코프 교육과정은 아동을 적극적인 학습자, 다시 말하면 아동은 자기 스스로 계획하고, 수행하고 생각하는 활동으로부터 가장 잘 배운다고 보는 것이다(Weikart & Schweinhart, 1993).

PPP 프로그램은 30주 동안 월-금요일 까지 매일 오전 2시간 반의 프로그램으로 시행되었다. 4명의 교사가 20~25명의 유아들을 담당하였는데, 즉 교사 대 아동 비율은 1:5~1:6.25 정도로, 유아교육, 초등교육, 특수교육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들로 구성되었다. 월~목요일까지 평일에는 오후에 1시 반 동안 가정방문이 실시되었으며, 프로그램 운영비용은 1960년대 기준으로 유아당 $1,500(2007년 기준으로는 $11,300)로 책정된 비용의 대부분이 교사 임금으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교육구의 공립교사 임금의 표준보다 10%정도 높게 책정된 것이었다.

3) 프로그램의 효과

비용편익 (Benefit Cost) 분석 결과, 프로그램은 참여 아동이 40세가 되었을 때 개인, 정부, 사회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은 장, 단기적으로 교육, 경제적 측면에서 효과가 나타났다. 그 효과로는 첫째, 프로그램 참여자는 7, 14세 통제집단에 비해 지능과 언어검사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둘째, 프로그램 참여자는 통제집단에 비해 특별한 교육적 서비스를 덜 받았고, 고등학교 졸업률이 더 높았다. 셋째, 40세가 되었을 때,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채용률과 임금이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넷째, 프로그램 참여자의 범죄로 인한 체포률이 통제집단의 반 정도에 미쳤으며, 폭력, 마약범죄에도 덜 연류되고 수감되는 경우도 적었다. 다섯째,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복지혜택을 덜 받았다(Schweinhart et al., 2005).

<표 III-3-2> PPP 종단연구의 효과

	개인적 영향		국가적 영향
높은 수준의 Pre-K	1. 교육적 영향	특수 교육↓	소득과 세금수입의 증대
		유급률↓	사회서비스와 복지 의존도 감소
		고등학교 졸업률↑	
		시험 점수↑	범죄율의 감소
	2. 사회, 정서적 영향	문제행동↓	
		자기조절↑	건강의 증대
		친구관계↑	
	3. 아동의 건강	아동학대, 방치, 학대증후군↓	훈련된 노동인력창출

자료: Schweinhart et al., 2005

4) 연구의 강점

이 연구의 강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 수 있다. 첫째, 중재집단과 통제집단의 선정에 있어 무선선정 방법을 사용함으로서 연구결과에서의 두 집단 간의 차이에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인의 영향을 최소화 하였다. 둘째, 40년의 종단연구동안 90% 정도의 추적률을 유지하였다.

5) 시사점

PPP 종단연구의 시사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프로그램은 매우 높은 질적 수준을 보유하였다. 교사의 질, 소규모, 연구 중심의 커리큘럼, 가족지원 서비스가 고위험 대상 군에게 장, 단기적 효과를 초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도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고려하여야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이 프로그램의 비용편익 비율 분석 결과 그 비율이 17.1:1($15,166: $258,888)로 높은 점은 범죄율 감소와 관계가 있다. 범죄율 감소로 인한 이득 뿐 아니라 의학적 치료나 생산율 감소와 같은 가시적 효과와 고통과 같은 비가시적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정책 결정자들이 유아교육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자해야하는 정당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Schweinhart et al., 2005)

셋째, PPP는 학사학위의 교원자격증 소지자들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교사자격은 초등교육, 유아교육, 특수교육의 세 분야로 이루어졌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유아교육을 전공한 교사가 교육현장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학력뿐 아니라 전공도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이민정, 2008). 우리나라의 아동지원사업에서 영유아보육과 교육을 위해 투입된 인력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교사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사 재교육 형태가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넷째, PPP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의 정책개발에 큰 영향을 미쳐서 그 영향으로 빈곤층 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이 급속하게 확대될 전망이다(이민정, 2008).

나. Abecedarian Project(ABC)

1) 프로그램의 배경

North Carolina의 Chapel Hill에서 시작되어 영아기에서 5세까지 child care (교사: 아동비율-3:1)와 Pre-K(교사: 아동비율-6:1) 경험을 제공하고 하루에 10시간, 일주일에 5일, 1년에 50주를 통해 언어발달과 다른 발달의 영향을 강조하는 포괄적 프로그램이다. 1972년-1977년에 태어난 지적, 사회적 발달이 늦은 흑인(African American)아동 112명(통제집단과 서비스를 받는 아동)으로 무선 선정되었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교육적 중재의 효과를 제외하고는 의학, 영양적 서비스를 제공받는 조건이었다. 대부분의연구대상이 21세까지 추적되었다.

<표 III-3-3> ABC 프로그램유형과 비용편익분석 결과

프로그램 유형	포괄적 초기 중재와 교육
	출생-5세 대상
	full time/ full year
아동당 투자액	$ 63,376
순 현재가치 이익	$ 94,802
비용편익분석 비율	$ 2.5:1($ 158,278: $ 63,476)

FPG(다위험 요인 색인)에 등록한 109 가정의 111명 영아를 무선표집으로 선정하였다. 0~5세 실험집단 57명, 5~8~12세 실험집단 49명, 12~15세 실험

집단 47명으로 구성되었다.

저소득층 유아들에게 생애 초기부터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환경과 경험을 제공함으로서, 이들 유아의 학업성취, 사회·정서적 발달, 향후 성인으로서 성공적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체계적, 종단적 연구이다. 예비조사, 조기중재 및 실험기간, 후속검사로 진행되었다.

2) 프로그램의 내용

0~5세를 대상으로 유아 조기 중재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그리고 5~8~12세를 대상으로 첫째, 가정과 학교에서 개별화된 학업과 학습활동을 중심으로 읽기, 수학, 쓰기를 강조하는 K-2 전이 단계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두번째로 가정-학교의 연계 및 지원을 강화하고 가족 환경과 관련성 있는 활동에 주력하는 Home School Resource Teachers (HSRT)를 실시하였다. 연구 도구로는 베일리 유아용 발달 검사(Baley Scales of Infant Development), 부모측정도구(Earlym Schaefer 개발), Parent-Child Information Interview, Rotter Internality-Externality Scale, 가정환경자극검사(Home Stimulation Inventory, Cadwell, 1967)와 같은 것들이 사용되었다.

3) 프로그램의 효과

프로그램의 주요 효과로는 첫째, 통제집단에 비해 프로그램 수혜자가 21세에서 읽기와 수학점수가 더 높았다. 둘째, 통제집단의 아동이 유급되는 비율이 낮았고, 특별교육의 필요가 적었으며 중등학교 이후 진학률이 높았다. 셋째, 통제집단에 비해 프로그램 수혜자가 복지를 받고 담배를 피우는 숫자가 더 적었다. 넷째, 참여자의 어머니들이 더 높은 교육수준과 더 높은 수준의 유급 직업을 성취하였다. 다섯째, Benefit-cost 비율은 2.5:1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프로그램(High Scope/CCP)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프로그램이 5년간 지속되었기 때문에 각 아동 당 소요된 금액이 $63,000을 넘어섰다. 이는 3,4세 연령만 대상으로 하는 다른 일반 Pre-K 수준보다 높은 금액이었다. 연구에서 통제집단과 비교집단 아동의 범죄율의 출현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다른 프로그램들이 실시된 지역보다 이 프로그램이 실시된 Chapel Hill의 범죄율이 낮기 때문으로 설명될 수 있다.

4) 연구의 강점

무선 표집에 의한 실험 설계를 적용한 가장 이상적인 연구 설계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중재효과를 보다 분명히 지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5) 시사점

ABC 프로그램의 효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시사해 주었다. 첫째, 부모에게 나타난 효과로서 어머니의 학력이 향상되었고, 취업률이 상승하였으며, 고소득 직업 취업을 하게 되었다. 이는 빈곤층의 인지적 결함이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향상될 수 있고, 유아의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시사해 주었다.

둘째, 고비용의 프로그램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범죄율을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드러났다.

셋째, ABC의 연구 결과는 High Scope Perry Preschool Program 연구와 맥락을 함께함으로서 빈곤한 가정의 아동에게 조기에 개입하는 것이 미래의 사회적인 비용을 절감한다는 결과를 재 증명하였다.

다. Chicago Longitudinal Study (CLS)

1) 프로그램의 배경

CLS는 헤드스타트에 이어 미국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은 2번째로 오래된 프로그램으로 Chicago의 Title Ⅰ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유아들을 대상으로 Chicago Child-Parent Center(CPC)에서 가장 장시간에 걸쳐 시행했던 조기 중재 프로그램이다(이민정, 2008).

1967년 4개의 가장 빈곤한 지역을 중심으로 100-15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래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CPC(Chicago Parent Child-Parent)는 pre-K와 유치원 프로그램, 초등학교 3학년까지 의 학령기 서비스를 제공함. CPC의 pre-K프로그램은 전문자격을 갖춘 교사(초등학교 교사와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음), 소그룹(교사 대 아동=17:2), 초기 읽기와 수학능력에 초점을 둔 강력한 커리큘럼, 각 센터만의 가정방문 프로그램과 건강, 영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1979-1980년생 아동 1,539명을 대상(CPC 프로그램 수혜

자 989명, CPC 외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을 무선 선정한 비교집단 550명)으로 1985년 이래로 21년간 프로그램에 대한 종단연구를 실시하였다(Bartlelt, 2007).

<표 III-3-4> CLS 프로그램유형과 비용편익분석 결과

프로그램 유형	Pre-K 대상
	3,4세 아동
	반일제/학기제
아동당 투자액	$ 6,692
순 현재가치 이익	$ 61,245
비용편익분석 비율	$ 10.15:1($ 67,937: $ 6,692)

2) 프로그램의 내용과 연구방법

CPC 프로그램은 3세에서 9세를 대상으로 한 센터 중심의 조기 중재프로그램이며 저소득층 가족을 지원한 포괄적인 서비스이다. CPC 프로그램의 연구대상은 94%정고가 흑인으로 시카고의 극빈 지역의 153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집단 유아들은 1980년에 출생하여 1986년 24개의 시카고 CPC의 유치원(kindergarten) 프로그램을 마친 989명이었다. 실험집단 취학 전(preschooler) 유아의 경우 1~2년 동안 조기 중제를 받았으며(83년~85년), 실험집단 유치원(kindergarten) 유아들의 경우에는 60%가 종일제(85년~86년)에 참여하였다. 또한 실험집단의 69%가 1년 중재에 참여하였고 56%가 2년 중재에 참여하였다(이민정, 2008).

통제집단은 Title Ⅰ프로그램과 SES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 550명으로 공립학교와 빈곤층 가족을 지원하는 총 5개 학교의 부속 유치원(kindergarten)에서 무선 표집 하였다. 통제집단의 취학 전(preschooler) 유아의 경우, 15%정도가 헤드스타트와 같은 조기 중재를 받았으며 통제집단 유치원 유아의 경우는 100%가 종일제에 참여하였다. 또한 통제집단의 30%가 1년 중재에 참여하였고 2~3년 중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이민정, 2008).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반일제 취학 전 프로그램, 종일제 혹은 반일제 유치원 프로그램, 종일제 1~2학년 혹은 종일제 1~3학년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과정은 형식적인 교육과정은 사용하지 않으며

기본적인 언어, 읽기, 사회, 심리적인 측면의 발달을 도와주는 활동을 제공하였으며, 교사용 지침서 “Chicago Early"를 활용하였다. 교사: 유아의 비율은 취학전인 경우는 2:17이었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2:25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참여가 많이 요구되었고 일주일에 반일 부모 참여, 교실수업 지원, 책읽어주기, 게시판 교체하기, 교사와 수업활동 지원, 소집단 실험, 조형 활동, 소집단 1:1 수학활동 등을 실시하였다.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지원을 위한 교실, 부모교육 강좌, 부모 지원을 위한 부모자원교사 등을 제공함으로 부모의 참여를 유도하였다(이민정, 2008).

2) 프로그램의 효과

CPC는 아동과 대중 모두에게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9학년에서 프로그램 참여아동은 언어와 수학 성적이 비교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나타났다. 둘째, Pre-K참여 아동은 특수교육의 수여정도가 낮고, 고등학교 졸업율이 높았다. 셋째, Pre-K참여 아동의 범죄 발생율이 낮았다. 넷째, 2년간의 Pre-K참여 경험을 가진 수여자들은 학업성취가 높고, 유급률이 낮고, 아동학대나 방치에 처한 확률이 낮았다.

3) 시사점

CLS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첫째, 공립학교는 장기적 측면에서의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는 높은 수준의 Pre-K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둘째, 본 프로그램은 현존하고 있으며 다수의 대상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나 대상에 대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CPC의 높은 수준의 교사자격, 적절한 교사 임금, 효과적인 교육과정, 부모개입과 같은 요인들이 제공됨으로 비용절감의 효과가 나타났다. 연구가 무선화 되지 않았으므로 프로그램 참여와 관찰되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제한되나, 비교집단의 존재는 이러한 연구 결과의 인과론적 추론을 지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4. 정책적 시사점

가. 헤드스타트 사업으로 부터의 정책적 시사점

헤드스타트 사업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헤드스타트의 경우 80%를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해 줌으로서 다른 국가들의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에 비해 대체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2002년 이후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삭감된 정부 예산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재원이 안정적이지 못할 때의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얼마나 큰 지에 관한 사실을 실감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장기간 실시되고 있는 국가정책 사업에 있어서 양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질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엄청난 재원의 손실을 볼 수 있게 된다. 1990년대 초반에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을 위한 연방정부의 예산이 증액되면서 구체적으로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예산 할당제(Quality Set-aside)'가 시행된 점과 전미 헤드스타트 협회(NHSA)에서 실시한 우수센터 인증제인 '질적 주도(Quality Initiative)'가 시행되면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에 대한 관리가 더욱 활발해지는 효과가 발생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지원사업 들이 장기적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막대한 자원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셋째,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교사에게 적당한 대우를 해줌으로써 유능한 교사를 확보, 유지하고 교직원의 훈련과 기술적 보조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의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동지원사업에 고용되어 보육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부분의 교사들은 정규직인 아닌 형태여서 고용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좋은 교사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기가 어려운 점이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헤드스타트 사업은 부모 및 지역사회 참여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헤드스타트의 경우, 이 사업에 참여했던 부모들이 이 사업에 고용되는 비율이 높고, 자원봉사자의 활용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아동지원사업이 이러한 부모와 지역사회 자원을 잘 활용하고 참여를 유발하면 아동의 발달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 여겨진다.

나. 슈어스타트 사업으로 부터의 정책적 시사점

슈어스타트는 미국의 헤드스타트와 매우 유사한 종합적 복지 프로그램이다. 정부주도로 기금이 형성되고 지방 당국에 의해 자치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매우 조직적이며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된다. 우선은 기금

조성의 규모가 인상적이고, 두 번째는 참여하는 공적기관과 평가기관이 다양하다는 점이다. 슈어스타트 내의 유아교육기관에서는 모두 기초단계 교육과정(Foundation Stage Curriculum)을 사용하도록 하여, 교육의 다양성의 측면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으나, 일종의 중재 프로그램이란 측면에서는 단기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영국에서는 첫 시행부터 일부 지역에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다. 중앙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평가가 없이는 지방자치제로 인한 지역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의 차이는 물론 프로그램의 질과 양에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또한 아동지원사업이 전국에서 실시될 경우 어느 곳에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어느 특정지역 중심으로 그 사업이 발전하게 되면 그 지역이 장기적으로는 취약지구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둘째, 영국의 기초 단계 교육과정(Foundation Stage Curriculum)과 같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주관하는 사업인 드림스타트나 교복투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수립 및 적용의 체계화 과정이 필요하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아동지원사업을 조직적으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 간의 원활한 연계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보육서비스에서 부모일자리 알선까지 부모들에게 구직정보와 보육정보 동시에 제공하고 임신 전후 건강진단까지 지원하고 있다.

넷째,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평가란 진행 중인 아동지원사업에 대한 점검은 물론 앞으로의 사업진행 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막대한 자원을 들여가면서 사업의 효과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평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 주요 종단연구로 부터의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 살펴본 종단 연구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위험군에 속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비용편익분석 결과 투자 효과를 크게 창출하였다는 결과로부터 저소득층 가정 아동을 위한 조기개입은 효과적인 투자 사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오랜 기간 연구된 결과들이 단기간 연구한 결과보다 더 많은 이익을 보고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장기적 효과는 단기적인 효과보다 더 클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셋째, 성공적 효과를 가지고 온 프로그램은 모두 잘 훈련된 교사와 낮은 교사-아동 비율, 연구에 기반을 둔 커리큘럼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아동과 가족 모두가 혜택을 받아 교육이 시설 뿐 아니라 가정으로까지 연계되어 가정에서도 건강한 발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운 경우이었다. 이로부터 아동지원사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에 관한 질적 관리는 물론 가정과 연계되어 이루어질 때 그 효과가 더 커짐을 알 수 있다.

라. 소결

헤드스타트 프로그램과 슈어스타트 사업 간의 공통점은 첫째, 저소득층 가정에서 성장하는 아동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한 조기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둘째, 두 가지 사업은 모두 영유아를 위한 조기 보육 및 교육 프로그램과 건강관리 및 사례관리와 같은 서비스들 간의 협력 및 통합에 초점을 맞춘 통합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것이다. 셋째, 부모와 지역사회의 참여를 중시하였다는 것이다. 넷째, 프로그램을 질을 중시하였다는 것이다. 다섯째, 두 가지 사업은 모두 법적인 기반에 근거하였다는 것이다. 헤드스타트 사업은 헤드스타트 법에 의해 슈어스타트의 경우는 보육법에 근거하여 진행되고 있다.

헤드스타트 사업은 센터를 중심으로, 슈어스타트 사업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각각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 아동지원사업이 센터 중심 사업의 장점을 잘 활용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사업의 성격을 잘 활용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삼성 포괄복지서비스의 경우는 미국의 헤드스타트 사업과 비슷한 센터중심의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이라 볼 수 있고, 드림스타트와 위스타트와 같은 사업은 영국의 슈어스타트 사업과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각 사업들이 미국과 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로부터 필요한 부분들을 각자 잘 활용한다면 우리나라 아동지원 사업의 앞으로의 사업 전개에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주요 종단적 연구로부터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사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투입되는 교육 내용의 질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종사하

는 인력들에 대한 질적 수준 유지를 위한 교사 재교육의 형태가 있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서 교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같이 병행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최근 OECD의 보고에 의하면, 집중적인 조기 개입으로, 다소의 부정적인 효과들이 반전될 수도 있고 혹은 이후에 특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예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교육체제는 학생들이 뒤처지길 기다렸다가 그런 후 그들을 주정부의 비싼 비용으로 특수 교육 프로그램에 배치하는 경향이 있다(교육과학기술부, KICCE 육아정책개발센터, 2008)고 하였다. 이제는 그러한 실책을 반복하기 보다는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표 III-4-1> 국외 종단연구 요약

	Perry Preschool Program(PPP; 1962-1967)	ABC(Abecedarian Project)	CLS(Chicago Longitudinal Study)
시행기관	미시간주 입실렌티에 있는 페리 초등학교		Chicago의 센터
관련기관	미시간 교육부(재정적 지원)		미국 연방정부
목표	질적으로 우수한 유아교육프로그램이 빈곤층 유아들과 학교생활에서 실패 위험이 높은 유아들에게 어떠한 장단기 효과가 있는지 조사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유아들에게 생애 초기부터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환경과 경험을 제공함으로서, 이들 유아의 학업성취, 사회정서적 발달, 향후 성인으로서 성공적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체계적, 종단적 연구	학교 성공을 목표로 의사소통 중심의 구두언어능력, 수학능력, 학교에 대한 태도향상을 목표로 하고 집중적 부모 참여를 유도함
대상	미시간 입실렌티에 거주하는 3~4세 저소득층의 지능 낮은 흑인 유아 123명(실험:58명, 비교: 65명)	FPG(다위험 요인 색인)에 등록한 109명의 111명 영아 무선표집 0~5세 실험집단 57명, 5~8~12세 실험집단 49명, 12~15세 실험집단 47명	시카고 Title Ⅰ에 거주하는 96%가 흑인인 극빈지역의 저소득층 3~9세 유아 1539명(실험 989명, 통제 550명)
주요 내용	1. 능동적 학습자로서의 유아 강조 2. 유아가 자발적으로 선택, 문제 해결, 참여하도록 교사가 격려 3. 하루 일과 후 계획-실행-평가(Plan-do-review)로 진행하며 스스로의 학습을 격려	예비조사, 조기중재 및 실험기간, 후속검사로 진행 1. 0~5세: 유아 조기 중재프로그램 2. 5~8~12세: 1) K-2 전이 단계 프로그램 - 가정과 학교에서 개별화된 학업과 학습활동을 중심으로 읽기, 수	* 아동 프로그램: 1. 반일제 preschool 프로그램 2. 종일제 or 반일제 Kindergarten 프로그램 3. 종일제 1~2학년 or 종일제 1~3학년 프로그램 →형식적인 교육과정은 사용하지 않고 기본

	Perry Preschool Program(PPP; 1962-1967)	ABC(Abecedarian Project)	CLS(Chicago Longitudinal Study)
	4. 부모참여의 중요성을 강조: 매주 한 시간 반 정도 가정방문을 통해 교육 과정에 어머니를 참여 → 가정에서도 유치원 교육과정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함 * 프로그램의 실제 1. 30주 동안 월~금 오전 2시간 반의 프로그램 제공 2. 4명교사가 20~25명 아동(교사 VS 아동=1:5~6.25) 3. 평일 1시간 반 동안 가정방문 시행 4. 프로그램의 운영비용 대부분이 교사 임금으로 지불됨(일반 공립교사보다 10% 높게 책정됨)	학, 쓰기를 강조함. 2) Home School Resource Tearchers(HSRT): 가정-학교의 연계 및 지원을 강화하고 가족 환경과 관련성 있는 활동에 주력함. ⇨ 유아의 수준과 유형을 고려하고 모집단에 근거한 차별적인 교육과정과 실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야 함.	적 언어, 읽기, 사회, 심리적 측면을 촉진하는 활동을 제공. 교사용 지침서 'Chicago Early'를 활용함. * 부모참여: 집중적 부모참여 프로그램, 1주일에 반일제로 부모참여, 교실수업 지원, 책 읽어주기, 게시판 교체하기, 교사와 수업활동 지원, 소집단 실험, 조형활동, 소집단 1:1 수학활동 등의 형태, 부모지원을 위한 부모자원교사
시행도시	Michigan, USA		Chicago, USA
프로그램 평가현황	1. 지능 및 학업 성취도의 증가: 3~7세까지 실험집단의 지능의 단기효과, 초등 2학년부터는 단기효과는 잠식함, 40년 후의 최종학력과 고등학교 졸업률이 높게	* 무선표집에 의한 실험 설계를 적용한 가장 이상적인 연구설계로 평가됨. 1. 인지증력: 단기효과가 나타남(언어, 수학), 읽기와	3~9세 유아기동안 질적으로 우수하고 지속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부모가 유아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때 학교 교육이 성공할 수 있음을 보고함

	Perry Preschool Program(PPP; 1962-1967)	ABC(Abecedarian Project)	CLS(Chicago Longitudinal Study)
	나타남. 2. 경제수준: 실험집단이 사회복지 의존도가 낮았고, 직업을 27, 40세에 직업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음 3. 범죄율: 조기중재에 참여한 유아들이 40세까지 각종 범죄로 인해 구속되는 비율이 적음 ⇨유아 조기 중재의 경험이 유아의 인생 전반에 미치는 교육의 포괄적 효과를 입증. * 시사점 1) PPP의 교사들의 전문성: 유아교유 학사 학위소지자 2) 가정방문을 통한 교육의 극대화	수학능력이 향상, 특히 읽기의 성취가 우수함 2. 학교생활: 학교 성공 경험이 향상됨. 특별교육경험, 십대모, 흡연률, 첫아이 출산 시기 등이 감소하고 고등학교 졸업비율, 고등교육 이수비율, 취업비율 등의 상승 3. 부모효과: 어머니의 학력 향상, 취업률의 상승, 고소득 직업 취업 등 ⇨ 빈곤층의 인지적 결함이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향상될 수 있고, 유아의 발달에도 도움이 됨.	1. 학업성취에 나타난 효과: 읽기와 수학성취능력에서 효과가 나타남. 2. 부모참여의 장기효과: 부모참여는 유아의 동기형성, 인지능력 향상, 사회적응, 학교 지원 등에서 효과적이고 부모참여 지표가 유아의 학습과 발달을 예측함 ⇨ 질적으로 우수한 유아교육은 유아의 생애초기부터 최소 5년간은 지속되어야 하며 가족서비스와 부모참여 활동이 집중적이고 포괄적이어야 함을 시사함. ⇨ 부모참여가 유아의 성공에 장기효과를 미치고 학교 초기 유아의 학습과 적응을 위한 핵심요소임을 강조.
연구도구		1. Baley Scales of Infant Development 2. 부모측정도구(Earlym Schaefer 개발) 3. Parent-Child Information Interview 4. Rotter Internality-Externality Scale) 5. Home Stimulation Inventory(Cadwell, 1967)	1. 읽기 및 수학교육성취능력 검사: Iowa Tests of Basic Skills 2. 유아생활능력의 점수화: Minimum Proficiency Skills Test(MPST) 3. 부모참여에 대한 교사평정

Ⅳ.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 효과분석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에 관하여 알아보기 위해서 저소득층 영유아 가정의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가구방문 설문조사와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 관련 정책수행자를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지원사업 대상 중 영유아만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한정하였고, 영유아와 그 가정에 관한 정보를 부모를 통해 수집하였다. 즉, 아동의 특성, 아동지원사업 내용, 육아정책에 관한 질문과 가구 및 부모 특성에 관한 정보를 부모들을 통해 수집하였다.

먼저 저소득층 아동지원 사업 대상의 주양육자들로 부터 얻은 자료로부터 아동의 특성과 가구 및 부모의 특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아동 특성

저소득층 아동지원 사업 대상 가정에서 영유아가 여럿이 있을 경우를 고려하여 두 번째 자녀, 세 번째 자녀가 영유아인 경우에도 대답을 하도록 하였지만 그 대상이 가장 어린 자녀가 영유아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해 그리 많지 않은 편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장 어린 자녀가 영유아에 해당하는 경우인 40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음에서 본 연구의 대상인 가장 어린 영유아 자녀의 연령, 성별, 건강, 주양육자, 아동이 주로 다니는 기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가. 아동의 연령 및 성별, 건강

먼저, 아동의 연령 구분에서 0세에서 만 3세까지를 영아라고 간주하고, 만 4세에서 만 7세까지를 유아로 구분하였을 때, 영아가 46.3%이었고, 유아는 52.9%이었다. 성별로는 남아가 51.7%이었고, 여아가 47.5%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영유아들의 분포에 있어서 유아가 영아보다 조금 더 많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분포되어있고, 성별 분포에서는 남아의 비율이 여아보다 조금 더 높지만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건강한 아동이 82.8%, 보통인 아동이 10.8%, 허약한 아동이 5.6%로 아동들의 건강상태는 대부분 건강하거나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1-1 참조).

0세~만 7세까지 연령별 아동 비율은 부록에 수록하였다(부표 Ⅳ-1-1). 질병유무와 장애유무를 조사하였고, 질병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질병의 종류도 알아보았다. 그에 관한 결과표는 부록으로 수록하였다(부표 Ⅳ-1-2). 질병유무에서는 질병이 없는 경우가 88.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아토피피부염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천식 6명, 심장병 4명, 백혈병 3명 순이었다. 장애유무로는 장애가 없다가 95.6%로 장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 영유아들은 대체로 건강하고 장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질병이 있을 경우 아토피피부염이 가장 많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최근 들어 환경 문제로 말미암아 증가한 영유아 질병 유형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고, 그러한 맥락에서 저소득층 영유아 가정의 열악한 주거환경과의 관련성도 고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표 Ⅳ-1-1> 아동의 연령 및 성별, 건강

단위: %(명)

구분	연령구분			성별			건강상태				계
	영아	유아	무응답	남	여	무응답	건강	보통	허약	무응답	
비율(수)	46.3(189)	52.9(216)	0.7(3)	51.7(211)	47.5(194)	0.7(3)	82.8(338)	10.8(44)	5.6(23)	0.7(3)	100.0(408)

나. 아동이 주로 다니는 기관

1) 기관이용 형태 및 만족도와 기관 비이용 이유

영유아들이 주로 다니는 기관으로는 어린이집이 65.0%로 가장 많았고, 유치원이 17.9%, 다니지 않음이 16.2% 순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저소득층 영유아들은 대부분 유치원보다는 어린이집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1-2 참조).

<표 Ⅳ-1-2> 영유아가 주로 다니는 기관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기타	다니지 않음	무응답	계
비율(수)	65.0(265)	17.9(73)	0.2(1)	16.2(66)	0.7(3)	100.0(408)

그리고 자녀가 다니는 기관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대체로 만족한다가 56.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매우 만족한다 30.4%, 보통이다 10.6%, 별로 만족하지 못한다 1.8%,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가 0.3% 순으로 나타났다.(표 Ⅳ-1-3 참조). 자녀가 다니고 있는 기관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중심의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삼성어린이집 포괄적 보육서비스 대상의 영유아 가정이 대상으로 포함된 것이 기관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었을 것이라 사료된다.

<표 Ⅳ-1-3> 자녀가 다니는 기관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구분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별로 만족하지 못한다	보통이다	대체로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무응답	계
비율(수)	0.3(1)	1.8(6)	10.6(36)	56.6(192)	30.4(103)	0.3(1)	100.0(339)

아동이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을 때, 자녀가 어려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80.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집에 봐 줄 사람이 있어서 7.6%, 비용이 부담 되어서 4.5%, 적응을 못해서라는 이유가 3.0% 순으로 나타났다(표 Ⅳ-1-4 참조).

<표 Ⅳ-1-4> 기관 비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자녀가 질병 혹은 장애가 있어서	집에 봐 줄 사람이 있어서	비용이 부담 돼서	자녀가 어려서	적응을 못해서	기타	무응답	계
비율(수)	1.5(1)	7.6(5)	4.5(3)	80.3(53)	3.0(2)	1.5(1)	1.5(1)	100.0(66)

2) 기관이용 비용 및 지원

전체 대상인 408명의 영유아들 중에서 기관에 다니고 있는 영유아인 339명을 대상으로 그 기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기관이용료는 무상으로부터 10만원까지가 대부분으로 72.0%이었고, 다음으로 11~2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17.1%, 21~30만원의 비용을 지

불하는 경우는 4.4%, 31만원이상이 0.6% 정도를 차지하였다(표 Ⅳ-1-5 참조).

<표 Ⅳ-1-5> 자녀가 다니는 기관 이용료

단위: %(명)

구분	0-10만원	11-20만원	21-30만원	31-40만원	41-50만원	무응답	계
비율(수)	72.0(244)	17.1(58)	4.4(15)	0.6(2)	0.3(1)	5.6(19)	100.0(339)

둘째, 기관이용료 부담정도에 있어서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가 31.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어느 정도 부담스럽다 29.8%, 별로 부담스럽지 않다 22.4%, 매우 부담스럽다가 13.9% 순으로 나타났다(표 Ⅳ-1-6 참조).

<표 Ⅳ-1-6> 자녀가 다니는 기관이용료 부담 정도

단위: %(명)

구분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별로 부담스럽지 않다	어느 정도 부담스럽다	매우 부담스럽다	무응답	계
비율(수)	31.6(107)	22.4(76)	29.8(101)	13.9(47)	2.4(8)	100.0(339)

셋째, 교육비나 보육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종류에 관해 살펴보면, 차상위계층으로 지원받는 경우가 45.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받는 경우가 23.0%, 만5세아 무상보육·교육대상자로서 지원 받는 경우 20.4%, 모부자 자녀 가정자녀로서 지원받는 경우 5.9%,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경우 1.8%, 장애아동 무상보육 지원을 받는 경우가 0.9% 순으로 나타났다(표 Ⅳ-1-7 참조).

<표 Ⅳ-1-7> 교육비 또는 보육료 지원 종류

단위: %(명)

구분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모·부자 가정자녀	만5세아 무상보육·교육 대상자	장애아동 무상보육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음	기타	무응답	계
비율(수)	23.0(78)	45.4(154)	5.9(20)	20.4(69)	0.9(3)	1.8(6)	0.3(1)	2.4(8)	100.0(339)

기관이용료는 10만원 이하의 비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기관이용료가 부담스럽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54%로 과반수를 조금 넘었지만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경우도 43.7%에 달해 저소득층 영유아 가정에서는 기관이용료가 부담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종류로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여 지원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 순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지원을 받는 경우이었다. 영유아가 기관을 이용하는 횟수는 부록에 제시하였다(부표 Ⅳ-1-3참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용하는 경우가 91.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이용하는 경우가 7.7%를 차지하였다.

2. 가구 및 부모 특성

가구 및 부모 특성에 관한 정보를 저소득층 영유아 가정의 부모들로부터 얻었다. 부모들에게 가족 구성원, 주택소유형태, 주양육자의 성별, 연령 및 학력, 고용형태, 건강, 배우자에 관한 정보, 가계소득과 국민기초생활급여 수혜유무와 같은 질문들에 대답하도록 하였다. 다음에 그 응답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가. 가족 구성

먼저 자녀수에 관하여 살펴보면, 자녀수는 전체자녀수가 2명인 경우가 51.0%로 가장 많았고, 3명이 21.1%, 1명인 경우가 20.6% 순으로 나타났다(<표 Ⅳ-2-1> 참조). 가족 구성은 부모와 자녀 2명으로 이루어진 4인 구성의 핵가족 형태가 대체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 가족유형은 부록에 제시하였다(부표 Ⅳ-2-1, 부표 Ⅳ-2-2 참조). 가구원 수는 4인 가족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48.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인 22.8%, 3인 14.2%, 6인 6.4% 순이었다. 가족 유형으로는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유형이 69.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세대 이상 가족과 자녀(대가족)로 구성된 가정이 11.8%, 편부 또는 편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이 9.8%, 조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이 5.6%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2-1> 전체 자녀 수

단위: %(명)

구분	1 명	2 명	3 명	4 명	5 명	8 명	무응답	계
비율(수)	20.6(84)	51.0(208)	21.1(86)	2.9(12)	1.7(7)	0.5(2)	2.2(9)	100.0(408)

나. 주택소유형태

다음으로 주택소유형태에 관하여 살펴보면, 주택소유형태는 전세가 30.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증금 있는 월세 27.9%, 자가 15.2% 순이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보다는 전세로 살거나 보증금 있는 월세 형태로 살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표 Ⅳ-2-2> 참조).

<표 Ⅳ-2-2> 주택소유형태

단위: %(명)

구분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무상	기타	무응답	계
비율(수)	15.2(62)	30.9(126)	27.9(114)	4.4(18)	9.1(37)	11.3(46)	1.2(5)	100.0(408)

다. 가계소득과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가계월평균소득은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이 36.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만원~100만원 미만 25.7%,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7.9%, 50만원 미만 7.6%, 2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이 6.9%, 300만원 이상이 2.7%, 2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1.7%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수혜 여부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급여를 받는 경우는 27.5%이었고, 받지 않은 경우는 72.3%로 나타났다(표 Ⅳ-2-3 참조).

<표 Ⅳ-2-3> 가계소득과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혜 유무

단위: %(명)

구분		비율
가계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	7.6 (31)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25.7 (105)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36.0 (147)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7.9 (73)
	2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	6.9 (28)
	2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7 (7)
	300만원 이상	2.7 (11)
	무응답	1.5 (6)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혜유무	예	27.5 (112)
	아니오	72.3 (295)
	무응답	0.2 (1)
전체		100.0 (408)

라. 주양육자의 특성

주양육자로는 부모가 87.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조부모가 10.5% 순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영유아들은 주로 부모들에 의해 양육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10명 중 1명 정도에 해당하는 영유아는 조부모가 양육하고 있었다.

응답자인 주양육자 성별, 연령, 학력에 관하여 살펴보면, 응답자의 대부분은 여성으로 90.9%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주양육자가 주로 어머니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연령은 30대(30~39세)가 61.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40~49세)가 20.1%, 20대(20~29세)가 9.3%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학력으로는 고졸이 57.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졸미만이 18.9%, 2~3년제 대졸 13.0%, 4년제 대졸이 10.0% 순이었다.

아동을 주로 양육하는 사람은 부모였고, 30대의 고졸학력이 가장 많았다(<표 Ⅳ-2-4> 참조).

마. 주양육자의 고용형태

응답자의 고용형태에 관하여 살펴보면 고용형태에서는 전업주부가 52.9%로 가장 많았고, 정규직(회사원, 사무직) 11.5%, 임시근로자(1년 미만 고용계약)

10.3%, 일용근로자(1개월 미안 고용계약) 7.4% 순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영유아 가정의 주양육자인 어머니들은 취업을 한 경우보다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다(표 Ⅳ-2-5 참조).

<표 Ⅳ-2-4> 주양육자 특성

단위: %(명)

구분		비율
주양육자	부모	87.7 (359)
	조부모	10.5 (42)
	형제자매	0.2 (1)
	친인척	0.7 (3)
	무응답	0.7 (3)
성별	남성	8.8 (36)
	여성	90.9 (371)
	무응답	0.2 (1)
연령	20-29세	9.3 (38)
	30-39세	61.3 (250)
	40-49세	20.1 (82)
	50-59세	4.9 (20)
	60-69세	2.7 (11)
	70-79세	1.0 (4)
	무응답	0.7 (3)
학력	고졸 미만	18.9 (77)
	고졸	57.1 (233)
	2-3년제 대졸	13.0 (53)
	4년제 대졸	10.0 (41)
	대학원 재학 이상	0.7 (3)
	무응답	0.2 (1)
전체		100.0 (408)

<표 Ⅳ-2-5> 주양육자의 고용형태

단위: %(명)

구분	고용주 (회사 운영 등)	자영업자(가게, 포장마차 등)	정규직 (회사원, 사무직)	임시 근로자 (1년 미만 고용계약)	일용 근로자 (1개월 미만 고용계약)	전업 주부	무직	기타	무응답	계
비율 (수)	0.2 (1)	7.6 (31)	11.5 (47)	10.3 (42)	7.4 (30)	52.9 (216)	8.3 (34)	1.0 (4)	0.7 (3)	100.0 (408)

바. 주양육자의 건강

응답자인 주양육자의 건강상태, 질병유무와 장애 유무에 관해서 살펴보면, 건강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58.1%로 가장 많았고, 보통 27.7%, 허약 14.0% 순으로 나타났다. 질병이 없는 경우가 81.4% 이었고, 질병이 있는 경우는 17.4%이었다. 장애가 있는 경우는 5.4% 이었고, 장애가 없는 경우는 92.9% 로 비장애인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표 Ⅳ-2-6 참조). 주양육자가 질병이 있을 경우, 주된 질병의 종류와 장애등급에 관한 내용은 부록에 제시 되어있다(부표 Ⅳ-2-3, 부표 Ⅳ-2-4 참조). 그 질병 유형으로는 허리디스크가 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당뇨 6명과 류마티스 관절염이 5명 순이었다.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 등급 3급과 4급이 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장애등급 1급과 지체장애 2급이 2명으로 나타났다.

<표 Ⅳ-2-6> 주 양육자의 건강

단위: %(명)

구분		비율 (수)
건강상태	건강	58.1 (237)
	보통	27.7 (113)
	허약	14.0 (57)
	무응답	0.2 (1)
질병유무	유	17.4 (71)
	무	81.4 (332)
	무응답	1.2 (5)
장애유무	유	5.4 (22)
	무	92.9 (379)
	무응답	1.7 (7)
전체		100.0 (408)

3.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효과 분석

가. 각 아동지원사업 수혜 후 변화

부모들에게 해당자녀(영유아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가장 어린 영유아)

가 현재 아동지원사업(드림스타트, 위스타트, 삼성어린이집 포괄적보육서비스, 교복투 사업) 대상자인지를 물었을 때 아니라고 하거나 잘 모른다고 응답한 사례를 제외한 그렇다고 응답한 27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즉, 저소득층 영유아를 위한 지원사업인, 삼성어린이집 포괄적 보육서비스, 위스타트 사업, 교육투 사업과 드림스타트 사업의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는 영유아들의 주양육자 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상의 네 가지 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지 않는 일반저소득층 가정의 영유아들은 제외되었다. 분석내용은 아동지원사업이 영유아 발달에 도움을 준 정도, 아동지원사업 수혜 후 양육태도 및 가정의 변화 정도, 아동지원사업 담당자들과 관계 인식, 아동지원사업이 학교생활에 도움을 준 정도, 아동지원사업별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아동지원사업 대상이 되는 영유아의 선정은 전국적으로 네 가지 사업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그래서 서울, 경기, 강원, 광주, 전라남·북도, 부산, 경남권역이 포함되었고, 각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이나 어린이집의 협조를 얻어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주 양육자 가정을 중심으로 조사원의 가구방문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교육투사업의 경우는 서울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유치원을 중심으로 한 종일반 운영 비용지원, 물품지원 등과 같은 서비스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영유아와 그 가정에 직접적인 서비스를 주는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서울지역 만을 중심으로 유아교육복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질문지를 수거하였다.

1) 영유아발달

<표 Ⅳ-3-1>은 각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영유아 가정의 주양육자들이 그 지원사업에 참여함으로 영유아발달에 도움을 받았는지의 정도를 4점 척도(매우도움이 되었다,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로 평가하도록 한 후 각 발달영역 별로 평균과 표준편차 점수를 산출하였다. 각 사업별로 보면, 첫째, 영유아의 인지발달에서 위스타트사업은 평균값이 3.21, 드림스타트 평균이 3.03, 삼성어린이집 포괄적 보육서비스 사업은 3.48, 교육투사업, 3.43으로 대체적으로 모든 사업들이 3점이상의 높은 점수로서 영유아의 인지발달에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저소득층 영유아를 위한 아동지원사업들에 따라 주양육자들이 영유

아의 발달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는 정도는 참여하고 있는 사업의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첫째, 각 지원 사업에 따른 주양육자가 영유아의 인지발달에 도움을 받았다고 인식하는 정도의 차이를 F 검증한 결과, 사업에 따라서 참여하고 있는 아동지원사업이 영유아의 인지발달(F=6.45, p<.001)에 도움이 되었다고 부모가 인식하는 정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 차이가 어떤 아동지원사업 유형간의 차이에서 연유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 Scheffé 사후 검증한 결과, 사업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삼성어린이집 포괄적 보육서비스를 받거나 교육투 사업의 서비스를 받는 영유아들의 주양육자들이 드림스타트사업의 지원을 받는 영유아들의 양육자보다 참여하고 있는 사업들이 영유아의 인지발달에 더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평가하였다.

둘째, 각 아동지원사업에 따라서 주양육자가 영유아의 사회성발달에 도움을 받았다고 인식하는 정도의 차이를 F 검증한 결과, 사업에 따라서 참여하고 있는 아동지원사업이 영유아의 사회성발달(F=6.78, p<.001)에 도움이 되었다고 부모가 인식하는 정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 차이가 어떤 아동지원사업 유형 간의 차이에서 연유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 Scheffé 사후 검증한 결과, 사업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삼성어린이집 포괄적 보육서비스를 받거나 교육투 사업의 서비스를 받는 영유아들의 주양육자들이 드림스타트사업의 지원을 받는 영유아들의 양육자보다 참여하고 있는 사업들이 영유아의 사회성발달에 더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평가하였다.

셋째, 각 아동지원사업에 따라서 주양육자가 영유아의 언어발달에 도움을 받았다고 인식하는 정도의 차이를 F 검증한 결과, 사업에 따라서 참여하고 있는 아동지원사업이 영유아의 언어발달(F=10.80, p<.001)에 도움이 되었다고 부모가 인식하는 정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 차이가 어떤 아동지원사업 유형간의 차이에서 연유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 Scheffé 사후 검증한 결과, 사업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삼성어린이집 포괄적 보육서비스를 받거나 교복투 사업의 서비스를 받는 영유아들의 주양육자들이 드림스타트사업의 지원을 받는 영유아들의 양육자보다 참여하고 있는 사업들이 영유아의 정서발달에 더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평가하였다.

넷째, 각 아동지원사업에 따라서 주양육자가 영유아의 정서발달에 도움을 받았다고 인식하는 정도의 차이를 F 검증한 결과, 사업에 따라서 참여하고 있는

아동지원사업이 영유아의 정서발달(F=8.89, p<.001)에 도움이 되었다고 부모가 인식하는 정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 차이가 어떤 아동지원사업 유형 간의 차이에서 연유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 Scheffé 사후 검증한 결과, 사업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삼성어린이집 포괄적 보육서비스를 받거나 교복투 사업의 서비스를 받는 영유아들의 주양육자들이 드림스타트사업의 지원을 받는 영유아들의 양육자보다 참여하고 있는 사업들이 정서발달에 더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삼성어린이집 포괄적 보육서비스를 받는 영유아들의 주양육자들이 위스타트사업의 지원을 받는 영유아들의 양육자보다 참여하고 있는 사업들이 영유아의 정서발달에 더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평가하였다.

다섯째, 각 아동지원사업에 따라서 주양육자가 영유아의 신체발달에 도움을 받았다고 인식하는 정도의 차이를 F 검증한 결과, 사업에 따라서 참여하고 있는 아동지원사업이 영유아의 신체발달(F=15.70, p<.001)에 도움이 되었다고 부모가 인식하는 정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 차이가 어떤 아동지원사업 유형간의 차이에서 연유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 Scheffé 사후 검증한 결과, 사업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삼성어린이집 포괄적 보육서비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 위스타트사업의 서비스를 받는 영유아들의 주양육자들이 드림스타트사업의 지원을 받는 영유아들의 양육자보다 참여하고 있는 사업들이 영유아의 신체발달에 더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평가하였다.

전체적으로 요약하여 보면, 저소득층 영유아를 위한 지원사업들에 따라 영유아의 발달에 도움이 되었다고 영유아의 주양육자들이 인식하는 정도는 참여하고 있는 사업의 유형에 따라 달랐다. 대체로 삼성어린이집 포괄보육서비스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에 참여하는 영유아의 주양육자들이 드림스타트 사업에 참여하는 영유아의 주양육자들 보다 인지, 사회성, 언어와 정서발달에 더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평가하였고, 위스타트사업에 참여하는 영유아의 주양육자들보다 삼성어린이집 포괄보육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영유아들이 참여하고 있는 지원사업이 영유아의 언어발달에 도움이 더 많이 되었다고 인식하였다. 그리고 삼성어린이집 포괄적 보육서비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 위스타트사업의 서비스를 받는 영유아들의 주양육자들이 드림스타트사업의 지원을 받는 영유아들의 양육자보다 참여하고 있는 사업들이 영유아의 신체발달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인식하였다.

대체적으로 삼성어린이집 포괄적보육서비스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영유아들의 주양육자들이 드림스타트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영유아들의 주양육자들보다 영유아의 인지, 사회성, 언어와 정서발달에 그 사업들이 더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으로 인식하였다. 한편, 언어발달에 있어서는 위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한 영유아의 주양육자들도 드림스타트에 참여한 주양육자들보다 더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위스타트 프로그램이 영유아의 언어발달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Scheffé 사후 검증한 결과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부표 Ⅵ-3-1 참조).

<표 Ⅳ-3-1> 아동지원사업별 영유아 발달에 도움 된 정도

단위: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F*
인지발달						
위스타트	3.2	0.6	1	4	66	
드림스타트	3.0	0.7	1	4	65	6.45***
삼성포괄보육서비스	3.5	0.5	2	4	58	
교복투	3.4	0.5	3	4	37	
사회성 발달						
위스타트	3.2	0.6	1	4	66	
드림스타트	3.1	0.7	1	4	65	6.78***
삼성포괄보육서비스	3.5	0.5	3	4	58	
교복투	3.5	0.5	3	4	38	
언어발달						
위스타트	3.2	0.6	1	4	66	
드림스타트	3.0	0.7	1	4	65	10.80***
삼성포괄보육서비스	3.6	0.5	3	4	57	
교복투	3.4	0.6	2	4	37	
정서발달						
위스타트	3.2	0.6	1	4	66	
드림스타트	3.0	0.7	1	4	65	8.89***
삼성포괄보육서비스	3.5	0.5	3	4	58	
교복투	3.5	0.6	2	4	37	
신체발달						
위스타트	3.1	0.7	1	4	66	
드림스타트	2.8	0.5	2	4	65	15.70***
삼성포괄보육서비스	3.5	0.6	2	4	58	
교복투	3.4	0.6	2	4	37	

***$p < .001$.

2) 양육태도의 변화

<표 Ⅳ-3-2>는 각 아동 지원 사업에 따라서 아동사업 서비스 수혜 후 양육태도의 변화가 있었는지의 정도를 주양육자의 보고를 통해 살펴보았다. 첫째, 각 아동지원사업별에 따른 아동지원사업 서비스 수혜 후 자녀를 더 많이 이해하는 정도의 차이를 F 검증한 결과, 영유아가 참여하고 있는 지원 사업에 따라서 주양육자가 자녀를 더 많이 이해하는 정도(F=7.06, p<.001)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 차이가 어떤 아동지원사업 유형간의 차이에서 연유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사후 검증한 결과, 사업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삼성어린이집 포괄적 보육서비스를 받거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의 서비스를 받는 영유아들의 주양육자들이 드림스타트사업의 지원을 받는 영유아들의 양육자보다 참여하고 있는 사업 수혜 후 아동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둘째, 각 아동지원사업 별에 따른 아동사업 서비스 수혜 후 자녀를 더 다정하게 대하는 정도의 차이를 F 검증한 결과, 영유아가 참여하고 있는 지원 사업에 따라서 주양육자가 자녀를 더 다정하게 대하는 정도(F=4.97, p<.01)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 차이가 어떤 아동지원사업 유형간의 차이에서 연유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사후 검증한 결과, 사업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삼성어린이집 포괄적 보육서비스를 받거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의 서비스를 받는 영유아들의 주양육자들이 드림스타트사업의 지원을 받는 영유아들의 양육자보다 참여하고 있는 사업 수혜 후 아동을 더 다정하게 대하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셋째, 각 아동지원사업 별에 따른 아동사업 서비스 수혜 후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더 많이 하는 정도의 차이를 F 검증한 결과, 영유아가 참여하고 있는 아동지원사업에 따라서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더 많이 하는 정도(F=4.72, p<.01)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 차이가 어떤 아동지원사업 유형간의 차이에서 연유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사후 검증한 결과, 사업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삼성어린이집 포괄적 보육서비스를 받는 영유아들의 주양육자들이 드림스타트 사업의 지원을 받는 영유아들의 양육자보다 참여하고 있는 사업 수혜 후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넷째, 각 아동지원사업 별에 따른 아동사업 서비스 수혜 후 자녀가 잘못을 하

거나 말썽을 부릴 때 자녀에 대해 느끼는 분노나 갈등을 더 잘 조절 정도의 차이를 F 검증한 결과, 영유아가 참여하고 있는 아동지원사업에 따라서 자녀가 잘못을 하거나 말썽을 부릴 때 자녀에 대해 느끼는 분노나 갈등을 더 잘 조절 정도(F=7.22, p<.001)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 차이가 어떤 아동지원사업 유형간의 차이에서 연유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사후 검증한 결과, 사업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삼성어린이집 포괄적 보육서비스를 받는 영유아들의 주양육자들이 드림스타트나 위스타트 사업의 지원을 받는 영유아들의 양육자보다 참여하고 있는 사업 수혜 후 자녀가 잘못을 하거나 말썽을 부릴 때 자녀에 대해 느끼는 분노나 갈등을 더 잘 조절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다섯째, 각 아동지원사업 별에 따른 아동사업 서비스 수혜 후 자녀에게 말을 더 자주 건네는 정도의 차이를 F 검증한 결과, 영유아가 참여하고 있는 지원 사업에 따라서 자녀에게 말을 더 자주 건네는 정도(F=5.87, p<.01)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 차이가 어떤 아동지원사업 유형간의 차이에서 연유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사후 검증한 결과, 사업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삼성어린이집 포괄적 보육서비스를 받거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의 서비스를 받는 영유아들의 주양육자들이 드림스타트사업의 지원을 받는 영유아들의 양육자보다 참여하고 있는 사업 수혜 후 자녀에게 말을 더 자주 건넨다고 평가하였다.

전체적으로 요약하여 보면, 저소득층 영유아를 위한 지원 사업들에 따라 자녀 양육태도의 변화에 관하여 영유아의 주양육자들이 인식하는 정도는 참여하고 있는 사업의 유형에 따라 달랐다. 대체로 삼성어린이집 포괄보육서비스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에 참여하는 영유아의 주양육자들이 드림스타트 사업에 참여하는 영유아의 주양육자들 보다 자녀를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고, 자녀를 더 다정하게 대하게 되었고, 자녀에게 말을 더 자주 건네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삼성어린이집 포괄보육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영유아들의 주양육자들이 위스타트 사업이나 드림스타트 사업에 참여하는 영유아의 주양육자들 보다 참여하고 있는 아동지원사업을 받은 후 자녀가 질문을 하면 대답을 더 잘해주고, 자녀가 잘못을 하거나 말썽을 부릴 때 자녀에 대해 느끼는 분노나 갈등을 더 잘 조절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삼성어린이집 포괄보육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영유아들의 주양육자들이 드림스타트 사업에 참여하는 영유아의 주양육자들 보다

참여하고 있는 아동지원사업을 받은 후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더 많이 하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대체적으로 삼성어린이집 포괄적 보육서비스를 받은 주양육자들이 자신들의 양육태도에서 서비스를 받은 후 변화가 많아진 것으로 인식하였다. Scheffé 사후 검증한 결과는 부록에 제시하였다(부표 Ⅳ-3-2 참조).

<표 Ⅳ-3-2> 아동지원사업 수혜 후 양육태도 변화

단위: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F*
더 많이 이해함						
위스타트	3.1	0.6	2	4	66	
드림스타트	2.8	0.6	2	4	66	7.06***
삼성포괄보육서비스	3.3	0.6	2	4	58	
교복투	3.3	0.6	2	4	36	
다정하게 대함						
위스타트	3.1	0.6	2	4	66	
드림스타트	2.9	0.7	2	4	66	4.97**
삼성포괄보육서비스	3.3	0.5	2	4	58	
교복투	3.3	0.5	2	4	36	
표현을 많이함						
위스타트	3.0	0.6	2	4	66	
드림스타트	2.8	0.7	2	4	66	4.72**
삼성포괄보육서비스	3.2	0.7	2	4	58	
교복투	3.1	0.6	1	4	36	
자녀에게 분노조절						
위스타트	3.0	0.6	2	4	66	
드림스타트	3.0	0.7	2	4	66	7.22**
삼성포괄보육서비스	3.4	0.6	2	4	58	
교복투	3.4	0.6	2	4	36	
대화시도						
위스타트	3.2	0.6	2	4	66	
드림스타트	3.0	0.8	2	4	66	5.87**
삼성포괄보육서비스	3.4	0.6	2	4	58	
교복투	3.4	0.5	2	4	36	

** p < .01. ***p < .001.

3) 가정의 변화

<표 Ⅳ-3-3>은 각 아동 지원 사업에 따라서 아동지원사업 서비스 수혜 후 가정의 변화가 있었는지의 정도를 주양육자의 보고를 통해 살펴보았다. 첫째, 각 아동지원사업 별에 따른 아동지원사업 서비스 수혜 후 부모가 더 일찍 귀가하게 된 정도의 차이를 F 검증한 결과, 영유아가 참여하고 있는 지원 사업에 따라서 부모가 더 일찍 귀가하게 된 정도(F=3.20, p<.05)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부모의 조기귀가의 차이가 어떤 아동지원사업 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사후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각 아동지원사업 별에 따른 아동지원사업 서비스 수혜 후 가족의 웃음소리가 더 많아진 정도의 차이를 F 검증한 결과, 영유아가 참여하고 있는 지원 사업에 따라서 가족의 웃음소리가 더 많아진 정도(F=3.24, p<.05)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가족의 웃음소리가 더 많아진 정도의 차이가 어떤 아동지원사업 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사후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셋째, 각 아동지원사업 별에 따른 아동지원사업 서비스 수혜 후 부부 싸움을 덜하게 된 정도의 차이를 F 검증한 결과, 영유아가 참여하고 있는 지원 사업에 따라서 부부 싸움을 덜하게 된 정도(F=10.31, p<.001)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가 어떤 아동지원사업 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사후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삼성어린이집 포괄적 보육서비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과 위스타트 사업의 서비스를 받는 부부들이 드림스타트사업의 지원을 받는 부부들 보다 부부싸움을 덜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넷째, 각 아동지원사업 별에 따른 아동지원사업 서비스 수혜 후 금주 정도의 차이를 F 검증한 결과, 영유아가 참여하고 있는 지원 사업에 따라서 금주 정도(F=6.20, p<.01)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가 어떤 아동지원사업 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사후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삼성어린이집 포괄적 보육서비스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을 받는 영유아 가정의 부모가 드림스타트사업의 지원을 받는 영유아 가정보다 금주를 더 많이 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다섯째, 각 아동지원사업 별에 따른 아동지원사업 서비스 수혜 후 가정과 자녀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 사고 정도의 차이를 F 검증한 결과, 영유아가 참여하

고 있는 지원 사업에 따라서 가정과 자녀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 사고 정도(F=13.79, p<.001)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가 어떤 아동지원사업 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사후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삼성어린이집 포괄적 보육서비스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 서비스를 받는 영유의 가정의 주양육자들이 가정과 자녀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 사고 정도는 드림스타트사업의 지원을 받는 영유아 가정의 주양육자들보다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 서비스를 받는 영유의 가정의 주양육자들이 가정과 자녀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 사고 정도는 위스타트 사업의 지원을 받는 영유아 가정의 주양육자들보다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요약하여 보면, 저소득층 영유아를 위한 지원 사업들에 따라 가정의 변화가 나타났다. 가정의 변화 중 부모의 조기 귀가나 웃음이 많아지는 것은 아동지원사업의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그러한 차이가 어떤 아동지원사업유형 간의 차이에서 연유하는 지는 사후검증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부부싸움의 정도에서는 삼성어린이집 포괄적 보육서비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과 위스타트 사업의 서비스를 받는 부부들이 드림스타트사업의 지원을 받는 부부들 보다 부부싸움을 덜하게 되는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금주에 있어서의 변화는 삼성어린이집 포괄적 보육서비스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을 받는 영유아 가정의 부모가 드림스타트사업의 지원을 받는 영유아 가정보다 금주를 더 많이 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가정과 자녀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 사고 정도에서는 삼성어린이집 포괄적 보육서비스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 서비스를 받는 영유아 가정의 주양육자들이 드림스타트사업의 지원을 받는 영유아 가정의 주양육자들 보다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 서비스를 받는 영유아 가정의 주양육자들이 가정과 자녀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 사고 정도는 위스타트 사업의 지원을 받는 영유아 가정의 주양육자들 보다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é 사후 검증한 결과는 부록에 제시하였다(부표 Ⅳ-3-3 참조).

<표 Ⅳ-3-3> 아동지원사업 수혜 후 가정의 변화

단위: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F
조기 귀가						
위스타트	2.7	0.7	1	4	55	
드림스타트	2.6	0.8	1	4	43	3.20*
삼성포괄보육서비스	2.9	0.7	2	4	49	
교복투	3.0	0.8	2	4	34	
웃음이 많아짐						
위스타트	2.8	0.6	1	4	64	
드림스타트	2.8	0.7	1	4	55	3.24*
삼성포괄보육서비스	3.1	0.6	1	4	57	
교복투	3.1	0.7	2	4	33	
덜 다툼						
위스타트	2.8	0.6	1	4	55	
드림스타트	2.2	0.5	1	4	36	10.31***
삼성포괄보육서비스	3.0	0.8	1	4	47	
교복투	2.9	0.8	1	4	27	
금주						
위스타트	2.5	0.8	1	4	45	
드림스타트	2.1	0.5	1	4	34	6.20**
삼성포괄보육서비스	2.8	0.9	1	4	46	
교복투	2.8	0.7	2	4	24	
긍정적 사고						
위스타트	3.0	0.5	1	4	62	
드림스타트	2.9	0.6	2	4	66	13.79***
삼성포괄보육서비스	3.3	0.6	1	4	58	
교복투	3.6	0.6	2	4	35	

* p < .05. ** p < .01. ***p <..001.

4) 학교생활 도움 정도

<표 Ⅳ-3-4>는 각 아동지원사업에 따라서 아동지원사업이 학교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정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주양육자의 보고를 통해 살펴보았다. 각 아동지원사업 별에 따른 아동지원사업이 학교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정도의 차이를 F 검증한 결과, 영유아가 참여하고 있는 지원 사업에 따라서 학교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정도(F=2.83, p<.05)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가 어떤 아동지원사업 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사후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Ⅳ-3-4> 아동지원사업이 학교생활에 도움이 된 정도

단위: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F*
위스타트	4.3	0.7	2	5	66	2.83*
드림스타트	4.2	0.7	2	5	65	
삼성포괄보육서비스	4.6	0.6	3	5	59	
교복투	4.5	0.7	2	5	36	

* p < .05.

5) 서비스 만족도

<표 Ⅳ-3-5>는 각 아동지원사업에 따라서 아동지원사업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본 결과이다. 각 아동지원사업 별에 따른 아동지원사업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를 F 검증한 결과, 영유아가 참여하고 있는 지원 사업에 따라서 아동지원사업 서비스 만족도(F=3.59, p<0.5)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가 어떤 아동지원사업 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사후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Ⅳ-3-5> 아동지원사업 서비스 만족도

단위: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F*
위스타트	4.2	0.8	1	5	66	3.59*
드림스타트	4.1	0.6	3	5	65	
삼성포괄보육서비스	4.4	0.6	3	5	59	
교복투	4.5	0.6	3	5	36	

* p < .05.

6) 담당자들에 대한 관계 인식

<표 Ⅳ-3-6>은 각 아동 지원 사업에 따라서 아동지원사업 담당자들에 대한 관계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본 결과이다. 첫째, 각 아동지원사업 별에

따른 아동지원사업 담당자들이 아이들에게 친절한 정도의 차이를 F 검증한 결과, 영유아가 참여하고 있는 지원 사업에 따라서 담당자들의 친절 정도(F=3.93, p<.01)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친절 정도의 차이가 어떤 아동지원사업 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사후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삼성어린이집 포괄적 보육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나 교사들이 드림스타트사업 담당자들 보다 더 친절하다고 부모들이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각 아동지원사업 별에 따른 아동지원사업 담당자들이 힘들 때 의지가 되는 정도의 차이를 F 검증한 결과, 영유아가 참여하고 있는 지원 사업에 따라서 담당자들이 힘들 때 의지가 되는 정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셋째, 각 아동지원사업 별에 따른 아동지원사업 담당자들이 실제 많은 도움이 되는 정도의 차이를 F 검증한 결과, 영유아가 참여하고 있는 지원 사업에 따라서 담당자들의 실제 도움 정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넷째, 각 아동지원사업 별에 따른 주양육자들이 담당자들이 의무적으로 일하는 것 같다고 느끼는 정도의 차이를 F 검증한 결과, 영유아가 참여하고 있는 지원 사업에 따라서 담당자들이 의무적으로 일하는 것 같다고 느끼는 정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섯째, 각 아동지원사업 별에 따른 담당자와의 갈등 정도의 차이를 F 검증한 결과, 영유아가 참여하고 있는 지원 사업에 따라서 아동지원사업 담당자와의 갈등 정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전체적으로 요약하여 보면, 저소득층 영유아를 위한 지원 사업들에 따라 아동지원사업의 담당자들에 대한 견해들(힘들 때 의지가 되는 정도, 실제적 도움 정도, 의무적으로 대하는 가에 대한 정도, 잦은 갈등 정도)에서는 영유아를 친절하게 대하는 정도를 제외하고는 아동지원사업 유형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표 Ⅳ-3-6> 아동지원사업 담당자들에 대한 관계 인식

단위: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F
친철함						
위스타트	3.6	0.6	2	4	66	3.93**
드림스타트	3.4	0.5	3	4	66	
삼성포괄보육서비스	3.7	0.5	2	4	58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F*
교복투	3.6	0.6	2	4	33	
힘들때 의지됨						
위스타트	3.3	0.7	1	4	66	
드림스타트	3.3	0.6	2	4	66	0.62
삼성포괄보육서비스	3.2	0.8	1	4	58	
교복투	3.2	0.8	1	4	33	
실제적 도움						
위스타트	3.4	0.7	2	4	66	
드림스타트	3.4	0.6	2	4	66	0.17
삼성포괄보육서비스	3.4	0.7	1	4	58	
교복투	3.3	0.7	2	4	33	
의무적						
위스타트	3.3	0.9	1	4	66	
드림스타트	3.6	0.6	2	4	66	1.74
삼성포괄보육서비스	3.3	0.9	1	4	58	
교복투	3.3	1.0	1	4	33	
잦은 갈등						
위스타트	3.5	0.8	1	4	66	
드림스타트	3.7	0.5	2	4	66	1.07
삼성포괄보육서비스	3.7	0.6	1	4	58	
교복투	3.5	1.0	1	4	33	

** p < .01.

7) 소결

각 아동지원사업 수혜 후 변화에 관하여 살펴본 결과, 대체적으로 삼성어린이집 포괄적보육 서비스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영유아들의 주양육자들이 드림스타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영유아의 주양육자들보다 영유아의 발달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삼성어린이집 포괄적보육서비스를 받은 주양육자들이 자신들의 양육태도가 서비스를 받은 후 긍정적으로 많이 변화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삼성어린이집 포괄적보육서비스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이 드림스타트에 비해 일찍 시작이 되었던 점이 많이 기여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삼성어린이집 포괄적보육서비스의 경우는 1999년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은 2003년에 시작된 반면, 드림스타트 사업은 최근 2008년에 시작된 사업인 점을

고려한다면, 드림스타트 사업이 안정된 기반에서 충분한 체계를 가지고 운영되기에는 좀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삼성어린이집 포괄적 보육서비스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의 경우 삼성어린이집과 유치원이라는 센터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위스타트나 드림스타트 사업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많이 있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4개의 사업을 같은 기준 선상에 두고 비교 분석한다는 것은 주위를 요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삼성어린이집 포괄적 보육서비스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의 경우 그 효과가 유아교육기관에서 제공되는 질 높은 교육내용이나 교사의 수준과 같은 요인들이 아동의 발달적인 측면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을 수 있고, 이러한 변화들을 부모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질적으로 우수한 삼성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부터 아동지원사업을 받는 경우 부모들의 만족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위스타트나 드림스타트 사업 지역의 경우, 지역적인 낙후성 때문에 질적으로 우수한 유아교육기관으로부터 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대체적으로 위스타트나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를 보고하였다는 것은 사업 그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집상의 문제로서 다른 아동지원사업들은 전국적인 표집인데 비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의 경우에는 사업이 대체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서울지역 만으로 한정되었다는 점도 해석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 여겨진다.

한편, 아동지원사업 담당자들에 대한 인식이나, 아동지원사업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아동지원사업 대상 영유아의 주양육자들은 모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그러한 사업에 만족하고 있었고, 아동지원사업이 영유아의 장래 학교생활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즉 모든 아동지원사업 대상 영유아의 주양육자들은 받고 있는 서비스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고, 이러한 서비스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받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아동지원사업의 수혜 후 변화를 살펴본 결과로 부터 저소득층 영유아를 위한 통합적 지원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확산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나. 각 아동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실태

각 사업별로 1년간 각 서비스의 내용별로 부모보고를 통해서 이용여부를 알아 본 결과이다. 서비스 이용 여부 및 정도를 알아본 서비스 항목은 대상아동에 맞는 활동과 자료 개발 및 적용, 아동의 개별적 지도(놀이, 언어치료 등, 특기지원), 멘토링 프로그램(자원봉사자에 의한 개별 지원 등), 부모 교육(성교육, 자녀양육, 아동권리 교육 등), 부모개별 면담/상담, 부모참여(엄마와 함께 활동, 아버지독서, 가족문화체험 등), 가족대상서비스(이미용, 세대교류 등), 빈곤탈출 기반조성사업(직업훈련, 물품훈련 프로그램 등), 대상 아동 지도를 위한 교사 지원, 아동 및 가족 대상의 건강・의료 서비스, 사례관리, 지역사회와의 연계에 관한 것이었다.

1) 각 사업별 참여 서비스 이용여부 및 정도

가) 위스타트 사업

먼저 위스타트 사업을 살펴보면, 해당사업에서 첫째, 대상아동에 맞는 활동과 자료 개발한 것을 그 아동의 가정에서 적용해 보는 서비스를 이용해본 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66.7% 가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대상 아동이 놀이, 언어치료, 특기지원 등의 개별적 지도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 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57.6% 가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셋째, 자원 봉사자에 의한 개별지원 등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이용해본 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21.2%가 이용해 본적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넷째, 자녀교육, 성교육, 아동권리 교육 등의 부모교육 서비스를 이용해본 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42.4%가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섯째, 부모개별면담 및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본 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57.6%가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여섯째, 엄마와 함께 하는 활동, 아버지독서, 가족문화체험 등과 같은 부모참여 서비스를 이용해 본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50%가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일곱째, 이·미용과 세대교류 등을 위한 가족대상 서비스를 이용해본 적이 있는지의 질문에서는 21.2%가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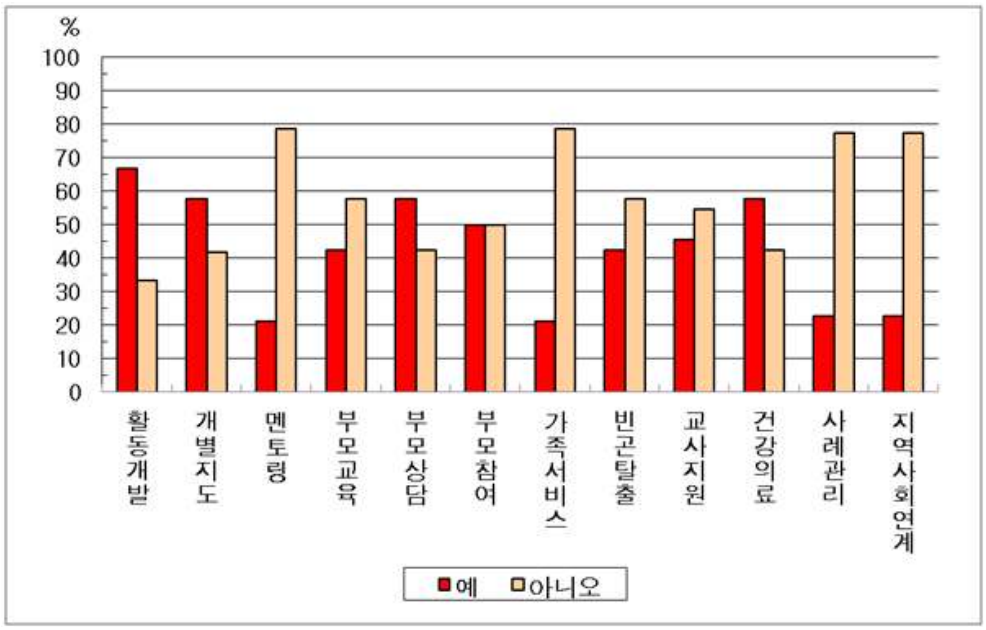
여덟째, 직업훈련, 물품후원프로그램 등의 빈곤탈출 기반조성사업을 이용해본 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42.4%가 이용해본 적 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아홉째, 대상아동지도를 위한 교사 지원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지에 관한 질

문에서는 45.5%가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열째, 아동 및 가족 대상의 건강·의료 서비스를 이용해본 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57.6%가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열한째, 사례관리 서비스를 이용해 본적이 있는가의 질문에서는 22.7%가 이용해 본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열둘째,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 서비스를 이용해본 적이 있느냐의 질문에 22.7%가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Ⅳ-3-7> 위스타트에서 시행한 서비스 이용 정도

단위: %(명)

구분	활동개발	개별지도	멘토링	부모교육	부모상담	부모참여	가족서비스	빈곤탈출	교사지원	건강의료	사례관리	지역사회연계	계(수)
예	66.7 (44)	57.6 (38)	21.2 (14)	42.4 (28)	57.6 (38)	50.0 (33)	21.2 (14)	42.4 (28)	45.5 (30)	57.6 (38)	22.7 (15)	22.7 (15)	100.0 (66)
아니오	33.3 (22)	42.4 (28)	78.8 (52)	57.6 (38)	42.4 (28)	50.0 (33)	78.8 (52)	57.6 (38)	54.5 (36)	42.4 (28)	77.3 (51)	77.3 (51)	100.0 (66)



[그림 Ⅳ-3-1] 위스타트에서 시행한 서비스 이용정도

위스타트 사업의 경우, 대상아동에 맞는 활동과 자료개발 및 적용이 가장 원활하게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 건강・의료 서비스, 아동 개별지도와 부모상담은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모참여와 교사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3-7, 그림 Ⅳ-3-1 참조).

나) 드림스타트 사업

드림스타트 사업을 살펴보면, 첫째, 해당사업에서 대상아동에 맞는 활동과 자료 개발한 것을 그 아동의 가정에서 적용해 보는 서비스를 이용해본 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10.6% 가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대상아동이 놀이, 언어치료, 특기지원 등의 개별적 지도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 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31.8% 가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셋째, 자원봉사자에 의한 개별지원 등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이용해본 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3.0%가 이용해 본적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넷째, 자녀교육, 성교육, 아동권리 교육 등의 부모교육 서비스를 이용해본 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27.3%가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섯째, 부모개별면담 및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본 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68.2%가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여섯째, 엄마와 함께 하는 활동, 아버지독서, 가족문화체험 등과 같은 부모참여 서비스를 이용해 본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28.8%가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일곱째, 이·미용과 세대교류 등을 위한 가족대상 서비스를 이용해본 적이 있는지의 질문에서는 9.1%가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여덟째, 직업훈련, 물품후원프로그램 등의 빈곤탈출 기반조성사업을 이용해본 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74.2%가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아홉째, 대상아동지도를 위한 교사 지원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50.0%가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열째, 아동 및 가족 대상의 건강・의료 서비스를 이용해본 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83.3%가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열한째, 사례관리 서비스를 이용해 본적이 있는가의 질문에서는 대상자가 전부 이용해 본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열둘째,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 서비스를 이용해본 적이 있느냐의 질문에 10.6%가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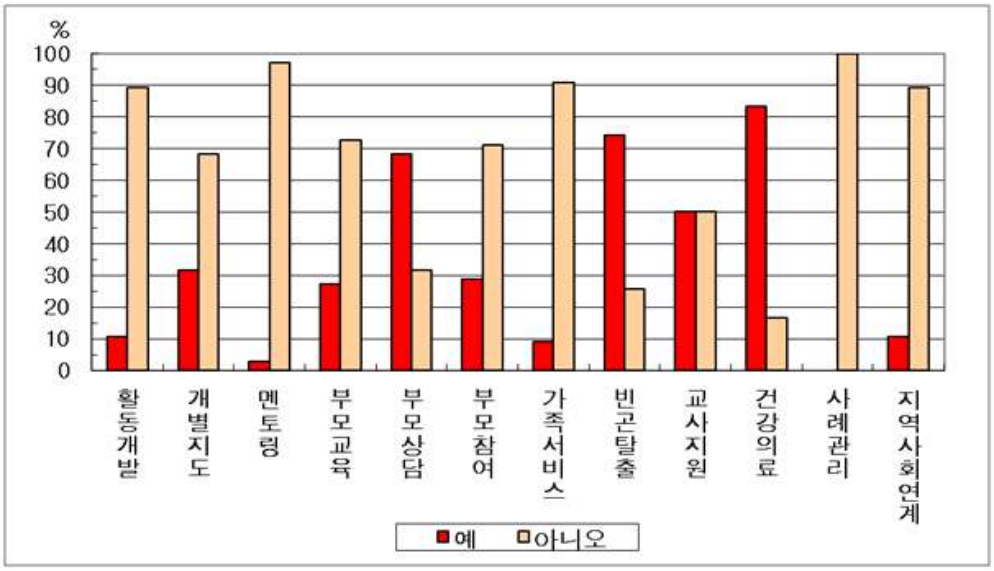
드림스타트 사업의 경우, 건강・의료 서비스가 가장 원활하게 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빈곤탈출 기반조성 사업, 부모 상담 및 교사지원 사업이 활성화된 사업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례관리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멘토링 사업, 가족대상 서비스사업과 대상 아동에 맞는 활동과 자료개발 및 적용 사업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3-8, 그림 Ⅳ-3-2 참조).

<표 Ⅳ-3-8> 드림스타트에서 시행한 서비스 이용 정도

단위: %(명)

구분	활동 개발	개별 지도	멘토링	부모 교육	부모 상담	부모 참여	가족 서비스	빈곤 탈출	교사 지원	건강 의료	사례 관리	지역 사회 연계	계(수)
예	10.6 (7)	31.8 (21)	3.0 (2)	27.3 (18)	68.2 (45)	28.8 (19)	9.1 (6)	74.2 (49)	50.0 (33)	83.3 (55)	0.0 (0)	10.6 (7)	100.0 (66)
아니오	89.4 (59)	68.2 (45)	97.0 (64)	72.7 (48)	31.8 (21)	71.2 (47)	90.9 (60)	25.8 (17)	50.0 (33)	16.7 (11)	100.0 (66)	89.4 (59)	



[그림 Ⅳ-3-2] 드림스타트에서 시행한 서비스 이용 정도

다) 삼성포괄적보육서비스 사업

삼성포괄적보육서비스 사업을 살펴보면, 첫째, 대상아동에 맞는 활동과 자료

개발한 것을 그 아동의 가정에서 적용해 보는 서비스를 이용해본 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66.7% 가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대상 아동이 놀이, 언어치료, 특기지원 등의 개별적 지도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44.6% 가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셋째, 자원봉사자에 의한 개별지원 등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이용해본 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37.5%가 이용해 본적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넷째, 자녀교육, 성교육, 아동권리 교육 등의 부모교육 서비스를 이용해본 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73.2%가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섯째, 부모개별면담 및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본 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85.7%가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여섯째, 엄마와 함께 하는 활동, 아버지독서, 가족문화체험 등과 같은 부모참여 서비스를 이용해 본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87.9%가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일곱째, 이미용과 세대교류 등을 위한 가족대상 서비스를 이용해본 적이 있는지의 질문에서는 16.4%가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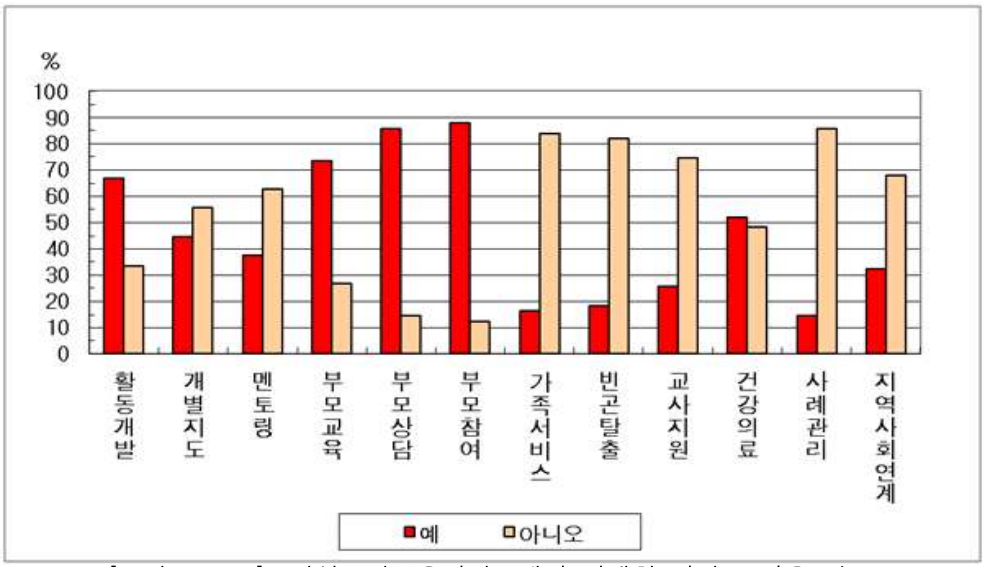
여덟째, 직업훈련, 물품후원프로그램 등의 빈곤탈출 기반조성사업을 이용해본 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18.2%가 이용해본 적 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아홉째, 대상아동지도를 위한 교사 지원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25.5%가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열째, 아동 및 가족 대상의 건강・의료 서비스를 이용해본 적이 있는 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51.8%가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열한째, 사례관리 서비스를 이용해 본적이 있는가의 질문에서는 14.5%가 이용해 본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열둘째,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 서비스를 이용해본 적이 있느냐의 질문에 32.1%가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삼성포괄보육서비스의 경우, 부모참여, 부모상담, 부모교육과 같이 부모를 대상으로 한 사업들이 가장 원활하게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대상아동에 맞는 활동과 자료 개발 및 적용 사업, 건강・의료 서비스가 활성화된 사업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례관리나 가족대상 서비스가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3-9, 그림 Ⅳ-3-3 참조).

<표 Ⅳ-3-9> 삼성포괄보육서비스에서 시행한 서비스 이용 정도

단위: %(명)

구분	활동 개발	개별 지도	멘토링	부모 교육	부모 상담	부모 참여	가족 서비스	빈곤 탈출	교사 지원	건강 의료	사례 관리	지역사 회연계	계(수)
예	66.7 (38)	44.6 (25)	37.5 (21)	73.2 (41)	85.7 (48)	87.9 (51)	16.4 (9)	18.2 (10)	25.5 (14)	51.8 (29)	14.5 (8)	32.1 (18)	100.0 (56)
아니오	33.3 (19)	55.4 (31)	62.5 (35)	26.8 (15)	14.3 (8)	12.1 (7)	83.6 (46)	81.8 (45)	74.5 (41)	48.2 (27)	85.5 (47)	67.9 (38)	



[그림 Ⅳ-3-3] 삼성포괄보육서비스에서 시행한 서비스 이용 정도

라)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을 살펴보면, 첫째, 대상아동에 맞는 활동과 자료 개발한 것을 그 아동의 가정에서 적용해 보는 서비스를 이용해본 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79.4% 가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대상 아동이 놀이, 언어치료, 특기지원 등의 개별적 지도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85.3% 가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셋째, 자원봉사자에 의한 개별지원 등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이용해본 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58.8%가 이용해 본적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넷째, 자녀교육, 성교육, 아동권리 교육 등의 부모교육 서비스를 이용해본 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64.7%가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섯째, 부모개별면담 및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본 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82.4%가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여섯째, 엄마와 함께 하는 활동, 아버지독서, 가족문화체험 등과 같은 부모참여 서비스를 이용해 본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79.4%가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일곱째, 이·미용과 세대교류 등을 위한 가족대상 서비스를 이용해본 적이 있는지의 질문에서는 23.5%가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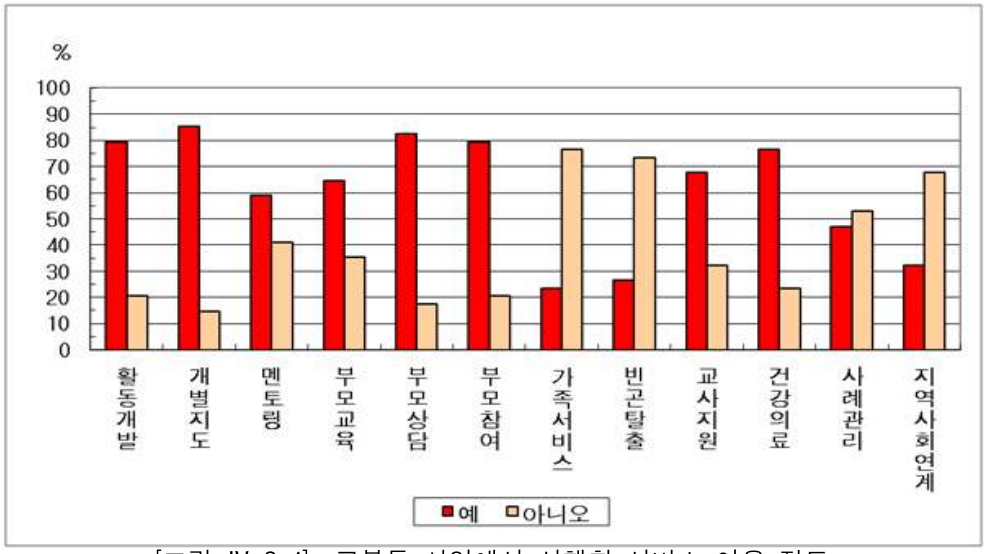
여덟째, 직업훈련, 물품후원프로그램 등의 빈곤탈출 기반조성사업을 이용해본 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26.5%가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아홉째, 대상아동지도를 위한 교사 지원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67.6%가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열째, 아동 및 가족 대상의 건강·의료 서비스를 이용해본 적이 있는 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76.5%가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열한째, 사례관리 서비스를 이용해 본적이 있는가의 질문에서는 47.1%가 이용해 본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열둘째,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 서비스를 이용해본 적이 있느냐의 질문에 32.4%가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의 경우, 개별지도, 부모상담, 대상 아동에 맞는 활동과 자료 개발 및 적용, 부모참여와 같이 부모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이 가장 원활하게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건강·의료 서비스, 교사지원, 부모교육과 같은 서비스가 활성화된 사업으로 나타났다. 빈곤탈출 기반조성사업이나 가족대상 서비스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사업에 비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3-10, 그림 Ⅳ-3-4 참조).

<표 Ⅳ-3-10> 교복투 사업에서 시행한 서비스 이용 정도

단위: %(명)

구분	활동 개발	개별 지도	멘토링	부모 교육	부모 상담	부모 참여	가족 서비스	빈곤 탈출	교사 지원	건강 의료	사례 관리	지역 사회 연계	계(수)
예	79.4 (27)	85.3 (29)	58.8 (20)	64.7 (22)	82.4 (28)	79.4 (27)	23.5 (8)	26.5 (9)	67.6 (23)	76.5 (26)	47.1 (16)	32.4 (11)	100.0
아니오	20.6 (7)	14.7 (5)	41.2 (14)	35.3 (12)	17.6 (6)	20.6 (7)	76.5 (26)	73.5 (25)	32.4 (11)	23.5 (8)	52.9 (18)	67.6 (23)	(38)



[그림 Ⅳ-3-4] 교복투 사업에서 시행한 서비스 이용 정도

2) 각 사업별 이용 서비스의 중요도

각 사업별로 지난 1년간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했던 부모들을 대상으로 그 서비스의 중요도에 관해서 알아보았다. 서비스의 중요도는 대상아동에 맞는 활동과 자료 개발 및 적용, 아동의 개별적지도, 멘토링 프로그램, 부모 교육, 부모 개별 면담/상담, 부모참여, 가족대상서비스, 빈곤탈출 기반조성사업, 대상 아동 지도를 위한 교사 지원, 아동 및 가족 대상의 건강·의료 서비스, 사례관리, 지역사회와의 연계 사업을 이용해 보았던 부모들 중에서 이용해보았던 경험을 토대로 각 사업내용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에 대해서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5점 척도는,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중요함, 매우 중요함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래에서 그 결과가 각 사업별로 정리되었다.

가) 위스타트 사업

먼저 위스타트 사업을 살펴보면, 해당사업에서 첫째, 대상아동에 맞는 활동과 자료 개발한 것을 그 아동의 가정에서 적용해 보는 서비스를 이용해본 후 그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68.2%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29.5%가 대체로 중요하다고 대답하였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

각하는 응답은 전혀 없었다. 둘째, 대상 아동이 놀이, 언어치료, 특기지원 등의 개별적 지도 서비스를 이용해 본 후 그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71.1% 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23.7%가 대체로 중요하다고 대답하였다. 셋째, 자원봉사자에 의한 개별지원 등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이용해본 후 그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57.1%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35.7%가 대체로 중요하다고 대답하였다.

넷째, 자녀교육, 성교육, 아동권리 교육 등의 부모교육 서비스를 이용해본 후 그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25.0%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67.9%가 대체로 중요하다고 대답하였다. 다섯째, 부모 개별면담 및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본 후 그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47.4%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47.4%가 대체로 중요하다고 대답하였다. 여섯째, 엄마와 함께 하는 활동, 아버지독서, 가족문화체험 등과 같은 부모참여 서비스를 이용해 본 후 그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39.4%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51.5%가 대체로 중요하다고 대답하였다. 일곱째, 이미용과 세대교류 등을 위한 가족대상 서비스를 이용해본 후 그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28.6%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14.3%가 대체로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여덟째, 직업훈련, 물품후원프로그램 등의 빈곤탈출 기반조성사업을 이용해본 후 그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39.3%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57.1%가 대체로 중요하다고 대답하였다. 아홉째, 대상아동지도를 위한 교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후 그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70.0%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30.0%가 대체로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열째, 아동 및 가족 대상의 건강・의료 서비스를 이용해본 후 그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55.3%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36.8%가 대체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열한째, 사례관리 서비스를 이용해 본 후 그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20.0%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53.3%가 대체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열둘째,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 서비스를 이용해본 후 그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33.3%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46.7%가 대체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위스타트 사업 대상인 영유아 가정의 주양육자의 경우, 아동의 개별적 지도, 대상아동 지도를 위한 교사지원, 대상아동에 맞는 활동과 자료개발 및 적용과 같은 아동을 위한 교육과 지도에 관련된 사업들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3-11, 그림 Ⅳ-3-5 참조).

<표 Ⅳ-3-11> 수혜자가 인식하는 위스타트 서비스의 중요도

단위: %(명)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중요함	매우 중요함	계(수)
활동개발	0.0	0.0	2.3	29.5	68.2	100.0(44)
개별지도	0.0	0.0	5.3	23.7	71.1	100.0(38)
멘토링	0.0	0.0	7.1	35.7	57.1	100.0(14)
부모교육	0.0	0.0	7.1	67.9	25.0	100.0(28)
부모상담	0.0	0.0	0.0	47.4	47.4	100.0(38)
부모참여	0.0	0.0	9.1	51.5	39.4	100.0(33)
가족서비스	0.0	0.0	57.1	14.3	28.6	100.0(14)
빈곤탈출	0.0	0.0	3.6	57.1	39.3	100.0(28)
교사지원	0.0	0.0	0.0	30.0	70.0	100.0(30)
건강의료	0.0	0.0	7.9	36.8	55.3	100.0(38)
사례관리	0.0	0.0	26.7	53.3	20.0	100.0(15)
지역사회연계	0.0	0.0	20.0	46.7	33.3	100.0(15)

[그림 Ⅳ-3-5] 수혜자가 인식하는 위스타트 서비스의 중요도

나) 드림스타트 사업

드림스타트 사업을 살펴보면, 해당사업에서 첫째, 대상아동에 맞는 활동과 자료 개발한 것을 그 가정에서 적용해 보는 서비스를 이용해본 후 그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28.6%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71.4%가 대체로 중요하다고 대답하였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은 전혀 없었다. 둘째, 대상 아동이 놀이, 언어치료, 특기지원 등의 개별적 지도 서비스를 이용해 본 후 그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57.1% 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42.9%가 대체로 중요하다고 대답하였다. 셋째, 자원봉사자에 의한 개별지원 등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이용해본 후 그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고, 100.0%가 대체로 중요하다고 대답하였다.

넷째, 자녀교육, 성교육, 아동권리 교육 등의 부모교육 서비스를 이용해본 후 그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44.4%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33.3%가 대체로 중요하다고 대답하였다. 다섯째, 부모 개별면담 및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본 후 그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48.9%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44.4%가 대체로 중요하다고 대답하였다. 여섯째, 엄마와 함께 하는 활동, 아버지독서, 가족문화체험 등과 같은 부모참여 서비스를 이용해 본 후 그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52.6%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31.6%가 대체로 중요하다고 대답하였다. 일곱째, 이·미용과 세대교류 등을 위한 가족대상 서비스를 이용해본 후 그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16.7%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대체로 중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혀 없었고, 보통이다고 응답한 경우가 66.7%로 나타났다.

여덟째, 직업훈련, 물품후원프로그램 등의 빈곤탈출 기반조성사업을 이용해본 후 그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51.0%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40.8%가 대체로 중요하다고 대답하였다. 아홉째, 대상아동지도를 위한 교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후 그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39.4%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57.6%가 대체로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열째, 아동 및 가족 대상의 건강・의료 서비스를 이용해본 후 그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47.3%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49.1%가 대체로 중요하다고 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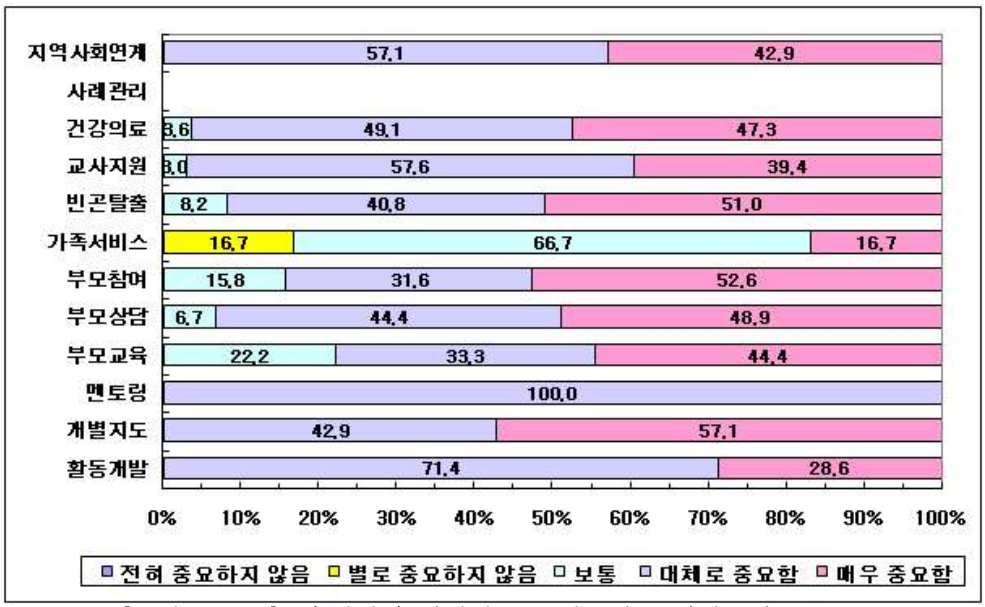
답하였다. 열한째, 사례관리 서비스를 이용해 본 후 그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사례 관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가정이 없었으므로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주양육자가 없었다. 열둘째,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 서비스를 이용해본 후 그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42.9%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57.1%가 대체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인 영유아 가정의 주양육자의 경우, 대상아동에 맞는 활동과 자료개발 및 적용, 부모참여, 빈곤탈출 기반조성 사업, 부모상담, 부모참여, 건강의료서비스 사업들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대상의 서비스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높지 않았다. 드림스타트 대상 영유아 가정의 부모들은 대체로 부모들 자신이 아동 양육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든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에서 탈피해야 하는 문제라든지,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것과 같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과 관련 있어 보이는 프로그램들을 중요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표 Ⅳ-3-12, 그림 Ⅳ-3-6 참조).

<표 Ⅳ-3-12> 수혜자가 인식하는 드림스타트 서비스의 중요도

단위: %(명)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중요함	매우 중요함	계(수)
활동개발	0.0	0.0	0.0	71.4	28.6	100.0 (7)
개별지도	0.0	0.0	0.0	42.9	57.1	100.0 (21)
멘토링	0.0	0.0	0.0	100.0	0.0	100.0 (2)
부모교육	0.0	0.0	22.2	33.3	44.4	100.0 (18)
부모상담	0.0	0.0	6.7	44.4	48.9	100.0 (45)
부모참여	0.0	0.0	15.8	31.6	52.6	100.0 (19)
가족서비스	0.0	0.0	66.7	0.0	16.7	100.0 (6)
빈곤탈출	0.0	0.0	8.2	40.8	51.0	100.0 (49)
교사지원	0.0	0.0	3.0	57.6	39.4	100.0 (33)
건강의료	0.0	0.0	3.6	49.1	47.3	100.0 (55)
사례관리	0.0	0.0	0.0	0.0	0.0	100.0 (0)
지역사회연계	0.0	0.0	0.0	57.1	42.9	100.0 (7)



[그림 Ⅳ-3-6] 수혜자가 인식하는 드림스타트 서비스의 중요도

다) 삼성포괄적보육서비스 사업

삼성포괄적보육서비스 사업을 살펴보면, 해당사업에서 첫째, 대상아동에 맞는 활동과 자료 개발한 것을 그 아동의 가정에서 적용해 보는 서비스를 이용해본 후 그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55.3%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36.8%가 대체로 중요하다고 대답하였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은 전혀 없었다. 둘째, 대상 아동이 놀이, 언어치료, 특기지원 등의 개별적 지도 서비스를 이용해 본 후 그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64.0% 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28.0%가 대체로 중요하다고 대답하였다. 셋째, 자원봉사자에 의한 개별지원 등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이용해본 후 그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47.6%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33.3%가 대체로 중요하다고 대답하였으며, 19.0%가 보통이다고 응답하였다.

넷째, 자녀교육, 성교육, 아동권리 교육 등의 부모교육 서비스를 이용해본 후 그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46.3%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48.8%가 대체로 중요하다고 대답하였다. 다섯째, 부모개별면담 및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본 후 그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

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54.2%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41.7%가 대체로 중요하다고 대답하였다. 여섯째, 엄마와 함께 하는 활동, 아버지독서, 가족문화체험 등과 같은 부모참여 서비스를 이용해 본 후 그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49.0%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43.1%가 대체로 중요하다고 대답하였다. 일곱째, 이미용과 세대교류 등을 위한 가족대상 서비스를 이용해본 후 그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11.1%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55.6%가 대체로 중요하다고 보고하였으며, 33.3%가 보통이다고 응답하였다.

여덟째, 직업훈련, 물품후원프로그램 등의 빈곤탈출 기반조성사업을 이용해본 후 그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30.0%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30.0%가 대체로 중요하다고 대답하였으며, 20.0%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고, 20.0%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아홉째, 대상아동지도를 위한 교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후 그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57.1%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42.9%가 대체로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열째, 아동 및 가족 대상의 건강・의료서비스를 이용해본 후 그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69.0%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24.1%가 대체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열한째, 사례관리 서비스를 이용해 본 후 그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25.0%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75.0%가 대체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열둘째,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 서비스를 이용해본 후 그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38.9%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44.4%가 대체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16.7%가 보통이다고 보고하였다.

삼성포괄적보육서비스 사업 대상인 영유아 가정의 주양육자의 경우, 건강・의료서비스, 대상아동의 개별적 지도, 교사지원 서비스를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대상아동에 맞는 활동과 자료개발 및 적용, 부모상담, 부모참여, 멘토링, 부모교육과 같은 사업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가족서비스 사업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빈곤탈출 기반조성 사업에 있어서는 다른 세 가지 지원 사업- 교복투, 위스타트, 드림스타트에 비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가 낮았다(표 Ⅳ-3-13, 그림 Ⅳ-3-7 참조).

<표 Ⅳ-3-13> 수혜자가 인식하는 삼성포괄적보육서비스의 중요도

단위: %(명)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중요함	매우 중요함	계(수)
활동개발	0.0	0.0	7.9	36.8	55.3	100.0 (38)
개별지도	0.0	0.0	8.0	28.0	64.0	100.0 (25)
멘토링	0.0	0.0	19.0	33.3	47.6	100.0 (21)
부모교육	0.0	0.0	4.9	48.8	46.3	100.0 (41)
부모상담	0.0	0.0	4.2	41.7	54.2	100.0 (48)
부모참여	0.0	0.0	7.8	43.1	49.0	100.0 (51)
가족서비스	0.0	0.0	33.3	55.6	11.1	100.0 (9)
빈곤탈출	0.0	20.0	20.0	30.0	30.0	100.0 (10)
교사지원	0.0	0.0	0.0	42.9	57.1	100.0 (14)
건강의료	0.0	0.0	6.9	24.1	69.0	100.0 (29)
사례관리	0.0	0.0	0.0	75.0	25.0	100.0 (8)
지역사회연계	0.0	0.0	16.7	44.4	38.9	100.0 (18)

[그림 Ⅳ-3-7] 수혜자가 인식하는 삼성포괄보육서비스의 중요도

라)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을 살펴보면, 해당사업에서 첫째, 대상아동에 맞는 활동과 자료 개발한 것을 그 아동의 가정에서 적용해 보는 서비스를 이용해본 후 그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77.8%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22.2%가 대체로 중요하다고 대답하였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은 전혀 없었다. 둘째, 대상 아동이 놀이, 언어치료, 특기지원 등의 개별적 지도 서비스를 이용해 본 후 그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82.1% 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17.9%가 대체로 중요하다고 대답하였다. 셋째, 자원봉사자에 의한 개별지원 등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이용해본 후 그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78.9%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15.8%가 대체로 중요하다고 대답하였다.

넷째, 자녀교육, 성교육, 아동권리 교육 등의 부모교육 서비스를 이용해본 후 그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71.4%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19.0%가 대체로 중요하다고 대답하였다. 다섯째, 부모 개별면담 및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본 후 그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63.0%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25.9%가 대체로 중요하다고 대답하였다. 여섯째, 엄마와 함께 하는 활동, 아버지독서, 가족문화체험 등과 같은 부모참여 서비스를 이용해 본 후 그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73.1%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19.2%가 대체로 중요하다고 대답하였다. 일곱째, 이미용과 세대교류 등을 위한 가족대상 서비스를 이용해본 후 그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25.0%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50.0%가 대체로 중요하다고 보고하였으며, 25.0%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여덟째, 직업훈련, 물품후원프로그램 등의 빈곤탈출 기반조성사업을 이용해본 후 그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44.4%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33.3%가 대체로 중요하다고 대답하였으며, 22.2%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아홉째, 대상아동지도를 위한 교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후 그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72.7%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27.3%가 대체로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열째, 아동 및 가족 대상의 건강·의료 서비스를 이용해본 후 그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

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76.0%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20.0%가 대체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열한째, 사례관리 서비스를 이용해 본 후 그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53.3%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20.0%가 대체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0.0%가 보통이다고 대답하였다. 열둘째,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 서비스를 이용해본 후 그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45.5%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27.3%가 대체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18.2%가 보통이다고 보고하였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 대상인 영유아 가정의 주양육자의 경우, 각 사업마다 대체적으로 모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다른 사업들에 비해 높았다. 대상아동의 개별적 지도, 멘토링 서비스, 대상아동에 맞는 활동과 자료개발 및 적용과 같은 아동중점적인 사업은 물론, 아동 및 가족 대상의 건강·의료 서비스, 부모참여, 교사지원과 부모교육, 부모상담과 같은 부모관련 사업 등 모두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었다. 사례관리 서비스도 다른 지원 사업들에 비해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3-14, 그림 Ⅳ-3-8 참조).

<표 Ⅳ-3-14> 수혜자가 인식하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 서비스의 중요도

단위: %(명)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중요함	매우 중요함	계(수)
활동개발	0.0	0.0	0.0	22.2	77.8	100.0 (27)
개별지도	0.0	0.0	0.0	17.9	82.1	100.0 (28)
멘토링	0.0	0.0	5.3	15.8	78.9	100.0 (19)
부모교육	0.0	4.8	4.8	19.0	71.4	100.0 (21)
부모상담	0.0	7.4	3.7	25.9	63.0	100.0 (27)
부모참여	0.0	7.7	0.0	19.2	73.1	100.0 (26)
가족서비스	0.0	25.0	0.0	50.0	25.0	100.0 (8)
빈곤탈출	0.0	0.0	22.2	33.3	44.4	100.0 (9)
교사지원	0.0	0.0	0.0	27.3	72.7	100.0 (22)
건강의료	0.0	4.0	0.0	20.0	76.0	100.0 (25)
사례관리	0.0	6.7	20.0	20.0	53.3	100.0 (15)
지역사회연계	0.0	9.1	18.2	27.3	45.5	100.0 (11)

[그림 Ⅳ-3-8] 수혜자가 인식하는 교복투사업서비스의 중요도

4. 저소득층 가정의 육아정책 요구

먼저 각 아동지원사업 대상 가정의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아동지원사업 대상자인지에 관한 질문에서 대상자이라고 대답한 부모들만을 분석대상에 포함하여 아동지원사업 유형별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부모들이 생각하는 가정과 육아에 가장 필요한 정책에 관한 견해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그들 가정생활의 만족도에 관한 질문을 하고, 만족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그리고 미래의 자녀 행복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지에 관한 질문을 한 후, 자신들의 가정과 육아에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되는 지에 관한 그들의 견해를 물었다. 부모응답의 분석 결과들이 다음에 제시되어 있다.

가. 아동지원사업별 분석

1) 생활만족도

각 아동지원사업에 따라서 현재 생활만족도에 관해서 질문한 결과, 각 사업별로 생활만족도가 다소 달랐다. 첫째, 위스타트 사업의 경우, 보통이다고 응답한 주양육자수가 38.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체로 만족하지 못한다가 32.8% 이었고, 대체로 만족한다 19.4%,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9.0% 순으로 나타났다. 즉, 위스타트 사업 대상 영유아 가정의 주양육자들은 현재 생활에 만족하기 보다는 만족하지 못하는 경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드림스타트 사업의 경우, 위스타트 사업과 마찬가지로 보통이다가 42.4%로 가장 많았고, 대체로 만족하지 못한다 30.3%, 대체로 만족한다 27.3% 순이었다.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 영유아 가정의 주양육자는 위스타트 사업 대상 영유아 가정의 주양육자와 마찬가지로 현재 생활에 만족하는 편이기 보다는 불만족하는 편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셋째, 삼성어린이집 포괄적 보육서비스 대상 영유아들의 주양육자들은 현재 생활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가 40.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통이다 32.2%, 대체로 만족하지 못한다 18.6%, 매우 만족한다 5.1%,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3.4% 순으로 나타났다. 삼성포괄보육서비스 지원 대상자들은 대체로 현재 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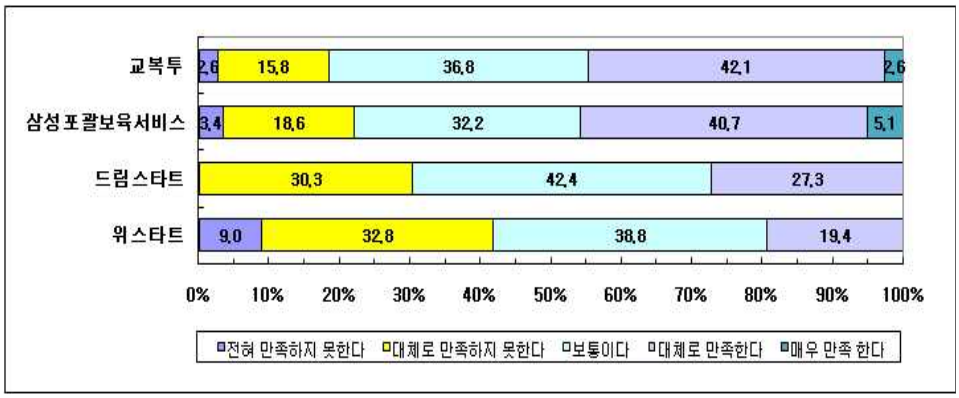
넷째,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사업 대상의 영유아들의 주양육자들은 현재 생활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가 42.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통이다 36.8%, 대체로 만족하지 못한다 15.8%, 매우 만족한다와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가 2.6% 순으로 나타났다. 삼성어린이집 포괄적 보육서비스 대상 영유아 가정의 주양육자들과 마찬가지로 현재 생활에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 만족하지 못하는 편 보다는 높은 경향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생활에 매우 만족한다고 하는 대답은 위스타트와 드림스타트 사업 영유아 대상자의 주양육자에게는 발견할 수 없었지만, 삼성어린이집 포괄적 보육서비스를 받는 영유아 가정의 주양육자들과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사업 대상의 영유아 가정의 주양육자들에게서는 그렇게 대답한 경우가 더러 있었고, 삼성포괄보육서비스 대상 영유아 가정의 주양육자들이 현재 생활에 매우 만족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Ⅳ-4-1>, [그림 Ⅳ-4-1] 참조).

<표 Ⅳ-4-1> 사업별 수혜자의 현재 생활만족도

단위: %(명)

구분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대체로 만족하지 못한다	보통 이다	대체로 만족한다	매우 만족 한다	계(수)
위스타트	9.0	32.8	38.8	19.4	0.0	100.0 (67)
드림스타트	0.0	30.3	42.4	27.3	0.0	100.0 (66)
삼성포괄보육서비스	3.4	18.6	32.2	40.7	5.1	100.0 (59)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2.6	15.8	36.8	42.1	2.6	100.0 (38)



[그림 Ⅳ-4-1] 사업별 수혜자의 현재 생활만족도

2) 현재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현재 생활에 대체로 만족하지 못하거나 전혀 만족하지 못하는 영유아 가정의 주양육자만을 대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를 괄호안의 6가지 (직업이 안정적이지 못해서, 소득이 적어서, 건강하지 못해서, 자녀가 건강하지 못해서, 많이 배우지 못해서, 부부간의 불화 때문)중에서 중요도 순으로 2가지를 선택하든지 기타 이유를 말하도록 하였다.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1순위를 사업별로 살펴보면, 첫째, 위스타트 사업의 경우, 소득이 적어서가 75.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본인이 건강하지

못해서와 기타의 이유가 7.1%로 두 번째로 많았고, 다음으로 직업이 안정적이지 못해서, 자녀가 건강하지 못해서와 부부간의 불화가 동일하게 3.6%로 나타났다. 위스타트 사업의 경우 현재생활 불만족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드림스타트 사업의 경우, 현재 생활 불만족의 이유가 소득이 적어서가 95.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나머지 5%는 본인의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경우도 위스타트 사업의 경우처럼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를 가장 힘들게 생각하는 부분으로 나타났다.

셋째, 삼성어린이집 포괄적보육서비스의 경우, 현재 생활 불만족의 이유로 본인의 건강상의 이유가 6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자녀의 건강상의 이유가 23.1% 를 차지하였고, 부부간의 불화와 소득이 적어서가 7.7%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삼성어린이집 포괄적보육서비스 대상 영유아가정은 주양육자는 물론 영유아들도 건강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인 것으로 보인다.

넷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의 경우, 현재 생활 불만족의 주된 이유는 소득이 적어서가 100%로 나타남으로서, 가정의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큰 애로점인 것으로 보인다.

삼성어린이집 포괄적보육 서비스 사업을 제외한 다른 세 가지 아동지원사업 대상 영유아 가정의 주양육자들은 소득이 적다는 것을 현재생활 불만족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삼성어린이집 포괄적 보육서비스 사업의 경우 다른 세 가지 아동지원 사업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현재 생활에 불만족한 요인으로 가정의 경제적인 이유보다 건강상의 이유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현재생활의 불만족 이유로 부부간의 불화가 다른 아동지원사업에 비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보고에 의한 현재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2순위를 사업별로 살펴보면, 첫째, 위스타트사업의 경우, 직업이 안정적이지 못해서가 56.5%로 현재생활 불만족 이유 2순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소득이 적어서가 21.7%, 자녀가 건강하지 못해서가 13.0%, 본인의 건강상의 문제와 많이 배우지 못해서가 4.3% 순으로 나타났다. 위스타트 사업의 경우는 현재생활 불만족의 가장 큰 이유의 내용을 보면, 1순위에서는 소득이 적어서가 가장 많았고, 2순위에서는 직업이 안정적이지 못해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위스타트 대

상 가정의 부모들이 힘들어하는 가장 주된 요인은 경제적인 이유와 관련하여서인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드림스타트 사업의 경우, 위스타트 사업 대상 영유아의 부모들처럼 직업이 안정적이지 못해서가 57.1%로 현재생활 불만족 이유의 2순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본인이 건강하지 못해서가 21.4%, 소득이 적어서와 많이 배우지 못해서가 7.1% 순으로 나타났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경우, 위스타트 사업 대상 영유아의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현재생활 불만족의 가장 큰 이유는 소득이 적어서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현재생활 불만족 이유의 2순위에서는 직업이 안정적이지 못해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미루어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주된 현재생활 불만족의 이유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셋째, 삼성어린이집 포괄적 보육서비스 사업에서는 현재생활 불만족 이유의 2순위에서 직업이 안정적이지 못해서가 55.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소득이 적어서가 33.3%, 부부간의 불화가 11.1% 순으로 나타났다. 삼성어린이집 포괄적 보육서비스 사업의 경우, 현재생활 불만족의 주된 이유에서는 경제적인 이유가 많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순위 이유에는 주로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많았고, 부분간의 불화도 적은 비중이긴 하지만 다른 두 사업, 위스타트 사업이나 드림스타트 사업에 비해서는 다소 많은 비율로 현재생활 불만족의 이유가 되었다.

넷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의 경우, 현재생활 불만족 이유의 2순위에서 직업이 안정적이지가 못해서가 83.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부부간의 불화가 16.7%를 차지하였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대상 영유아 가정의 주 양육자들은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가정의 소득이나 직업과 관련된 경제적인 이유를 가장 주된 현재생활의 어려움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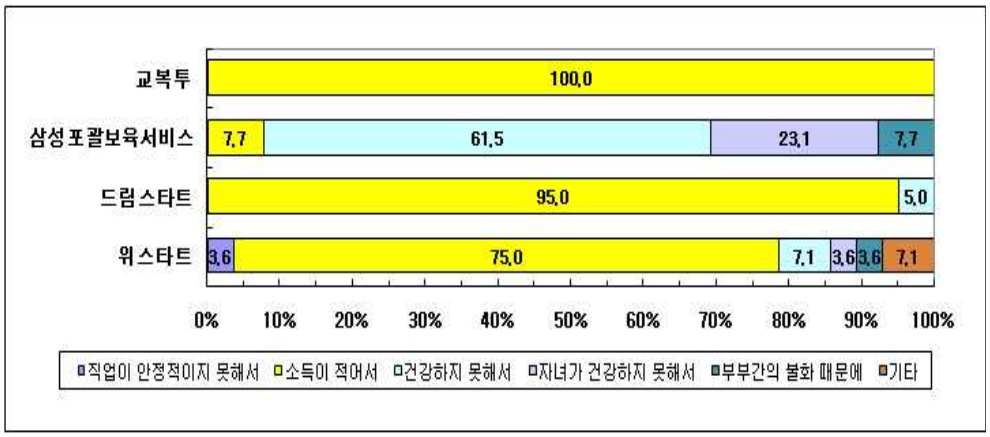
모든 사업들에서 현재생활 불만족 이유의 2순위에서는 직업이 안정적이지 못해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대상 영유아 가정의 부모들은 다른 사업들과는 달리 부모자신의 건강이나 자녀의 건강, 많이 배우지 못해서와 같은 이유 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힘든 요인이라고 대답하였다. 삼성포괄보육서비스 사업 대상 영유아 가정의 부모들은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본인의 건강이나 영유아들의 건강이 현재생활 불만족의 주된 이유이었고 그 다음의 이유로 경제적인 문제를 들었다(표 Ⅳ-4-2, 그림 Ⅳ-4-2, 그림 Ⅳ

-4-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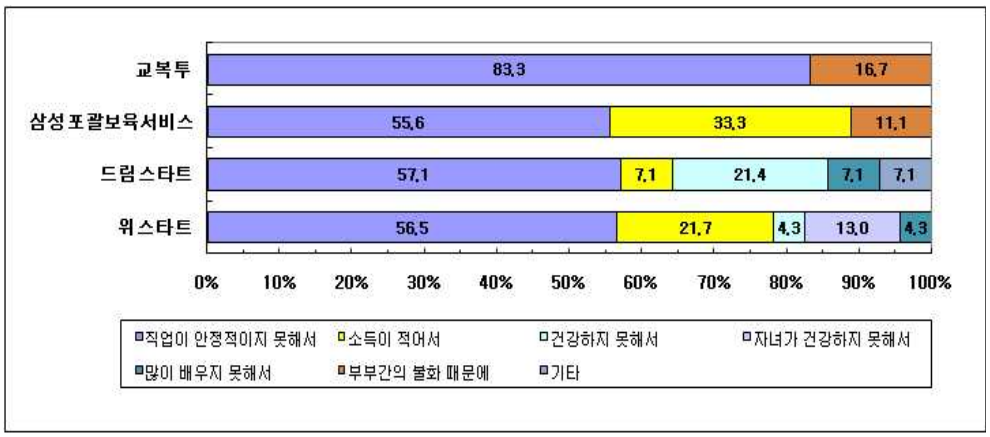
<표 Ⅳ-4-2> 사업별 수혜자의 현재 생활 불만족 이유

단위: %(명)

구분		직업이 안정적이지 못해서	소득이 적어서	건강하지 못해서	자녀가 건강하지 못해서	부부간의 불화 때문에	많이 배우지 못해서	기타	계(수)
위스타트	1순위	3.6	75.0	7.1	3.6	3.6	0.0	7.1	100.0 (28)
	2순위	56.5	21.7	4.3	13.0	0.0	4.3		100.0 (23)
드림스타트	1순위	0.0	95.0	5.0	0.0	0.0	0.0	0.0	100.0 (20)
	2순위	57.1	7.1	21.4	0.0	0.0	7.1	7.1	100.0 (14)
삼성포괄 보육서비스	1순위	0.0	7.7	61.5	23.1	7.7	0.0	0.0	100.0 (13)
	2순위	55.6	33.3	0.0	0.0	11.1	0.0	0.0	100.0 (9)
교복투	1순위	0.0	100.0	0.0	0.0	0.0	0.0	0.0	100.0 (7)
	2순위	83.3	0.0	0.0	0.0	16.7	0.0	0.0	100.0 (6)



[그림 Ⅳ-4-2] 생활불만족이유 1순위



[그림 Ⅳ-4-3] 생활불만족이유 2순위

현재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순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표 Ⅳ-4-3>에 제시하였다. 아동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모든 주양육자들은 소득이 적어서와 직업이 안정적이지 못해서라는 이유로 현재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4-3> 가중치를 부여한 사업별 수혜자의 현재 생활 불만족 이유

구분	순위	불만족 이유
위스타트	1	소득이 적어서
	2	직업이 안정적이지 못해서
	3	자녀가 건강하지 못해서
	4	건강하지 못해서
	5	부부간의 불화 때문에
드림스타트	1	소득이 적어서
	2	직업이 안정적이지 못해서
	3	건강하지 못해서
	4	많이 배우지 못해서
삼성 포괄적 보육서비스	1	소득이 적어서
	2	직업이 안정적이지 못해서
	3	건강하지 못해서
	4	자녀가 건강하지 못해서
	5	부부간의 불화 때문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1	소득이 적어서
	2	직업이 안정적이지 못해서

구분	순위	불만족 이유
	3	부부간의 불화 때문에

3) 자녀행복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각 아동지원사업에 따라서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고 대답한 주 양육자에 한해서만 미래의 자녀행복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관하여 중요도 순으로 2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을 때, 각 사업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인이 다소 달랐다. 먼저 미래의 자녀행복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는 1순위 요인에서는, 첫째, 위스타트 사업의 경우, 그 해당 사업 영유아의 부모들이 자녀행복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요인으로, 가족 간의 화목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2.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모의 경제력이 26.9%, 자녀의 건강 22.4%, 부모의 양육관 10.4%, 부모의 건강이 6.0%, 종교가 1.5%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드림스타트 사업의 경우, 그 해당사업 영유아의 부모들이 생각하기에 자녀행복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녀의 건강과 부모의 직업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7.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족 간의 화목이 24.2%, 부모의 건강 21.2%, 부모의 경제력과 부모의 학력이 16.7%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삼성어린이집 포괄적 보육서비스의 경우, 미래의 자녀행복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 간의 화목이 33.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자녀의 건강이 22.0%, 부모의 건강 16.7%, 부모의 양육관 8.5%, 부모의 직업 3.4%, 부모의 학력이 1.7%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 대상 영유아 가정의 주양육자들은 미래의 자녀행복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 간의 화목을 42.1%로 가장 많이 대답하였고, 다음으로 부모의 건강요인이 18.4% 이었고, 부모의 경제력과 자녀의 건강, 부모의 양육관이 13.2%로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다(표 Ⅳ-4-4, 그림 Ⅳ-4-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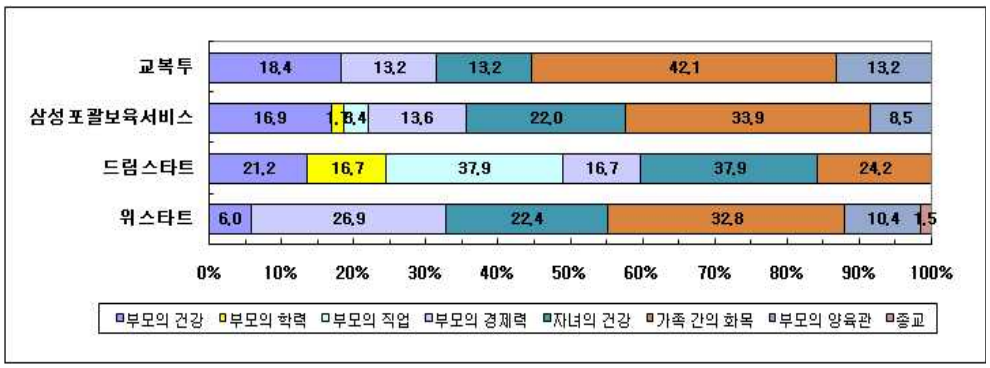
대체적으로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 가정의 주양육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사업대상자 가정의 주양육자들은 가족 간의 화목이 미래 자녀행복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였다. 즉, 그 세 가지 지원사업 대상 가정의 부모들은 부모의 경제력보다는 가족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자녀의 행복

에 더 많이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 가정의 부모들은 가족 간의 화목보다는 자녀의 건강이나 부모의 직업이 자녀의 행복에 앞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아동지원사업에서 주양육자들은 자녀의 학력을 미래의 자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표 Ⅳ-4-4> 자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단위: %(명)

구분		부모의 건강	부모의 학력	부모의 직업	부모의 경제력	자녀의 건강	자녀의 학력	가족간 화목	부모의 양육관	종교	계(수)
위스타트	1순위	6.0	0.0	0.0	26.9	22.4	0.0	32.8	10.4	1.5	100.0 (67)
	2순위	7.5	1.5	6.0	29.9	26.9	0.0	19.4	9.0	0.0	100.0 (67)
드림스타트	1순위	21.2	16.7	37.9	16.7	37.9	0.0	24.2	0.0	0.0	100.0 (66)
	2순위	24.2	0.0	0.0	21.2	39.4	0.0	15.2	0.0	0.0	100.0 (66)
삼성포괄적 보육서비스	1순위	16.9	1.7	3.4	13.6	22.0	0.0	33.9	8.5	0.0	100.0 (59)
	2순위	5.2	5.2	3.4	20.7	6.9	15.5	29.3	12.1	1.7	100.0 (58)
교복투	1순위	18.4	0.0	0.0	13.2	13.2	0.0	42.1	13.2	0.0	100.0 (38)
	2순위	10.5	0.0	0.0	36.8	13.2	0.0	28.9	10.5	0.0	100.0 (38)



[그림 Ⅳ-4-4] 자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순위

미래의 자녀행복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는 2순위 요인에서는, 첫째, 위스타트 사업의 경우, 그 해당사업 영유아의 부모들이 자녀행복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요인으로, 부모의 경제력이 29.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녀의 건강이 26.9%, 가족 간의 화목 19.4%, 부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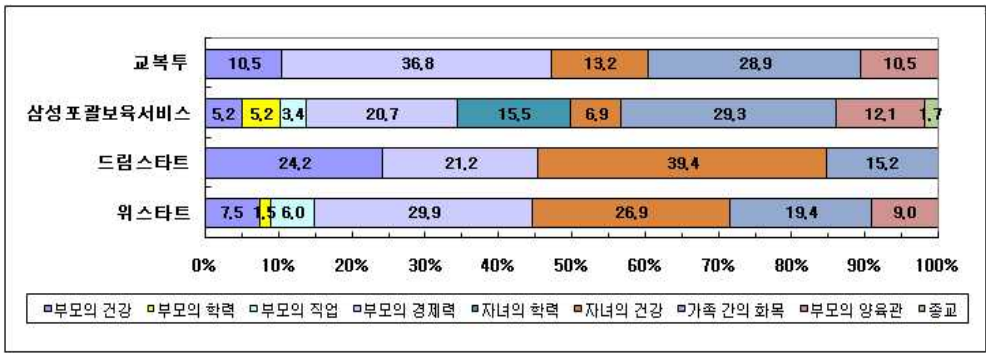
양육관 9.0%, 부모의 건강 7.5%, 부모의 직업 6%, 부모의 학력이 1.5% 순으로 나타났다. 위스타트 사업 대상 영유아의 부모들은 미래의 자녀행복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1순위는 가족간의 화목을 들었고 다음으로 부모의 경제력, 자녀의 건강 순으로 여기고 있었다.

둘째, 드림스타트 사업의 경우, 그 해당사업 영유아의 부모들이 생각하기에 자녀행복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2순위 요인으로, 자녀의 건강이 39.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모의 건강이 24.2%, 부모의 경제력 21.2%, 가족 간의 화목이 15.2% 순으로 나타났다.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 영유아의 부모들은 미래의 자녀행복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1순위와 2순위 모두에서 자녀의 건강을 들었다.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 영유아의 부모들은 자녀의 건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미래의 자녀 행복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여기는 1순위로는 부모의 직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순위에서는 비중이 없었다.

셋째, 삼성어린이집 포괄적 보육서비스의 경우, 미래의 자녀행복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2순위 요인에서, 가족 간의 화목이 29.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부모의 경제력이 20.7%, 자녀의 학력 15.5%, 부모의 양육관 12.1%, 부모의 직업 3.4%, 부모의 학력이 1.7% 순으로 나타났다. 삼성어린이집 포괄적 보육 대상 영유아의 주양육자들은 미래의 자녀행복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1순위와 2순위 모두에서 가족 간의 화목을 가장 크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삼성어린이집 포괄적보육 서비스 대상 가정의 부모들은 자녀의 미래 행복요인으로 가족 간의 화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의 미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순위에서는 다른 아동지원사업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자녀의 학력 요인도 적은 비중이지만 자녀의 미래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 대상 영유아 가정의 주양육자들은 미래의 자녀행복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2순위 요인에서, 부모의 경제력이 36.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족 간의 화목이 28.9%, 자녀의 건강 13.2%, 부모의 양육관과 부모의 건강이 10.5%로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대상 영유아의 주양육자들은 가족 간의 화목이 미래의 자녀 행복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1순위 요인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대답하였고, 2순위에서는 부모의 경제력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대답한 것

으로 나타났다(<표 Ⅳ-4-4>, [그림 Ⅳ-4-5] 참조).



[그림 Ⅳ-4-5] 자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순위

미래의 자녀행복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순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표 Ⅳ-4-5〉에 제시하였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삼성포괄적보육서비스 사업이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과 위스타트 사업에 속한 주양육자들은 가족 간의 화목이 미래 자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이라 여겼고, 다음으로 부모의 경제력, 자녀의 건강, 부모의 건강 요인이라 인식하였다. 드림스타트의 경우는 자녀의 건강과 부모의 건강을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여겼다.

<표 Ⅳ-4-5> 가중치를 부여한 자녀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업명	순위		사업명	순위	
위스타트	1	가족 간 화목	삼성포괄적 보육서비스	1	가족 간 화목
	2	부모의 경제력		2	자녀의 건강
	3	자녀의 건강		3	부모의 경제력
	4	부모의 양육관		4	부모의 건강
	5	부모의 건강		5	부모의 양육관
	6	부모의 직업		6	부모의 직업
	7	부모의 학력		7	부모의 학력
	8	종교		8	자녀의 학력
				9	종교
드림스타트	1	자녀의 건강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1	가족 간 화목
	2	부모의 건강		2	부모의 경제력

사업명	순위		사업명	순위	
	3	가족 간 화목		3	부모의 건강
	4	부모의 경제력		4	자녀의 건강
				5	부모의 양육관

4) 저소득 영유아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

아동지원사업 대상자라고 응답한 주양육자들이 그 가정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에 관하여 질문하였을 때, 각 사업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다는 정책이 다소 달랐다. 첫째, 위스타트 사업의 경우, 미래자녀교육을 대비하여 국가와 가정이 함께 적금을 붓는 정책으로서의 자녀교육비 지원이 59.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기초생활비 지원확대 23.9%, 의료비 지원 서비스 9.0%, 부모가 안정적인 직업을 갖도록 일자리 지원을 위한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4.5%, 자녀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지원과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체험 및 여가 활동 지원 프로그램이 동일비율로 1.5% 순이었다. 위스타트 사업 대상 영유아의 주양육자들은 현재 생활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미래의 자녀교육비 준비를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들고 있었다.

둘째, 드림스타트 사업의 경우, 기초생활비 지원확대를 37.9%로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들었고, 다음으로 미래 자녀교육비 마련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 마련이 28.8%, 의료비 지원서비스 13.6%,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체험 및 여가활동 지원 프로그램 지원 9.1%,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7.6%, 자녀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체험 및 여가활동 지원이 동일한 비율로 1.5% 순이었다. 위스타트 사업 대상 영유아의 주양육자들은 국민기초생활급여와 같은 기초생활비 지원 확대를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고, 다음으로 미래자녀 교육을 대비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 정책을 들었다.

셋째, 삼성어린이집 포괄적 보육서비스 사업의 경우, 미래자녀교육을 대비하여 국가와 가정이 함께 적금을 붓는 정책과 같은 자녀교육비 지원이 49.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체험 및 여가 활동 지원 프로그램 16.9%, 기초생활비 지원확대 11.9%, 부모가 안정적인 직업을 갖도록 일자리 지원을 위한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10.2%, 의료비 지원 서비스 6.8%, 자녀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3.4% 순이었다. 삼성어린이집 포괄적 보육서비스 사업 대상 영유아의 주양육자들은 위스

타트 사업 대상 영유아의 부모들처럼 현재 생활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미래의 자녀교육비 준비를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들고 있었다. 그리고 기초생활비 지원 확대보다도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더 필요한 정책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보아 가족 간의 화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모들의 가치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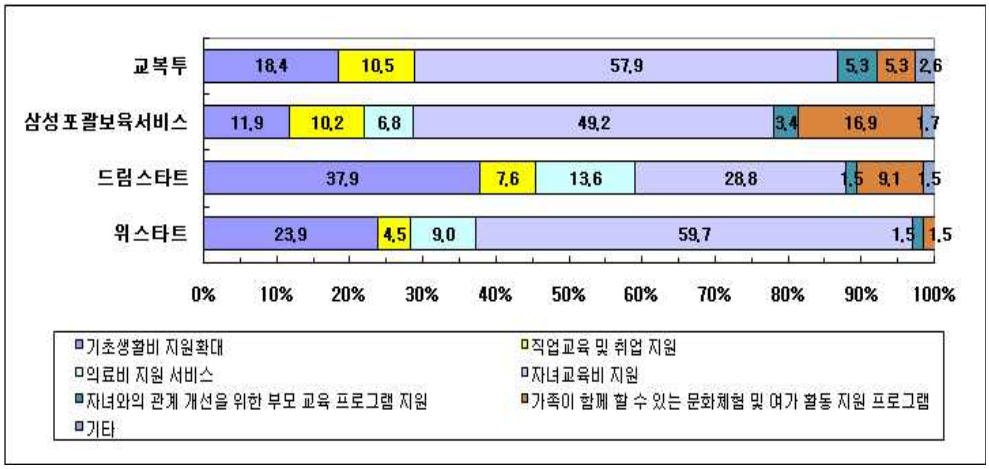
넷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의 경우, 미래자녀교육을 대비하여 국가와 가정이 함께 적금을 붓는 정책과 같은 자녀교육비 지원이 57.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기초생활비 지원확대 18.4%, 부모가 안정적인 직업을 갖도록 일자리 지원을 위한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10.5%, 자녀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지원과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체험 및 여가 활동 지원 프로그램이 동일비율로 5.3% 순이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 대상 영유아의 주양육자들은 현재 생활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미래의 자녀교육비 준비를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들고 있었다.

드림스타트 사업을 제외한 다른 세 가지 아동지원사업 영유아 대상의 주양육자들은 미래의 자녀교육비 준비를 자신들의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간주하였다. 드림스타트 사업에 속한 주양육자들은 기초생활비 지원확대가 그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위스타트 사업과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에 속한 주양육자들은 기초생활비 지원확대와 같은 정책이 두 번째로 자신들의 가정에서 필요한 정책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즉, 자신의 가정에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미래자녀교육비 준비를 위한 정책지원과 기초생활비 지원확대와 같은 정책을 모든 사업대상의 주양육자들이 대체적으로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어린이집 포괄적보육서비스 대상 가정의 주양육자들은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체험 및 여가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자신들의 가정에서 두 번째로 필요한 정책으로 들고 있었다(<표 Ⅳ-4-6>, [그림 Ⅳ-4-6] 참조).

<표 Ⅳ-4-6> 저소득 영유아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

단위: %(명)

구분	기초 생활비 지원확대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의료비 지원 서비스	자녀 교육비 지원	부모교육 프로그램 지원	문화체험 및 여가 활동지원 프로그램	기타	부모의 양육관	종교	계(수)
위스타트	23.9	4.5	9.0	59.7	1.5	1.5	0.0	9.0	0.0	100.0(67)
드림스타트	37.9	7.6	13.6	28.8	1.5	9.1	1.5	0.0	0.0	100.0(66)
삼성포괄적 보육서비스	11.9	10.2	6.8	49.2	3.4	16.9	1.7	12.1	1.7	100.0(59)
교복투	18.4	10.5	57.9	5.3	5.3	5.3	0.0	10.5	0.0	100.0(38)



[그림 Ⅳ-4-6] 저소득 영유아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

5) 저소득 영유아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육아지원 정책

아동지원사업 대상자라 응답한 주양육자들을 대상으로 그 가정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육아지원정책에 관하여 중요도 순으로 질문하였을 때, 각 사업별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1순위 정책이 다소 달랐다. 첫째, 위스타트 사업의 경우, 가장 필요한 육아지원정책 1순위로, 자녀의 학원 또는 학습지 비용지원 확대/사설 학원 등 지원이 29.9%로 가장 많았고,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프로그램 확대 26.9%,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예산확대/사업 확대와 유치

원 및 보육시설 비용 지원 17.9%,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 6.0%,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1.5% 순이었다.

둘째, 드림스타드 사업의 경우, 가장 필요한 육아지원정책 1순위로, 위스타트 사업과 마찬가지로 자녀의 학원 또는 학습지 비용지원 확대/사설 학원 등 지원이 36.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예산확대/사업 확대 19.7%,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프로그램 확대 15.2%,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와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가 동일 비율로 10.6%, 유치원 및 보육시설 비용 지원이 7.6%순이었다.

셋째, 삼성어린이집 포괄적보육 서비스 사업의 경우, 가장 필요한 육아지원정책 1순위로, 위스타트와 드림스타트 사업과 마찬가지로 자녀의 학원 또는 학습지 비용지원 확대/사설 학원 등 지원이 39.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프로그램 확대 16.9%,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예산확대/사업 확대 13.6%,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와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가 동일 비율로 11.9%, 유치원 및 보육시설 비용 지원 5.1%, 순이었다.

넷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의 경우, 다른 세 가지 아동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가장 필요한 육아지원정책 1순위로, 자녀의 학원 또는 학습지 비용지원 확대/사설 학원 등 지원이 26.3%로 가장 많았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예산확대/사업 확대도 26.3%로 동일하게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프로그램 확대 18.4%,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13.2%, 유치원 및 보육시설 비용 지원 10.5%,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 5.3% 순이었다.

대체적으로 모든 아동지원사업 대상 영유아가정의 주양육자들은 자녀의 학원 또는 학습지 비용지원 확대/사설 학원 등 지원을 가장 필요한 육아지원정책으로 들었고, 다음으로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예산확대/사업 확대와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프로그램 확대를 들었다.

다음으로 각 사업별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육아지원정책 2순위 정책이 다소 달랐다. 첫째, 위스타트 사업의 경우, 가장 필요한 육아지원정책 2순위로, 자녀의 학원 또는 학습지 비용지원 확대/사설 학원 등 지원이 29.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 20.0%,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와 유치원 및 보육시설 비용 지원이 15.4%로 동일 비율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프로그램 확대 12.3%,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예산확대/사업 확대가 7.7%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드림스타트 사업의 경우, 가장 필요한 육아지원정책 2순위로, 위스타트 사업과 마찬가지로 자녀의 학원 또는 학습지 비용지원 확대/사설 학원 등 지원이 24.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 22.7%,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프로그램 확대 21.2%,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예산확대/사업 확대,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와 유치원 및 보육시설 비용 지원이 동일 비율로 1.5%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삼성어린이집 포괄적 보육서비스 사업의 경우, 가장 필요한 육아지원정책 2순위로,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가 32.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 20.7%, 자녀의 학원 또는 학습지 비용지원 확대/사설 학원 등 지원 17.2%,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프로그램 확대 15.5%, 유치원 및 보육시설 비용 지원 10.3%,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예산확대/사업 확대 3.4%로 순으로 나타났다. 삼성 포괄보육서비스 대상의 주양육자의 경우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육아지원정책 2순위에서는 비용지원보다는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와 같은 지원을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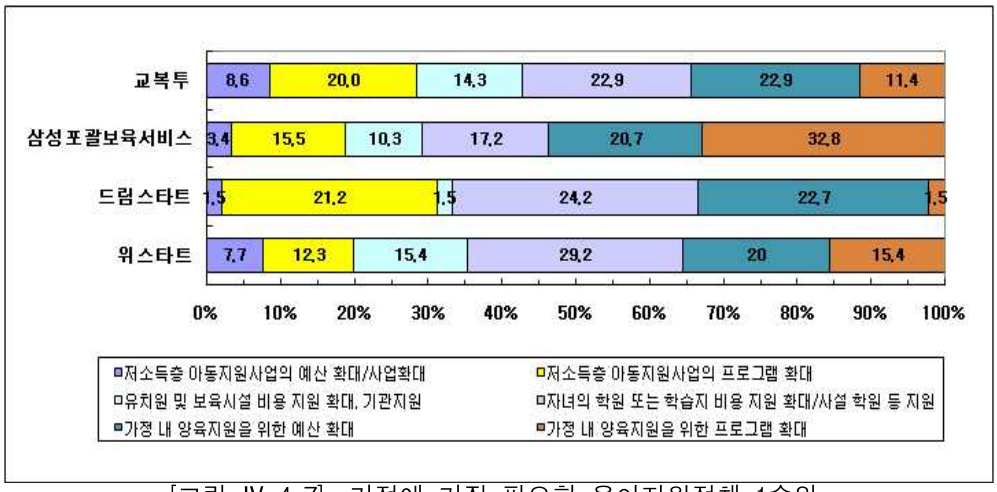
넷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의 경우 가장 필요한 육아지원정책 2순위로, 자녀의 학원 또는 학습지 비용지원 확대/사설 학원 등 지원과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가 22.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프로그램 확대 20.0%, 유치원 및 보육시설 비용 지원 확대 14.3%,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11.4%,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예산확대/사업 확대 8.6%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4-7>, [그림 Ⅳ-4-7], [그림 Ⅳ-4-8] 참조).

<표 Ⅳ-4-7> 저소득 가정에 가장 필요한 육아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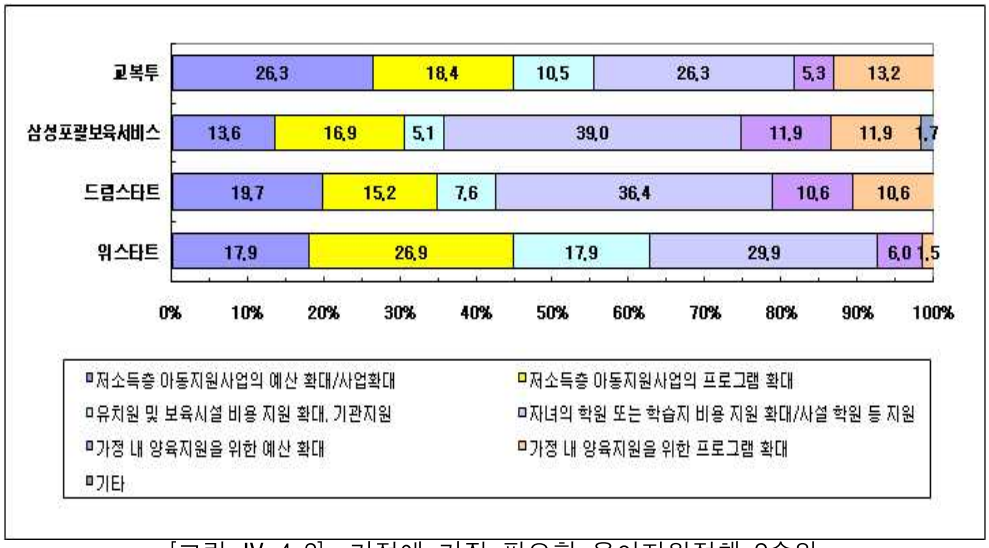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순위	저소득층 아동지원 사업의 예산확대/ 사업확대	저소득층 아동지원 사업의 프로그램 확대	유치원 및 보육시설 비용 지원 확대. 기관지원	자녀의 학원또는 학습지 비용지원 확대/사설 학원 등 지원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기타	계(수)

구분	순위	저소득층 아동지원 사업의 예산확대/ 사업확대	저소득층 아동지원 사업의 프로그램 확대	유치원 및 보육시설 비용 지원 확대. 기관지원	자녀의 학원또는 학습지 비용지원 확대/사설 학원 등 지원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기타	계(수)
위스타트	1순위	17.9	26.9	17.9	29.9	6.0	1.5	0.0	100.0(67)
	2순위	7.7	12.3	15.4	29.2	20.0	15.4	0.0	100.0(65)
드림스타트	1순위	19.7	15.2	7.6	36.4	10.6	10.6	0.0	100.0(66)
	2순위	1.5	21.2	1.5	24.2	22.7	1.5	0.0	100.0(66)
삼성포괄적 보육서비스	1순위	13.6	16.9	5.1	39.0	11.9	11.9	1.7	100.0(59)
	2순위	3.4	15.5	10.3	17.2	20.7	32.8	0.0	100.0(58)
교복투	1순위	26.3	18.4	10.5	26.3	5.3	13.2	0.0	100.0(38)
	2순위	8.6	20.0	14.3	22.9	22.9	11.4	0.0	100.0(35)



[그림 Ⅳ-4-7] 가정에 가장 필요한 육아지원정책 1순위



[그림 Ⅳ-4-8] 가정에 가장 필요한 육아지원정책 2순위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 대상의 주양육자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육아지원정책에 대하여 순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표 Ⅳ-4-8>에 제시하였다. 아동지원사업 대상의 모든 주양육자들은 자녀의 학원 또는 학습지 비용지원 확대/사설 학원 등 지원을 가장 많이 원하였다. 다음으로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예산확대나 프로그램 확대를 원하는 경향을 보였다. 단지 삼성 포괄적보육서비스 대상의 주양육자들은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를 두 번째로 필요한 육아정책으로 선택하였다. 부모들의 요구는 대체로 교육비와 같은 비용지원 형태가 가장 많았고,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예산확대나 프로그램 확대도 많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4-8> 가중치를 부여한 가정에 필요한 육아지원정책 순위

구분	순위	가정에 필요한 육아지원 정책
위스타트	1	자녀의 학원 또는 학습지 비용지원 확대/사설 학원 등 지원
	2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프로그램 확대
	3	유치원 및 보육시설 비용 지원 확대/사설 학원 등 지원
	4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예산 확대/사업 확대
	5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
	6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구분	순위	가정에 필요한 육아지원 정책
드림스타트	1	자녀의 학원 또는 학습지 비용지원 확대/사설 학원 등 지원
	2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예산 확대/사업 확대
	3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프로그램 확대
	4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
	5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6	유치원 및 보육시설 비용 지원 확대/사설 학원 등 지원
삼성포괄 보육서비스	1	자녀의 학원 또는 학습지 비용지원 확대/사설 학원 등 지원
	2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3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프로그램 확대
	4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
	5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예산 확대/사업 확대
	6	유치원 및 보육시설 비용 지원 확대/사설 학원 등 지원
	7	기타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1	자녀의 학원 또는 학습지 비용지원 확대/사설 학원 등 지원
	2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예산 확대/사업 확대
	3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프로그램 확대
	4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5	유치원 및 보육시설 비용 지원 확대/사설 학원 등 지원
	6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

나. 아동지원사업 대상 여부에 따른 분석

먼저 각 아동지원사업 대상 가정의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아동지원사업 대상자인지에 관한 질문에서 대상자이라고 대답하거나 아니라고 대답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아니라고 대답한 경우는 아동지원사업의 대상이 아닌 일반 저소득층 영유아의 부모들이다. 부모들이 생각하는 가정과 육아에 가장 필요한 정책에 관한 견해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그들 가정생활의 만족도에 관한 질문을 하고, 만족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그리고 미래의 자녀 행복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지에 관한 질문을 한 후, 자신들의 가정과 육아에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되는 지에 관한 그들의 견해를 물었다. 부모응답 분석 결과들이 다음에 제시되어 있다.

1) 생활만족도

아동지원사업 대상인지의 여부에 따라서 현재 생활만족도에 관해서 질문한 결과, 아동지원사업 대상인지의 여부에 따라 생활만족도가 다소 달랐다. 먼저, 지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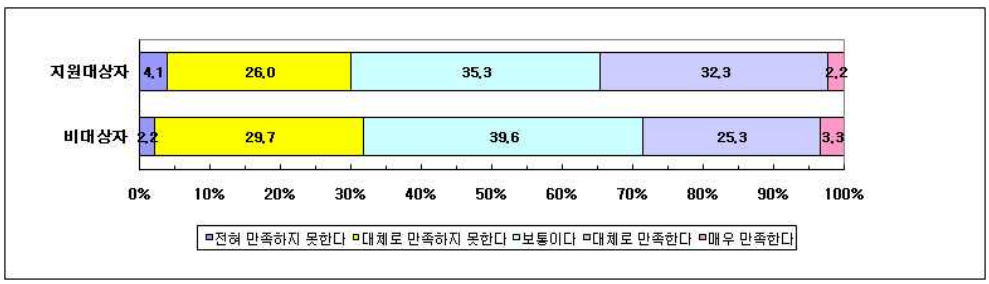
업대상자의 경우, 보통이다고 응답한 주양육자수가 35.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체로 만족한다 32.3%, 대체로 만족하지 못한다가 26.0%,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4.1%, 매우 만족한다 순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아동지원사업 대상자가가 아닌 경우, 보통이다고 응답한 주양육자수가 39.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체로 만족하지 못한다가 29.7%, 대체로 만족한다 25.3%, 매우 만족한다 3.3%,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2.2%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지원사업 대상이 되는 영유아 가정의 주양육자들이 아동지원사업 대상이 아닌 주양육자들 보다 현재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4-9, 그림 Ⅳ-4-9 참조).

<표 Ⅳ-4-9> 지원사업 대상자와 비대상자의 현재 생활만족도

단위: %(명)

구분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대체로 만족하지 못한다	보통이다	대체로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계(수)
지원대상자	4.1	26.0	35.3	32.3	2.2	100.0(269)
비지원 대상자	2.2	29.7	39.6	25.3	3.3	100.0(91)



[그림 Ⅳ-4-9] 지원사업 대상자와 비대상자의 현재 생활만족도

2) 현재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아동지원사업 대상과 비대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주양육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생활 만족도에 관한 질문을 한 후, 현재 생활에 대체로 만족하지 못하거나 전혀 만족하지 못하는 영유아 가정의 주양육자 만을 대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를 괄호안의 6가지(직업이 안정적이 못해서, 소득이 적어서, 건강하지 못해서, 자녀가 건강하지 못해서, 많이 배우지 못해서, 부부간의 불화 때문)중에서 중요도 순으로 2가지를 선택하든지 기타 이유를 말하도록 하였다.

현재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1순위를 각 아동지원사업 대상인지의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먼저 자신의 자녀들이 아동지원사업 대상자들인 경우, 소득이 적어서가 80.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본인이 건강하지 못해서 8.6%, 직업이 안정적이지 못해서와 자녀가 건강하지 못해서가 3.7%, 기타의 이유가 2.5%, 부부 간의 불화가 1.2%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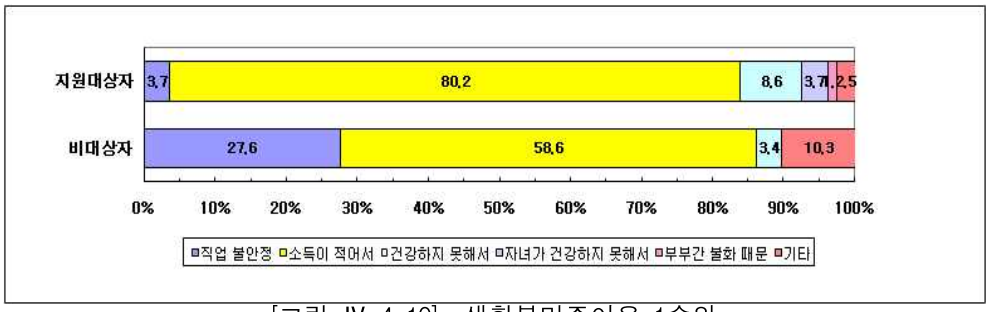
다음으로 자녀가 아동지원사업 대상자가 아닌 경우, 현재생활 불만족 이유의 1순위로, 소득이 적어서가 58.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직업이 안정적이지 못한 것이 27.6%, 기타의 이유가 10.3%, 본인이 건강하지 못해서가 3.4%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지원사업 대상 영유아의 가정이든 일반 저소득층 영유아의 가정이든 적은 소득과 직업의 불안정과 같은 경제적인 이유가 현재 생활에 만족하는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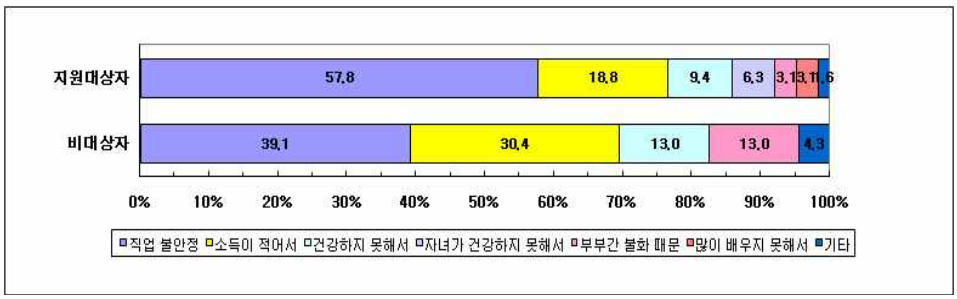
<표 Ⅳ-4-10> 지원사업 대상자와 비대상자의 현재 생활불만족 이유

단위: %(명)

구분		직업이 안정적이지 못해서	소득이 적어서	건강하지 못해서	자녀가 건강하지 못해서	부부간의 불화 때문에	많이 배우지 못해서	기타	계(수)
지원대상자	1순위	3.7	80.2	8.6	3.7	1.2	0.0	2.5	100.0(81)
	2순위	57.8	18.8	9.4	6.3	3.1	3.1	0.0	100.0(64)
비지원 대상자	1순위	27.6	58.6	3.4	0.0	0.0	0.0	10.3	100.0(29)
	2순위	39.1	30.4	13.0	0.0	13.0	0.0	0.0	100.0(23)



[그림 Ⅳ-4-10] 생활불만족이유 1순위



[그림 Ⅳ-4-11] 생활불만족이유 2순위

현재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2순위를 각 아동지원사업 대상인지의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먼저 자신의 자녀들이 아동지원사업 대상자들인 경우, 직업이 안정적이지 못해서가 57.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소득이 적어서가 18.8%, 본인이 건강하지 못해서 9.4%, 자녀가 건강하지 못해서가 6.3%, 부부 간의 불화와 많이 배우지 못해서가 동일비율로 3.1%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아동지원사업 대상자들인 경우, 현재생활 불만족의 가장 큰 이유의 1순위는 소득이 적어서가 가장 많았고, 2순위에서는 직업이 안정적이지 못해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으로서 경제적인 이유가 현재 생활 불만족의 가장 주된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자녀가 아동지원사업 대상자가 아닌 경우, 현재생활 불만족 이유의 2순위로, 직업이 안정적이지 못한 것이 39.1% 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소득이 적어서가 30.4%, 본인이 건강하지 못해서와 부부간의 불화가 동일 비율로 13.0%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아동지원사업 대상자들이 아닌 경우에도, 현재생활 불만족의 가장 큰 이유의 1순위는 소득이 적어서가 가장 많았고, 2순위에서는 직업이 안정적이지 못해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으로서 경제적인 이유가 현재 생활 불만족의 가장 주된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이 생각하는 현재 생활 불만족 이유에 대하여 순위에 따라 다르게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표 Ⅳ-4-11> 가장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아동지원사업 대상자와 비대상자 부모 모두 소득이 적어서와 직업이 안정적이지 못해서라는 이유를 가장 많이 들었다. 결론적으로, 아동지원사업 대상 영유아 가정의 주양육자든 일반 저소득층 영유아 가정의 주양육자든 경제적인 이유가 현재 생활에 만족하는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표 Ⅳ-4-11> 지원사업 대상자와 비대상자의 가중치를 부여한 현재 생활 불만족 이유

구분	순위	불만족 이유
지원대상자	1	소득이 적어서
	2	직업이 안정적이지 못해서
	3	건강하지 못해서
비지원대상자	1	소득이 적어서
	2	직업이 안정적이지 못해서

3) 자녀행복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동지원사업 대상인지의 여부에 따라서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고 대답한 주양육자에 한해서만 미래의 자녀행복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관하여 중요도 순으로 2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을 때, 각 아동지원사업 대상인지의 여부에 따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인이 다소 달랐다.

먼저 자녀가 아동지원사업 대상자들인 경우, 미래의 자녀행복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는 1순위 요인에서는, 가족 간의 화목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0.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녀의 건강 23.4%, 부모의 건강 19.7%, 부모의 경제력이 18.2%, 부모의 양육관 6.7%, 부모의 직업 0.7%, 부모의 학력과 종교가 동일 비율로 0.4%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아동지원사업 대상자인 주양육자들의 경우, 가족 간의 화목이 미래의 자녀행복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는 요인이었고, 다음으로 주로 부모의 건강, 경제력, 양육관 직업과 같은 부모와 관련된 요인들을 들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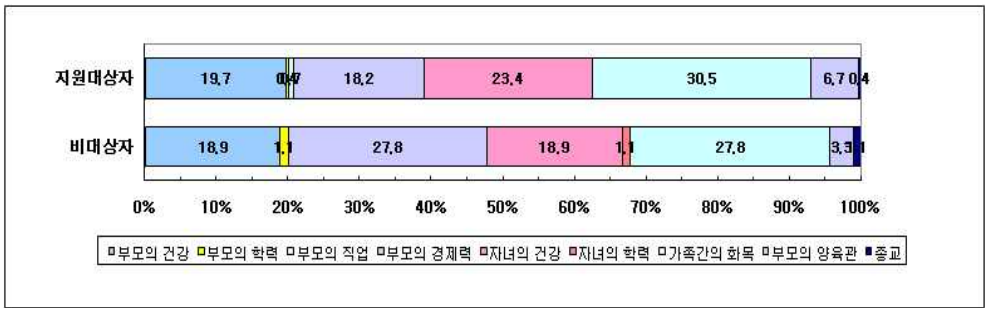
두 번째로 자녀가 아동지원사업 대상자가 아닌 경우, 미래의 자녀행복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는 1순위 요인에서는, 가족 간의 화목과 부모의 경제력이라고 부모들이 응답한 경우가 동일 비율 27.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녀의 건강과 부모의 건강이 동일 비율 18.9%, 부모의 양육관 3.3%, 자녀의 학력, 부모의 학력과 종교가 동일비율 1.1%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아동지원사업 대상자들이 아닌 경우의 주양육자들은 가족 간의 화목과 부모의 경제력이 미래의 자녀행복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였고, 다음으로 자녀건강, 자녀학력과 같은 자녀와 관련된 요인들과 부모건강, 양육관, 학력과 같은 부모 요인들이 모두 미래의 자녀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4-12> 지원사업 대상자와 비대상자 자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단위: %

구분		부모의 건강	부모의 학력	부모의 직업	부모의 경제력	자녀의 건강	자녀의 학력	가족간 화목	부모의 양육관	종교	계(수)
지원대상자	1순위	19.6	0.4	0.7	18.2	23.4	0.0	30.5	6.7	0.4	100.0(269)
	2순위	12.3	1.5	2.6	26.1	26.5	1.5	21.3	7.8	0.4	100.0(268)
비지원 대상자	1순위	18.9	1.1	0.0	27.8	18.9	1.1	27.8	3.3	1.1	100.0(90)
	2순위	8.9	0.0	2.2	24.4	25.6	0.0	27.8	8.9	2.2	100.0(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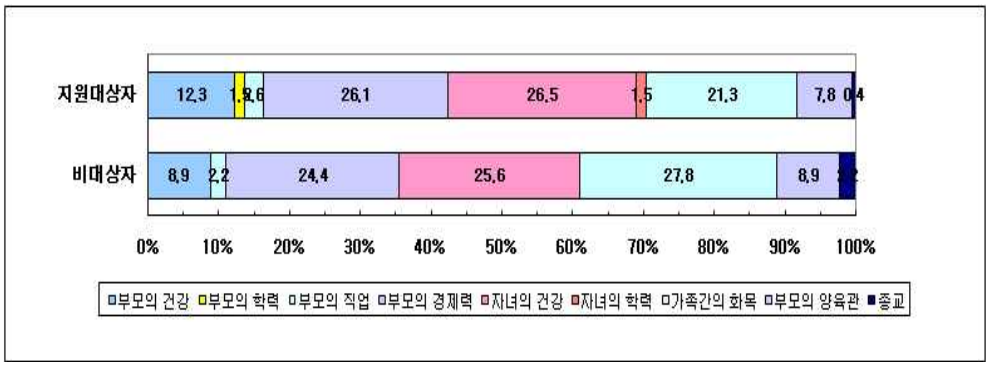
[그림 Ⅳ-4-12] 자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순위

미래의 자녀행복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는 2순위 요인을 자녀가 아동지원사업 대상인지의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먼저 자신의 자녀들이 아동지원사업 대상자들인 경우, 주양육자들은 자녀의 건강 26.5%로 가장 많이 들었고, 다음으로 부모의 경제력 26.1%, 가족 간의 화목 21.3%, 부모의 건강 12.3%, 부모의 양육관 7.8%, 부모의 직업 2.6%, 자녀의 학력과 부모의 학력을 동일 비율 1.5%, 종교를 0.4% 순으로 들었다. 자녀가 아동지원사업 대상자들인 경우, 주양육자들은 미래의 자녀행복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는 1순위 요인으로 가족간의 화목을 가장 많이 들었고, 2순위 요인으로는 자녀의 건강을 가장 많이 지목하였다.

두 번째로 자녀가 아동지원사업 대상자가 아닌 경우, 미래의 자녀행복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는 2순위 요인에서, 주양육자들은 가족 간의 화목을 27.8%로 가장 많이 들었고, 다음으로 자녀의 건강 25.6%, 부모의 경제력 24.4%, 부모의 건강과 부모의 양육관이 동일 비율로 8.9%, 부모의 직업과 종교

를 동일 비율로 2.2% 순으로 들었다.

자녀가 아동지원사업 대상자가 아닌 경우, 주양육자들은 미래의 자녀행복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는 1순위 요인으로 가족 간의 화목과 부모의 경제력을 가장 많이 들었고, 2순위 요인으로도 마찬가지로 가족 간의 화목을 가장 많이 지목하였다. 자녀가 아동지원사업 대상자가 아닌 경우의 주양육자들이 자녀가 아동지원사업 대상자인 경우의 주양육자들 보다 부모의 경제력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4-13] 자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순위

부모들이 생각하는 미래의 자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순위에 따라 다르게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Ⅳ-4-13)에 제시되어 있다. 아동지원사업 대상자의 부모인 경우는 미래의 자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가족 간의 화목을 가장 많이 들었고, 다음으로 자녀의 건강, 부모의 건강, 부모의 경제력 순으로 들었다. 아동지원사업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가족 간 화목, 부모의 경제력을 자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보았고, 다음으로 자녀의 건강과 부모의 건강을 들었고, 그 다음으로 가족 간의 화목을 들었다.

<표 Ⅳ-4-13> 지원사업 대상자와 비대상자의 가중치를 부여한 자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분	순위	자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원대상자	1	가족 간 화목
	2	자녀의 건강
	3	부모의 건강
	4	부모의 경제력
비지원대상자	1	가족 간 화목, 부모의 경제력
	2	자녀의 건강, 부모의 건강
	3	가족 간 화목

4) 저소득 영유아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

자녀가 아동지원사업 대상자인 경우와 아닌 경우의 주양육자들을 대상으로 그 가정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에 관하여 질문하였을 때, 자녀가 아동지원사업 대상인지의 여부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이 다소 비슷한 양상이었다.

먼저 자녀가 아동지원사업 대상자인 경우의 주양육자들은, 그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미래 자녀교육을 대비하여 국가와 가정이 함께 적금을 붓는 정책과 같은 자녀교육비 지원을 47.0%로 가장 많이 들었고, 다음으로 기초생활비 지원확대 26.3%, 의료비 지원 서비스와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체험 및 여가 활동 지원 프로그램 지원 정책이 동일 비율로 7.8%, 부모가 안정적인 직업을 갖도록 일자리 지원을 위한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7.4%, 자녀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2.2% 정도로 들었다. 자녀가 아동지원사업 대상자인 경우의 주양육자들은 미래의 자녀교육비 준비를 위한 정책 지원을 제일 필요한 정책으로 들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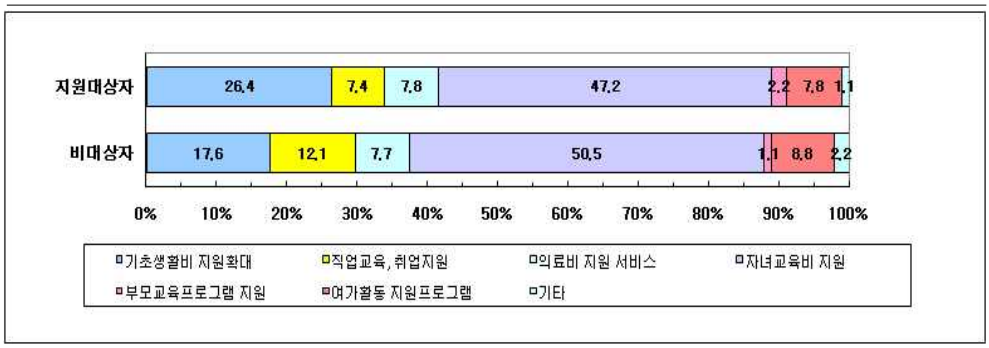
다음으로 자녀가 아동지원사업 대상자가 아닌 경우의 주양육자들은, 그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미래 자녀교육을 대비하여 국가와 가정이 함께 적금을 붓는 정책과 같은 자녀교육비 지원을 50.5%로 가장 많이 들었고, 다음으로 기초생활비 지원확대 26.3%, 부모가 안정적인 직업을 갖도록 일자리 지원을 위한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12.1%,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체험 및 여가 활동 지원 프로그램 지원 8.8%, 의료비 지원 서비스 7.7%, 자녀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1.1% 정도로 들었다.

자녀가 아동지원사업 대상자가 아닌 경우의 주양육자들도 자녀가 아동지원사업 대상자인 주양육자들과 마찬가지로 미래의 자녀교육비 준비를 위한 정책 지원을 제일 필요한 정책으로 들고 있었다. 자녀가 아동지원사업 대상자인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두 번째로 그 가정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기초생활비 지원 확대와 같은 비용지원을 들었다.

<표 Ⅳ-4-14> 지원사업 대상자와 비대상자의 저소득 영유아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

단위: %(명)

구분	기초 생활비 지원확대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의료비 지원 서비스	자녀 교육비 지원	부모교육 프로그램 지원	문화체험 및 여가 활동지원 프로그램	기타	계(수)
지원대상자	26.4	7.4	7.8	47.2	2.2	7.8	1.1	100.0(269)
비지원대상자	17.6	12.1	7.7	50.5	1.1	8.8	2.2	100.0(91)



[그림 Ⅳ-4-14] 저소득 영유아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

5) 저소득 영유아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육아지원 정책

자녀가 아동지원사업 대상자인 경우와 아닌 경우 모두의 주양육자들을 대상으로 그 가정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육아지원정책에 관하여 중요도 순으로 2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을 때, 자녀가 아동지원사업 대상인지의 여부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이 다소 달랐다. 먼저, 자녀가 아동지원사업 대상자인 경우의 주양육자들은 가장 필요한 육아지원정책 1순위로서, 자녀의 학원 또는 학습지 비용지원 확대/사설 학원 등의 지원을 32.3%로 가장 많이 들었고, 다

음으로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예산확대/사업 확대를 20.1%,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프로그램 확대 19.7%, 유치원 및 보육시설 비용 지원 11.9%,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 8.2%,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를 7.4% 순으로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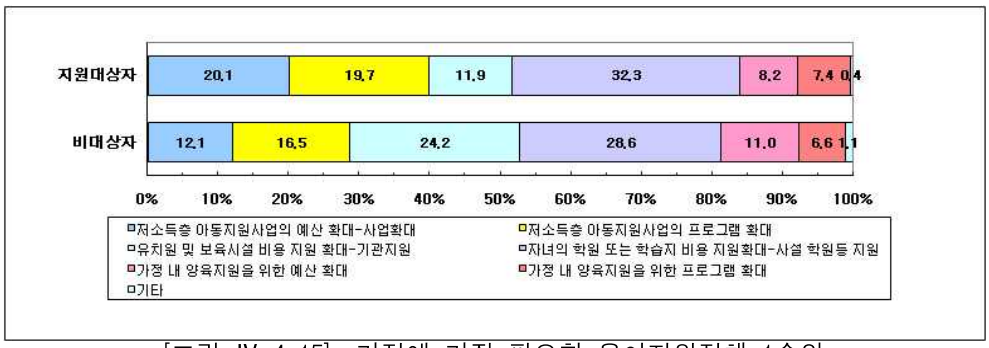
다음으로, 자녀가 아동지원사업 대상자가 아닌 경우의 주양육자들은, 가장 필요한 육아지원정책 1순위로서, 자녀의 학원 또는 학습지 비용지원 확대/사설 학원 등의 지원을 28.6%로 가장 많이 들었고, 다음으로 유치원 및 보육시설 비용 지원 확대 24.2%,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프로그램 확대 16.5%,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예산확대/사업 확대를 12.1%,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 11.0%,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를 6.6% 순으로 들었다.

자녀가 아동지원사업 대상자인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저소득층 영유아 가정의 주양육자들은 자녀의 학원 또는 학습지 비용지원 확대/사설 학원 등 지원을 가장 필요한 육아지원정책으로 들었다. 자녀가 아동지원사업의 대상인 경우에는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예산확대/사업 확대를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장 필요한 육아정책의 1순위 요인으로 꼽았다. 반면, 자녀가 아동지원사업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장 필요한 육아정책의 1순위 요인에서 유치원 및 보육시설 비용 지원 확대를 두 번째로 많이 들었다. 두 번째로 비중을 둔 요인에서는 자녀가 아동지원사업 대상자인지의 여부에 따라 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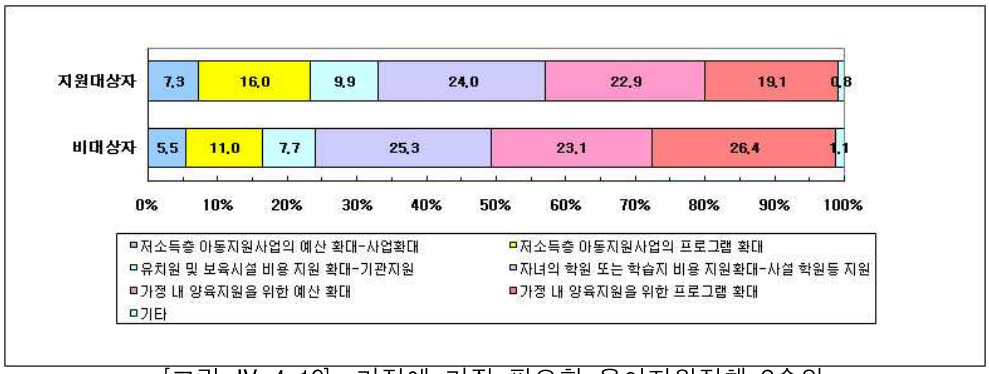
<표 Ⅳ-4-15> 지원사업 대상자와 비대상자의 가정에 가장 필요한 육아지원정책

단위: %(명)

구분		저소득층 아동지원 사업의 예산확대/ 사업확대	저소득층 아동지원 사업의 프로그램 확대	유치원 및 보육시설 비용 지원 확대. 기관지원	자녀의 학원또는 학습지 비용지원 확대/사설 학원 등 지원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기타	계(수)
지원대상자	1순위	20.1	19.7	11.9	32.3	8.2	7.4	0.4	100.0(269)
	2순위	7.3	16.0	9.9	24.0	22.9	19.1	0.8	100.0(262)
비대상자	1순위	12.1	16.5	24.2	28.6	11.0	6.6	1.1	100.0(91)
	2순위	5.5	11.0	7.7	25.3	23.1	26.4	1.1	100.0(91)



[그림 Ⅳ-4-15] 가정에 가장 필요한 육아지원정책 1순위



[그림 Ⅳ-4-16] 가정에 가장 필요한 육아지원정책 2순위

먼저 자녀가 아동지원사업 대상자인 경우의 주양육자들은, 가장 필요한 육아지원정책 2순위로서, 자녀의 학원 또는 학습지 비용지원 확대/사설 학원 등의 지원을 24.0%로 가장 많이 들었고, 다음으로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 22.9%,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19.1%,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프로그램 확대 19.1%, 유치원 및 보육시설 비용 지원확대 9.9%,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예산 확대를 16.0% 순으로 들었다.

다음으로, 자녀가 아동지원사업 대상자가 아닌 경우의 주양육자들은, 가장 필요한 육아지원정책 2순위로서,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를 26.4%로 가장 많이 들었고, 다음으로 자녀의 학원 또는 학습지 비용지원 확대/사설 학원 등의 지원을 25.3%로,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 23.1%,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프로그램 확대 11.0%, 유치원 및 보육시설 비용 지원 확대 7.7%,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예산확대/사업 확대를 5.5% 순으로 들었다.

자녀가 아동지원사업의 대상인 경우에는 자녀의 학원 또는 학습지 비용 지원 확대/사설 학원 등의 지원을 가장 필요한 육아지원정책의 2순위 요인으로 가장 많이 들었고,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를 두 번째로 많이 들었다. 반면, 자녀가 아동지원사업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장 필요한 육아정책의 2순위 요인에서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를 가장 많이 들었고, 자녀의 학원 또는 학습지 비용지원 확대/사설 학원 등의 지원을 두 번째로 많이 들었고 비슷한 수준으로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를 들었다.

자녀가 아동지원사업의 대상인 경우의 주양육자들은 자녀의 학원 또는 학습지 비용지원 확대/사설 학원 등의 지원을 가장 필요한 육아지원정책으로 1순위와 2순위 모두에서 가장 많이 들었다. 반면, 자녀가 아동지원사업의 대상이 아닌 경우의 주양육자들은 가장 필요한 육아정책의 1순위 요인에서 자녀의 학원 또는 학습지 비용지원 확대/사설 학원 등의 지원을 가장 많이 들었으나, 2순위에서는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를 가장 많이 들었다. 그리고 아동지원사업의 대상이 아닌 경우의 주양육자들이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비용과 프로그램을 더 많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4-16> 지원사업 대상자와 비대상자의 가중치를 부여한 가정에 필요한 육아지원정책 순위

구분	순위	가정에 필요한 육아지원 정책
지원대상자	1	자녀의 학원 또는 학습지 비용지원 확대/사설 학원 등 지원
	2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예산 확대/사업 확대
	3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프로그램 확대
	4	유치원 및 보육시설 비용 지원 확대/기관지원
	5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
비대상자	1	자녀의 학원 또는 학습지 비용지원 확대/사설 학원 등 지원
	2	유치원 및 보육시설 비용 지원 확대/기관 지원
	3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프로그램 확대
	4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예산 확대/사업 확대

부모들이 생각하는 가정에 가장 필요한 육아지원정책 요인에 대하여 순위에 따라 다르게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Ⅳ-4-16>에 제시되어 있다. 지원사업 대상자의 부모나 비대상자의 부모들 모두 자녀의 학원 또는 학습지 비용지원 확대/사설 학원 등의 지원을 가장 필요한 육아지원정책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지원대상자의 부모들의 경우에는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과 관련된 예산이나 사업확대를 다음으로 주요한 요인으로 생각한 반면, 비대상자의 부모들은 유치원 및 보육시설 비용지원 확대를 두 번째로 중요한 요인으로 들었다. 지원대상자의 부모들은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비대상자의 부모들 보다 더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5. 소결

대체로 아동지원사업 대상인 주양육자들은 아동지원사업이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가정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야기시켰다고 보고하고 있었다. 아동지원사업은 아동의 학교적응과 같은 미래의 생활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다. 아동지원사업 확대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들은 아동지원사업의 서비스 내용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서비스의 이용여부에 대해서는 가족서비스, 사례관리,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영국의 슈어스타트 사업에서 보여주는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아동과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아동지원사업이 우리나라의 경우 더 보강 발전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아동지원사업의 대상인 저소득층 가정의 주양육자들은 미래의 자녀 교육비 지원이나 기초생활비 지원확대 등과 같은 비용지원 정책을 많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가정의 주양육자들이 현재 생활에 가장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라고 보고한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서 부모들의 주된 관심은 직접적인 비용지원에 가장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저소득층 가정에 가장 필요한 육아정책으로는 자녀의 학습지 또는 학원비 지원과 같은 자녀 교육과 관련된 요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확대 및 프로그램 확대도 많이 요구하였다.

Ⅴ. 저소득층 가정담당 정책수행자의 의견분석

1. 정책수행자 특성

현재 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가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 현황을 살펴보았다. 위스타트 사업, 드림스타트사업,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과 일반 저소득층 아동사업 관련 담당자들이 이에 해당하였다. 삼성포괄적보육서비스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들은 공무원 신분이라고 볼 수도 없고, 다른 아동지원사업 담당자들과는 다소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다음에서 제시될 결과들은 삼성어린이집 포괄적보육서비스 사업 관련 담당자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먼저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 담당자들로부터 그들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와 해당 아동지원사업에 관련된 정보를 얻었다. 분석 결과는 다음에 제시되어 있다.

가. 정책수행자의 성별, 연령, 고용형태, 근무기간

먼저 응답자의 특성 중 성별은, 여자가 80.7%, 남자가 19.3%로 여성 정책담당자의 수가 더 많았다. 연령은 30대가 46.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 23.9%, 20대가 18.2% 순이었고 50대 이상이 11.4%로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고용형태로는 일반공무원 54.5%로 가장 많았고, 민간전문인력이 36.4%, 계약직공무원 6.8%, 기타와 무응답이 각각 1.1%를 차지하였다. 근무기간은 12개월 이하가 46.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3개월-24개월 이하가 31.8%, 25-36개월 이하가 11.4%, 36개월 이상이 10.2% 이었다(표 Ⅴ-1-1 참조).

<표 Ⅴ-1-1> 정책수행자 특성

단위: %(명)

구분	비율
성별	
남자	19.3
여자	80.7

구분	비율
연령	
20대	18.2
30대	46.6
40대	23.9
50대 이상	11.4
고용형태	
일반 공무원	54.5
계약직 공무원	6.8
민간전문인력	36.4
기타	1.1
무응답	1.1
근무기간	
12개월 이하	46.6
13~24개월 이하	31.8
25~36개월 이하	11.4
36개월 이상	10.2
전체	100.0(88)

나. 정책수행자의 해당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

응답자들의 해당 저소득층 아동 지원사업으로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수행자가 30.7%(29명), 일반저소득사업 아동 담당자가 25%(22명), 위스타트 사업 담당자가 22.7%(20명),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담당자가 21.6%(19명)이었다. 일반저소득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22명을 제외한 정책담당자의 해당업무로는 사회복지사가 17.0%로 가장 많았고, 간호사 14.8%, 총괄자 13.6%, 보육교사와 기타가 동일비율로 8.0%, 보육/교육조정자와 프로젝트 조정자가 동일비율로 5.7% 순이었다.

일반저소득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22명을 제외한 아동지원사업 정책담당자 66명 중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담당하고 있는 총 아동수(학령기아동 포함)는 501~1000명이 19.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0명 이하가 17%, 201~300명이 15.9%, 401~500명이 10.2%, 301~400명이 8.0%, 101~200명이 4.5% 순이었다. 현재 담당하고 있는 총 영유아수는 100명 이하가 38.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1~200명이 14.8%, 201~300명이 10.2%, 301명 이상이 11.4% 순으로 나타났다.

각 사업별로 대체로 비슷한 수의 정책수행자들이 응답하였고, 해당업무로도 복지, 의료, 교육, 총괄 분야에서 고르게 분포되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Ⅴ-1-2 참조).

<표 Ⅴ-1-2>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 특성

단위: %(명)

구분	비율
해당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사업	21.6
드림 (희망) 스타트 사업	30.7
위스타트 사업	22.7
없음 (일반 저소득)	25.0
	100.0(88)
해당 업무	
총괄자	13.6
보육/ 교육 조정자	5.7
사회 복지사	17.0
간호사	14.8
프로젝트 조정자	5.7
보육교사	8.0
유아교육 전문가	1.1
지역사회 교육 전문가	1.1
기타	8.0
전체	100.0(66)
담당 총 아동수	
100명 이하	17.0
101-200명	4.5
201-300명	15.9
301-400명	8.0
401-500명	10.2
501-1000명	19.3
전체	100.0(66)
담당 영유아수	
100명 이하	38.6
101-200명	14.8
201-300명	10.2
301명 이상	11.4
전체	100.0(66)

2.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효과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정책수행자들을 대상으로 각 지원사업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위스타트, 드림스타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수행과 관련된 정책 수행자들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수집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내용으로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이 저소득 가정의 영유아 발달에 도움을 준 정도, 학교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정도와 부모 및 가정에서의 변화에 관한 것이었다.

가. 영유아 발달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위스타트, 드림스타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일반저소득층 영유아 사업)이 저소득층 영유아의 발달에 도움이 된 정도에 관한 응답은,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을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로 대상을 한정하였다. 따라서 보육료지원을 포함한 비용지원이 주된 업무인 일반저소득층 영유아 사업 담당자들은 제외되었다.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이 저소득층 영유아의 발달에 도움이 된 정도에 관해 4점 척도로 질문하였고, 응답결과, 영유아의 인지·사회성·언어·신체 발달에 있어서는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가 각각 56.1%, 54.5%, 50.0%, 54.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정서발달에서는 매우 도움이 되었다가 56.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모든 발달영역에서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와 “매우 도움이 되었다’를 합한 경우에는 90% 이상을 차지함으로서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 담당자들은 이러한 사업들이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표 Ⅴ-2-1 참조).

<표 Ⅴ-2-1> 아동지원사업이 영유아 발달에 도움이 된 정도

단위: %(명)

구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계(수)
인지발달	0.0	4.5	56.1	39.4	100.0(66)
사회성발달	0.0	1.5	54.5	43.9	100.0(66)
언어발달	0.0	4.5	50.0	45.5	100.0(66)
정서발달	0.0	3.0	40.9	56.1	100.0(66)
신체발달	1.5	9.1	54.5	34.8	100.0(66))

나. 영유아의 학교적응

실제 아동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 담당자들만을 대상으로 현재 담당하고 있는 아동지원사업이 앞으로 해당 아이들의 학교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정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57.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체로 도움이 될 것이다 42.4%이었으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한명도 없었다(표 Ⅴ-2-2 참조).

<표 Ⅴ-2-2> 아동지원사업이 학교생활에 도움이 된 정도

단위: %(명

구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대체로 도움이 될 것이다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계(수)
비율	0.0	0.0	0.0	42.4	57.6	100.0(66)

다. 부모 및 가정에서의 변화

아동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정책 담당자들만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에 의한 부모 및 가정에서의 변화 정도를 살펴본 결과, 이전보다 표정이 밝아진 가정이 많아진 경우, 양육이나 교육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가정이 많아진 경우, 양육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뀐 경우, 부모들의 가치관이 긍정적으로 바뀐 경우, 의욕적으로 삶을 개척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정이 많아진 경우, 해당 지원사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정이 많아진 경우에 있어서 각각 대체로 그렇다 53.0%, 51.5%, 51.5%, 60.6%, 56.1%, 50.0% 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매우그렇다 45.5%, 43.9%, 37.9%, 27.3%, 16.7%, 40.9% 였다. 즉, 지원사업에 의해서 표정이 밝아진 경우가 많아지고, 양육태도와 부모의 가치관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삶에 대해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해당지원사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Ⅴ-2-3 참조).

<표 Ⅴ-2-3> 아동지원사업 수혜 후 부모 및 가정의 변화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계(수)
표정이 밝아짐	0.0	0.0	53.0	45.5	1.5	100.0(66)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계(수)
양육관심	0.0	3.0	51.5	43.9	1.5	100.0(66)
양육태도	0.0	9.1	51.5	37.9	1.5	100.0(66)
가치관	0.0	10.6	60.6	27.3	1.5	100.0(66)
의욕	0.0	25.8	56.1	16.7	1.5	100.0(66)
참여	0.0	7.6	50.0	40.9	1.5	100.0(66)

3.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 평가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정책수행자들을 대상으로 각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알아보기 위해 위스타트, 드림스타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수행과 관련된 인력들과 이상의 사업들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적인 저소득층 영유아를 위한 비용지원 등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수집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현재 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가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담당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만족도, 다른 분야 담당자들과의 협력 정도, 정책수행자들이 생각하는 저소득가정의 빈곤탈피 방안, 현재의 아동지원 사업의 문제점, 저소득 가정의 문제점과 현재의 아동지원사업이 저소득층 영유아와 그 가정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 관하여 대답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가. 저소득 가정의 빈곤탈피 방안

모든 아동지원사업 담당자들에게 저소득층 아동의 빈곤탈피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2가지를 순서대로 대답하게 했을 때, 1순위로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국가 차원의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확대'가 46.6% 이었고, 다음으로 '부모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빈곤 탈출을 위한 실질적인 부모교육' 29.5%, '소득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이 11.4%, '맞춤형 교육/보육 프로그램 확대' 9.1%, '양육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3.4%이었다. 2순위로는 '맞춤형 교육/보육 프로그램 확대'가 26.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소득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직업 교육 및 취업지원'으로 17.2%, '부모 가치관 변화시킬 수 있는 빈곤탈출을 위한 부모교육' 17.0%, '국가차원의 저소득층 아동지

원 사업의 확대'가 16.1% 순이었다(표 Ⅴ-3-1 참조).

<표 Ⅴ-3-1> 정책수행자가 인식하는 빈곤탈피 방안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국가 차원의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확대	46.6	16.1
부모 가치관 변화시키는 빈곤탈출 위한 실질적인 부모교육	29.5	17.2
소득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직업 교육 및 취업 지원	11.4	23.0
맞춤형 교육/ 보육 프로그램 확대	9.1	26.4
양육지원 프로그램 개발	3.4	17.2
전체	100.0(88)	100.0(88)

정책수행자들이 생각하는 저소득 가정의 빈곤탈피 방안에 대하여 순위에 따라 다르게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Ⅳ-3-2>에 제시되어 있다. 정책수행자들은 저소득 가정의 빈곤 탈피를 위해서 국가 차원의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확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다음으로 부모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빈곤탈출을 위한 실질적인 부모교육이 필요하고, 세 번째로는 맞춤형 교육/보육 프로그램 확대, 네 번째로 소득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직업 교육 및 취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표 Ⅴ-3-2> 가중치를 부여한 정책수행자가 인식하는 빈곤탈피 방안 순위

순위	빈곤탈피 방안
1	국가 차원의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확대
2	부모 가치관 변화시키는 빈곤탈출 위한 실질적인 부모교육
3	맞춤형 교육/ 보육 프로그램 확대
4	소득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직업 교육 및 취업 지원

나. 저소득 가정의 문제점

모든 저소득층관련 영유아 지원사업 담당자들에게 저소득 가정의 가장 큰 문제점에 관하여 중요도 순으로 2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을 때, 1순위로는 저소득

가정의 부모의 경제력 39.8%로 가장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무지 및 무책임 27.3%,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의지 부족 17.0%로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 및 기술 부족 5.7%, 가족 간의 불화, 부모의 건강·직업, 교육환경 및 기회제공 제한이 동일 비율로 2.3%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로는 자녀양육에 대한 무지 및 무책임이 26.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모의 경제력 17.0%,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의지 부족 16.1%, 교육환경 및 기회제공 제한 13.8%,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 및 기술 부족 11.5%, 가족 간의 불화 5.7%, 부모의 건강 3.4%, 부모의 학력과 직업 2.3%, 자녀의 건강이 1.1% 순이었다(<표 Ⅴ-3-3> 참조).

<표 Ⅴ-3-3> 정책수행자가 인식하는 저소득 가정의 문제점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부모의 경제력	39.8	17.2
자녀양육에 대한 무지 및 무책임	27.3	26.4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부족	17.0	16.1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 및 기술 부족	5.7	11.5
가족 간의 불화	2.3	5.7
부모의 건강	2.3	3.4
부모의 직업	2.3	2.3
부모의 학력		2.3
교육환경 및 기회제공 제한	2.3	13.8
자녀의 건강	0.0	1.1
기타	1.1	0.0
전체	100.0(88)	100.0(88)

정책수행자가 인식하는 저소득 가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순위에 따라 다르게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Ⅳ-3-4>에 제시되어 있다. 정책수행자들은 부모의 경제력이 저소득 가정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여겼고, 다음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무지 및 무책임이 문제라고 여겼으며, 그 다음으로는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의지 부족이 문제라고 생각하였다.

<표 Ⅴ-3-4> 가중치를 부여한 정책수행자가 인식하는 저소득 가정의 문제점

순위	저소득가정의 문제점
1	부모의 경제력
2	자녀양육에 대한 무지 및 무책임
3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부족

다. 지원사업의 문제점

현재 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차원의 저소득층 아동지원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견해를 중요도 순으로 선택하도록 하였을 때, 1순위로는, '통합적 사업계획 구축 미비' 30.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력부족 및 고용의 불안정' 20.5%, '사업예산의 부족' 14.8%, '기존의 사업이나 시설과의 유사성 또는 비연계성' 10.2% 순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사업들 간의 협력부족' 5.7%, '사업 지속성의 불투명', '관리체계의 미비', '수혜사업들 간의 지역 중복성', '실제 지원사업이 필요한 아동이 사업에서 제외되는 시스템',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 순이었다.

2순위로 나타난 것 중에서는, '통합적 사업계획 구축미비'와 '실제 지원사업이 필요한 아동이 사업에서 제외되는 시스템'이 각각 17.0% 으로 가장 많은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업 지속성의 불투명, 인력부족 및 고용의 불안정, 수혜사업들 간의 지역 중복 순으로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기존의 사업이나 시설과의 유사성 또는 비연계성, 관리체계미비, 사업예산부족, 사업들 간의 협력부족,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 순으로 나타났다(표 Ⅴ-3-5 참조).

정책수행자가 인식하는 아동지원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순위에 따라 다르게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Ⅳ-3-6>에 제시되어 있다. 정책수행자들은 통합적 사업계획 구축 미비를 아동지원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여겼고, 두 번째로 인력부족 및 고용의 불안정을 들었으며, 세 번째로 사업예산의 부족을 들었으며, 네 번째로는 기존의 사업이나 시설과의 유사성 또는 비연계성을 들었다.

즉 정책수행자들은 아동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위한 조직적인 전달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육교사나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복지사 등이 계약직으로 묶여있어서 계약 기간이 끝날 경우에 대한 대비가 없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또 다른 어려움으

로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면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아동지원사업의 실효성이 부진할 수 있을 것이다.

<표 Ⅴ-3-5> 정책수행자가 인식하는 아동지원사업의 문제점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통합적 사업계획 구축 미비	30.7	17.0
인력부족 및 고용의 불안정	20.5	12.5
사업예산 부족	14.8	5.7
기존의 사업이나 시설과의 유사성 또는 비연계성	10.2	9.1
사업들 간의 협력부족	5.7	2.3
사업 지속성의 불투명	5.7	14.8
관리체계 미비	4.5	8.0
수혜 사업들 간의 지역 중복성	3.4	12.5
실제 지원사업이 필요한 아동이 사업에서 제외되는 시스템	3.4	17.0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	1.1	1.1
전체	100.0(88)	100.0(88)

<표 Ⅴ-3-6> 가중치를 부여한 정책수행자가 인식하는 아동지원사업의 문제점

순위	아동지원사업의 문제점
1	통합적 사업계획 구축 미비
2	인력부족 및 고용의 불안정
3	사업예산 부족
4	기존의 사업이나 시설과의 유사성 또는 비연계성

라. 지원사업의 도움 정도

저소득층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담당자들에게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이 저소득층 가정에 도움이 된 정도에 관하여 질문한 결과, 대체로 도움이 된다가 6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매우도움이 된다 23.9%,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9.1% 순으로 나타났다. 즉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이 저소득층 가정에 대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아동지원사업 담당자들

은 인식하고 있었다(표 Ⅴ-3-7 참조).

<표 Ⅴ-3-7> 정책수행자가 인식하는 지원사업이 가정에 도움이 된 정도

단위: %(명)

구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체로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계
비율	0.0	9.1	67.0	23.9	100.0(88)

마. 담당사업에 대한 만족도

아동지원사업 대상 담당자들만을 대상으로 담당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대체로 만족한다 47.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매우 만족한다 31.8%, 보통이다 19.7% 순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지원사업 담당자들은 대체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아동지원사업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Ⅴ-3-8 참조).

<표 Ⅴ-3-8> 담당사업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구분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별로 만족하지 못한다	보통이다	대체로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계
비율	0.0	1.5	19.7	47.0	31.8	100.0(66)

바. 다른 분야 담당자들과의 협력

일반저소득층 영유아지원 사업 담당자를 포함한 아동지원사업 담당자들에게 담당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다른 분야 담당자들과의 교류 및 협력이 잘 되는지의 정도에 관하여 질문하였을 때, 대체로 잘되고 있다 38.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매우 잘되고 있다 28.4%, 보통이다 23.9%, 별로 잘되고 있지 않다 5.7%, 전혀 잘되고 있지 않다 3.4%로 나타났다. 즉, 대체로 다른 분야 담당자들과의 교류 및 협력이 잘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별로 잘되지 않는 경우나, 전혀 잘되고 있지 않는 경우도 적은 비율이지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Ⅴ-3-9 참조).

다음으로 별로 잘되지 않는다 또는 전혀 잘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류와 협력이 잘 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관리체계의 미비를 37.5%로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예산부족을 들었으며, 관련지침부족, 담당자들의 개인적 특성, 기타의 이유를 동등한 비율로 답하였다(표 Ⅴ-3-10 참조).

<표 Ⅴ-3-9> 다른 분야 담당자와 협력 정도

단위: %(명)

구분	전혀 잘 되지 않고 있다	별로 잘 되지 않고 있다	보통이다	대체로 잘 되고 있다	매우 잘 되고 있다	계
비율	3.4	5.7	23.9	38.6	28.4	100.0(88)

<표 Ⅴ-3-10> 다른 분야 담당자와 협력이 안 되는 이유

단위: %(명)

구분	관리체계 미비	관련지침 부족	인력부족	예산부족	담당자들의 개인적 특성	기타	계
비율	37.5	12.5	0.0	25.0	12.5	12.5	100.0(88)

4. 소결

저소득층 가정 담당 정책수행자들은 아동지원사업의 효과를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 하고 있었다. 정책수행자들은 아동지원사업은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가정과 부모들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야기했다고 보고하였다.

저소득층 가정 담당 정책수행자들은 저소득 가정의 빈곤 탈피를 위해서 아동지원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분야 담당자와도 협력이 대체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저소득층 가정 담당 정책수행자들이 인식하는 아동지원사업의 문제점으로는 통합적 사업계획 구축미비와 인력부족 및 고용의 불안정을 들고 있었다. 즉 저소득층 가정 담당 정책수행자들은 아동지원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동지원사업의 전달체계가 잘 갖추어져서 조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인

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한 원활한 아동지원사업을 위해서는 아동지원사업을 위한 인력 구축 및 인력 유지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Ⅵ. 사례조사 분석

이 장에서는 저소득층 가정의 심층면담조사와 각 지원사업별 정책수행자들의 면담 내용을 분석하였다. 가구 방문은 총 15사례로서 4개 지원사업별 3사례씩 총 12사례와 지원사업을 받고 있지 않은 일반 저소득 가구 3사례로 진행되었다. 앞에서 언급된 내용들과 중복을 피하고 본 연구 주제와 부합된 논의 및 정책방안을 위해서, 가구심층면담을 통해 저소득 가정의 특성과 육아부분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고자 하며, 정책수행자의 심층면담은 담당하고 있는 사업의 문제점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 사례 방문 저소득층 가정의 특성

다음 <표 Ⅵ-1-1>는 서울과 경기도에 국한해서 저소득층 가구를 방문해서 면담을 실시한 총 15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네 개 사업 지원 가구 외에도 사업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일반 저소득층 가구도 포함하였다.

<표 Ⅵ-1-1> 심층면담사례: 가정

대상		응답자	해당자녀	지역	특징(비고)
일반 저소득 (3)	①	모	A	서울	-다자녀 가정(자녀: 4명) -첫째 아이가 장애(소아마비) -모: 전업모
	②	조모	B	서울	-조손가정(신생아부터육아) -부모 모두 연락두절
	③	모	C	서울	-어머니가 보육교사 준비 중 -저소득층 2층 가정 -남편의 수입이 일정치 않음
드림 스타트 (3)	④	모	D	서울	-남편: 장애 3급, 직업 무 -다자녀 가정(자녀: 3명) -기초생활수급 가정
	⑤	모	E	서울	-모자가정: 남편과 왕래 무 -어머니가 우울증 및 잦은 음주 -다자녀 가정(자녀: 3인) -자녀 2명이 장애와 폭력성이 있어 놀이치료 중 -모: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 중
	⑥	모	F	서울	-저소득 2층가구

대상		응답자	해당자녀	지역	특징(비고)
					-이혼과 재혼 모두 경험 -아이 어릴 때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림.
위스타트(3)	⑦	모	G	경기도	-저소득 2층가정 -이혼 고려 중 -남편 직업: 화물운수
	⑧	모	H	경기도	-저소득층 1층가정 -모자 가정 -첫째 아이는 가와사키 후유증, 둘째 아이는 피부병으로 고생 -직업: 부업
	⑨	모	I 남매	경기도	-기초수급대상가정 -다자녀 가정(자녀: 5명)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 중 -모 직업: 전업모
교육복지 투자우선 지역(3)	⑩	모	J	서울	-모자가정(모: 사회복지도우미) -깔끔하게 정리 정돈된 집안 분위기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아 보임 -주말프로그램, 교육비 지원
	⑪	모	K	서울	-어머니의 방어적인 태도로 심층적인 인터뷰가 되지 못함. 특히 남편이야기를 꺼려함(남편: 무직) -모: 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 -유치원비, 현장 학습비 지원을 받고 있음
	⑫	모	L	서울	-기초생활수급자,(남편:일용직) -어머니가 자녀양육에 관심이 많아 면접자에게 많은 이야기를 물어보았으며 특히, 일자리 제공에 요구가 매우 높았음 -자녀가 언어·놀이치료 중
삼성 포괄적 보육 서비스(3)	⑬	모	M	경기도	-모자가정: 남편과 왕래 없음 -기초생활수급자
	⑭	모	N	서울	-모자가정: 남편과 왕래 없음 -친정에 거주
	⑮	모	O	경기도	-모자가정, 어머니가 3급 장애인. -친정에 거주 -모 직업: 텔레마케터(재택근무)

참조: ①의 번호는 본문에서 진술의 편의를 위해 작성한 것임.

사례조사 대상의 15가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가. 배우자(남편)의 무능력

일용직과 같은 불안정한 직업으로 인한 매우 낮은 수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는 한 가정의 가장인 남편의 무능력에서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편의 무능력은 부인이 일터로 나가게 하는(나갈 수밖에 없는) 가

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다음은 현재(재혼한) 남편의 무능력으로 아이를 낳는 조차 고민했으며 출생신고도 출산 후 한 달이 지난 다음에야 했다고 울면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다.

면접자(이하, 면): 그러면.. 지금 OO 아빠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어머니(이하, 모): 저기 동네에서.. 알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일 힘든 부분이 지금까지.. 아빠를 생각해선 안 낳고, 안 낳아야 되는거야, 내가 생각할 때는. 근데 그 때 당시에는 이혼한지 얼마 안됐고. 안된 상황에서 애가 생겼고.. 인제 이 사람 만나갖고.. 했는데, 이사람 또 총각이었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 그런게 또 강했고.. 인제 했는데.. 이 사람이.. 생활능력이 없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 낳았을 때도 진짜.. 그 나이에. 내가 서른일곱에 애를 낳았지만 진짜 피나게 키운 애가 얘야. 지금도 그생각하면 눈물이 많이 나는데.. 우유도 없이 키웠고.. 쌀도 없이.. 그정도. (눈물 닦으며)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그렇게 키우는 사람이 거진 없지. 걔는 그렇게 키웠어. 악바리로 키웠어. 그래가지고. 출생신고도 한달.. 정도 돼서 했어요. 왜냐하며는 고민을 많이 한거야. 아빠를 받아들일 것이냐. 왜냐하면.. 워낙에 생활능력이 없고.. 능력이 없다는 건.. 안 해. 그러니까 나중에 안거지..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하고 살아야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거.. 내 이름으로, 내 성을 따가지고 얘를 내가 키우고 나는. 그럴려고 했는데.. 애를 딱 낳아놓고.. 갔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거야. 내 속으로는. (아빠가)능력이 없어도 그래도 또... 근데 얘.. 앞으로 자랄 때는. 또 아빠없는 애.. 그럴 거 같애서.. 그냥 혼인신고만이라도 올리자... 그래서 출생 신고하면서 같이.. 한거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때 생각하면 진짜 말도 못했어(⑥사례).

현재 이 어머니는 OOO종교 복지관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젊은 나이로(면담시 40대 초반) 청소 일을 하는 게 창피했지만 지금은 다른 직원들이 동등하게 대우를 해줘서 만족하면서 일을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남편의 무능력은 다른 면담 가정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경제 문제.. 처음에는.. 제가 어느 정도 성격은 맞춰갈 수가 있어요. ……(남편이) 조금 무능력했어요, 사실은.. 처음부터. 그리고 집안이 어머니.. 시어머니 당뇨로 아프시지, 시동생.. 정신적으로 문제 있어서 정신병원 다니지.. ……본인이. 열심히만 해주면 같이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다가 보니까 자기네 식구 도와주고 하다보니까 빚도 좀 생기고 그러다 보면.. 몇 천만원이라는 빚이 생기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갖고 친정 돈도 끌어다가 같이 병원에 입원 시키고... 하여튼 뭐 그런거. 그런거 하다 보니까 이제 사이가 좀 소원해지기 시작 하는거죠.. 그래서 이래저래 하다가 한 번 싸웠는데. 나한테 뭘 집어던졌어요. 근데 그게 나한테 여기 맞아가지고 이게 확 찢어지는 바람에. 완전 피가.. 유택이가 그걸 다 봤잖아요. 걔 저거 충격 받아가지고 애가... 클 지 안 클지 되게 걱정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아 이거는 아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나는 솔직히 그 때는, 애 보다는 내가 먼저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이혼을 안 해줄 거 같아서 그냥 경찰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바로 경찰이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한 거에요. 그 전부터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 우리 이렇게 살 바에야 그냥 이혼을 하자. 그랬거든요. 그런데 죽어도 안해준대요. 그러면서 일도 안 나가고 저 방에 틀어박혀 갖고..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되고, 술 한 잔은 해야 되고.. 또 이틀 나가면 하루 쉬고, 삼 일 나가면 이틀 쉬고. 어떻게 살아요. 애를 키우면서... 빚을 갚으면서.. 친정 엄마가 이렇게까지 해 줬는데. 근데도 그게 바뀌지 않더라구요. 아..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헤어져갖고 그렇게 살자. 그런 상황이 되가지고 이혼을 하게 된거죠. 애한테도 좋은 거 같애요. 뭐. 일 안나가고 집에서 노는 아빠 보다는... 거짓말이라도 아빠 일 열심히 나가니까. 그런 소리 듣는 게 낫잖아요. 애 보는 것도 있으니까.. 겸사겸사.. 힘들긴 하지만.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죠(사례 ⑫).

"...원래 이렇게... 자기가 특별하게 기술이 있거나.. 뭐 이런.. 스타일도 아니고. 나중에 그걸 알았는데.. 원래 그랬대요. 원래 그렇게 한량처럼.. 자기 몸 사리고... 일 할라 그러면 게을리 하고.. 다녀도 일 년으로 따지면 한 달 한.. 10일 정도? 그거 빼고 나머지 10 달은 논다구...."(사례 ⑥)

남편의 무능력은 이혼으로 이어져 결국 가정해체를 가져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은 더하다. 결과적으로 저소득층 가정은 한부모 가정이 많았다. 총 15사례의 가구유형을 살펴보면, 부모+자녀 가정은 6가정으로 절반도 안 되었으며, 한부모 가정이 7가정, 조손가정이 1가정으로 총 8사례가

가정이 해체되어 있었다. 조손가정의 경우 부모 양쪽 모두 연락이 끊긴 상태이며 이혼가정 모두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고 있으며 아버지하고의 연락이 전무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지금은 부부가 함께 살고는 있지만 두 가정이 남편의 무능력과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었다.

나. 배우자(남편)의 가정 폭력

배우자의 실직이나 불안정한 직업외의 저소득층 가정을 암울하게 하는 또 다른 주요 원인은 배우자 즉 남편이자 아버지의 폭력이라 하겠다. 면접을 통해 이러한 이야기가 쉽게 그리고 많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가정폭력은 여러 가지 정황상 저소득층 가정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한 요소임에는 틀림없다. 다음은 남편의 폭력으로 심각하게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⑨사례 가정의 인터뷰 내용이다.

면: 그러면 아이들 키우거나 최근에 아버지가 그만 두시면서 많이 싸우시고 그런 적은 없으세요?

모: 많이 싸워요. 갈등이 되게 많아요. 아빠가 다혈질이어서 비위를 안 맞추면은 아이들 있든 없든 폭력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다툼도 많고... 어제 같은 경우만 해도...크게 싸웠어요. 아빠는 무조건 제가 잘못해서 자기 비위 안 맞춰주니까는.

남편의 폭력으로 집안 곳곳에 그 흔적이 남아있어 면접자의 방문을 꺼려했다는 심정을 털어놓기도 했다.

"오늘 솔직히...저는 전화를 할까, 못한다고... 지금 제가 땜빵을 다 해 논거에요. 얘기 안할라고 했던건데.. 어제 막... (내일 사람이: 면접자)오니까는 하지 말라고 제가 했는데 저기 해서 막(부수는 거)...주인아주머니가 보시면 뭐라 하실까봐 그림으로 다 땜빵을 해 논 거에요."

아버지의 폭력은 아이들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폭력으로 정서불안, 분리불안 등으로 인해 놀이치료를 받고 있었다.

"지금 애들도 둘째랑 큰애는 놀이치료를 받고 있어요. 불안해서....놀이치료를 받

아서 조금 나아지고 있는데 이게 반복되니까는 다시 나빠질까봐....요즘엔 셋째도 그런 게 보여요. 힘들고 거칠어요. 거칠고 말도 조금 험하게 나가고. 얘네들이 처음에 불안해가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셋째도 그런 게 보여요. 셋째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애들이 자기 아빠랑 있는 거 불안해서 화장실도 수십 번 계속 가고.. 울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지금도 잘 안떨어져요.....어린이집에 갔다 오면 제가 잠깐 요 앞에 나갔다와도 울고 하니까는.. 애들이 많아서 저는 좀....또 딸도 있으니까 저는 아빠가 좀 바뀔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는 또 아닌 거 같아요."

다. 장애 아동 · 부모의 높은 비율

면접 대상 가구들 중에서 자녀 또는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중증은 아니더라도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경우 아동지원사업에서 치료 등의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⑤사례, ⑧사례, ⑫사례) ⑫사례의 경우 두 자녀 모두 언어에 문제가 있어 두 자녀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에서 복지관에 아이의 장애문제를 알리고 이에 복지관은 아동치료기관을 연계해서 언어치료와 놀이치료를 받고 이었다.

면: 어떤 치료 받고 있어요?
모: 언어치료 놀이치료 받고 있어요.
면: 언어가 느린 편인가요?
모: 작은애는 느리고, 큰 애는 대화하다가 엉뚱하게 샛길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
면: 아이들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그러던가요? 산만하다든지 이런거요.
모: 누나가 말에 대해서 제제가 있으니까 작은애가 말이 없는 거 같은 생각은 해봤어요. 그러다가 여기와서 치료받는데 애가 잘 안 따라 하더라구요. 그 후 유치원 가서 교육받고 친구들하고 놀다보니까 조금씩 좋아지더라구요.
면: 치료는 일주일에 몇 번 가요?
모: 작은 애는 언어, 놀이 치료를 한 시간씩 일주일에 두 번 갔었는데, 요즘은 한 번에 2시간 가요. 큰 애는 한 시간 받아요(사례 ⑫).

부모가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는 사례 ④와 사례 ⑮이다. 사례 ⑮는 어머니가 3급 장애를 갖고는 있지만 텔레마케터 일을 하고 있었다. 반면, 사례 ④의 경우는 남편이 장애 3급으로 직업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면: 그러면 전반적으로 생활하기에 불편하신 점은 없으세요? 예를 들어 경제적인 면이라든지...

모: 아무래도 경제적으로는 우리 애 아빠가 장애가 3급이니까 벌지를 못하니까 좀 그런 게 힘들죠. 제가 벌어야하는데 지금 얘가 셋째거든요. 셋째가 태어나서 제가 돌까지 애를 키워야하니까 돌 이후에는 제가 일을 나갈거지만 그런 게 힘들어요(사례 ④).

라. 자녀교육에 대한 열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대부분 어머니들은 자녀에 대한 교육만큼은 열정을 지니고 있었다. 남편과 이혼을 하고 아들과 단 둘이 살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⑩사례의 경우, 주말에는 쉬고 싶지만 아이를 위해 문화센터 2강좌를 등록해서 아이와 함께 다니고 있으며 돈은 없더라도 아이가 원하는 것은 최대한 해주려고 노력한다고 했다.

"…네. (직장생활하기 때문에 집에 오면) 저도 힘들죠. 일하고 와가지고 정리하고 뭐 하다보면 열시, 열시 반 되거든요? 그러면 쟤 재우고, 그러면 바로 자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주말에 어떻게든 하나라도 가르쳐 보겠다고 문화센터 두 개 등록해서 다니고. 그러다 보면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간혹 가다 쟤 또 구경시켜주는 것도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영화관에 가든지 또 인제 지가 가고 싶은데 구경가고 싶다 그러면은 돈은 없지만 많이 안드는 선에서 구경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부러라도 가요, 저는. 그게 아빠하고 엄마의 차이인 거 같애요. 일부러라도 저는.. 한번이라도 구경을 시켜주면 딴 애들 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주려고 열심히 찾아보고, 이렇게 보고 할려고 하거든요.…"(⑩사례)

다음은 사립 보육시설에서 구립 보육시설로 옮긴 사례로서, 이전 보육시설에 비해 현재 자녀가 다니고 있는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

고 프로그램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내용이다. 이용 기관에서의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은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를 반영한 현상이라 하겠다.

면: 그럼 교육 보육 프로그램 같은 거는 만족하세요?
모: 아무래도 먼저 사립을 갔다와서는 이렇게 막 만족스럽지는 못했어요. 너무 적어서 프로그램이 적어서 사립은 프로그램이 많은데 구립에서는 기본적인 거 외에 영어나 이런 게 들어가는데 우리 미진이가 좋아했던 가베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 거는 추가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 가는거라 그런 것도 없고 미진이가 피아노치고 싶다 바이올린 하고 싶다 뭐 한다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해요. 구립에서 그런 걸 전혀 안 해요. 그런데 사립에서는 그런 걸 하니까 '엄마 나 이것도 배우고 싶고 저것도 배우고 싶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말이 쏙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선생님은 더 좋으세요. 좋으셔서 공부가르쳐 주거나 이런 건 꼼꼼하게 구립어린이집이 봐주거든요. 그런 건 마음에 드는데 처음에는 수업이 이제 너무 적게 들어가나 싶어서 사립에서 괜히 옮겼나 싶었어요(사례 ④).

2.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에 대한 가정의 만족도

자신이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사업 이름과 그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잘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원받지 않은 일반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는 이러한 지원사업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면: 혹시 교육복지투자지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모: 네.
면: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거에요?
모: 복지관가서 애들 교육받는 거, 치료받는 거 말이에요. 애들 무슨 일 있으면 다른 지원 받기도 하구요.
면: 가장 큰 것은 놀이치료, 언어치료 네요.
모: 네.
면: 하나도 돈 안내시는 거죠?
모: 네.

면: 어떻게 알고 받으셨어요? 유치원에서 알려줘서 그런 건가요?
모: 네. 입학 전 상담을 통해서 알았어요. 복지사가 그 쪽에 있으니까 그 분이 신청해 주겠다 하시더라구요. 아이들 데려오고 가고 해 주시더라구요. 제가 시간 되면 같이 가기도 해요.
면: 받으신지 꽤 되셨나요?
모: 입학하면서 받은 거니까 1년 됐어요.
면: 계속해서 받으실 건가요?
모: 나아질 때 까지 받아야죠.
면: 받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만족하세요?
모: 네. 나아지고 있어서요(사례 ⑫).

면: 그럼 어머니께서 드림스타트에서 서비스 받고 계시잖아요. 언제부터 받으시게 되셨어요?
모: OO이가 먼저 받았거든요. 둘째는 작년 가을부터 받았어요 10월 달인가? 10월 달인지 11월 달인지 잘 구분이 안 되네 그때쯤에 받고 미진이는 올 4월 달부터 받기 시작했어요.
면: 어떻게 어떤 계기로 받게 되셨어요?
모: 제가 기초생활 수급자로 되어있으니까 바로 구청이 옆이고 그러니까는 집으로 한 번 찾아왔었어요. 사업하기 전에 사업하시기 전에 이런이런 사업을 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론조사차 한 번 나왔었어요. 작년 3월 달인가 4월 달? 구청 직원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하게 되며는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느냐 엄마가 어떤 사업을 원하느냐?' 그걸 여론 조사를 하고 말로만 하고 가셨거든요. 30분정도 그러고 났는데 이제 이런 희망스타트.. 맨 처음에는 드림스타트가 아니라 희망스타트였어요. 희망스타트가 생겼는데 애를 공부를 좀 시켜주고 하는 사업이래요 그러면서 '하실거에요?' 이러더라구요. ……집으로 제가 집에 있을 때 집에서 했었는데 애가 참여하는 게 집에서는 잘 호응을 안 해주더라구요. 저랑만 붙어있고 그래가지고 여기 드림스타트가 바로 밑이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드림스타트 데려가서 하니까 애가 잘 한데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미진이가 토요일에 받는데 토요일 날은 제가 데리고 가고(사례 ④)

면: 위스타트에 서비스를 받게 되시면서 작년부터 쭉 어떤 서비스를 받으셨어요 생각나는 것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모: 의료서비스도 한번 받았는데 의료서비스는 어떻게 받았냐면 우민이가요 얼굴이 한쪽이... 점... 점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도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나 해서 보건선생님이 따로 계시는 데 같이 병원도 가주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걸 알아 보시더라구요. 병원도 같이 다니셨구요. 애가 너무 어려서 얼굴은 못하고.. 나중에라도 어똫게.. 그런 것도 해주시고. 서비스 인제 주말 나들이 한달에 한 번씩 인가 애들 데리고 바깥에도 나가주시고. 엄마들하고.. 몇 집 가정 다는 못 데리고 가고요. 가는 가정이 몇 명 해가지고 다녔어요, 작년에. 자주는 아니고. 뭐 축제, 그런데도 같이 다니시고. 올해도 어린이날 때 장자못 축제도 같이 가시고. 선생님들이 다 데리고 가는데 어리고 엄마들이 못 데리고 나가니까 선생님이 그걸 대신해 주시더라구요. 지금 기관에 오면서 책 같은 것도 한 달에 2번 와요 책이. 그런 것도 각각 아이들의 이름이 적혀서 오니까 그게 느낌이 틀린가봐요. 자기 책이라는 그런게 있고.. 그런 거 좋아하고.(사례 ⑧).

“그래도 애들한테 제가 잘 못해주는 거는 위스타트에서... 애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정규 프로그램에서 동화책 프로그램도 해주시고. 넷째 같은 경우는 집에 방문하셔가지고 중재 프로그램 해가지고 교재 같은거.. 일대일로 해주시고... 일주일에 한번. 한번은 방문, 한번은 교재만 주시고. 이렇게 해서 장난감이라든지, 책이라든지... 무슨, 아이들 촉감 같은 거 이용할 수 있다는 거 해주시고. 좋은 일 있으시면... 다친 거. 의료비 지원도 해주시고. 행사 같은 것도 그런 쪽으로 위스타트 때문에 그런 행사 만약에 참여할 수 있으면 행사에 참여를 해요.”(사례 ⑧)

지원 받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도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사례>

면: 그러면 어머니 지금 받고 계시는 드림스타트 서비스들에 대해서 만족하세요?

모: 네 만족해요. 일단은 애들 제가 일 나가며는 제가 공부도 제대로 못시켜주잖아요. 학습지라던가 이런 거 하려고 할래도 저랑 시간이 안 맞아서 대부분 저녁으로 미루고 이래야 되는데 저녁으로 미루게 되면 저도 할 일이 있고 하

다보니까 그런 게 잘 안 되더라구요. 꾸준히 잘 안 되더라구요. 애들을 꾸준히 봐줘야하는데 그것도 힘들 때가 있고 그러니까 잘 안 돼서 좀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올해 쉬면서는 애들 데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내려가서 영어랑 구연동화 듣고 그 다음에 유진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을 들으면서 책이랑 받아오거든요. 그러면 저랑 같이 노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책을 받아오며는 한 주거는 저랑 놀면서 수업 하는거고 한주 선생님이랑 수업하면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해주면 애도 반응이 좋고 하더라구요(사례 ④).

면: 그럼 혹시 받고 있는 서비스에 만족을 하시는지..

모: 어유 다 좋죠. 만족이야 다 하니까 그만큼 내가 또 여기 오게 된거고.. 그렇지 않으면.. 별로다 하면 오겠어요? 안 오지, 절대.

면: 만족하신다면,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만족스러우신지..

모: 만족.. 이라고 사람이 생각하는 차이인데.. 일단은 돈을 내고 안내고를 떠나서 인제.. 일단은.. 공짜.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내가 좋은 게 뭐냐면 애가.. 여기를 보내고서 효과가 없으면 아이... 무료래도 안가, 사실. 근데 우리 애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집에서도 흥얼흥얼해요. 오, 얘가 그래도 뭔가 하나라도 얻어가는구나. 인제 그런 게 보람 있는 거지(사례 ⑥).

<사례>

면: 그런 위스타트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하시나요?

모: 네 좋아해요. 그리고 올해도 했고, 애들 하도 감기 걸리니까 그러니까 의료서비스가 참 좋은 거 같애요. 애들.. 작년에는 한약 같은 것도 나왔구요. 무슨 패치 같은 거 붙인 것도 있었어요. 작년에 한의원 선생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부황같이 떠가지고 그런 것도 해주시고 (면: 아이들한테요?) 네, 아이들한테. 왜냐하면 감기 하도 걸리니까. 3월 초인지 4월 초인지 건강검진도 해주세요. 우민이 빈혈 심했는데, 작년에 받은 거에요. 작년에 빈혈약도 나오고. 왜냐면 저희가 일일이 그런 걸 못해주잖아요. 건강검진 같은 거. 근데 일 년에 한 번씩 해주시니까요. 애가 어디가 아픈지 그래도 대충... 그런 거. 그런 약 같은 것도 보충해주시고 그러니까(사례 ⑦).

<사례>

면: 지금 받고 있는 삼성포괄보육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내용에 만족 하시는지...

모: 만족하는 부분은 우선은 어린이집 비용 그게 가장 커요(웃음). 지금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그 부분이 되게 큰 부담이었는데 그 부담을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해 준거잖아요. 그거만큼 큰 건 없는 것 같아요. 정작 애기가 교육받을 수 있다는 거... 다른 애기들이랑 이렇게 어울리면서 그런 활동할 수 있다는 곳이 있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사례 ⑬).

3. 저소득층 가정의 육아의 애로점과 요구

본 연구에서 면담한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자녀교육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힘든 현실을 견뎌내고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자녀일 것이다. 따라서 자녀교육비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이 드러났다.

가. 사교육비 지원 요구

면: 지금 이 상황에서 조금 더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받는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으세요?

모: 실질적으로.... 학원. 학원비요. 거의 다 교육이겠지만.. 부모들이. 그쵸? 지금부터도 특별활동을 하고 도 못하는데.. 지금 인제 초등학교 들어가야되는 예비 학생이지만.. 그것도 참 고민인게.. 방과 후도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볼 수 있는 여건도 안되고. 그러면은 학원같은 데로 돌려야 되는데, 그 학원 부담이라는 게 진짜 말할 수 없이 크다는거죠. 근데 그런 거를.. 지원이 전혀 안되잖아요. 수급자 같은 경우도 안되더라고요. 학원비는.. …… 그런 쪽으로 어떻게 좀....근데 학교 방과후 수업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지원이 어느 정도 된대요. 근데 거기도 공부하는 건 없대요. 그냥.. 유치원 특별활동처럼 그냥 이렇게 만들기…… 하다 보며는 이렇게(학교 방과후 수업)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왜냐면 보통 엄마나 아빠들이 그런 데를 보내겠어요? 영어학원 보내지, 음악학원 보내지.. 다른 학원들을 보내지..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보낼 수가 없으니까 다만 방과후 학교에서 뭘 하나를 하더라도 시간을 때우라 이거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너 시간 때우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그게 너무 속상한거에요. 근데 그

것마저도 할 수가 없다는 거에요. 지원이 안되면. 근데 그것도 전액 지원이 안되니까 그게 문제에요…(사례 ⑫).

면: 그 외에 추가로 받으시고 싶은 서비스가 있나요?
모: 저 아이들의 사교육이요. 유치원에서 주산이나 피아노 한글 한문 가르쳐 주기는 하는데, 아이들 재능을 잘 살릴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사례 ⑪).

면: 아이들에게 국가에서 지원을 좀 해준다면 어떤 것을 원하세요?
모: 아직까지는 영어가 가장 걱정되죠. 다른 건 집에서 되는 거니까 그런데 영어 같은 건 집에서 하기가 어렵고 중요성은 있지만 학원비가 워낙 비싸니까..
면: 그럼 영어 말고 다른 것은요?
모: 다른거는...그냥 저희 애한테 가장 필요한 건 미술 같은거..워낙에 학원비가 비싸다 보니까 좀 어릴 때 재미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으면 좋겠었요(사례 ③).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OO이가 태어나면서 넷째 아이 지원해주는 10만원 받고 있고. 그런데 저는 그런 지원도 좋은데 그건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원이잖아요. 요새는 사교육비가 늘어서 아이들이 많이 배워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그러고서는 저같은 경우는 좋아하니까 낳았지마는 사교육비 같은게 너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보내지를 못하잖아요.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지만 특히 아이들을 다른 아이처럼 학원 같은 곳을 보내지 못하니까 저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무상으로라도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기 적성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지원해주지만 요즘 시대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으면 좋은 시대이니까..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체력적으로나 예체능이나 이렇게 배우면 좋겠는데..이런 사교육적 지원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사례 ①).

본 사례조사에서는 조손가정이 한 사례밖에 포착되지 않았는데, 이 경우에도 손자손녀의 교육문제는 예외는 아니었다.

면: 할머니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나라에서 할머니께 이런 것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세요?

할머니: 갖고 싶은거야 많지..하하.. 우리 노인들이야 뭐 받고 싶은거야..특별히 없어요. 생활비 보조나 이런 거지만..우리 아이들을 위한 거는 교육 문제에서 좀 저들이 어느 정도 알고 하며는 컴퓨터 같은 거나 좀 배우고 교육 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줬으면 좋겠지(가구 사례②).

나. 더 많은 비용지원 요구

저소득층 가정의 육아에 들어가는 교육료·보육료 지원뿐 아니라 의료비용 지원에 대해서도 폭 넓은 비용지원을 원하였다.

면: 특별히 어머니께서 정부에 여진이나 우민이....더 잘 키우기 위해서 이런 거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있으세요?

모: 보육 지원이 더 됐으면.... 왜냐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솔직히 어린이집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안먹고 안쓰면 되는거에요 근데 이거는 꼭 내야 되는 돈이니까요. 그게 좀 더 폭넓게 됐으면 좋겠어요. 원비로 끝날 게 아니라, 식대, 재료비 같은 경우도 큰 돈이거든요. 아니면 지원금이 좀.. 어차피 그말이 그말인거 같은데 지원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의료두요.. 지금 1종인데.. 1종이어서 혜택은 많이 보기는 하는데요, 안되는 거는 들어가는게.. 그런 것도.. 일단 검사는 다 안들어가요.. 어디가 아파서 검사를 해도, 빈혈검사비 들어가고 그 검사에 따른 약을 먹으려고 해도, 보험적용이 안되서 약값 다 내야 되니까.. …… 병원에서 한번 먹고 끝날 약이 아니라 빈혈이 너무 심해서 한 3개월 이상은 계속 먹어줘야 된대니까 그런거가 더 걱정인 거죠. 그런 부분이 지원이 됐으면.. 애들은 빈혈없는 애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양사업이 생긴 거거든요, 애들 빈혈이 많아서.. 그 영양사업에 이런 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빈혈 검사하면서 빈혈 심한 애들은 거기서 자체에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되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피검사하고 끝나니까, 가서 또 의료 해가지고 해야되니까.. 해주실 때 아예 다 그런 것도 해주셨으면. 빈혈 심한 애들은 약 같은 것도.. 임산부들은 나오잖아요. 임신하면은 보건소에서 6개월부터 철분제를 탈 수 있잖아요.. 애들도 그런 식으로 탔으면.. 왜냐면 빈혈이 있는 애들이 많대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사례 ⑦).

면: 정부가 이런 정책은 꼭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 있으세요?
모: 저 같은 경우는 승준이가 나면서 셋째 아이 이후는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우리 마포구 같은 경우는 다른 곳은 모르겠는데 셋째 아이당 얼마 지원금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한 아이를 먹이고 기저기 채우고 하는데 1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더라구요. 모든 엄마들이 아마 그렇게 느낄 거에요. 육아에 들어가는 돈이 꽤 들잖아요. 육아 지원금도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사례 ①).

다. 구직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요구

남편의 무능력으로 인해, 또는 한부모 가정일 경우 어머니는 취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기에 구직을 위한 지원을 원하고 있었다.

면: 아이들이 초등학교도 가고 그럴 텐데 나라에서 또 어떤 서비스를 해줬으면 하나요?
모: 방과 후는 복지관 쪽에서 더 낫다고 하니까 그 쪽에서 할 생각이에요. 제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일을 해야하니까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줬으면 좋겠어요.……직장 때문에 실업자들을 위한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직장 구하기 힘들면은 자격증이라도 딸 수 있는 정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분야가 발전할거다 하는 정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사례 ⑪).

일자리 연계와 관련해서 어느 어머니는 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문제제기 하였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개설한 패션수업을 받았지만 구직을 하기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하소연 하였다.

모: 그러니까 그 때 대학생들한테도 얘기했지만 무슨 여성 인력 개발이나 뭐 무슨 주부반 이런 거는 도움이 안돼요.
면: 왜요?
모: 뭐 써먹을 수도 없고 왜냐면 제가 그 어린이집에서... 자꾸 어린이집 얘기 나오는데 어린이집에서 엄마들 기술 가르쳐주고 뭐 직업을 있게 하기위한 차원에서 엄마 교육을 시켜주는 게 있었는데 제가 그 때 패션 학원을 다녔어요. 6개월 동안... 그 때 학원비도 내주고 차비도 지원해주고 그랬는데 요

새 6개월 배워 봤자 써먹을 수가 없는 거죠. 맨 처음 계획은 옷 수선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6개월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죠. 나중에는 결국은 공장에... 이제 그 복지사 선생님들도 교육을 다 시켜놨으니까 어디 취직을 시켜야 하는데 여기저기 알아봐 주는데 일단 보냈는데 공장에서 그 경력... 경력이잖아요. 그래서 미싱 근처에도 못가고 잡일만 하다가 결국은 몇 달 다니다가 못 다녔어요. 그 옷 수선이라는데 더 힘든거에요. 옷을 만드는 것 보다……하여튼 여성인력개발 이런 것도 보면 기간이 거의 6개월 3개월 이런데 거기서 뭐 배워봤자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패션디자인을 파고 들것도 아니고 그게 아주 큰 문제죠. 아무리 많은 여성 인력개발에서 뭐 하고 그러면 뭐해요.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제대로 써먹는 사람이 있는지 그게 참 의문이에요(사례 ⑤).

라. 야간보육 및 방과후 보육에 대한 지원 요구

저소득층 어머니들은 남편의 무능력이나 남편과의 이혼으로 인해 직업을 가져야만 하는 상황들이 많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자녀육아 문제를 발생하게 하는 주된 원인이기도 하다. 생계를 위해 일터를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어린 자녀의 육아에 대한 지원요구는 필연적이다.

면: 마지막으로 좀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모: 제가 일을 하게 되면 시간이 좀.. 많이 시간이 늘긴 했지만 어린이집 문을 일찍 닫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7시반부터 문을 열기는 하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엄마들이 거의 퇴근 시간이 6시 6시 반, 늦으면 7시인데 오면 그 시간을 넘어가니까 어린이집은 보통이 길면 7시까지거든요. 야간보육이 있긴하지만 그건 대부분 소규모에서나 많이 하지, 규모가 좀 크다 싶으면 많이들 안 하더라구요

면: 지금 OO이가 다니는 곳도 안 하나요?

모: 아마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직장이 있으면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또 직장다니는 엄마들이 애들 방학때 점심 이런거 제대로 안 되잖아요. 저희 큰 애같은 경우도 제가 방학이 더 빨리 끝났어요. 그러다보니까 애 밥을 해놔도 애가 못 차려 먹을때가 많아요(사례 ③).

면: 추가로 지원받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어떤 지원을 받길 원하시는지요?

모: 추가로요? 애기 늦게까지 봐주는 곳이 있으면... 이제 좀 추가로 이제 그런 뭐 삼성어린이집에다니더라도 이렇게 꼭 그.... 누가 오신다고 그러더라구요. 그 보육 그거 서비스는 근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 딱 그거 아무리 국가에서 그거 하는 거지만 제가 없을 때 둘이만 있는 거잖아요. 집에서 차라리 그런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삼성어린이집 같은 늦게까지 봐줄 수 있는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너무 제가 알기로는 친구가 얘기하기로는 분당에는 늦게까지 하는 곳이 있데요. 10시까지 그 뭐 어느 그 뭐더라 눈높이에서 하는 그런 그 거기서 하는 그런 보육시설에는 열 시 까지도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직장 다니는 엄마들이 할 수 있는 곳이 지역마다 한 곳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진짜 찾기가 힘들어요. 늦게까지 하는 곳은 그리고 그런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리가 없고... 그니까 맨 날 뭐 늦게 찾으러 가는 건 아니지만 늦는 날도 있을 거니까 혹시를 대비해서 그런 게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죠. 엄마입장에선...(사례 ⑬)

4. 정책수행자가 본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문제점

총 8명의 정책수행자 면담해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보람이나 애로점 등을 말해주었다.

<표 Ⅵ-3-1> 면담 정책수행자 사례

사업명(명)		면담공무원	근무지역
교육복(2)	①	J(프로젝트조정자: PC) K(유아교육복지전문가)	서울
	②		
드림(2)	③	계양드림스타트센터 보육·교육 담당 민간전문가	인천
	④		
위스타트(2)	⑤	M(공무원: 보건 담당) L(보육·교육 조정자)	경기 K시 경기 G시
	⑥		
일반(2)	⑦	-S(경력 10년,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교육비 책정업무 담당) - L(경력 2년, 사례관리 19세대)	P시 D시
	⑧		

가. 사업간 연계 필요

"일단 드림스타트와 정리가 되야 할 것 같아요. …… 유아 같은 경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라는 형태에서 분명히 갈리고 여기서는 수급자로 갈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할 분담이 가능한 것 같아요.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연령에 대해 나눠지는 경우도 있고. 보사부와 이야기해서 연령을 나누던 프로그램을 나누던 좀 더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하죠. 그러면 양 쪽 모두에게 도움이 될텐데 하죠. 그런 제안을 해봤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교복투)

"……(드림스타트사업) 같이 들어가서 하는 모델을 만들어내면 시너지가 확실하게 있을 것 같은데..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연계라는 부분이 힘든 것이니까 오히려 드림에서 가정이나 그런 것을 확대를 해주고 교육청에서는 공교육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교과부가 할 일은 개별으로 하는 것보다 공립을 늘려주고 공립 내의 저소득을 늘리고 공립의 프로그램이 열악한 사립 유치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죠. 이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만 다내 일이 아니겠구나 하죠." (교복투)

이상의 내용은 각 사업간 연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연령별, 프로그래별, 부처별 등으로 구분해서 각 사업간 특성이나 차별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동시에 각 사업간 연계를 시도하면 시너지 효과가 훨씬 클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들의 서비스 프로그램이 점점 유사해 지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나. 지역 인프라와 사업 간 연계의 어려움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인프라들을 연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나, 정작 연계할 지역 시설들은 저소득층 아동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중심지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연계하기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다음은 일반 저소득층 가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이야기이다.

"…… 우리 같은 경우(저소득층 가정)는 못가지. 멀어서. (학원비를)제공하고자 하는 동네는 중심지 잘 사는 동네고 제공받아야 하는 데는 못사는 동네고. 말만

커. 이런(교육비 지원을 하겠다는) 학원은 중심에 있기 마련이니까. 말로만 도와준다고 하고...신문에만 크게 나. 가는 사람은 없어"(일반저소득 정책수행자 L)

다. 행정동 중심의 기계적 구획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행정동(지역 단위)이란 점이다. 현재 거주지역이 서비스 지원대상 지역이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아무리 어려운 지역에 살더라도 서비스 지원대상 지역이 아니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들은 현재 지원받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자녀가 초등학교에 진학해서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지속적으로 지원받기를 원했다. 다음은 예전에 살았던 OO 1동에서는 지원사업대상 지역이 아니라 서비스 지원을 못 받았다가 바로 옆 동네인 OO 2동으로 이사오게 되면서 위스타트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례이다.

면: 그럼 (전에 살았던) 1동에 있는 부모님들 중에서, 어려운 상황이고 위스타트 이런 서비스가 좋은 게 있는데 못 받고 계실 수 있는거네요

모: 네 그러니까 이게(위스타트사업)..좀 더 널리 되려면.. 폭이 넓어야 되는데 2동 아이들밖에 안된대요. 저희도 1동에 있을 때는 못 받았어요. 2동에 이사와가지고 전화가 와서 된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넓혔으면 좋겠더라구요. 사람이 여기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이 생기면 이사 갈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절대 2동으로만... 하하...(가구 사례 ⑦)

"…1동에 있을 때는 없었어요. 2동 애들만 된대요.. 위스타트가요 다 되는게 아니라, 여기 2동만 되는 거에요. 선생님이 하시는 소리가 이사를 가더라도 2동 안으로 이사를 가시라고 그렇게 까지....신경을 잘 써주세요"(가구 사례 ⑦)

라. 지원 대상자선정의 불합리성

이 문제점은 지원사업이 아닌 일반저소득 가구와 공무원들이 주로 지적한 문제로서 보육료·교육료 대상 선정 기준의 불합리성을 거론하였다.

면: 실제로 주변에 혜택을 받지 않아야 하는데 받는 경우를 본 적이 있으세요?

모: 많아요.

면: 어떤 경우가 있었나요?

모: 그러니깐. 뭐 대부분이 자영업 하는 분들이 그렇죠. 회사 다니는 분들은 소득 금액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연말 정산을 하니까 거기 그대로 나오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자영업 하는 분들은 의사나 이런 분들도 그렇고 다 속이잖아요. 솔직히 우리나라에 자기 그런거 그대로 신고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자영업 하는 분들은 월 소득은 100만원 80만원으로 속여서 신고하면 어쨌든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나오는 서류만 가지고 측정을 하다보니까 회사원들이 제일 불리한 것 같아요.

면: 그러면 정말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하는 분들도 보셨어요?

모: 그런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아는 어린이집 원장님이 그러시는데 요즘 엄마들이 대부분 고졸 이상이지만 간혹 가다보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중퇴 이런식으로 그런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준비를 못하는 경우가 많데요.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몰라서.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데도 그런 거를 몰라가지고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제가 이걸 하면서 느꼈지만 최대한 준비를 많이 하고 하며는 조금이라도 이렇게 더 얻을 수 있다고 저한테 이득이 되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꼼꼼히 살펴봐야 하고 알아야 해요. 근데 그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구요. 학력이 낮거나 이해도가 떨어지시는 분들은 그런 걸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시더라구요. 오히려 경제적으로 넉넉하신 분들은 그걸 받고 어려우신 분들이 도리어 못 받고(가구사례 ③).

면: 산정기준이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공: 어떻게 보육료 지원대상을 선정 하는지 아세요? 한의사가 있어요. 사례 중에.이 사람이 수급 받아요. 소득을 낮게 내는 거죠. 신고를. 월급쟁이가 쫓아왔대요 이 사람 받는데 왜 못 받냐고. 옆 동네에 있는 얘기에요. 외제차 몰고 다니면서 지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구요(공무원 사례 ⑦).

"제일 손해 보는 직종이 직장인, 그 다음에 제일 파악이 안되는 부분이 자영업자, 자영업자는 아예 소득 파악이 잘 안되거든요. 대부분 소득을 100에서 150 정도 밖에 신고를 안하니까요. 차도 좋은 차 많이 있고 집도 훨씬 좋은 데, 그 정도만 신고하면 저희는 그 소득을, 실제로는 더 벌어도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가 너무 힘들어요.……(공무원 사례 ⑧).

마.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연계망

각 사업이 추구하는 통합적 지원사업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의 협조와 연계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속적이고 긴밀한 연계망을 구축하기 위한 장치는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공: 자원봉사 차원에서, 후원 차원에서. 여기에 치과도 또 있거든요. 치과 같은 경우에도 소아치과에서 아이들을 무료로, 그런게 숨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무료로 해도 전액무료로 해주시는 거예요.
면 :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나요?
공 : 예예예
면 : 그런 의사선생님들이 많으세요?
공 : 예예예. 기본적으로 의료기관 자체는 내과나 그런 데는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은 돈을 안받잖아요. 총 좀 싸잖아요. 비싼건 하지도 않지만. 초음파 이렇게 한번 보는데 2만원인데 좀 비상으로 봐줄 수도 있거든요. 마음이 따뜻한 선생님들은 다 그러세요. 기본적으로 마을에 계신 선생님들은, 종합병원 빼고는. 그렇게 했을 때는 따로 내가 뭘 어떻게 했다 내세우기 어려워 하시는 거죠. ……의료보험 가능한 곳으로 대부분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신다고 보시면 되요. 그리고 또 무엇을 해줘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내가 많이 도와줄게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어디가 많이 아파가지고 상태가 안좋은데 종합병원에 가라. 그래가지고 종합병원에 갔는데 CT를 촬영하거나 MRI촬영을 해야 되는데 거긴 저소득층이라고 그런거 안봐주기 때문에 비싸요. 몇십만원 하니까 거기서 안하고 오시는거예요. 다시 또 오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연결이 좀 안되는거죠.
면 : 네, 그러면 그렇게 자원봉사 해주시는 의사선생님들한테 어떤 뭔가 (인센티브 같은 게) 있나요?
공 : 음…
면: 그냥 고맙다는 그런 차원 말고
공: 아니오. 없어요(사례 ⑤).

5. 소결

지금까지 사례조사를 실시한 저소득층 가정 15사례와 정책수행자의 8사례를 분석하였다. 저소득층 가정의 대부분의 응답자는 어머니들이었다. 따라서 이상의 기술된 내용들은 전적으로 어머니 입장에서의 가정의 문제점, 육아의 애로점과 정부에 바라는 육아지원정책이다. 진술된 내용들이 어머니 입장이 반영된 주관적인 진술이란 점에서 아동의 특성이 두드러지게 드러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많은 아동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건강하지 못하거나 장애를 가진 사례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통합적'지원이 필요한 이유이다.

저소득층 가정은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이미 밝혀졌듯이 대부분이 부모의 무능력, 가정폭력 등으로 얼룩져 있으며 별거나 이혼으로 이어져 가족이 해체된 경우가 많았다. 한부모 가정 대부분이 이혼 후 아버지와 연락이 끊기고 어머니가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구직에 대한 요구가 컸으며 야간보육 및 자녀가 취학한 후의 보육을 걱정하며 방과후 보육의 강화를 많이들 원하고 있었다.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은 자녀 교육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에 학원비 지원과 같은 사교육비 지원을 원하는 어머니들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현재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다니면서 과외로 지불해야 하는 견학비, 급식비, 교재비 등 비용에 대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기에 지금의 비용지원보다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있었다. 지금 지원받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자신이 어떠한 사업을 받고 있는지 대부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대체로 만족하다고 답변하였다. 이들 가정과 직접 접촉하는 정책수행자들에 대한 의견에서도 고마운 마음이 크다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

한편, 정책수행자 사례조사 내용들 중에서 담당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사업대상의 중복성, 지원 프로그램의 유사성으로 사업들 간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저소득층 밀집 지역은 주변 시설이 미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저소득층 가정과 아동의 통합적 지원을 위한 연계망 구축의 어려움이 지적되었다. 그밖에 민간 기관들과의 연계를 함에 있어 '순수한' 자발적 참여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실도 문제점으로 비쳐졌다.

Ⅶ. 정책방향 및 정책방안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다뤘던 교복투 사업, 드림스타트, 위스타트, 삼성포괄보육서비스 네 개 사업 중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주관하고 있는 교복투, 드림스타트, 위스타트 등 세 개 사업을 중심으로 저소득층 영유아를 위한 통합적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및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재정확충과 인력충원 문제는 모든 정책이 요구하는 필요조건이므로 여기서는 특별히 거론하지 않겠다.

1. 정책방향: “따로 또 같이”

가. 생애 초기(영유아가) 지원을 보다 더 강화한다.

세 개 사업 모두 지원대상이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 대상자는 영유아이다. 세 개 사업 모두 영유아기의 발달단계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특히 드림이나 위스타트의 경우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아직 이용하지 않고 있는 영아를 위해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인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현재 초·중·고로 연결되는 공교육체제를 전제로 추진하고 있는 교복투 사업의 경우, 유치원은 공교육체제로 완전하게 편성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비록 일부 지역에 활동하고는 있지만, ‘유아교육복지전문가’를 선발해서 저소득층 유아들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교과부의 관할이 아닌 보육시설을 다니는 영유아까지도 지원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성숙한 태도라 하겠다.

이는 생애 초기부터의 조기개입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일찍 지원하면 할수록 아동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 효과도 크다는 사실은 이미 국외의 많은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에서도 검증된 결과이다. 선행연구에서도 그리고 본 연구결과에서도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저소득층 가구의 문제점들은 여러 요인들이 복잡하게 엉켜있는 문제이자 이전 세대부터 세습되어 온 누적된 문제들이란 점에서 개선되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불리한 조건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애 초기부터

지원이 시작되어야 하며, 그 대상은 영유아, 부모 모두이어야 하겠다.

나. 각 사업 간의 통합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각 사업별 평가와 본 연구결과에서 지원사업의 수혜자들은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그런데 일부에서 각 사업의 유사성을 문제시 하면서 통합의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러한 논의를 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 하겠다. 정부 주관하게 추진된 가장 오랜 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교복투 사업이 불과 6년밖에 되지 않았다. 따라서 사업 간의 유사성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조정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좀 더 시간을 두고 각 사업의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개최한 3차례의 자문회의 및 연구결과는 이러한 통합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아동수가 현재 지원받고 있는 아동수보다 훨씬 많으며, 수혜 지역 역시 확대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오히려 각각의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은 지금보다 더 확대·발전하기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할 것을 주문하며, 더불어 향후 각 사업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상보·상생해야 할 지 로드맵(road-map)을 구상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 각 사업은 여타 사업과는 차별화되는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강구해야 한다.

통합보다는 각 사업이 지금처럼 독자적으로 추진할 것을 앞에서는 주문했지만, 각 사업에서는 유사성·중복성이란 문제제기가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각 사업은 지금의 목표와 추진체계, 그리고 서비스 프로그램을 전제로 하면서도 타 사업들하고는 다른 차별화되는 정책을 구상하고 실천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드림스타트가 요보호가정의 영아를 발굴해서 생애초기의 사례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한다고 교복투가 '무리하게' 법적 근거가 미약한 영아의 가정방문 정책을 추진할 필요는 없다. 마찬가지로 교복투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위한 학습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고 해서, 드림스타트가 법적 근거가 미약한 학교에 들어가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무리라 본다.[16]

---

16) 교복투 사업 정책수행자 자문회의에서 유치원이 교복투 사업의 거점기관으로서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나왔다. "……처음에 교과부가 ……초중등 중심으로 하면서 유치원

이들 사업은 ‘통합적’ · ‘포괄적’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부처관할의 지원 기관이나 지원대상자를 처음부터 크게 염두해 두면 사업의 본래 정신을 실천하는데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사업에서 표방한 ‘통합적’ ‘포괄적’을 차별화되는 용어로 사용될 수 있게 재개념화할 것을 제언한다. 교복투 사업의 통합적 서비스 지원과 드림스타트 사업의 통합적 지원서비스가 같으면서도 분명하게 다른 영역이 있도록 소위 자기 사업만의 색깔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2. 정책방안

이상의 정책방향을 준거로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사업 내 연계의 활성화: 후원 기관에 인센티브 제공

통합적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관건은 다름 아닌 ‘연계’이다. 다시 말해서 이들 세 사업이 성공여부는 ‘연계’를 과연 얼마만큼 긴밀하고 유기적인 연계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저소득층 영유아와 그 가정의 문제는 복합적으로 엉켜 있기 때문에 ‘통합적’ 지원과 함께 개별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지원이 함께 지원되어야 한다. 따라서 저소득층 영유아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여러 기관들의 협조를 전제로 하는 하드웨어적 연계 지원은 필수적이다. 다시 말해서 각 사업들의 거점기관인 드림스타트 센터, 위스타트 센터, 학교와 주변 지역시설과의 연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지원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한 유아가 언어발달이 늦어 언어치료가 필요하다면 주변에 민간기관인 언어치료연구소라는 기관(하드웨어)을 찾아 언어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며,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면 후원할 주변의 피

과의 연계가 있으면 좋겠다는 방향은 있었는데, 유치원 선정의 실태 조사없이 행정동 중심으로 선정을 많이 했어요. ……대부분이 어린이집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파악이 힘들고 지자체의 연계가 필요한 부분이지요. 교육청에서 유치원 중심, 지자체가 함께 해서 센터를 만들거나 교육청 입장에서 어린이집에 대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죠. 북부가 움직이는 것이 유치원에 저소득 아동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있죠.”(교복투, K) 이처럼 교복투 사업의 지정 마을로 선정된다 하더라도 그 지역 내 유치원을 다니는 원아 중 저소득층 유아가 다니는 사례는 많지 않을 수 있다.

아노 학원을 발굴해서 연계를 해야 한다. 주변에 이러한 시설이 부족하다면 원활한 연계가 이루어지기 어렵겠지만, 설사 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설이 '자발적'으로 '지속적'으로 후원기관이 되지 못하면 이 역시 연계 체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대개는 서비스 프로그램은 지속적인 지원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거점기관과 지원 기관의 연계망이 긴밀하고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후원 기관들에게 감정에 호소하는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보다는 자발적인 후원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세제혜택과 같은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나. 사업 간 연계의 활성화: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세 사업 또는 두 사업을 함께 실시해 본다.

사업 간 연계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첫째, 기존 사업이 이미 들어가 있는 지역에 타 사업이 들어가는 것과 둘째, 어떠한 사업도 들어가 있지 않는 지역에 처음부터 함께 들어가서 사업 간 연계를 실천해 보고 그 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선정부터 관련 부처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쳐 지역을 선정한다. 이 과정에는 함께 사업이 들어갈 지역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서비스 프로그램을 무엇을 어떻게 제공할 지 등을 조율한다. 예컨대, 드림스타트와 교복투 사업 두 사업이 시범지역에 함께 들어갈 경우, 영유아 지원시 연령별로 구분해서 영아 가정방문은 드림스타트가 하고 유아 기관방문은 교복투 사업에서 각각 담당하는 등 사업 간 연계를 통한 한 단계 높은 '통합적' 서비스 체제를 설계해 본다.

이외에도 사업 간 연계는 행정동 단위로 지원대상을 선정함으로서 그 행정동에 거주하지 않으면 바로 옆 동네에 살아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본다.

다. 법적 근거 마련의 시급성

각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겠다. 특히, 각 사업의 전달체제에 소속되어 있는 민간 정책수행자들은 대개가 계약직이기 때문에 늘 불안정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연구진이 만나 본

대다수 민간 계약직 정책수행자들은 낮은 보수와 불안정한 고용으로 힘들지만 지원을 받으면서 자신들에 노력에 의해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는 저소득층 영유아와 가정을 지켜보면서 보람도 많이 느끼고 직업 만족도도 높았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결국, 그 정책을 현실화하는 것은 사람이다. 정책수행자들이 자신이 하는 일에 자긍심과 애정을 갖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하겠다.

라. 자활 가족지원프로그램 강화

대부분 사업이 12세까지만 지원되기 때문에 아동 중심지원은 한계가 있다. 교복투 사업도 중학생까지(고등학교는 현재 4학교에 불과함)만 지원을 하고 있다. 지원사업이 종료 또는 중단되더라도 그 가족이 긍정적인 변화가 보인다면 아동에 대해 크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장시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하더라도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가 없을 것이다.

저소득층 영유아의 진정한 행복은 가족의 변화를 통해서만 비로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영유아 부모들이 자신들의 빈곤을 벗어날 수 있도록 자활 프로그램, 일자리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지금처럼 직업을 갖기 보다는 국가의 지원금에 의존하려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직업을 가진 저소득층 부모일수록 보육료·교육료 감면 해택을 더 많이 해 주는 등 저소득층 부모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풍토가 중요하다.

마.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저소득층 가정의 문제들은 복잡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각 가정별로 필요로 하는 지원책이 다를 수밖에 없다. 장애아이나 허약한 아이를 둔 가정에서는 의료비를 더 원할 것이며, 언어발달이 늦은 아이를 둔 가정에서는 언어치료를 더 원할 것이며, 생계가 막막한 가정의 경우는 구직 문제가 더 시급할 것이다. 따라서 저소득층 영유아와 가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되, 그 가정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특정 문제들을 파악해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바. 정책수행자의 전문성 제고

건강, 보육·교육, 복지 등 지원 프로그램이 대상 아동이나 가정에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을 담당하는 정책수행자들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유아교육이나 보육에 관련된 사업을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 공무원과 같이 사업을 구상하고 진행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일 수 있는 조기교육의 중요성이 많이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책수행자들의 전문성 정도에 따라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제공되는 질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각 지원 서비스분야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

참고문헌

교육인적자원부(2003).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의의와 추진방향.** 지역협의회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08). **'08년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추진계획**.

군포시(2007).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 군포 We Start 마을**. 군포 위스타트 운영팀.

김명순(2001).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삼성복지재단 삼성아동교육문화센터 제9회 학술대회 자료집.

김명순·황혜정·유지영·안현숙·이수현(2006). **We Start 영아용 가정방문 교육중재 프로그램**.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김명순·정미라·배선영(2006). **We Start 유아용 기관방문 교육중재프로그램.**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김명순·신혜영·안효진·오유진(2007). **2007 구리시 위스타트 영·유아 보육 프로그램 최종 보고서**. 서울: 위스타트.

김명순 ·김길숙·이명신(2008). **저소득 가정의 영유아를 위한 교육, 복지, 보건의 통합적 조기 개입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을 위한 비교 고찰. 아동권리학회, 12**(2), 161-187.

김명순·이미화(2005). **포괄적 보육서비스 아동교육 프로그램.** 서울: 다음세대.

김명순·정미라(2006). **We Start 영아용 가정방문 교육중재프로그램을 위한 기관방문교사 매뉴얼.**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김미숙·조애저·배화옥·최현수·홍 미·김효진(2007). **한국의 아동빈곤실태와 빈곤아동지원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선숙(2008). 빈곤아동 심리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We Start 대상아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김선자(1999). 저소득 취업모가정의 보육욕구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용미(2007). **미국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관리에 대한 고찰과 시사점. 아동교육(16)**, 17-30.

김윤경(2004). 저소득 가정의 보육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욕구. 한남대학교 사회문화과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정원·최영태·박인심·김경애·김 민·양병찬·김주아·이봉주·박민정(2006).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위한 연구·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김정원·최영태·박인심·김경애(2007). **2006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평가보고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김정원·박인심·김주아·이봉주·이원희·손은애(2007).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만족도와 성과분석.**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김정원·최영태·김경애·김 민·양병찬·이원희(2007).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운영 모델 개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김해영(1994). 저소득층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양육행동 및 아동의 사회적 능력.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향숙(2001). 포괄적 보육프로그램 실천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김희진(2005). **포괄적 보육서비스 부모지원 프로그램.** 서울: 다음세대.

나정 외(2001). 유아교육 투자 우선지역 선정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나정·김미숙(2004).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의 영유아 교육과 보육실태 및 요구.** 한국교육개발원 수탁연구. CR 2004-1.

민경화(2000). 빈곤가족아동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백선희(2006). **영국의 국가아동보육전략 연구를 통한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발전방안 모색: Sure Start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7,** 79-113.

변화순(2001). 저소득지역 부모교육 프로그램개발. **삼성복지재단 삼성아동교육문화센터 제9회 학술대회 자료집. 보육시설에서의 포괄적 보육서비스**, 51-71.

보건복지부(2008). **2008년 희망스타트 시범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 아동의 공평한 출발기회를 위한 통합복지 프로젝트 2008

년 “드림스타트”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2008년 7월 17일.

삼성아동교육문화센터 편저(2006). **포괄적 보육서비스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서울: 다음세대.

서문희·홍승아·박소연·권영인(2007). **취약보육 대안 마련을 위한 저소득가정 영유아보육 실태조사 보고.** 한국여성노동자회 · 육아정책개발센터.

신화식 · 양옥승 · 신현옥 · 이상화외(2004). **영유아교육프로그램**. 서울: 교문사.

안산시 We Start 초지마을 사업보고회(2006).

유희정(1997). **빈민지역 보육프로그램의 실효성 검토 및 모형개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이민정·권정윤·배지희·안혜준·전홍주(2008). 생애초기 종단연구의 장단기 효과. **한국육아지원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77-110.

이봉주·이숙·황옥경·김혜란·박현선·김경륜·윤선화·이호균(2006). **한국의 주요 아동지표.** 보건복지부·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이봉주·양수·김명순(2006). **경기도 We Start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길잡이 최종보고서.** 서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이봉주·김혜란·정익중·김선중·임세희·차유림(2007). **2006 안산시 위스타트 초지마을 사업보고서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안산.** 서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이봉주·김혜란·정익중·김선중·임세희·차유림(2007). **경기도 We Start 마을 만들기 사업 효과성 · 효율성 평가 연구 최종보고서.** 서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이옥 · 유희정 · 이미화 · 장명림·김은설·김은영·이정원·이윤진·이정림·안재진 공역(2008). **OECD 영유아 교육 · 보육정책Ⅱ.**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이은해 · 김명순 · 전혜정(2006). **삼성어린이집 포괄적 보육서비스에 대한 종단적 효과 연구 -제 1차년도 결과 보고서-.** 서울: 삼성복지재단.

이은해 · 김명순 · 전혜정 · 이정림(2007). **삼성어린이집 포괄적 보육서비스에 대한 종단적 효과 연구-제 2차년도 결과 보고서-**. 서울: 삼성복지재단.

이은해 · 김명순 · 전혜정 · 이정림(2008). **삼성어린이집 포괄적 보육서비스에 대한 종단적 효과 연구-제 3차년도 결과 보고서-.** 서울: 삼성복지재단.

이혜영·류방란·윤종혁·천세영(2002).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선정지원을 위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임재택·김은주(2004).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의 영유아 교육보육 실태 및 요구조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장명림·서영숙·신지현(2006).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영·유아 교육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조은경·김은영(2008).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5: 미국의 육아정책.**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정원식(1991). 아동의 창의성 요인과 가정의 심리적 과정환경 변인간의 관계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주경민(2000).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정서 불안정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중앙일보. "조손가정 6만 가구 육박……10년 새 65% 증가"(2009년 1월 15일자)

허인영(1999). 빈곤결손가정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Administration for Children & Families (2006). FACES findings: New research on Head Start outcomes and program quality.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Bartlet, S. (2007). Dollars and sense: A review of economic analysis of Pre-K. Pre-K Now Research Series: Washington, D. C.http://www.preknow.org/

Early Experiences of Implementing Sure Start National Evaluation of Sure Start(NESS). Report 01/June 2002.

Leseman, P. (2002).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for Children From Low-income or Minority Backgrounds. OECD Oslo Workshop. June 6-7 2002.

Parrott, S. (2008). 2008 omnibus appropriations bill cuts funding for Head Start: Bipartisan reauthorization bill enacted two weeks before omnibus was completed called for increased investment.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http://www.cbpp.org/CBPPAnnualReport-sm.pdf.

Roopnarine, J. L., & Johnson, J. E. (2005). Approaches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Pearson Education.

Schweinhart, L. J., Montie, J., Xiang, Z., Barnett, W. S., Belfield, C. R., & Nores,

M. (2005). Lifetime effects: The High/Scope Perry Preschool study through age 40. Ypsilanti, MI: High/Scope Education Research Foundation.

The National Institute for Early Education Research(2008). *Preschool matters, 6*(1). New Brunswick, NJ: Author.

Wheeler, C. M. (2002).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preschoolers' Head Start experience and subsequent school readin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ale University, New Haven, Connecticut, USA.

http://www.chest.or.kr

http://welfare.samsungfoundation.org

http://www.mw.go.kr

http://www.acf.hhs.gov

http://www.surestart.gov.uk

http://www.westart.joins.com

부 록

1. 부 표

2. 영유아 양육현황 조사 설문지(가정용)

3.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 현황 조사(정책수행자용)

<부표 V-1-1> 영유아 연령

단위: %(명)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무응답	계
비율	5.9	10.5	14.7	15.2	17.4	18.6	16.7	0.2	0.7	100.0(408)

<부표 V-1-2> 영유아의 질병 종류

단위: %(명)

구분	기관지염	천식	아토피피부염	갑상선	비염	폐질환	언어장애	빈혈	가와사키	심신중격결손	안구질환	심장병	중이염	백혈병	*없다	무응답	계
비율	0.2	1.5	2.7	0.2	0.2	0.2	0.2	0.2	0.2	0.2	0.2	0.1	0.7	0.2	88.7	2.9	100.0(408)

<부표 V-1-3> 기관 이용 횟수

단위: %(명)

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일주일에 1~2번	일주일에 3~4번	무응답	계
비율	7.7	91.2	0.3	0.6	0.3	100.0(339)

<부표 V-2-1> 가구원 수 (본인 포함)

단위: %(명)

구분	2 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10명	무응답	계
비율	4.4	14.2	48.8	22.8	6.4	2.2	0.5	0.5	0.2	100.0(408

<부표 V-2-2> 가족유형

단위: %(명)

구분	부모+자녀	편부 또는 편모+자녀	조부모+자녀	3세대 이상 가족+자녀	친인척+자녀	기타	모름/무응답	계
비율	69.6	9.8	5.6	11.8	0.5	2.2	0.5	100.0(408)

<부표 V-2-3> 주양육자 질병 종류

단위: %(명)

구분	허리디스크	당뇨	류마티스 관절염	기타	계
비율	11.3	8.5	7.0	73.2	100.0(408)

<부표 V-2-4> 주양육자 장애등급

단위: %(명)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정신지체2급	청각장애2급	정신지체3급	지체장애3급	지체장애4급	시각장애3급	시각장애4급	지체장애1급	무응답	없음	계
비율	0.5	0.2	0.7	0.7	0.2	0.5	0.2	0.2	0.2	0.5	0.2	0.2	0.2	0.2	0.2	94.6	100.0(408)

<부표 V-3-1> 영유아 발달 도움 정도에 관한 사후검증

단위: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F*	사후검증
인지 발달					
위스타트	3.21	0.64	(66)		
드림스타트	3.03	0.73	(65)	6.45***	b<c,d
삼성포괄보육서비스	3.48	0.54	(58)		
교복투	3.43	0.50	(37)		
사회성 발달					
위스타트	3.21	0.64	(66)		
드림스타트	3.08	0.71	(65)	6.78***	b<c,d
삼성포괄보육서비스	3.52	0.50	(58)		
교복투	3.47	0.51	(38)		
언어 발달					
위스타트	3.21	0.60	(66)		
드림스타트	3.03	0.73	(65)	10.80***	a,b<c,d
삼성포괄보육서비스	3.63	0.49	(57)		
교복투	3.41	0.55	(37)		
정서 발달					
위스타트	3.21	0.62	(66)		
드림스타트	3.05	0.72	(65)	8.89***	a,b<c,d
삼성포괄보육서비스	3.53	0.50	(58)		
교복투	3.54	0.56	(37)		
신체 발달					
위스타트	3.09	0.70	(66)		
드림스타트	2.80	0.51	(65)	15.70***	a>b<c,d
삼성포괄보육서비스	3.47	0.57	(58)		
교복투	3.41	0.55	(37)		

* $p < .05$. ** $p < .01$. ***$p <..001$.

주: 사후검증 a=위스타트, b=드림스타트, c=삼성포괄보육서비스, d=교육복지우선투자지역을 말함.

<부표 V-3-2> 양육태도 변화에 관한 사후검증

단위: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F*	사후검증
더 많이 이해함					
위스타트	3.11	0.59	(66)		
드림스타트	2.85	0.64	(66)	7.06***	b<c,d
삼성포괄보육서비스	3.31	0.63	(58)		
교복투	3.28	0.57	(36)		

<부표 V-3-2> 양육태도 변화에 관한 사후검증

단위: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F*	사후검증
다정하게 대함					
위스타트	3.12	0.60	(66)		
드림스타트	2.92	0.71	(66)	4.97**	b<c,d
삼성포괄보육서비스	3.31	0.54	(58)		
교복투	3.28	0.51	(36)		
표현을 많이함					
위스타트	2.97	0.58	(66)		
드림스타트	2.77	0.72	(66)	4.72**	b<c
삼성포괄보육서비스	3.17	0.65	(58)		
교복투	3.14	0.59	(36)		
자녀에게 분노조절					
위스타트	3.03	0.55	(66)		
드림스타트	2.97	0.70	(66)	7.22***	a,b<c,d
삼성포괄보육서비스	3.40	0.59	(58)		
교복투	3.36	0.59	(36)		
대화시도					
위스타트	3.17	0.62	(66)		
드림스타트	2.97	0.82	(66)	5.87**	b<c,d
삼성포괄보육서비스	3.43	0.60	(58)		
교복투	3.39	0.55	(36)		

* $p < .05$. ** $p < .01$. ***$p < .001$.

주: 사후검증 a=위스타트, b=드림스타트, c=삼성포괄보육서비스, d=교육복지우선투자지역을 말함.

<부표 V-3-3> 가정의 변화에 관한 사후검증

단위: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F*	사후검증
조기귀가					
위스타트	2.69	0.66	(55)	3.20*	
드림스타트	2.56	0.83	(43)		
삼성포괄보육서비스	2.88	0.70	(49)		
교복투	3.03	0.76	(34)		
웃음이 많아짐					
위스타트	2.78	0.63	(64)		
드림스타트	2.80	0.73	(55)	3.24*	
삼성포괄보육서비스	3.09	0.63	(57)		
교복투	3.06	0.66	(33)		
덜 다툼					
위스타트	2.78	0.60	(55)		
드림스타트	2.19	0.52	(36)	10.31***	a>b<c,d
삼성포괄보육서비스	3.00	0.81	(47)		
교복투	2.85	0.77	(27)		
금주					
위스타트	2.49	0.76	(45)		
드림스타트	2.09	0.45	(34)	6.20**	b<c,d
삼성포괄보육서비스	2.78	0.94	(46)		
교복투	2.75	0.74	(24)		
긍정적 사고					
위스타트	3.03	0.54	(62)		
드림스타트	2.86	0.63	(66)	13.79***	b<c,d>a
삼성포괄보육서비스	3.33	0.60	(58)		
교복투	3.57	0.56	(35)		

* $p < .05$. ** $p < .01$. ***$p <..001$.

주: 사후검증 a=위스타트, b=드림스타트, c=삼성포괄보육서비스, d=교육복지우선투자지역을 말함.

KICCE
육아정책개발센터
ID

영유아 양육현황 조사

이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개발센터(www.kicce.re.kr)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본 센터에서는 2008년도 **영유아 양육현황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아동지원사업을 받았던 가구 및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양육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여 영유아 보육활동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의 설문 내용 및 개인신상정보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존 등)와 제34조(통계작성 사무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성의껏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8년 11월

육아정책개발센터 소 장 조 복 희

연구진: 육아정책개발센터 이미화 연구위원, 이윤진 부연구위원, 이정림 부연구위원
조사수행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25-1 (주)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최종인 연구원 Tel: 02)3488-2739

Ⅰ. 아동의 특성

문1. 귀댁의 자녀 중 영유아(취학 전 아동)에 한해서 다음 항목에 답해 주십시오(3명 까지).

문 항		가장 어린 자녀	두 번째로 어린 자녀	세 번째로 어린 자녀
문1-1. 생년월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문1-2. 연령		만 ____세	만____세	만____세
문1-3. 성별	①남 ②여			
문1-4. 건강상태	①건강 ②보통 ③허약			
문1-5. 질병유무	□ 유 (병명:) □무			
문1-6. 장애유무	□ 유 (장애종류 또는 등급:) □ 무			
문1-7. 주양육자(해당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 ① 부모 ② 조부모 ③ 형제자매 ④ 친인척 ⑤ 비혈연 ⑥ 기타( )				
문1-8. 주로 다니는 기관 ① 어린이집(☛문1-8-1번 문항으로) ② 유치원 ③ 학원 ④ 선교원 ⑤ 복지관 ⑥ 기타 (☛ ②~⑥ 문2번 문항으로) ⑦ 다니지 않음(☛ 문1-9 문항으로)				
문1-8-1. 주로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유형(☛ 문2번 문항으로) ① 일반 어린이집 ② 시간연장 보육(야간보육) ③ 24시간보육 ④ 휴일보육				
문1-9. (문1-8에서 ⑦응답자만)미취학 아동 중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자녀가 질병 혹은 장애가 있어서 ② 기관이 멀어서 ③ 집에 봐 줄 사람이 있어서 ④ 비용이 부담 돼서 ⑤ 자녀가 어려서 ⑥ 적응을 못해서 ⑦ 등·하원시키기가 어려워서 ⑧ 기타( )				

▣ 문1-8의 ⑦응답자는 8번 문항으로, 나머지 응답자는 2번 문항으로 가시면 됩니다.

▣ 문2~문25까지는 영유아(취학 전 아동)중 가장 나이가 어린 자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Ⅱ-1. 가장 어린 영유아가 주로 다니는 기관에 관한 질문

▣ 다니고 있는 기관이 여러 곳일 경우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답하시면 됩니다.

문2. 해당 자녀는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에 얼마나 자주 갑니까?(문1-8 낮 동안 주로 다니는 기관 문항 참조)

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②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③ 일주일에 1~2번 ④ 일주일에 3~4번

문3. 평상시에 해당 자녀가 보육 또는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등원시간 ( )시 ( )분 ~ 하원시간 ( )시 ( )분
하루 총 약( )시간 (예: 07시 30분 ~19시 30분 하루 총 12시간)

문4. 현재 자녀가 다니는 이 기관에 지불하는 비용은 월 평균 얼마입니까?

월 평균 _____ 만원

문5.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에 지불하는 비용은 귀하의 가정에 얼마나 부담이 되십니까?

① 매우 부담스럽다 ② 어느 정도 부담스럽다
③ 별로 부담스럽지 않다 ④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문6. (문1-8에서 ①, ② 응답자에 한해서) 유치원 교육비 또는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으시다면 그 이유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모·부자 가정자녀
④ 만5세아 무상보육·교육대상자 ⑤ 장애아동 무상보육 ⑥ 지원을 받고 있는지 잘 모르겠음
⑦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음 ⑧ 기타( )

문7. 귀하께서는 해당 자녀가 다니는 기관에 대해 평소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한다 ② 대체로 만족 한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만족하지 못 한다 ⑤ 전혀 만족하지 못 한다

Ⅲ-1.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문 1-7에서 ②~⑥까지 답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문8. 대리양육자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친조부모 ② 외조부모 ③ 친인척(예: 고모, 이모) ④ 가사도우미
⑤ 이웃탁아모 ⑥ 보육도우미 또는 가정보육교사(정부 또는 비영리사업단체에서 파견하는 도우미)
⑦ 기타(_____)

문9. 대리양육자는 해당 자녀를 주로 어디서 돌보고 있습니까?

① 해당 자녀의 가정 ② 대리양육자의 가정

문10. 1주일에 몇 일,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돌보십니까?

1주일 중 ( )일 하루 평균 ( )시간

문11. 해당 자녀를 돌보는 분에게 월 평균 비용은 어떻게 지불하십니까?

① 정기적으로 지불 ② 비정기적으로 지불 ③ 현물로 지불 ☛①, ②, ③ 응답자는 문12 문항으로
④ 숙식만 제공 ⑤ 지불하지 않음 ☛④, ⑤ 응답자는 문13 문항으로

문12. 지불하는 돈은 월평균 얼마나 됩니까?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현금으로 환산해서 월평균으로 적어주십시오.

월 평균 _____만원

문13. 현재 대리양육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은 귀하의 가정에 얼마나 부담이 되십니까?

① 매우 부담스럽다 ② 어느 정도 부담스럽다 ③ 적당하다
④ 별로 부담스럽지 않다 ⑤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IV-1. 아동지원사업에 관한 질문

※ 아동지원사업이란 드림(희망)스타트, 위스타트, 삼성어린이집 포괄서비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말함.

문14. 해당 자녀(가장 어린 영유아)는 현재 아동지원사업 대상자입니까?

① 그렇다(☛ 문15 문항으로) ② 아니다(☛ 문26 문항으로) ③ 잘 모름(☛ 문26 문항으로)

문15. 귀하의 (이) 자녀가 현재 받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 이름은 무엇입니까?

① 위스타트 ② 드림(희망)스타트 ③ 삼성어린이집 포괄서비스
④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⑤ 잘 모름

문16. 그럼, 언제부터 아동지원사업의 대상자가 되셨습니까?(예: 2006년 5월부터 현재까지)

( )년 ( )월부터 현재까지

문17. 참여하고 있는 아동지원사업이 귀댁 자녀에게 각 항목별로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도움이 되었다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문17-1) 인지 발달(지능)	①	②	③	④
문17-2) 사회성 발달	①	②	③	④
문17-3) 언어 발달	①	②	③	④
문17-4) 정서 발달	①	②	③	④
문17-5) 신체 발달(건강)	①	②	③	④

문18. 귀하는 아동지원사업의 서비스를 받은 이후, 이전에 비해 귀댁의 자녀 양육 태도에 얼마나 변화가 있었습니까?

구 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문18-1) 자녀를 더 많이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문18-2) 자녀를 더 다정하게 대한다	①	②	③	④
문18-3) 자녀에게 칭찬을 더 많이 한다	①	②	③	④
문18-4) 자녀가 질문을 하면 대답을 더 잘해준다	①	②	③	④
문18-5)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더 많이 한다	①	②	③	④
문18-6) 자녀가 잘못을 하거나 말썽을 부릴 때 자녀에 대해 느끼는 분노나 갈등을 더 잘 조절한다	①	②	③	④
문18-7) 자녀에게 말을 더 자주 건넨다	①	②	③	④

문19. 아동지원사업의 서비스를 받은 이후, 이전에 비해 귀 가정에서는 다음 각 항목별로 얼마나 변화가 있었습니까?

구 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해당 없음
문19-1) 부모(또는 가족구성원)가 집에 더 일찍 귀가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⑨
문19-2) 가족의 웃음소리가 더 많아졌다	①	②	③	④	⑨
문19-3)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①	②	③	④	⑨
문19-4) 배우자(또는 가족구성원)와 대화를 더 자주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⑨
문19-5) 부부(또는 가족구성원)끼리 싸움을 덜 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⑨
문19-6) 부모(또는 가족구성원)의 흡연이 줄어들었다(금연을 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⑨
문19-7) 부모(또는 가족구성원)의 음주가 줄어들었다(금주를 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⑨
문19-8) 가정과 자녀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⑨

문20. 귀하가 지원받고 있는 아동지원사업의 담당자들(예: 보육조정자,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문20-1) 아이들에게 늘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해준다	①	②	③	④
문20-2) 힘들 때 친구나 가족처럼 의지가 된다	①	②	③	④
문20-3) 실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문20-4) 자녀가 담당자들(교사와 복지사 등)에게 친밀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문20-5) 의무적으로 일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문20-6) 담당자와 갈등이 종종 생긴다	①	②	③	④

문21. 현재 지원받고 있는 아동지원사업이 앞으로 자녀의 학교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② 대체로 도움이 될 것이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문22. 귀하는 현재 지원받고 있는 아동지원사업에서 제공된 서비스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한다 ② 대체로 만족 한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만족하지 못 한다 ⑤ 전혀 만족하지 못 한다

문23. 아래 각 항목에 대해 최근 1년간의 이용여부를 체크하시고, 이용하셨던 서비스의 중요도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항 목	이용여부		중요도				
	예	아니오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중요함	매우 중요함
문23-1) 대상 아동에 맞는 활동과 자료 개발 및 적용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문23-2) 아동의 개별적 지도(놀이, 언어치료 등, 특기 지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문23-3) 멘토링 프로그램(자원봉사자에 의한 개별 지원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문23-4) 부모 교육(성교육, 자녀양육, 아동권리 교육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문23-5) 부모 개별 면담/상담)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문23-6) 부모 참여(엄마와 함께 활동, 아버지독서, 가족문화체험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문23-7) 가족대상 서비스(이미용, 세대교류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문23-8) 빈곤탈출 기반조성사업(직업훈련, 물품후원 프로그램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문23-9) 대상 아동 지도를 위한 교사 지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문23-10) 아동 및 가족 대상의 건강 · 의료 서비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문23-11) 사례관리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문23-12) 지역사회와의 연계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문24. 귀하께서 아동지원사업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끼셨던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다음 중 중요도에 따라 순서대로 2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_____, 2순위_____

①이용하기에 거리가 멀어서 ②이용시간이 맞지 않아서 ③비용이 부담돼서
④서비스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들어서 ⑤서비스제공자와 관계가 불편해서 ⑥주위사람들의 시선
⑦가정방문의 부담감 ⑧서비스 관련된 정보를 잘 몰라서
⑨아이가 이용하기에 어렵거나 원하지 않아서
⑩기타( )

문25. 귀하가 이용하고 있는 아동지원사업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

▣ 문26~문50까지는 영유아(취학 전 아동)중 두 번째로 나이가 어린 자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Ⅱ-2. 두 번째로 어린 영유아가 주로 다니는 기관에 관한 질문

▣ 다니고 있는 기관이 여러 곳일 경우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답하시면 됩니다.

문26. 귀하께서는 두 번째로 어린 영유아(미취학 아동)가 있으십니까?(문1 참조)

① 있다 ☛ 문27문항으로 ② 없다 ☛ 문76문항으로

문27. 해당 자녀는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에 얼마나 자주 갑니까?(문1-8 낮 동안 주로 다니는 기관 문항 참조)

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②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③ 일주일에 1~2번 ④ 일주일에 3~4번

문28. 평상시에 해당 자녀가 보육 또는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등원시간 ( )시 ( )분 ~ 하원시간 ( )시 ( )분
하루 총 약( )시간 (예: 07시 30분 ~19시 30분 하루 총 12시간)

문29. 현재 자녀가 다니는 이 기관에 지불하는 비용은 월 평균 얼마입니까?

월 평균 _____ 만원

문30.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에 지불하는 비용은 귀하의 가정에 얼마나 부담이 되십니까?

① 매우 부담스럽다 ② 어느 정도 부담스럽다
③ 별로 부담스럽지 않다 ④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문31. (문1-8에서 ①, ② 응답자에 한해서) 유치원 교육비 또는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으시다면 그 이유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모·부자 가정자녀
④ 만5세아 무상보육·교육대상자 ⑤ 장애아동 무상보육 ⑥ 지원을 받고 있는지 잘 모르겠음
⑦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음 ⑧ 기타( )

문32. 귀하께서는 해당 자녀가 다니는 기관에 대해 평소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한다 ② 대체로 만족 한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만족하지 못 한다 ⑤ 전혀 만족하지 못 한다

Ⅲ-2.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문 1-7에서 ②~⑥까지 답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문33. 대리양육자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친조부모 ② 외조부모 ③ 친인척(예: 고모, 이모) ④ 가사도우미
⑤ 이웃탁아모 ⑥ 보육도우미 또는 가정보육교사(정부 또는 비영리사업단체에서 파견하는 도우미)
⑦ 기타(_____)

문34. 대리양육자는 해당 자녀를 주로 어디서 돌보고 있습니까?

① 해당 자녀의 가정 ② 대리양육자의 가정

문35. 11주일에 몇 일,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돌보십니까?

1주일 중 ( )일 하루 평균 ( )시간

문36. 해당 자녀를 돌보는 분에게 월 평균 비용은 어떻게 지불하십니까?

① 정기적으로 지불 ② 비정기적으로 지불 ③ 현물로 지불 ☛①, ②, ③ 응답자는 문37 문항으로
④ 숙식만 제공 ⑤ 지불하지 않음 ☛④, ⑤ 응답자는 문38문항으로

문37. 지불하는 돈은 월평균 얼마나 됩니까?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현금으로 환산해서 월평균으로 적어주십시오.

월 평균 _____만원

문38. 현재 대리양육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은 귀하의 가정에 얼마나 부담이 되십니까?

① 매우 부담스럽다 ② 어느 정도 부담스럽다 ③ 적당하다
④ 별로 부담스럽지 않다 ⑤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Ⅳ-2. 아동지원사업에 관한 질문

※ 아동지원사업이란 드림(희망)스타트, 위스타트, 삼성어린이집 포괄서비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말함.

문39 해당 자녀(두 번째로 어린 영유아)는 현재 아동지원사업 대상자입니까?

① 그렇다(☛ 문40문항으로) ② 아니다(☛ 문51 문항으로) ③ 잘 모름(☛ 문51 문항으로)

문40. 귀하의 (이) 자녀가 현재 받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 이름은 무엇입니까?

① 위스타트 ② 드림(희망)스타트 ③ 삼성어린이집 포괄서비스
④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⑤ 잘 모름

문41. 그럼, 언제부터 아동지원사업의 대상자가 되셨습니까?(예: 2006년 5월부터 현재까지)

( )년 ( )월부터 현재까지

문42. 참여하고 있는 아동지원사업이 귀댁 자녀에게 각 항목별로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도움이 되었다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문42-1) 인지 발달(지능)	①	②	③	④
문42-2) 사회성 발달	①	②	③	④
문42-3) 언어 발달	①	②	③	④
문42-4) 정서 발달	①	②	③	④
문42-5) 신체 발달(건강)	①	②	③	④

문43. 귀하는 아동지원사업의 서비스를 받은 이후, 이전에 비해 귀댁의 자녀 양육 태도에 얼마나 변화가 있었습니까?

구 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문43-1) 자녀를 더 많이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문43-2) 자녀를 더 다정하게 대한다	①	②	③	④
문43-3) 자녀에게 칭찬을 더 많이 한다	①	②	③	④
문43-4) 자녀가 질문을 하면 대답을 더 잘해준다	①	②	③	④
문43-5)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더 많이 한다	①	②	③	④
문43-6) 자녀가 잘못을 하거나 말썽을 부릴 때 자녀에 대해 느끼는 분노나 갈등을 더 잘 조절한다	①	②	③	④
문43-7) 자녀에게 말을 더 자주 건넨다	①	②	③	④

문44. 아동지원사업의 서비스를 받은 이후, 이전에 비해 귀 가정에서는 다음 각 항목별로 얼마나 변화가 있었습니까?

구 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해당 없음
문44-1) 부모(또는 가족구성원)가 집에 더 일찍 귀가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⑨
문44-2) 가족의 웃음소리가 더 많아졌다	①	②	③	④	⑨
문44-3)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①	②	③	④	⑨
문44-4) 배우자(또는 가족구성원)와 대화를 더 자주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⑨
문44-5) 부부(또는 가족구성원)끼리 싸움을 덜 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⑨
문44-6) 부모(또는 가족구성원)의 흡연이 줄어들었다(금연을 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⑨
문44-7) 부모(또는 가족구성원)의 음주가 줄어들었다(금주를 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⑨
문44-8) 가정과 자녀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⑨

문45. 귀하가 지원받고 있는 아동지원사업의 담당자들(예: 보육조정자,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문45-1) 아이들에게 늘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해준다	①	②	③	④
문45-2) 힘들 때 친구나 가족처럼 의지가 된다	①	②	③	④
문45-3) 실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문45-4) 자녀가 담당자들(교사와 복지사 등)에게 친밀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문45-5) 의무적으로 일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문45-6) 담당자와 갈등이 종종 생긴다	①	②	③	④

문46. 현재 지원받고 있는 아동지원사업이 앞으로 자녀의 학교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② 대체로 도움이 될 것이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문47. 귀하는 현재 지원받고 있는 아동지원사업에서 제공된 서비스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한다 ② 대체로 만족 한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만족하지 못 한다 ⑤ 전혀 만족하지 못 한다

문48. 아래 각 항목에 대해 최근 1년간의 이용여부를 체크하시고, 이용하셨던 서비스의 중요도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항 목	이용여부		중요도				
	예	아니오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중요함	매우 중요함
문48-1) 대상 아동에 맞는 활동과 자료 개발 및 적용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문48-2) 아동의 개별적 지도(놀이, 언어치료 등, 특기 지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문48-3) 멘토링 프로그램(자원봉사자에 의한 개별 지원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문48-4) 부모 교육(성교육, 자녀양육, 아동권리 교육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문48-5) 부모 개별 면담/상담)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문48-6) 부모 참여(엄마와 함께 활동, 아버지독서, 가족문화체험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문48-7) 가족대상 서비스(이미용, 세대교류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문48-8) 빈곤탈출 기반조성사업(직업훈련, 물품후원 프로그램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문48-9) 대상 아동 지도를 위한 교사 지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문48-10) 아동 및 가족 대상의 건강・의료 서비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문48-11) 사례관리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문48-12) 지역사회와의 연계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문49. 귀하께서 아동지원사업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끼셨던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다음 중 중요도에 따라 순서대로 2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_____, 2순위_____

①이용하기에 거리가 멀어서 ②이용시간이 맞지 않아서 ③비용이 부담돼서
④서비스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들어서 ⑤서비스제공자와 관계가 불편해서 ⑥주위사람들의 시선
⑦가정방문의 부담감 ⑧서비스 관련된 정보를 잘 몰라서
⑨아이가 이용하기에 어렵거나 원하지 않아서
⑩기타( )

문50. 귀하가 이용하고 있는 아동지원사업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

▣ 문51~문755까지는 영유아(취학 전 아동)중 세 번째로 나이가 어린 자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Ⅱ-3. 세 번째로 어린 영유아가 주로 다니는 기관에 관한 질문

▣ 다니고 있는 기관이 여러 곳일 경우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답하시면 됩니다.

문51. 귀하께서는 세 번째로 어린 영유아(미취학 아동)가 있으십니까?(문1 참조)

① 있다 ☛ 문52 문항으로　　② 없다 ☛ 문76 문항으로

문52. 해당 자녀는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에 얼마나 자주 갑니까?(문1-8 낮 동안 주로 다니는 기관 문항 참조)

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②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③ 일주일에 1~2번　　④ 일주일에 3~4번

문53. 평상시에 해당 자녀가 보육 또는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등원시간 (　　)시 (　　)분 ~ 하원시간 (　　)시 (　　)분
하루 총 약(　　)시간 (예: 07시 30분 ~19시 30분 하루 총 12시간) (*등원시간으로 계산이 가능한지)*

문54. 현재 자녀가 다니는 이 기관에 지불하는 비용은 월 평균 얼마입니까?

월 평균 _____ 만원

문55.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에 지불하는 비용은 귀하의 가정에 얼마나 부담이 되십니까?

① 매우 부담스럽다　　② 어느 정도 부담스럽다
③ 별로 부담스럽지 않다　　④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문56. (문1-8에서 ①, ② 응답자에 한해서) 유치원 교육비 또는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으시다면 그 이유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모·부자 가정자녀
④ 만5세아 무상보육·교육대상자　　⑤ 장애아동 무상보육　　⑥ 지원을 받고 있는지 잘 모르겠음
⑦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음　　⑧ 기타(　　)

문57. 귀하께서는 해당 자녀가 다니는 기관에 대해 평소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한다　　② 대체로 만족 한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만족하지 못 한다　　⑤ 전혀 만족하지 못 한다

Ⅲ-3.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에만 답하시오

※ (문 1-7에서 ②~⑥까지 답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문58. 대리양육자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친조부모 ② 외조부모 ③ 친인척(예: 고모, 이모) ④ 가사도우미
⑤ 이웃탁아모 ⑥ 보육도우미 또는 가정보육교사(정부 또는 비영리사업단체에서 파견하는 도우미)
⑦ 기타(_____)

문59. 대리양육자는 해당 자녀를 주로 어디서 돌보고 있습니까?

① 해당 자녀의 가정 ② 대리양육자의 가정

문60. 1주일에 몇 일,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돌보십니까?

1주일 중 ( )일 하루 평균 ( )시간

문61. 해당 자녀를 돌보는 분에게 월 평균 비용은 어떻게 지불하십니까?

① 정기적으로 지불 ② 비정기적으로 지불 ③ 현물로 지불 ☛①, ②, ③ 응답자는 문62 문항으로
④ 숙식만 제공 ⑤ 지불하지 않음 ☛④, ⑤ 응답자는 문63 문항으로

문62. 지불하는 돈은 월평균 얼마나 됩니까?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현금으로 환산해서 월평균으로 적어주십시오.

월 평균 _____만원

문63. 현재 대리양육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은 귀하의 가정에 얼마나 부담이 되십니까?

① 매우 부담스럽다 ② 어느 정도 부담스럽다 ③ 적당하다
④ 별로 부담스럽지 않다 ⑤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Ⅳ-3. 아동지원사업에 관한 질문

※ 아동지원사업이란 드림(희망)스타트, 위스타트, 삼성어린이집 포괄서비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말함.

문64. 해당 자녀(세 번째로 어린 영유아)는 현재 아동지원사업 대상자입니까?

① 그렇다(☛ 문65 문항으로) ② 아니다(☛ 문76 문항으로) ③ 잘 모름(☛ 문76 문항으로)

문65. 귀하의 (이) 자녀가 현재 받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 이름은 무엇입니까?

① 위스타트 ② 드림(희망)스타트 ③ 삼성어린이집 포괄서비스
④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⑤ 잘 모름

문66. 그럼, 언제부터 아동지원사업의 대상자가 되셨습니까?(예: 2006년 5월부터 현재까지)

( )년 ( )월부터 현재까지

문67. 참여하고 있는 아동지원사업이 귀댁 자녀에게 각 항목별로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도움이 되었다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문67-1) 인지 발달(지능)	①	②	③	④
문67-2) 사회성 발달	①	②	③	④
문67-3) 언어 발달	①	②	③	④
문67-4) 정서 발달	①	②	③	④
문67-5) 신체 발달(건강)	①	②	③	④

문68. 귀하는 아동지원사업의 서비스를 받은 이후, 이전에 비해 귀댁의 자녀 양육 태도에 얼마나 변화가 있었습니까?

구 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문68-1) 자녀를 더 많이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문68-2) 자녀를 더 다정하게 대한다	①	②	③	④
문68-3) 자녀에게 칭찬을 더 많이 한다	①	②	③	④
문68-4) 자녀가 질문을 하면 대답을 더 잘해준다	①	②	③	④
문68-5)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더 많이 한다	①	②	③	④
문68-6) 자녀가 잘못을 하거나 말썽을 부릴 때 자녀에 대해 느끼는 분노나 갈등을 더 잘 조절한다	①	②	③	④
문68-7) 자녀에게 말을 더 자주 건넨다	①	②	③	④

문69. 아동지원사업의 서비스를 받은 이후, 이전에 비해 귀 가정에서는 다음 각 항목별로 얼마나 변화가 있었습니까?

구 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해당 없음
문69-1) 부모(또는 가족구성원)가 집에 더 일찍 귀가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⑨
문69-2) 가족의 웃음소리가 더 많아졌다	①	②	③	④	⑨
문69-3)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①	②	③	④	⑨
문69-4) 배우자(또는 가족구성원)와 대화를 더 자주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⑨
문69-5) 부부(또는 가족구성원)끼리 싸움을 덜 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⑨
문69-6) 부모(또는 가족구성원)의 흡연이 줄어들었다(금연을 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⑨
문69-7) 부모(또는 가족구성원)의 음주가 줄어들었다(금주를 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⑨
문69-8) 가정과 자녀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⑨

문70. 귀하가 지원받고 있는 아동지원사업의 담당자들(예: 보육조정자,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문70-1) 아이들에게 늘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해준다	①	②	③	④
문70-2) 힘들 때 친구나 가족처럼 의지가 된다	①	②	③	④
문70-3) 실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문70-4) 자녀가 담당자들(교사와 복지사 등)에게 친밀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문70-5) 의무적으로 일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문70-6) 담당자와 갈등이 종종 생긴다	①	②	③	④

문71. 현재 지원받고 있는 아동지원사업이 앞으로 자녀의 학교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② 대체로 도움이 될 것이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문72. 귀하는 현재 지원받고 있는 아동지원사업에서 제공된 서비스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한다 ② 대체로 만족 한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만족하지 못 한다 ⑤ 전혀 만족하지 못 한다

문73. 아래 각 항목에 대해 최근 1년간의 이용여부를 체크하시고, 이용하셨던 서비스의 중요도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항 목	이용여부		중요도				
	예	아니오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중요함	매우 중요함
문73-1) 대상 아동에 맞는 활동과 자료 개발 및 적용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문73-2) 아동의 개별적 지도(놀이, 언어치료 등, 특기 지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문73-3) 멘토링 프로그램(자원봉사자에 의한 개별 지원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문73-4) 부모 교육(성교육, 자녀양육, 아동권리 교육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문73-5) 부모 개별 면담/상담)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문73-6) 부모 참여(엄마와 함께 활동, 아버지독서, 가족문화체험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문73-7) 가족대상 서비스(이미용, 세대교류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문73-8) 빈곤탈출 기반조성사업(직업훈련, 물품후원 프로그램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문73-9) 대상 아동 지도를 위한 교사 지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문73-10) 아동 및 가족 대상의 건강・의료 서비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문73-11) 사례관리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문73-12) 지역사회와의 연계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문74. 귀하께서 아동지원사업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끼셨던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다음 중 중요도에 따라 순서대로 2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_____, 2순위_____

①이용하기에 거리가 멀어서 ②이용시간이 맞지 않아서 ③비용이 부담돼서
④서비스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들어서 ⑤서비스제공자와 관계가 불편해서 ⑥주위사람들의 시선
⑦가정방문의 부담감 ⑧서비스 관련된 정보를 잘 몰라서
⑨아이가 이용하기에 어렵거나 원하지 않아서
⑩기타( )

문75. 귀하가 이용하고 있는 아동지원사업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

IV. 육아정책에 관한 질문

문76. 귀하는 현재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한다 ② 대체로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 ①~③ 응답자는 문78번 문항으로
④ 대체로 만족하지 못 한다 ⑤ 전혀 만족하지 못 한다 ☛ ④, ⑤ 응답자는 문77번 문항으로

문77. (문76에서 ④, ⑤응답자만) 그럼, 현재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다음 중 중요도에 따라 순서대로 2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_____, 2순위_____

① 직업이 안정적이지 못해서 ② 소득이 적어서 ③ 건강하지 못해서
④ 자녀가 건강하지 못해서 ⑤ 많이 배우지 못해서 ⑥ 부부간의 불화 때문에
⑦ 기타(_____)

문78. 다음 중 미래의 자녀 행복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중요도에 따라 순서대로 2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_____, 2순위_____

① 부모의 건강 ② 부모의 학력 ③ 부모의 직업
④ 부모의 경제력 ⑤ 자녀의 건강 ⑥ 자녀의 학력
⑦ 가족 간의 화목 ⑧ 부모의 양육관 ⑨ 종교
⑩ 기타(_____)

문79. 다음 중에서 귀하의 가정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기초생활비 지원확대(국민기초생활급여)
② 직업교육 및 취업 지원(부모가 안정적인 직업을 갖도록 일자리 지원)
③ 의료비 지원 서비스
④ 자녀교육비 지원(미래 자녀교육을 대비해서 국가와 가정이 함께 적금을 붓는 정책)
⑤ 자녀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 지원
⑥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체험 및 여가활동 지원프로그램
⑦ 기타( )

문80. 다음 중 귀하의 가정에 가장 필요한 육아지원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중요도에 따라 순서대로 2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_____, 2순위_____

①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예산 확대-사업확대(조사원용)
②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프로그램 확대(예: 건강·의료·복지·교육 보육 등)
③ 유치원 및 보육시설 비용 지원 확대-기관지원(조사원용)
④ 자녀의 학원 또는 학습지 비용 지원 확대-사설 학원등 지원(조사원용)
⑤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
⑥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예: 건강·의료·복지·교육 보육 등)
⑦ 기타( )

문81. 아동지원사업 또는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국가에 바라는 점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_____

V. 가구 및 부모 특성

DQ1. 귀댁 가구원 수를 기입하여주십시오(본인 포함)

☞ 가구원 수 (_____)명

DQ2 귀댁의 가족 유형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부모 + 자녀 ② 편부 또는 편모 + 자녀 ③ 조부모 + 자녀
④ 3세대 이상 가족 + 자녀 ⑤ 친인척 + 자녀 ⑥ 기타( )

DQ3. 귀 댁의 자녀 수를 연령별로 각각 기입하십시오(※ 문 1 참조)

DQ3-1. 영아(36개월 미만)	DQ3-2. 유아(만3세~미취학)	DQ3-3. 초등학생	DQ3-4. 중학생 이상	DQ3-5. 전체(총 자녀수)
_____ 명	_____ 명	_____ 명	_____ 명	총_____ 명

DQ4. 귀하께서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소유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자가 ② 전세 ③ 보증금 있는 월세 ④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⑤ 무상 ⑥ 기타( )

DQ5. 귀하의 성별, 연령, 학력, 고용 형태와 건강 상태를 기입해 주십시오.

DQ5-1.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DQ5-2. 연령	_____세
DQ5-3. 학력	① 고졸 미만 ② 고졸 ③ 2-3년제 대졸 ④ 4년제 대졸 ⑥ 대학원 재학 이상
DQ5-4. 고용 형태	① 고용주(회사 운영 등) ② 자영업자(가게, 포장마차 등) ③ 정규직(회사원, 사무직) ④ 임시근로자(1년 미만 고용계약) ⑤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고용계약) ⑥ 전업주부 ⑦ 무직 ⑧ 기타( )
DQ5-5. 건강 상태	① 건강 ② 보통 ③ 허약
DQ7-6. 질병 유무	□ 유 (병명:) □ 무
DQ7-7. 장애 유무	□ 유 (장애종류 또는 등급:) □ 무

DQ6. 귀하께서는 배우자가 있으십니까?

① 배우자 있음 ②배우자 없음(→ DQ8번 문항으로)

DQ7. 배우자의 성별, 연령, 학력과 고용 형태를 기입해 주십시오.

DQ7-1.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DQ7-2. 연령	_____세
DQ7-3. 학력	① 고졸 미만 ② 고졸 ③ 2-3년제 대졸 ④ 4년제 대졸 ⑥ 대학원 재학 이상
DQ7-4. 고용 형태	① 고용주(회사 운영 등) ② 자영업자(가게, 포장마차 등) ③ 정규직(회사원, 사무직) ④ 임시근로자(1년 미만 고용계약) ⑤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고용계약) ⑥ 전업주부 ⑦ 무직 ⑧ 기타
DQ7-5. 건강 상태	① 건강 ② 보통 ③ 허약
DQ7-6. 질병 유무	□ 유 (병명:) □ 무
DQ7-7. 장애 유무	□ 유 (장애종류 또는 등급:) □ 무

DQ8. 귀댁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임금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각종보조금 등을 모두 포함한 월평균 소득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① 50만원 미만 ②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③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④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⑤ 2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 ⑥ 2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⑦ 300만원 이상 ⑧ 기타( )

DQ9. 귀댁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면접원은 설문 종료 후 아래사항을 작성하십시오.			
면접 상황	면접원 :	면접일시 : ( )월 ( )일 ( )시 ( )분부터 ( )분간	
	감독원 :	검증원 :	
	코딩원 :	편 쳐 :	
응답자	성명 :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	
	주소 :		자녀(해당 아동)와의 관계:

- 답례품 수령 확인 -

답례품 수령을 확인합니다. 수령인 성명 (_____) 서명 (_____)

KICCE
육아정책개발센터

ID | | | | |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 현황 조사
(정책수행자용)

이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장에서 애 쓰시는 선생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육아정책개발센터(www.kicce.re.kr)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책 육아정책 연구기관입니다.

본 센터에서는 2008년도 연구과제로 「저소득층 영유아를 위한 통합적 지원방안」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을 받았던 가구 및 일반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양육실태 및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저소득층 가정의 영유아들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이들과 직접 접촉하시는 담당자 선생님을 대상으로 사업 전반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응답해주신 자료 및 개인정보는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활용될 것이며, 바쁘시더라도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년 11월

육아정책개발센터 소 장 조 복 희

연구진: 이미화 연구위원, 이윤진 부연구위원, 이정림 부연구위원
조사수행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25-1 (주)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 **설문대상자 및 응답자:** 현재 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가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 담당자

1. 귀하께서 현재 담당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에 표기해 주십시오.

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② 드림(희망) 스타트 사업 ③ 위스타트 사업
④ 없음 (일반 저소득층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문 9번 문항으로

1-1. 해당 업무에 표기해 주십시오.

①총괄자(팀장) ②보육·교육 조정자 ③사회복지사(복지담당)
④간호사(보건·건강) ⑤프로젝트조정자 ⑥보육교사 ⑦유아교육전문가
⑧지역사회교육전문가
⑨기타 ( )

2. 귀하께서 담당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담당하고 총 아동수(학령기아동 포함) 및 그 중에서 영유아(취학전 아동)에 해당 하는 수를 적어 주십시오.

총_____명이며 이 중에서 영유아(미취학 아동)수는 총_____명이다.

3. 귀하께서 담당하고 있는 사업이 저소득층 영유아들에게 각 항목별로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도움이 되었다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문3-1) 인지 발달(지능)	①	②	③	④
문3-2) 사회성 발달	①	②	③	④
문3-3) 언어 발달	①	②	③	④
문3-4) 정서 발달	①	②	③	④
문3-5) 신체 발달(건강)	①	②	③	④

4. 현재 지원하고 있는 아동지원사업이 앞으로 해당 아이들의 학교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② 대체로 도움이 될 것이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5. 귀하께서 담당하고 있는 아동지원사업이 이전에 비해 저소득층 부모 및 가정에 다음 각 항목별로 얼마나 변화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5-1) 이전보다 표정이 밝아진 가정이 많아졌다.	①	②	④	⑤
5-2) 이전보다 아이들 양육이나 교육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가정이 많아졌다.	①	②	④	⑤
5-3) 아이들에 대한 양육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뀐 가정이 많아졌다.	①	②	④	⑤
5-4) 부모 자신들의 가치관이 긍정적으로 바뀐 가정이 많아졌다.	①	②	④	⑤
5-5) 실제로 의욕적으로 삶을 개척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정이 많아졌다.	①	②	④	⑤
5-6) 해당 지원사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정이 많아졌다.	①	②	④	⑤

6. 아래 각 항목에 대해 최근 1년간의 시행여부를 체크하시고, 실시하셨던 서비스의 중요도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항 목	시행여부		중요도				
	예	아니오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중요함	매우 중요함
문6-1) 대상 아동에 맞는 활동과 자료 개발 및 적용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문6-2) 아동의 개별적 지도(놀이, 언어치료 등, 특기 지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문6-3) 멘토링 프로그램(자원봉사자에 의한 개별 지원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문6-4) 부모 교육(성교육, 자녀양육, 아동권리 교육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문6-5) 부모 개별 면담/상담)	①	②	①	②	③	④	⑤

항 목	시행여부		중요도				
	예	아니오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중요함	매우 중요함
문6-6) 부모 참여(엄마와 함께 활동, 아버지독서, 가족문화체험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문6-7) 가족대상 서비스(이미용, 세대교류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문6-8) 빈곤탈출 기반조성사업(직업훈련, 물품후원 프로그램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문6-9) 대상 아동 지도를 위한 교사 지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문6-10) 아동 및 가족 대상의 건강・의료 서비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문6-11) 사례관리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문6-12) 지역사회와의 연계	①	②	①	②	③	④	⑤

7. 귀하께서 현재 담당하고 있는 아동지원사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한다 ② 대체로 만족 한다 ③ 보통이다 ☛ ①~③ 응답자는 문9번 문항으로

④ 별로 만족하지 못 한다 ⑤ 전혀 만족하지 못 한다 ☛ ④, ⑤ 응답자는 문8번 문항으로

8. (문7의 ④,⑤응답자만)귀하께서 담당하고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_____

9. 귀하께서 담당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다른 분야 담당자들과의 교류 및 협력이 잘 되고 있습니까?

① 매우 잘 되고 있다 ② 대체로 잘 되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①~③ 응답자는 문11로

④ 별로 잘 되지 않고 있다 ⑤ 전혀 잘 되지 않고 있다 ☛④,⑤ 응답자는 문10으로

10. (문9의 ④,⑤응답자만)교류 및 협력이 잘 안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관리체계미비 ② 관련지침부족 ③ 인력부족 ④ 예산부족

⑤ 담당자들의 개인적 특성(다른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조)

⑥ 기타(_____)

11. 다음 중 저소득층 아동의 빈곤탈피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중요도에 따라 순서대로 2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1순위:_____, 2순위:_____)

① 국가차원의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예: 드림스타트, 위스타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등)의 확대

② 부모의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빈곤 탈출을 위한 실질적인 부모교육

③ 저소득층 가정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직업 교육 및 취업 지원

④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양육지원프로그램 개발

⑤ (개별아동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보육 프로그램 확대

⑥ 기타(_____)

12. 현재 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차원의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중요도에 따라 순서대로 2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1순위:_____, 2순위:_____)

①통합적 사업계획 구축 미비 ②관리체계 미비
③사업예산 부족 ④인력부족 및 고용의 불안정
⑤사업들 간의 협력부족 ⑥기존의 사업이나 시설(예: 지역아동센터)과의 유사성 또는 비연계성
⑦수혜사업들 간의 지역 중복성
⑧실제 지원사업이 필요한 아동이 사업에서 제외되는 시스템(획일화된 지역구분)
⑨다양한 프로그램 부족
⑩사업 지속성의 불투명
⑪문제점 없음
⑫기타(_____)

13. 귀하께서 보시기에 저소득층 가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중요도에 따라 순서대로 2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1순위:_____, 2순위:_____)

① 부모의 건강 ② 부모의 학력 ③ 부모의 직업
④ 부모의 경제력 ⑤ 자녀의 건강 ⑥ 자녀의 학력
⑦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부족 ⑧ 가족 간의 불화 ⑨ 자녀양육에 대한 무지 및 무책임
⑩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 및 기술 부족 ⑪ 교육환경 및 기회제공 제한
⑫ 기타(_____)

14. 국가차원의 다양한 저소득층 지원사업이 저소득층 가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대체로 도움이 된다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5.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든 좋으니 자유롭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_____

_____

- 응답자 특성 : 귀하에 관해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D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DQ2. 실례지만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대 ②30대 ③30대 ④40대 ⑤50대 이상

DQ3. 현재 소속된 기관에서 귀하의 고용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일반 공무원 ②계약직 공무원 ③민간전문인력 ④기타(_____)

DQ4. 귀하께서 담당하고 있는 사업에 언제부터 참여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근무한 기간을 모두 써 주십시오.

_____ 년_____ 월부터 _____년_____ 월까지,
_____ 년_____ 월부터 _____년_____ 월까지,
_____ 년_____ 월부터 _____년_____ 월까지,

근무기간은 _____개월 근무함.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면접원은 설문 종료 후 아래사항을 작성 하십시오.		
면접 상황	면접원 :	면접일시 : ( )월 ( )일 ( )시 ( )분부터 ( )분간
	감독원 :	검증원 :
	코딩원 :	편 쳐 :
응답자	성명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소속기관 : ( )시청/구청/교육청/기관 ( )부서(과) ( )직책	
	주소 :	

- 답례품 수령 확인 -

답례품 수령을 확인합니다. 수령인 성명 (_____) 서명 (_____)